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종결어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철 주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종결어미 연구

지도 한 영 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철 주

박철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8월 일

- 목　차 -

국문 요약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1.2. 연구의 방법 2
1.3. 연구사 3
1.4. 논의의 구성 4

2. 종결어미 선행 연구와 목록 9
2.1. 현대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9
2.1.1. 어미 구분 9
2.1.2. 의향법 분류 10
2.1.3. 현대국어 종결어미 14
2.2. 최근세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29
2.2.1. 의향법 분류 29
2.2.2.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31
2.3. 중세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53
2.3.1. 의향법 분류 53
2.3.2. 중세국어 종결어미 55
2.4. 근대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62

2.4.1. 의향법 분류 62
2.4.2. 근대국어 종결어미 64

3. 서술법 어미분석 73
3.1. 일반적 종결어미 73
3.1.1. 동사어간+종결어미 73
3.1.1.1. '-다' 73
3.1.1.2. '-ㄹ라' 80
3.1.1.3. '-노라' 81
3.1.1.4. '-리/으리라' 85
3.1.1.5. '-느니라' 86
3.1.1.6. '-걸' 90
3.1.1.7. '-아/어/야' 93
3.1.1.8. '-지' 94
3.1.1.9. '-네' 98
3.1.1.10. '-느니' 102
3.1.1.11. '-이' 103
3.1.1.12. '-오/소' 107
3.1.1.13. '-ㅂ/습디다' 112
3.1.1.14. '-ㅂ니다' 116
3.1.1.15. '-습니다' 121
3.1.1.16. '-나이다' 126
3.1.1.17. '-오이다' 136

3.1.1.18. '-오리다' 137
3.1.1.19. '-이다' 139
3.1.1.20. '-로소이다' 143
3.1.2. 형용사어간+종결어미 144
3.1.2.1. '-다' 144
3.1.2.2. '-리/으리라' 147
3.1.2.3. '-느니라' 148
3.1.2.4. '-걸' 149
3.1.2.5. '-지' 151
3.1.2.6. '-네' 152
3.1.2.7. '-느니' 155
3.1.2.8. '-이' 156
3.1.2.9. '-오/소' 158
3.1.2.10. '-ㅂ/습디다' 159
3.1.2.11. '-ㅂ니다' 161
3.1.2.12. '-습니다' 163
3.1.2.13. '-나이다' 168
3.1.2.14. '-니이다' 171
3.1.2.15. '-오이다' 172
3.1.2.16. '-사오이다' 173
3.1.2.17. '-이다' 174
3.1.3. 계사+종결어미 177
3.1.3.1. '-다/라' 177

3.1.3.2. '-로다' 179
3.1.3.3. '-ㄹ다' 181
3.1.3.4. '-ㄴ걸' 182
3.1.3.5. '-아/어/야' 183
3.1.3.6. '-지' 184
3.1.3.7. '-ㄹ세' 185
3.1.3.8. '-이' 187
3.1.3.9. '-오' 189
3.1.3.10. '-ㅂ/습디다' 190
3.1.3.11. '-ㅂ니다' 192
3.1.3.12. '-오이다' 192
3.1.3.13. '-사오이다' 193
3.1.3.14. '-올시다' 195
3.1.3.15. '-로소이다' 196
3.2. 인용어미 197
3.2.1. 종결어미+종결어미 197
3.2.1.1. '-다+ㄴ다' 198
3.2.1.2. '-라+ㄴ다' 199
3.2.2. '-라+오' 200
3.2.3. 종결어미+존대선어말어미+종결어미 202
3.2.3.1. '-다+시+어+요' 202
3.2.3.2. '-라+시+어+요' 203
3.3. 첨사 204

3.3.1. '-게+요' 205
3.3.2. '-데+요' 205
3.3.3. '-아/어/여+요' 206
3.3.4. '-지+요' 210
3.4. 요약 214

4. 의문법 어미분석 223
4.1. 일반적 의문종결어미 223
4.1.1. 동사어간+의문종결어미 223
4.1.1.1. '-냐/느냐' 223
4.1.1.2. '-뇨/느뇨' 230
4.1.1.3. '-ㄹ/을가' 235
4.1.1.4. '-ㄹ고' 236
4.1.1.5. '-ㄹ라고' 238
4.1.1.6. '-ㄹ걸' 239
4.1.1.7. '-어' 240
4.1.1.8. '-지' 242
4.1.1.9. '-(ㄴ)는가/고' 245
4.1.1.10. '-게' 252
4.1.1.11. '-나' 253
4.1.1.12. '-니' 259
4.1.1.13. '-오/소' 263
4.1.1.14. '-ㅂ니까' 270

4.1.1.15. '-나이까' 273
4.1.1.16. '-니이까' 278
4.1.1.17. '-리이까' 283
4.1.2. 형용사어간+의문종결어미 285
4.1.2.1. '-냐/느냐' 285
4.1.2.2. '-뇨/느뇨' 290
4.1.2.3. '-ㄹ가' 293
4.1.2.4. '-지' 293
4.1.2.5. '-나' 294
4.1.2.6. '-(ㄴ)는가/고' 298
4.1.2.7. '-니' 301
4.1.2.8. '-오/소' 303
4.1.2.9 '-ㅂ니까' 308
4.1.2.10 '-나이까' 309
4.1.2.11. '-니이까' 311
4.1.2.12. '-리이까' 317
4.1.3. 계사+의문종결어미 319
4.1.3.1. '-냐' 319
4.1.3.2. '-뇨' 320
4.1.3.3. '-야' 322
4.1.3.4. '-니' 323
4.1.3.5. '-ㄹ라고' 326
4.1.3.6. '-ㄴ가' 327

4.1.3.7. '-ㄴ고' 329
4.1.3.8. '-오' 330
4.1.3.9. '-니이까' 331
4.2. 요약 334

5. 명령법 어미분석 343
5.1. '-라' 343
5.1.1. '어간+라' 344
5.1.2. '어간+으+라' 346
5.1.3. '어간+아/어+라' 347
5.1.4. '어간+거+라' 349
5.1.5. '어간+너+라' 350
5.2. '-아' 351
5.3. '-으렷다' 353
5.4. '-려무나' 354
5.5. '-게' 354
5.6. '-구려' 356
5.6.1. '어간+구려' 356
5.6.2. '어간+시/으시+구려' 357
5.7. '-오/소' 358
5.7.1. '어간+오/소' 358
5.7.2. '어간+시/으시+오' 359
5.7.3. '어간+시/으시+지+오' 361

5.7.4. '어간+옵/옵시+오' 363
5.8. '-소서' 364
5.8.1. '어간+소서' 364
5.8.2. '어간+으+소서' 366
5.8.3. '어간+옵+소서' 366
5.8.4. '어간+시/으시+옵+소서' 368
5.9. 요약 369

6. 청유법 어미분석 371
6.1. '-자' 371
6.2. '-세' 372
6.2.1. '어간+세' 373
6.2.2. '어간+ㅁ세' 374
6.3. '-ㅂ시다' 375
6.3.1. '어간+ㅂ시다' 375
6.3.2. '어간+시/으시+ㅂ시다' 376
6.4. '-사이다' 377
6.5. 요약 378

7. 약속법 어미분석 380
7.1. '-마' 380
7.1.1. '어간+마' 380
7.1.2. '어간+으+마' 381

7.1.3. '어간+어+마' 382
7.2. 요약 382

8. 감탄법 어미분석 384
8.1. '-도다' 384
8.1.1. '어간+도다' 384
8.1.2. '어간+았/었/였+도다' 386
8.1.3. '어간+겠+도다' 388
8.1.4. '어간+는+도다' 389
8.2. '-로다' 390
8.3. '-로고/로구' 391
8.4. '-로구나/로군' 392
8.5. '-구나' 394
8.5.1. '어간+구나' 394
8.5.2. '어간+았/었/였+구나' 395
8.5.3. '어간+겠+구나' 397
8.5.4. '어간+았/었/였+겠+구나' 397
8.5.5. '어간+는+구나' 398
8.5.6. '계사+구나' 399
8.6. '-구려' 400
8.6.1. '어간+구려' 400
8.6.2. '어간+았/었였+구려' 401
8.6.3. '어간+시/으시+구려' 402

8.6.4. '종결어미+구려' 403
8.7. '-구먼' 404
8.7.1. '어간+구먼' 404
8.7.2. '어간+았/었/였+구먼' 405
8.7.3. '어간+겠+구먼' 406
8.8. '-로세' 406
8.9. '-아' 407
8.10. 요약 410

9. 결론 413

참고문헌 425
부　　록 429
ABSTRACT 436

국 문 요 약

의향법은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로서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의향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화체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경우 대화체 자료가 풍부하여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어체가 주로 쓰인 최근세국어 시기에서는 대화체로 이루어진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비록 완전한 대화체는 아니더라도 이전의 문어체 위주로 된 자료에 비하여 상당히 풍부한 대화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단형서사'와 '신소설'이다.

'단형서사'는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잡담이나 소설로서 신문에 연재된 글을 말한다. 그리고 '신소설'은 책자로 발행된 소설 형식의 글을 의미한다. '단형서사'의 경우 기사형식을 이루기도 하고 논설형식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이야기 형식에 있어서도 등장인물이 어떤 일화에 대하여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문답식 또는 토론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화체가 아닌 문어체 또는 논설체나 연설체 형식이 가미된 불완전한 대화체이다. 그렇지만 부족하나마 문어체가 아닌 대화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세국어 시기에 있어서 대화체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신소설'은 '단형서사'에 비해 더욱 발달된 대화체가 사용된 자료로서 그 당시의 대화체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신소설'에서의 대화체가 현대소설에 비해 구어적인 면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당시의 구어를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단형서사'와 '신소설'은 최근세국에 있어서 대화체를 분석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라 할 것이다. 때문에 대화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인 의향법으로서는 이들 자료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자료가 된다.

의향법은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대화체에 쓰인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종결어미는 고정적이 아니며 통시적인 변화를 가진다. 따라서 부단히 변하고 소멸하며 또한 새로이 생성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에 있어서 최근세국어와 현대국어 간의 통시적인 차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간의 통시적인 차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및 최근세국어 간의 통시적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세국어인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나타나는 의향법을 분석하였다.

종결어미는 통시적인 변화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결어미 그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종결어미와 어간과의 결합 또는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 간의 결합 아니면 종결어미와 또 다른 종결어미 간의 결합 형태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종결어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직 종결어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종결어미와 다른 성분과의 결합 형태를 놓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대화체에 있어서 종결어미와 다른 성분과의 결합 형태에 대해 분석을 행하였다.

종결어미는 항상 다른 성분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어느 종결어미가 소멸되었다 함은 곧 그 종결어미가 형성하는 다른 성분과의 결합 형태 모두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쓰이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어떤 종결어미가 소멸되었다하여 그 종결어미가 이루는 다른 성분과의 결합 형태 모두에 있어서 일시에 전부 소멸되어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 결합 형태에 따라 어떤 결합 형태는 여전히 활발하게 쓰였을 것이고 어떤 결합 형태는 일찍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이 등장하는 종결어미에 있어서도 이의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 모두에 있어서 동시에 등장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결합 형태를 드러냈을 것이다. 따라서 종결어미가 이루는 다른 성분과의 결합 상태를 파악한다면 어떤 종결어미가 어떠한

결합 형태에 있어서 활발히 쓰였으며 어떤 결합 형태에 있어서는 쓰임상의 세력이 쇠퇴하여 갔는지 그리고 소멸해버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떠한 결합 형태에서 새로운 종결어미가 등장하게 되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파악은 곧 그 시기에 있어서의 종결어미 분석과 나아가 의향법 연구의 바탕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세국어에 대하여 종결어미가 다른 성분과 이루는 형태를 분석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의 의향법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 때에 나온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 사용된 대화 구문에서의 종결어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종결어미와 근대계몽기 때의 종결어미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종결어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 때 발표된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는 근대계몽기 때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계몽기 때의 대화를 모사 기록한 자료로서 가장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하여 그 당시의 대화체에 사용된 종결어미와 이의 쓰임 형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소설은 현실의 모방이다. 따라서 현실을 비추어 보이는 거울과 같다고 할 것이다. 물론 소설 속의 일은 현실이 아니다. 모방체가 본질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상의 언어문제가 그대로 현실상의 언어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상의 언어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상의 언어를 본영이라고 한다면 소설에서 보이는 언어는 이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비록 소설상의 말이더라도 이의 분석결과는 현실상의 말에 대한 분석결과와 연관성 없는 결과라 할 수 없다. 소설상 언어의 분석이 그대로 현실상의 언어 분석이 될 수는 없어도 현실상의 언어 문제를 충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국어 자료인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하여 대화체에서의 종결어미 변화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근대계몽기 때에 발표된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 자료는 서적으로 발행된 신소설과 신문에 게재된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서적으로 간행된 신소설은 간행 이전에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도 있다. 여기서는 비록 신문에 연재되었더라도 이후에 서적으로 간행되었으면 이를 '신소설'로 다루었다. 다만 발표 시기는 신문에 게재하였던 날로 한다. 예문의 철자와 띄어쓰기는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소설'은 총 43권이다. 이의 자세한 목록은 부록에서 밝힌다.

신문에 게재된 '신소설'은 소설과 사설의 형식을 복합하여 발표된 것이 많다. 그리고 글의 양식에 대해서도 '소설', '시사평론', '잡보', '논설', '사설', '내보', '기서', '이어기담(俚語奇談)'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하거나 아예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제목이 없는 것도 많으며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글에 대해 학계에서는 '토론체 단형소설',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체', '근대계몽기 단편 서사물', '서사적 논설' 등으로 불러 왔다. 여기서는 이를 책자 형식의 신소설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형서사'라 부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형서사'는 총 100편이다. 이의 자세한 목록은 부록에서 밝힌다.

그리고 '단형서사' 중에서 글의 양식에 대해 '소설'이라고 밝힌 글에 대해서도 역시 '단형서사'라 부르고 이외의 양식으로 발표된 글이거나 어떤 언급이 없이 발표된 글에 대해서도 역시 '단형서사'로 한다. '단형서사'에서는 글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글의 제목은 글의 첫마디를 따서 글의 제목으로 삼은 김영민·구장률·이유미(2003)를 따른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신소설의 모든 문장을 그대로 옮겨 담는 데이터의 구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다루는 신소설의 모든 문장에서 오직 대화체 구문만을 남기고 나머지 구문은 모두 삭제시킨 데이터의 구축이다. 이 두 가지 데이터의 상호

분석에 의해 이에 사용된 종결어미를 정밀히 확인 분석할 것이다.

1.3. 연구사

개화기의 국어 문체에 대해서는 남기심(1977)의 연구와 민현식(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남기심(1977)은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고, 민현식(1994)은 국한문체와 한글체를 비교함으로써 개화기의 문체를 분석해 보였다. 개화기의 국어 교과서와 신문의 문장을 통해 이 시기의 국어 문장을 연구 한 것으로는 이석주(1990)가 있다. 또한 개화기의 교과서를 통한 이 시기의 시제와 상 및 서법에 대한 연구에는 우인혜(1988)가 있다. 그리고 개화기의 어휘와 현대 언어에서의 어휘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최수례(1976)와 민현식(2002)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이기문(1970, 1984), 심재기(1992)에서도 개화기의 문체를 다루었다. 정길남(2006)은 개화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표기법의 종성 표기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의 연구에서 개화기의 교과서는 어간어미의 분리표기에 있어 곡용과 활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짐을 밝혔다. 그리고 개화기의 신문에 나타난 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홍세아(2005)가 있다. 홍세아는 개화기의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선어말어미에는 '겟, 노, 더, 드, 리, 시, ᄉᆞ오, ᄉᆞᆸ, 앗, 얏, 엇, 엿, 옵, 왓, ᄋᆞᆸ'을 들고 있고, 종결어미로는 'ㄴ가, ㄴ고, ㄴ다, 너라, 니라, ᄂᆞ냐, 다, 도다, 라, 랴, 로다, 세, 셰, 소, 여라, 오, 요, 잇가, 자, 지라, 지어다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결어미의 문법성에 대한 논의는 김태엽(2001)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길(1991)에서도 종결어미가 다루어졌다. 홍종선(1994)에서는 개화기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문장과 종결어미를 분석하였고, 개화기에서의 국어 표기에 대한 연구는 이석주(197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외에 개화기의 국어 어휘에 대해서는 김형철(1999)의 연구가 있다. 국어의 어미에 대해 분석한 권재일(1982)은 국어 어미의 기본 체계를 '복합문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와 '통사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김성환(2002)은 첨사 '-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해체 · 해요체'에서 보이는 '-요'에 의한 존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요'는 문장의 종결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요'가 종결접미사가 될 수 없으며 보조조사도 아니라면서 이는 어말에 첨가되어 청자 존대의 직능을 하는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 청자 존대 접미사인 것으로 분석해 보이고 있다.

한편, 강규선(1989)은 신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호칭과 서법에 대해 두루 고찰해 보였다. 현대국어의 존대법 체계에 대해 다룬 임동훈(2006)은 '해요체'를 [-청자하위], [-화자상위], [-격식] 단계인 것으로 분석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권재일(1998)에서는 의향어미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분석해보였다.

1.4.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모두 9장으로 구성하여 근대계몽기에 발표된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대화체에서 사용된 종결어미를 확인하고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간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분석하여 최근세국어에 있어서의 종결어미 사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국어 종결어미는 화자의 진술 태도나 목적에 의하여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이다(장윤희, 1998, p.i). 따라서 종결어미의 분석에는 대화체가 쓰인 자료가 요구된다. 현대국어에서는 대화체가 들어 있는 자료가 매우 다양하며 풍부하지만 근대계몽기에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신소설 아니면 단형서사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의 국어, 즉 최근세국어에서의 종결어미 분석에는 자료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비하면 대화체 구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므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근대계몽기에 나온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근세국어에서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에 있어 많은 진척과 성과를 얻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종결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에 따른 종결어미의 목록을 우선 살펴볼 것이다. 종결어미의 사용은 공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시적인 현상이다. 종결어미는 사용하고 있는 당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앞선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부단한 변화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쓰임이 왕성해질 수도 있고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든가 다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 모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결어미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 이전 시기의 종결어미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종결어미가 이전 시기의 것이라면 지금의 종결어미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금의 종결어미가 곧 연구하고자 하는 이전 시기 종결어미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우선 현대국어에서의 종결어미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국어는 최근세국어이므로 현대국어와 가장 가깝다. 때문에 현대국어에서의 종결어미를 잘 파악하면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 역시 이에 버금가게 파악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의 종결어미를 볼 것이다. 종결어미는 통시적 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종결어미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의 앞선 형태에 대해서도 확인해 내려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결어미에 있어서 초기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방편으로서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현대국어가 최근세국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듯이 최근세국어는 근대국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최근세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파악을 위해서는 중세국어에 이어 근대국어에서의 종결어미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연구에 이어 근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사용된 대화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쓰인 서술법에서의 종결어미를 분석할 것이다. 서술법을 만드는 종결어미는 문어체에서도 주로 쓰이는 '-다'를 비롯하여 구어체에서 쓰이는 '-걸', '-데', '-

베', '-세', '-오' 등 실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상대경어법에 의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반말체인 '-야', '-지'에서부터 최상의 존대를 나타내는 '-습니다', '-리다', '-나이다'까지 등급별로 실로 다양하다. 또한 계사와 결합하는 종결어미인 '-다'와 '-라'도 서술법 종결어미이다. 뿐만 아니라 해요체를 이루는 '-요' 통합체도 서술법에서 쓰인다. 이외에도 동사어간하고만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있는가 하면 형용사어간하고만 결합하는 종결어미도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 결합되는 종결어미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용법의 서술종결어미에 대해 이의 종류를 확인하고 서술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 간의 결합 형태 또는 다른 종결어미와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석한다.

4장은 의문법에 쓰인 종결어미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의문법은 서술법에 상대되는 의향법이다. 의문법에 쓰이는 종결어미 또한 서술법에 못지않게 다양하다. 더구나 의문에 있어서 판정을 요구하느냐 설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종결어미도 달라진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지만 최근세국어에서도 완전히 이의 용법이 소멸되었는지는 의문이다. '-ㄴ고'는 설명 의문에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설명의문에서도 주로 '-ㄴ가'가 사용되어 '-ㄴ고'는 의고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뿐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1] 그렇다면 최근세국어의 대화체 자료인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들 자료에서 '-ㄴ고'가 거의 쓰이지 않았거나 전혀 쓰이지 않았다면 '-ㄴ고'의 설명 의문 용법은 현대국어의 훨씬 이전 시기부터 소멸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ㄴ고'의 설명 의문 용법은 현대국어에 들어서면서 소멸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최근세국어에서부터 이의 용법이 약화되었다면 어느 형태의 어미 구성에서부터 이의 소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날 한 시에 모든 형태의 어미 구성에서 '-ㄴ고'의 용법이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이의 용법이 사라진 어미 구성이 있을 것이고 사라져 가고 있는 어미 구성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왕성하게 그 용법을 보이고 있는 어미 구성도

1) 윤석민(2000, p.153) 참조.

있을 것이다. 이처럼 4장에서는 여러 의문종결어미의 쓰임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체 구문에서의 의문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5장은 명령법에 쓰인 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한다. 명령문은 화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양식의 문이다(김민수, 1971, p.296). 따라서 이에는 구문상 어떠한 일정한 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종결어미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명령법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 결합 형태가 최근세국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현대국어에서의 명령종결어미와 최근세국어에서의 명령종결어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종결어미의 형태가 종결어미의 차이와 무관하게 현대국어에서와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명령종결어미에 있어서는 어느 형태의 종결어미결합형부터 쓰이지 않기 시작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장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이다.

6장에서는 청유법의 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청유법은 상대방과 어떠한 명제적 행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의향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종결어미는 최근세국어에서 '-자'와 '-세' 그리고 '-ㅂ시다'와 '-사이다'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중에서 '-자'와 '-세' 그리고 '-ㅂ시다'는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사이다'는 대화체에서 쓰임이 소멸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세국어의 대화체 자료인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사이다'의 용례를 볼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와 다른 현상으로서 현대국어와 최근세국어 간의 차이가 된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종결어미에 있어서 어떠한 어미 결합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청유종결어미 '-자', '-세', '-ㅂ시다'는 어떠한 어미 결합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7장은 약속법에 쓰인 종결어미와 이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에 대한 분석이다. 약속법은 학자에 따라 의향법에서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떠한 명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설명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기약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문도 될 수 없다. 맹서에 있어서 질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약속은 신의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명령을 내릴 상황이 되지 않는다. 약속은 같이 행할 수도 있지만 홀로 행할 수도 있으므로 청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의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는 광의의 의미가 아니라면 따로 세우는 것이 그 뜻을 명료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의미는 '-마'가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종결어미는 종종 서술법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를 따로 세워 이의 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8장은 감탄법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에 대한 분석이다.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중 하나인 '-구나'나 '-로구나'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에서도 사용된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감탄종결어미이지만 '-로세'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미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종결어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와 다른 현상으로서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감탄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국어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감탄종결어미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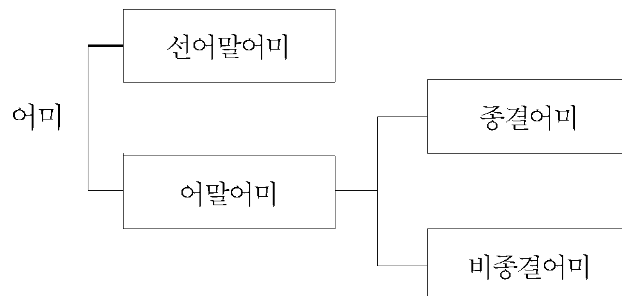
9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분석된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에 대해 종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본다. 이로써 종결어미의 종류와 종결어미가 이루는 구성 형태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구문에서의 종결어미 쓰임 양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결어미가 보이는 변천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결어미 선행 연구와 목록

2.1. 현대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2.1.1. 어미 구분

종결어미란 하나의 구문을 끝맺는 어미라는 뜻이므로 이는 구문을 끝맺지 않는 어미와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구문을 끝내는 종결어미와 그렇지 않는 비종결어미어미는 둘 다 활용어미로서 단어를 끝내는 어미이므로 이들을 함께하여 어말어미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단어를 끝내지 못하고 자신의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를 두어야 하는 어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선어말어미라 한다면 어말어미(final ending)와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로 구분되는 구조가 성립된다. 아래에서 보이는 어미 분류는 이익섭(1986, p.102), 이석주・이주행(1994, p.80)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일부를 보인 것이다.



<표 1> 어미 분류

본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쓰인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

간의 구성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비종결어미는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선어말어미는 국어의 시제 및 서법을 담당하고 종결어미는 상대경어법과 문장의 종류를 결정짓는 일을 담당한다(이익섭, 1986. p.105 참조).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계몽기의 소설류에서 사용된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 간의 구성 형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경어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구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룰 것이다.

2.1.2. 의향법 분류

종결어미가 꾸미는 서술양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베풂월, 물음월, 시킴월, 꾀임월로 하여 4개로 분류를 하였고, 김민수(1971)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과 같이 4개의 분류를 보였다. 허웅(1975)에서도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하여 4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한길(1991)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4등분하고 있다. 김태엽(2001) 역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하여 4개로 분류를 해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인승(1949)에서는 베풂법, 물음법, 시킴법, 이끎법, 느낌법으로 하여 5개로 나누었다. 서태룡(1985)도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과 같이 5개로 분류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이 5개로 분류하였다. 이상복(1991) 역시 서술양식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 5개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관규(1999)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홍기문(1947)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과 같이 6개로 하여 유형을 더 늘려 세웠다. 이석주・이주행(1994)에서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

유문, 감탄문, 응낙문으로 유형을 6개로 늘려 잡고 있다.

이희승(1949)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 허락문으로 하여 총 7개의 유형을 세우고 있다. 고영근(1976) 또한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경계법 등과 같이 7개의 유형 분류를 해보이고 있다. 이익섭·채완(1999)에서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 허락문 등으로 하여 모두 7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고영근(1974)에서는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으로 하여 총 8개로 분류해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민(2000)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종결법을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으로 하여 고영근(1974)에서와 동일한 체계로 총 8개로 분류해 보이고 있다.

한편, 권재일(1998)에서는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누고 이에 서술법을 다시 평서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나누고 있다. 이상 이들의 서술양식 분류를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수	학자	종결법 유형							
4개	최현배	베풂월	물음월	시킴월	꾀임월	×	×	×	×
	김민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	감탄문	×	×	×
	허 웅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	×	×	×	×
	한 길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				
	김태엽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	×	×	×

개수	학자	종결법 유형							
5개	정인승	베풂법	물음법	시킴법	이끎법	느낌법	×	×	×
	서태룡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	약속형	×	×
	남기심 고영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	×
	이상복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	×
	이관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	×
6개	홍기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	×	×
	이석주 이주행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응낙문	×
	권재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	×	×
7개	이희승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	허락문	×
	고영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이익섭 채 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약속문	허락문	×
8개	고영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윤석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표 2> 현대국어 의향법 유형

말에 있어서 어떠한 명제에 대한 서술과 의문 그리고 명제의 이행에 대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위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학자들도 서술법과 의문법 그리고 명령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보고 서술법과 의문법 및 명령법

을 종결법의 유형으로 삼는다.

한편, 말 중에는 반드시 명제에 대한 서술이나 의문 또는 명령이 아닌 말도 있다. 이러한 말로서는 상대방과 어떠한 행위를 같이 하기를 권하는 말이 있고,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어떠한 명제를 이행할 것을 기약하는 말이 있다.

상대방과 공동의 행위를 할 것을 권하는 말인 청유법은 김민수(1971)를 제외하고는 역시 다른 학자들 모두 설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다른 학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청유법을 종결법의 한 유형으로 한다. 상대방과 무관하게 자신의 느낀 바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인 감탄법의 경우 최현배(1937)와 허웅(1975) 및 김태엽(2001)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자들 모두 공통으로 이를 설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별도로 인정하여 감탄법을 설정한다. 이외에 명제에 대하여 앞으로 행할 것을 서약하는 약속법의 설정은 홍기문(1947), 이희승(1949), 고영근(1974, 1976), 서태룡(1985), 권재일(1998), 이익섭・채완(1999), 윤석민(2000)에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어떠한 명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서약하는 것은 앞서 설정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과는 다른 성질의 말로 보아 이를 종결법의 한 유형으로 한다.

이밖에 이희승(1949), 고영근(1974, 1976), 이석주・이주행(1994), 이익섭・채완(1999), 윤석민(2000)에서와 같이 어떠한 명제를 행하는 것을 들어주는 허락법도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의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넓게 보아 명령법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허락법은 명령법에 넣는다.

고영근(1974, 1976)과 윤석민(2000)은 종결법 유형에 경계법도 넣었으나 행동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은 서술적으로 또는 약한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넓게 보아 서술법이나 명령법에 넣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계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결법의 유형을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분류한다.[2]

---

2) 학계에서는 종결법의 유형에 대한 개별 명칭에 있어서 '-법' 외에 '-문'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2.1.3. 현대국어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이석주·이주행, 1994. p.81) 의향법을 구성한다. 때문에 종결어미들은 의향법의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길(1991)에서 분류해 보인 종결어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길(1991)은 종결법을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분류하고 아주낮춤, 반말,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높낮이없음으로 상대경어법을 등분하여 이에 해당되는 종결어미들을 보이고 있다.

서술법	아주낮춤	-노라, -누나, -느니라, -는구나, -는다, -는단다, -도다, -으니, -으마, -을라, -을지니라, -을진저
	반　말	-거든, -게, -네, -느냐고, -느냐니까, -는걸, -는군, -는다고, -는다나, -는다니까, -는데, -데, -아, -으라고, -으라나, -으라니까, -을걸, -을게, -을래, -자고, -자나, -자니까, -지
	예사낮춤	-네, -는다네, -ㄹ세, -으이
	예사높임	-구려, -는다오, -습디다, -오, -으리다
	아주높임	-나이다, -는답니다, -습니다, -올시다, -으오이다
	높낮이없음	-다, -음

그런데 종결법의 유형은 구문의 형태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종결어미의 쓰임법에 의한 분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법'으로 한다.

물음법	아주낮춤	-느냐, -니, -으렷다, -을소냐
	반 말	-게, -네, -아, -지
	예사낮춤	-나, -냐니, -느냐고, -는가, -는가, -는다고, -는데, -는면서, -다니, -데, -으라고, -으라니, -을까, -을래, -자고, -자니
	예사높임	-오, -으리까, -읍디까
	아주높임	-나이까, -습니까, -오이까
	높낮이없음	-는담, -으랴
시킴법	아주낮춤	-으렷다, -을지어다
	반 말	-아, -지
	예사낮춤	-게
	예사높임	-구려, -아라, -오, -으려무나
	아주높임	-으랴, -으소서, -으십시오
	높낮이없음	-을것
꾀임법	아주낮춤	-자
	반 말	-아, -지
	예사낮춤	-세
	예사높임	-읍시다
	아주높임	
	높낮이없음	
	높낮이없음	

<표 3>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한길, 1991)

<표 3>에서와 같이 종결법 유형과 경어법 등급에 따라 분류한 종결어미의 목록은 허웅(1995)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술법	낮 춤	(**일러듣김**) : -고말고, -네, -노라네, -느(나)니라, -느니, -는(ㄴ)다, -는(ㄴ)다고, -는(ㄴ)다나, -는(ㄴ)다니까, -는(ㄴ)단다, -는(ㄴ)단말이야, -는다네, -다, -다고, -다나, -다네, -다니까, -다마다, -단다, -단말이야, -라, -라고, -라나, -라네, -라니까, -란다, -란말이야, -어, -어야지, -으니, -으니까, -으니라, -으라나, -으이, -을지니라, -을지라, -을지로다, -을지어다, -지 (**약속법**) : -으마, -을게, -음세 (**뜻**) : -과저, -을거나, -을라고, -을란다, -을래 (**느낌**) : -거든, -구나(군), -구료, -구먼, -노라, -누나, -누마, -는걸, -는구나(군), -는구려, -는구료, -는구먼, -는다니, -는데, -는지, -는지고, -다니, -데나, -도다, -드만, -라니, -로고, -로구나(군), -로구려, -로구료, -로구먼, -로다, -로라, -로세, -어라, -으니, -으매라, -은걸, -은데, -은지, -은지고, -을걸, -을게로군, -을데라고, -을데라니, -을사, -을세, -을손, -을씨고, -을진저
	예사높임	(**일러듣김**) : -고말고요, -네요, -는(ㄴ)다고요, -는(ㄴ)다나요, -는(ㄴ)다니까요, -는(ㄴ)다오, -는(ㄴ)단말이오, -다고요, -다나요, -다니까요, -다마다요, -다오, -단말이오, -라고요, -라나요, -라니까요, -라야지요, -라오, -란말이오, -소(으오)/오, -습닌다/ㅂ닌다, -습딘다/ㅂ딘다, -어야지요, -어요, -으니까요, -으이요, -지요 (**약속법**) : -을께요 (**뜻**) : -을래요 (**헤아림**) : -거니, -으려니, -으렷다, -을라, -을러(레)라, -을레, -을세라 (**느낌**) : -거든요, -구먼요, -군요, -는(ㄴ)다니요, -는걸요, -는구먼요, -는군요, -는데요, -다니요, -라니요, -로구먼요, -로군요, -은걸요, -은데요, -을걸요
	아주높임	-나이다, -노이다/느이다, -는(ㄴ)답니다, -도소이다, -랍니다, -로소이다, -사옵니다/옵니다, -소이다, -습네다/ㅂ네다, -습니다/ㅂ니다. -어이다, -올습네다, -올시다, -으니이다, -으이다

물음법	낮 춤	(**단순-본디**) : -나/노, -느냐, -느뇨, -는가, -는감, -는고, -는지, -니(으니, 느니), -으, -으뇨, -으랴, -은가, -은감, -은고, -은지, -을까/를고, -을는지/을는지, -을런가/을런고, -을소냐, -을손가, -을지 (**단순-유용**) : -(으)이, -게, -고, -고서, -는(ㄴ)다, -는담, -는데(도), -다, -담, -라, -람, -어, -어야지, -으려고, -은데(도), -을라고, -을래, -지 (**복합-서술**) : -는(ㄴ)다고, -는(ㄴ)다니, -는(ㄴ)다며, -는(ㄴ)다면서, -는(ㄴ)다지, -다고, -다니, -다며, -다면서, -다지, -라고, -라니, -라며, -라면서, -라지 (**복합-물음**) : -느냐고, -느냐니까, -으냐고, -으냐니까 (**복합-시킴**) : -으라고, -으라며/으라면서, -으람 (**복합-함께**) : -자며/자면서 (**복합-이름**) : -기는, -음에랴 (**복합-그밖**) : -거나, -는거야, -으려나/으려남, -은거야
	예사높임	(**단순**) : -소(으오)/오, -을갑쇼(**요-본디**) : -나요, -는가요, -는지요, -은가요, -은지요, -을까요, -을런지요/을는지요, -을지요 (**요-유용**) : -게요, -고서요, -고요, -는데(도)요, -어야지요, -어요, -으려고요, -으이요, -은데(도요), -을라고요, -을래요, -지요/죠 (**요-서술**) : -는(ㄴ)다고요, -는(ㄴ)다니요, -는(ㄴ)다며요, -는(ㄴ)다면서요, -는(ㄴ)다지요, -다고요, -다니요, -다며요, -다면서요, -다지요, -라고요, -라니요, -라며요, -라면서요, -라지요 (**요-물음**) : -느냐고요, -느냐니까요, -으냐고요, -으냐니까요 (**요-시킴**) : -으라고요, -으라면서요 (**요-함께**) : -자면서요 (**요-이름**) : -기는요
	아주높임	-나이까, -느이까/늬까, -니이까, -로소이까, -사옵니까/옵니까, -소이까, -습니까/ㅂ니까, -으이까

시킴법	낮 춤	-게, -게나, -구려, -구료, -어, -어라, -으라, -으라고, -으라니까, -으라니깐, -으려마, -으려무나, -으렴, -으렷다, -지
	예사높임	-어요, -으라고요, -으오/소, -지요
	아주높임	-(으십시)오, -으소서, -읍소서/으십사/읍시사
함께법	낮 춤	-세, -세나, -어, -음세, -자, -자고, -자꾸나, -자니까, -지
	예사높임	-어요, -으오, -자고요, -자니까요, -지요
	아주높임	-사이다, -으십시다. -읍시다

<표 4>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허웅, 1995)

허웅(1995)에서는 종결법의 유형에 대해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함께법으로 4등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상대경어법으로서 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으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들을 나열해 보였다.

이러한 의향법과 상대경어법에 의한 종결어미의 분류는 김태엽(2001)에서도 볼 수 있다. 의향법의 분류에 대하여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분류한 김태엽(2001)은 상대경어법에 있어서 국어에는 낮춰서 대우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안높임, 조금높임, 조금더높임, 아주높임과 같이 상대에 대한 대우를 안 높이는 단계에서 점차 높여나가는 것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아래 <표 5>는 이러한 분류에 의한 종결어미의 목록이다.

서술법	안높임	-거니, -거든, -고말고, -구나, -구려, -구료, -구먼, -노라, -누나, -누마, -느니, -느니라, -는(ㄴ)다, -는(ㄴ)다고, -는(ㄴ)다니, -는(ㄴ)다니까, -는(ㄴ)단다, -는(ㄴ)단말이야, -는걸, -는구나, -는구려, -는구료, -는구먼, -는다나, -는데, -는지, -는지고, -다, -다고, -다나, -다니, -다니까, -다마다, -단다, -단말이야, -데나, -도다, -드만, -라, -라고, -라나, -라니, -라니까, -란다, -란말이야, -로구나, -로구려, -로구료, -로구먼, -로다, -로라, -어라, -어야지, -으니, -으니, -으니까, -으니라, -으라, -으라나, -으려니, -으렷다, -으마, -으매라, -은걸, -은데, -은지, -은지고, -을걸, -을게로군, -을데라고, -을데라니, -을라고, -을란다, -을러(레)라, -을사, -을세라, -을손, -을씨고, -을이거나, -을지니라, -을지라, -을지로다, -을지어다
	조금높임	-게, -고, -네, -는(ㄴ)다네, -다네, -데, -라네, -로세, -어, -으이, -을게, -을래, -을세, -음세, -지
	조금더높임	-거든요, -게요, -고말고요, -고요, -구먼요, -군요, -네요, -는(ㄴ)다고요, -는(ㄴ)다니까요, -는(ㄴ)다니요, -는(ㄴ)다오, -는(ㄴ)단말이오, -는걸요, -는구먼요, -는군요, -는다나요, -는데요, -다고요, -다나요, -다니까요, -다니요, -다마다요, -다오, -단말이오, -데요, -라고요, -라나요, -라니까요, -라니요, -라야지요, -라오, -란말이오, -로구먼요, -로군요, -소(으오)/오, -습닌다/ㅂ닌다, -습딘다/ㅂ딘다, -어야지요, -어요, -으니까요, -으이요, -은걸요, -은데요, -을걸요, -을께요, -을래요, -지요
	아주높임	-나이다, -노이다/느이다, -는(ㄴ)답니다, -답니다, -도소이다, -랍니다, -로소이다, -사옵니다/옵니다, -소이다, -습네다/ㅂ네다, -습니다/ㅂ니다, -어이다, -올습네다, -올시다, -으니이다, -으이다

의문법	안높임	-거나, -고서, -기는, -나/노, -느냐,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 -는(ㄴ)다, -는(ㄴ)다니, -는(ㄴ)다면서, -는(ㄴ)다지, -는거야, -는다며, -는데, -는지, -다, -다니, -다며, -다면서, -다지, -라, -라니, -라며, -라면서, -라지, -어야지, -으냐, -으냐고, -으냐니까, -으니, -으라고, -으라며/으라면서, -으람, -으랴, -으려고, -으려나, -은거야, -은데, -은지, -을까/을꼬, -을는지/을는지, -을라고, -을소냐, -을손가, -을지, -음에랴, -자며/자면서
	조금높임	-게, -고, -느냐고, -느뇨, -는(ㄴ)다고, -는가, -는감, -는고, -는담, -다고, -담, -데, -라고, -람, -어, -울래, -으냐고, -으뇨, -으라고, -은가, -은감, -은고, -을런가/을런고, -지
	조금더높임	-게요, -고서요, -고요, -기는요, -나요, -느냐고요, -느냐니까요, -는(ㄴ)다고요, -는(ㄴ)다니요, -는(ㄴ)다며요, -는(ㄴ)다면서요, -는(ㄴ)다오, -는(ㄴ)다지요, -는가요, -는데요, -는지요, -다고요, -다니요, -다며요, -다면서요, -다오, -다지요, -데요, -라고요, -라니요, -라며요, -라면서요, -라오, -라지요, -소(으오)/오, -어요, -으냐고요, -으냐니까요, -으라고요, -으라면서요, -으려고요, -은가요, -은데요, -은지요, -을갑쇼, -을까요, -을라고요, -을래요, -을래요, -을런지요/을는지요, -을지요, -자면서요, -지요/죠
	아주높임	-나이까, -느이까/늬까, -니이까, -로소이까, -사옵니까/옵니까, -소이까, -습네까/ㅂ네까, -습니까/ㅂ니까, -으이까

명령법	안높임	-거라, -너라, -어라/아라, -여라, -으라, -으라고, -으라니까
	조금높임	-게, -게나, -구려, -구료, -어, -으려무나, -으렴, -지
	조금더높임	-어요, -으라고요, -으오/소, -지요
	아주높임	-(으십시)오, -으소서, -읍소사/으십사/읍시사
청유법	안높임	-자, -자꾸나, -자니까
	조금높임	-자고, -세, -세나, -어, -음세, -지
	조금더높임	-으오, -자고요, -자니까요, -어요, -지요
	아주높임	-으십시다, -읍시다, -사이다

<표 5>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김태엽, 2001)

한길(1991)과 허웅(1995) 및 김태엽(2001) 모두는 의향법을 4등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각각 분류해 보인 종결어미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이는 종결어미 목록은 3종류의 종결어미 목록을 종합한 것이므로 <표 6>에서의 종결어미들은 현대국어의 종결어미를 4등분 하였을 때에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지는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요' 통합 형태의 종결어미는 제외하기로 한다. '-요'는 종결어미가 아닌 첨사로서 종결어미와 결합된 '-요'의 형태가 비록 하나의 종결어미로 쓰인다 하더라도 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종결어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종결어미 또는 종결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하나의 종결어미와는 구성 성분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요' 통합형 종결어미를 제외시킨다.

서술법	-거니, -거든, -게, -고, -고말고, -과저, -구나, -구려, -구료, -구먼, -나이다, -네, -노라, -노라네, -노이다/느이다, -누나, -누마, -느(나)니라,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 -느니라, -는(ㄴ)다, -는(ㄴ)다고, -는(ㄴ)다나, -는(ㄴ)다네, -는(ㄴ)다니, -는(ㄴ)다니까, -는(ㄴ)다오, -는(ㄴ)단다, -는(ㄴ)단말아야, -는(ㄴ)단말이오, -는(ㄴ)단말이오, -는(ㄴ)답니다, -는걸, -는구나, -는구려, -는구료, -는구먼, -는군, -는다, -는다고, -는다나, -는다네, -는다니, -는다니까, -는다오, -는단다, -는답니다, -는데, -는지, -는지고, -다, -다고, -다나, -다네, -다니, -다니까, -다마다, -다오, -단다, -단말이야, -단말이오, -답니다, -데, -데나, -도다, -도소이다, -드만, -ㄹ세, -라, -라고, -라나, -라네, -라니, -라니까, -라오, -란다, -란말이야, -란말이오, -랍니다, -로고, -로구나, -로구려, -로구료, -로구먼, -로다, -로라, -로세, -로소이다, -사옵니다/옵니다, -소(으오)/오, -소이다, -습네다/ㅂ네다, -습니다/ㅂ니다, -습넌다/ㅂ넌다, -습디다, -습딘다/ㅂ딘다, -아, -어, -어라, -어야지, -어이다, -오, -올습네다, -올시다, -으니, -으니까, -으니라, -으니이다, -으라, -으라고, -으라나, -으라니까, -으려니, -으렷다, -으리다, -으마, -으매라, -으오이다, -으이, -으이다, -은걸, -은데, -은지, -은지고, -을거나, -을걸, -을걸요, -을게, -을게로군, -을께요, -을데라고, -을데라니, -을라, -을라고, -을란다, -을래, -을러(레)라, -을레, -을사, -을세, -을세라, -을손, -을씨고, -을이거나, -을지니라, -을지라, -을지로다, -을지어다, -을진저, -음, -음세, -자고, -자나, -자니까, -지

의문법	-(으)이, -거나, -게, -고, -고서, -기는, -나, -나/노, -나이까, -냐니, -네, -느냐, -느냐고, -느냐니까, -느뇨, -느니, -느이까/늬까, -는(ㄴ)다, -는(ㄴ)다니, -는(ㄴ)다며, -는(ㄴ)다면서, -는(ㄴ)다오, -는(ㄴ)다지, -는가, -는감, -는거야, -는고, -는다고, -는다며, -는담, -는데, -는면서, -는지, -니, -니이까, -다, -다고, -다니, -다며, -다면서, -다오, -다지, -담, -데, -라, -라고, -라니, -라며, -라면서, -라오, -라지, -람, -로소이까, -사옵니까/옵니까, -소, -소이까, -습네까/ㅂ네까, -습니까/ㅂ니까, -아, -어, -어야지, -오, -오이까, -울래, -으, -으냐, -으냐고, -으냐니까, -으뇨, -으니, -으라고, -으라니, -으라며/으라면서, -으람, -으랴, -으려고, -으려나, -으려남, -으렷다, -으리까, -으이까, -으이요, -은가, -은감, -은거야, -은고, -은데, -은지, -을갑쇼, -을까, -을꼬, -을는지/을는지, -을라고, -을래, -을런가/을런고, -을소냐, -을손가, -을지, -음에랴, -읍디까, -자고, -자니, -자며/자면서, -지
명령법	-거라, -게, -게나, -구려, -구료, -너라, -아, -아라, -어, -어라, -여라, -오, -으라, -으라고, -으라니까, -으라니깐, -으랴, -으려마, -으려무나, -으렴, -으렷다, -으소서, -으십시오, -으오/소, -을 것, -을지어다, -읍소서/으십사/읍시사, -지
청유법	-사이다, -세, -세나, -아, -어, -으십시다, -으오, -음세, -읍시다, -자, -자고, -자꾸나, -자니까, -지

<표 6>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한길(1991), 허웅(1995), 김태엽(2001)]

위의 <표 6>은 한길(1991), 허웅(1995), 김태엽(2001)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분류해 보인 종결어미들을 통합시켜 정리한 것이므로 이는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체계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4등분 하였을 경우에 있어 일반적인 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윤석민(2000)에서는 의향법을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

법, 허락법, 경계법 등과 같이 8개로 구분한 후 이들 각각에 대하여 상대경어법에 따라 종결어미들을 분류해보이고 있다.

설명법	해라체	-다
	반말체	-ㄴ걸, -ㄹ걸, -어/아, -지
	하게체	-네, -데, -ㄹ세, -이
	하오체	-오, -소
	합쇼체	-ㅂ니다/습니다
	하소서체	
	등급 없음	
의문법	해라체	-냐, -뇨
	반말체	-니, -ㄹ까, -래, -련, -어/아, -지
	하게체	-ㄴ가, -ㄴ고, -나
	하오체	-오/소
	합쇼체	-ㅂ니까/습니까
	하소서체	
	등급 없음	
명령법	해라체	-거라, -너라, -도록, -어/아라, -엇/앗, -여라
	반말체	-ㄹ것, -어/아, -지
	하게체	-게
	하오체	-오/소
	합쇼체	-ㅂ시오
	하소서체	-소서
	등급 없음	-라

공동법	해라체	-자, -자꾸나
	반말체	-어/아, -지
	하게체	-세
	하오체	
	합쇼체	-ㅂ시다
	하소서체	
	등급 없음	
감탄법	해라체	-구나, -로구나
	반말체	-어/아
	하게체	-구먼, -군, -로구먼, -이로군
	하오체	-구려, -로구려
	합쇼체	
	하소서체	
	등급 없음	-어/아라, (-ㄹ걸), (-노라)
약속법	해라체	-마
	반말체	-ㄹ게, -어/아
	하게체	-ㅁ세, -리다, -오리다
	하오체	
	합쇼체	
	하소서체	
	등급 없음	

허락법	해라체	-려마, -려무나, -렴
	반말체	-어/아
	하게체	
	하오체	-구려
	합쇼체	
	하소서체	
	등급 없음	
경계법	해라체	-ㄹ라
	반말체	-어/아
	하게체	-리
	하오체	
	합쇼체	
	하소서체	
	등급 없음	

<표 7>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윤석민, 2000)

위의 <표 7>에서 감탄법 중 '등급 없음' 란에 있어서 괄호 안에 놓인 종결어미는 윤석민(2000)에서 등급에 대해 언급이 없는 말이다. <표 7>를 앞의 <표 6>과 대조하여 보면 종결어미의 분류에 있어서 윤석민(2000)이 서술법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분류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윤석민(2000)에서는 <표 6>의 서술법에 있는 종결어미 중 일부를 감탄법과 약속법으로 다시 분류해내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약속법과 경계법에 있어서 '-어/아'를 제외하고는 <표 6>에서 제시되지 않은 종결어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6>에서 약속법과 경계법을 설정하지 않음에

서 비롯되는 차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의향법의 분류에 있어서 상대경어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의향법만으로 종결어미들을 분류해보인 경우도 있다. 이는 이상복(1991)과 이석주·이주행(1994)에서 볼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표 8>은 이상복(1991)에서 분류한 종결어미이다.

평서법	-ㄴ/는다, -네, -소/오, -아/어, -으마/마, -지
의문법	-느냐, -는가, -니, -소/오, -아/어, -지
명령법	-게, -아/어, -아라/어라, -으려무나/려무나, -으오/오
청유법	-세, -아/어, -자
감탄법	-는구나/구나, -는구려/구려

<표 8>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이상복, 1991)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표 9>는 이석주·이주행(1994)에서 제시한 종결어미의 목록이다.

평서법	-ㄴ다/-는다, -나이다, -네, -노라, -니라, -다, -데, -ㅁ세, -ㅂ니다, -시오, -오
의문법	-(느)냐, -나이까, -는가, -는고, -니, -ㅂ니까, -오이까, -지요
명령법	-(아/어)요, -게, -렴, -소, -소서, -아(어), -아라/어라
청유법	-ㅂ시다, -사이다, -아(어), -아요/어요, -자, 세, -지요
감탄법	-(는)구나, -도다
응낙법	-(으)려무나

<표 9>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이석주·이주행, 1994)

이상복(1991)과 이석주・이주행(1994)에 있어서 의향법 분류상 차이는 이석주・이주행(1994)에서 응낙법을 하나 더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석주・이주행(1994)의 응낙법에서 보이는 '-(으)려무나'는 이상복(1991)에서 명령법에 넣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고 이상복(1991)의 분류와 이석주・이주행(1994)의 분류에 있어서 서로 공통됨을 보이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에 제시된 종결어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법	-나이다, -ㄴ/는다, -네, -노라, -니라, -다, -데, -ㅁ세, -ㅂ니다, -소/오, -시오, -아/어, -오, -으마/마, -지
의문법	-나이까, -느냐, -는가, -는고, -니, -ㅂ니까, -소/오, -아/어, -오이까, -지
명령법	-게, -렴, -소, -소서, -아/어, -아라/어라, -으려무나/려무나, -으오/오
청유법	-ㅂ시다, -사이다, -세, -아/어, -자
감탄법	-(는)구나, -는구나/구나, -는구려/구려, -도다

<표 10> 현대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이상복(1991), 이석주・이주행(1994)]

위의 <표 10>에서 보이는 종결어미들은 상대경어법과 무관하게 오직 의향법상의 구분에 의하여 분류된 것들이다. 이들 분류된 종결어미들은 이상복(1991)과 이석주・이주행(1994)에서 제시한 것들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의향법만의 구분에 있어서 종결어미의 일반적인 분류에 대한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표 10>에서도 '-요' 통합체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국어에서의 종결어미는 <표 6>과 <표 7> 그리고 <표 10>에서 보이는 정도에 의해 분류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2.2. 최근세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2.2.1. 의향법 분류

최근세국어는 대체적으로 근대계몽기의 국어를 말한다. 근대계몽기는 일반적으로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시대까지를 일컫는 말이므로 최근세국어는 70-80여년 전의 국어가 된다. 따라서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3] 이것은 곧 의향법의 분류에 있어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음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세국어의 의향법에 대해 김형철(1997)은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4등분하여 제시하였고 권재일(2005)에서도 역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하여 4등분하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의향법을 4등분 한 것과 동일하다. 민현식(1999)의 경우는 김형철(1997)과 권재일(2005)에 비해 감탄문을 하나 더 설정하여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이 5등분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현대국어에서의 5등분 의향법과 동일하다. 한편, 강규선(1989)에서는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허락법 등으로 나누어 총 6등분의 의향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6등분의 분석은 이경우(1998)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경우(1998)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의향법을 나누고 있다. 다만, 강규선(1989)에서는 허락법을 설정한 반면 이경우(1998)에서는 약속법을 설정한 것이 다르다. 김동언(1999) 역시 의향법을 6등분하여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나누고 있다. 김동언(1999)의 분류는 이경우(1998)와 동일함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6등분의 의향법들 역시 현대국어에서의 6등분 의향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의향법의 분석에 있어서는 현대국어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인 의향법의 분류들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김동언(1999, p.85)은 현대국어의 경우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 청유법 등의 문체법과 해라체, 해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 합쇼체 등의 상대높임법이 있는데, 개화기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다.

개수	학자	종결법 유형						
4개	김형철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	×	×
	권재일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	×	×
5개	민현식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
	강규선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	허락법
6개	이경우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	×
	김동언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	×

<표 11> 최근세국어 의향법 유형

이 외에 근대계몽기의 일부 자료에 의해 의향법을 분류해 보인 것도 있다. 개화기의 신소설 "치악산 상·하"를 분석한 강규선(1988)은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허락법 등의 6등분 체계의 분류를 보였고, 역시 신소설 "옥매화"와 "련광전"을 분석한 권소영(2004)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과 같이 4등분의 의향법을 보였다. 이인직의 신소설인 "혈의루", "귀의성", "은세계"를 분석한 이은지(2006)도 권소영(2004)과 마찬가지로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과 같이 4등분해 보이고 있다. 한편, 개화기의 국어 교과서 "신정심상소학"을 분석한 심은리(1996)의 경우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과 같이 5등분의 의향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향법 분류 역시 현대국어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최근세국어의 의향법 체계는 현대국어의 의향법 체계와 동일하게 분석되는 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2.2.2.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최근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바로 이어지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국어로의 발달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세국어가 곧 현대국어는 아니다. 때문에 현대국어와는 다른 면도 가진다. 이의 차이는 종결어미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귀의성”, “빈상설”, “은세계”, “치악산”, “혈의루”, “홍도화(상・하)” 등의 신소설을 통해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를 정리한 강규선(1989)의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법	해라체	-다, -라
	반말체	-걸, -게, -데, -베, -서, -셔, -야(아), -지
	하게체	-게, -네, -니, -일세
	하오체	-ㅂ지요, -셔요, -소, -시오, -오
	합쇼체	-ᄂ이다, -리다, -ㅁ니다, -ㅂ니다, -보이다, -소어다, -습니다, -습닏다, -습되다, -시외다, -올시다, -이온다
	하소서체	
의문법	해라체	-냐, -늬, -랴
	반말체	-듸, -려(러), -셔(서), -야(아, 어), -여, -와
	하게체	-가, -ᄂ, -나, -누
	하오체	-소, -쇼, -오, -요
	합쇼체	-ㅁ닛가, -ㅂ더닛가, -습닛가(습잇가, 습니가), -심닛가, -심잇가, -오릿가, -이닛가
	하소서체	

명령법	해라체	-거라, -너라, -렷다, -셔라, -아/어/여라
	반말체	-러, -와, -지
	하게체	-게
	하오체	-시오, -오
	합쇼체	-ㅂ셔요, -ㅂ시오, -셔요, -시지요, -십시오
	하소서체	-ㅂ시사, -쇼셔
청유법	해라체	-자
	반말체	
	하게체	-세
	하오체	
	합쇼체	-ㅂ시다, -시지요, -십시다
	하소서체	
감탄법	해라체	-고나, -구나
	반말체	-군
	하게체	-구, -그려, -네, -로구, -지고, -지구
	하오체	-구려, -소구려
	합쇼체	-시구려
	하소서체	
허락법	해라체	-마
	반말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하소서체	

<표 12>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강규선, 1989)

현대국어의 경우 하소서체는 이제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으며 기도문이나 기원문 정도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므로 대체적으로 이를 의향법에서 제외하는데 강규선(1989)에서는 하소서체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는 합쇼체보다 상위의 존대어로 볼 수 있는 하소서체가 최근세국어에서는 많이 쓰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는 종결어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경우(1998)에서 분석한 것으로서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경우(1998)는 이의 분석에서 신소설 16작품[4)]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서법	해 체	-걸, -게, -ㄴ걸, -데, -면, -야, -어/아, -지
	해라체	-고ᄂᆞ, -노라, -다, -더라, -ㄹ다, -라, -로다, -리라, -어라
	하게체	-네, -네그려, -데, -데그려, -이, -ᄂᆞ베
	해요체	-가요, -게요, -구요, -ㄴ가요, -데요, -아/어요, -요, -요그려, -지요, -ᄃᆡ요
	하오체	-리다, -소/오, -소그려, -오그려
	합쇼체	-ㅂ니다/-습니다, -ㅂ니다그려, -ㅂ니다그려/-습니다그려, -ㅂ닌다/-습닌다, -ㅂ듸다, -ㅂ듸다그려, -ㅂ된다, -ㅂ된다/-습된다, -ㅂ디다/-습디다, -ㅂ디다그려, -ㅂ디다그려/-습디다그려, -ㅂ지오/-습지오, -올시다, -올시다그려, -옵깃습니다
	하소서체	-소이다, -오니다, -온다, -외다, -왼다, -ᄂᆞ이다, -ᄉᆞ오리다, -습ᄂᆞ이다, -옵ᄂᆞ이다

4) 이경우(1998)에서 다룬 신소설 16작품은 “혈의루”, “귀의성”, “빈상설”, “목단화”, “홍도화(상)”, “홍도화(하)”, “옥곤기록”, “추월색”, “마상루”, “치악산”, “모란병”, “화세계”, “재봉춘”, “원앙도”, “고목화(상)”, “고목화(하)” 등이다.

명령법	해　체	-아/-어, -지
	해라체	-거라, -고, -너라, -라, -어라/-아라, -여라
	하게체	-게, -게그려, -게나
	해요체	-어요
	하오체	-오/소, -시오
	합쇼체	-ㅂ시오, -십시오
	하소서체	-ㅂ소사, -ㅂ시사, -소사, -십소사, -압소셔
청유법	해　체	-지
	해라체	-자
	하게체	-세
	해요체	-지오
	하오체	-구려, -오/소
	합쇼체	-ㅂ시다, -ㅂ시다그려
	하소서체	
감탄법	해　체	-걸, -군, -어, -지, -지그려
	해라체	-구나, -도다, -라, -아라/-어라, -ㄴ보다
	하게체	-요구려
	해요체	-ㄴ지고, -ㄹ세, -ㄹ세그랴, -구, -네, -네그려, -누, -로구면
	하오체	-구려, -소구려, -오구려
	합쇼체	-ㅂ니다그려
	하소서체	

의문법	해 체	-(으)ㄴ걸, -걸, -게, -ㄹ나구, -어/-아, -지
	해라체	-ᄂᆞ냐, -냐, -뇨, -늬, -니, -더냐, -듸, -랴
	하게체	-ㄴ가, -ㄴ고, -ㄹ까, -고, -구, -나, -노, -누
	해요체	-ㄴ가요, -ㄴ뎌요, -ㄹ나구요, -요, -가요, -게요, -구요, -나요, -아요/-어요, -지요
	하오체	-릿가, -소/-오, -소그려, -오그려
	합쇼체	-랍시오, -ㅂ닛가/-습닛가, -ㅂ딋가/-습딋가, -ㅂ쇼, -ㅂ시오, -오릿가, -옵니가
	하소서체	-답더닛가, -습더닛가, -십더닛가, -오닛가
약속법	해 체	
	해라체	-(으)마
	하게체	-(으)ㅁ세
	해요체	
	하오체	-리다
	합쇼체	-오리다
	하소서체	

<표 13>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이경우, 1998)

이경우(1998)에서도 강규선(1989)과 마찬가지로 하소서체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최근세국어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의 하나가 바로 하소서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분류하고 있는 김동언(1999)은 하소서체를 합쇼체에 넣고 하소서체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요체를 하오체보다 더 높은 등급의 경어법으로 보아 합쇼체 바로 아래에 두고 있음을 보인다. 이것은 해요체가 최근세국어에서는 하오체보다 더 상위의 경어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김동언(1999)은 하소서체를 합쇼체에 넣어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하소서체를 제외한 현대국어에서의 합쇼체와는 달리 그 등급이 더 상위의 등급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쇼체 바로 아래에 설정된 해요체는 현대국어에서 거의 합쇼체에 가까운 등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정도로 해요체는 최근세국어에서 높은 등급의 경어법으로 쓰였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대국어에서는 해요체가 아무에게나 쉽게 사용하는 등급의 경어법인 것과는 다른 점이 된다.

평서법	해라체	-게, -아/어, -지
	해 체	-다, -라
	하게체	-네, -데, -일세
	하오체	-오/소
	해요체	-어요/아요
	합쇼체	-니이다, -숩/옵니다, -소이다, -오리다, -올시다, -외다, -이다
의문법	해라체	-나, -냐, -뇨, -니, -랴
	해 체	-아/어, -지
	하게체	-구, -나, -노, -누
	하오체	-오/소
	해요체	-가요, -구요, -아요/어요, -지요
	합쇼체	-ㅂ쇼, -잇가/잇고

명령법	해라체	-거라, -너라, -라, -아라/어라
	해 체	-아/어, -지
	하게체	-게, -게나
	하오체	-오/소, -시오
	해요체	-어요
	합쇼체	-소사, -쇼셔, -십시오
청유법	해라체	-자
	해 체	-지
	하게체	-세
	하오체	-오/소
	해요체	-지요
	합쇼체	-ᄉ이다, -ᄋᆸ/읍시다
감탄법	해라체	-구나, -도/로다
	해 체	
	하게체	
	하오체	-구려
	해요체	
	합쇼체	
약속법	해라체	-으마
	해 체	
	하게체	-ㅁ세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	

<표 14>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김동언, 1999)

“신소설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1993)”와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박영섭, 1994a, 1994b, 1996, 1997a, 1997b)”[5]을 주로 참조한 김동언(1999, pp. 86 참조)은 이외에 상대 높임법에서 중화된 종결어미로 ‘-음’을 들고 있다. ‘-옴’이나 ‘-움’으로도 실현되는 ‘-음’은 명사형 어미에 의한 것으로서 주로 독립신문이나 교과서류에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면모도 가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한편, 권재일(2005)은 의향법을 6등분한 강규선(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과는 달리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써 4등분해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등분의 종결어미들을 상대경어법에 의해 분류하지 않고 단지 [±높임]에 의해 구분해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높임]의 구분이 상대경어법 체계상의 구분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향법에 의해 분류된 종결어미만을 보인다. 권재일(2005)에서의 종결어미는 대표형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들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이의 설명에서 보이고 있다. <표 15>에서는 권재일(2005)에서 보인 대표형만을 다룬다.

서술법	-구나, -ᄂ이다, -닉다, -나이다, -내다, -네, -노라, -니라, -다, -더라, -더이다, -도다/로다, -러라, -로라, -로세, -리라, -리이다, -마, -소/오, -소이다/오이다, -앗노라, -얏노라, -어, -어라, -오녀, -올시다, -을세, -을지라, -지, -지라
의문법	-ㄹ가, -게, -ᄂ잇가, -는가, -는고, -나, -냐, -노, -뇨, -니잇가, -니잇고, -리오, -리잇가, -소/오, -어, -오릿가, -은가, -은고, -을가, -을고, -을까, -을꼬, -잇가, -잇고, -지
명령법	-게, -시오, -(옵)소서, -어라, -으라, -을진져
청유법	-세, -읍시다

<표 15>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권재일, 2005)

5) 박영섭(1994a).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1) -독립신문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4b).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2) -신소설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6).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3) -교과서・신문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7a).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4) -잡지 편. 서광학술자료사.
박영섭(1997b).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5) -외래어 편. 서광학술자료사.

근대계몽기에 간행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종결어미를 분석한 권재일(2005)은 감탄법과 약속법을 서술법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명령법에서는 범용어미 '-소/오'를 설정해보이고 있다.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해서 분석한 강규선(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류를 보이는 것은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이다. 강규선(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에서는 권재일(2005)과는 달리 감탄법도 다루고 있으나 권재일(2005)에서는 이를 서술법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탄종결어미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감탄법에 포함시킨다면 이들 모두는 결과적으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것이다.

약속법의 경우 이경우(1998)와 김동언(1999)에서 설정하고 있지만 강규선(1989)과 권재일(2005)은 이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권재일(2005)은 이를 서술법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으므로 결국 강규선(1989)을 제외한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이 약속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강규선(1989) 역시 이경우(1998)에서 약속법 종결어미로 분류하고 있는 '-리다'를 서술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약속법의 일부나마 서술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강규선(1989)에서는 허락법을 세웠으나 나머지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에서는 이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경우(1998), 김동언(1999)에서는 이를 약속법에서 다루고 있고 권재일(2005)에서는 서술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의향법의 등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종결어미에 있어서는 모두 거의 동일하게 다루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권재일(2005)이 서술법에서 다룬 감탄 종결어미를 빼내어 감탄법에 넣고, 마찬가지로 권재일(2005)에서 약속종결어미임을 밝히고 서술법에 포함시킨 종결어미를 약속법으로 빼내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약속종결어미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강규선(1989)을 제외하면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의향법 등분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강규선(1989)에서 제

시한 허락법 종결어미 '-마'는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에서 공통적으로 약속종결어미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약속법에 포함시킨다면 결국 이들 모두의 의향법은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약속법으로 통일된다. 그러면 이들의 종결어미에 대한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아래 <표 16>에서 '-요' 통합형은 종결어미의 통합형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서술법	-ㄴ걸, -ㄹ다, -ㅁ니다, -ㅂ니다/-습니다, -ㅂ니다그려/-습니다그려, -ㅂ넌다/-습넌다, -ㅂ듸다, -ㅂ듸다그려, -ㅂ뒨다, -ㅂ디다/-습디다, -ㅂ디다그려/-습디다그려, -ㅂ지오/-습지오, -걸, -게, -고ᄂᆞ, -ᄂᆞ베, -ᄂᆞ이다/-나이다, -ᄂᆡ다/-내다, -네, -네그려, -노라, -니, -니라, -니이다, -다, -더라, -더이다, -데, -데그려, -도다/로다, -라, -러라, -로다, -로라, -로세, -리다, -리라, -리이다, -면, -베, -보이다, -ᄉᆞ오리다, -ᄉᆞᆸ/ᄋᆞᆸ니다, -ᄉᆞᆸᄂᆞ이다, -서, -셔, -소그려, -소어다, -소이다/오이다, -슴니다, -습넌다, -습듸다, -시오, -시외다, -아/어, -ᄋᆞᆸᄂᆞ이다, -앗노라, -야(아), -얏노라, -어라, -오/소, -오그려, -오녀, -오니다, -오리다, -온다, -올시다, -올시다, -올시다그려, -옵깃습니다, -외다, -왼다, -을세, -을지라, -이, -이다, -이온다, -일세, -지, -지라
의문법	-ㄴ가, -(으)ㄴ걸, -ㄴ고, -가, -걸, -게, -고, -구, -나, -냐, -노, -뇨, -누, -늬, -니, -니잇가, -니잇고, -답더닛가, -더냐, -듸, -ㄹ가, -ㄹ까, -ㄹ나구, -랍시오, -랴, -려(러), -리오, -리잇가, -릿가, -ㅂ닛가/-습닛가, -ㅂ더닛가, -ㅂ뒷가/-습뒷가, -ㅂ쇼, -ㅂ시오, -셔(서), -소/-오, -소그려, -쇼, -슴닛가(슴잇가, 슴니가), -습더닛가, -심닛가, -심잇가, -십더닛가, -아/어, -야(아, 어), -여, -오/소, -오그려, -오닛가, -오릿가, -와, -은가, -은고, -을가, -을고, -을까, -을꼬, -이닛가, -잇가/잇고, -지, -ᄂᆞ, -ᄂᆞ냐, -ᄂᆞ잇가, -논가, -논고, -ᄋᆞᆸ니가

명령법	-ㅂ소사, -ㅂ시사, -ㅂ시오, -거라, -게, -게그려, -게나, -고, -너라, -라, -러, -렷다, -셔라, -소사, -(옵)소서, -쇼셔, -시오, -십소사, -십시오, -아/어, -아라/어라, -압소셔, -여라, -오/소, -와, -으라, -을진져, -지
청유법	-ㅂ시다, -ㅂ시다그려, -구려, -세, -십시다, -오/소, -읍시다, -자, -지, -지오, -ᄉᆞ이다, -옵/읍시다
감탄법	-ㄴ지고, -걸, -ㄹ셰, -ㄹ셰그랴, -ㅂ니다그려, -고나, -구, -구나, -구려, -군, -그려, -ᄂᆞ보다, -네, -네그려, -누, -도다, -라, -로구, -로구면, -로다, -소구려, -시구려, -아라/-어라, -어, -오구려, -요구려, -지, -지고, -지구, -지그려
약속법	-리다, -(으)ㅁ세, -(으)마, -오리다

<표 16>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강규선(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

이와 같이 강규선(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권재일(2005)에서 분류한 종결어미를 종합하여 정리한 <표 16>은 최근세국어 종결어미에 있어서 일반적인 분류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 분류에 있어서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 민현식(1984)의 경우 신소설 "혈의루"와 "귀의성"에서 종결어미를 추려내어 분류하였다. 이의 분석에서 민현식(1984)은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 청유법 및 응낙법으로 구분 한 후 각각에 대하여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서법	해　체	-걸, (-네), -지
	해라체	-노라, -다, -라, -로다
	하게체	-ㄹ세, -네
	해요체	-요
	하오체	-리다, -오
	합쇼체	-ᄂᆞ이다, (-더이다), (-리이다), -습니다, -십듸다, (-야이다), (-여이다), -오이다, -올시다
의문법	해　체	(-ᄂᆞ), -구, -누, -어
	해라체	-(ᄂᆞ)냐
	하게체	-ㄴ가, -ㄴ고, -ᄂᆞ, (-뇨)
	해요체	-요
	하오체	(-소), -오
	합쇼체	(-나닛가), (-니잇고), (-사오릿가), -습닛가, (-시닛가), -오닛가, -오릿가
명령법	해　체	-어*, -지*
	해라체	-거라, -라, -려므ᄂᆞ
	하게체	-게
	해요체	-어요*, -지요*
	하오체	-구려, -오
	합쇼체	-ㅂ시사, (-소셔), -시오
감탄법	해　체	-구, -로구, -스랴
	해라체	(-고나), -구ᄂᆞ
	하게체	-네, (-도다)
	해요체	-걸요, -군요*
	하오체	-구려
	합쇼체	-ㅂ니다그려*

청유법 및 응낙법	해 체	-어*, -지*
	해라체	-마, -자
	하게체	-세
	해요체	-어요*, -지요*
	하오체	-ㅂ시다*
	합쇼체	-시지요, -십시다*

<표 17>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민현식, 1984)

위의 종결어미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설중매", "은세계"를 분석한 임재수(1982)의 조사결과에 있어 민현식(1984)이 자신의 자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요한 것만 추려 놓은 것이다. 그리고 '*' 표시는 용례가 안 보일 뿐 실제로는 있었을 것으로 민현식(1984)에서 추정하는 종결어미이다. 민현식(1984)은 강규선(1989)과 이경우(1998)와는 달리 하소서체를 세우지 않았다.

강규선(1988)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규선(1988)은 "치악산(상・하)"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허락법을 세우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추출해내었다.

설명법	해라체	-다, -라
	반말체	-네, -베, -셔, -져
	하게체	-나, -네, -이지, -일세
	하오체	-셔요, -소
	합쇼체	-리다, -소이다, -습니다, -올시다

의문법	해라체	-가, -냐, -누
	반말체	-가, -고, -나, -듸, -려(야/여), -베, -와
	하게체	-가, -게, -나, -지
	하오체	-소, -시오, -요
	합쇼체	-슴닛가, -오닛가, -오릿가
명령법	해라체	-거라, -라, -아라(어라)
	반말체	
	하게체	-게
	하오체	-오
	합쇼체	-ㅂ시오, -ㅂ지오, -셔요, -십시오
청유법	해라체	-자
	반말체	
	하게체	-세
	하오체	
	합쇼체	-시지오, -십시다, -십시오
감탄법	해라체	-고나, -구, -구나
	반말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구려, -로구, -시구려

허락법	해라체	-마
	반말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표 18>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강규선, 1988)

강규선(1988)은 의향법을 분류함에 있어서 해요체와 하소서체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를 하오체에 포함시켰다. 해요체를 세우지 않았음은 '-요'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소설이 나온 시기에는 아직 '-요' 통합체가 자리 잡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 개화기의 국어 교과서인 "신정심상소학"을 대상으로 하여 종결어미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심은리(1996)는 "신정심상소학"의 종결어미를 분석하여 이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나눈 후 이들 각각에 대해 보통존대, 존대, 극존대로 분류한 상대존대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정리하였다.

평서형	보통존대	-(사)오이다, -(ㅣ)오, -(ㅣ)오이다, -(ㅣ)외다, -(ㅣ)요, -(이)시오, -(이)오, -(이)오이다, -(이)올시다, -(ᄒᆞ)오, -(ᄒᆞ)오이다, -(ᄒᆞ)외다, -리오, -소, -소이다, -오리다, -오이다, -올시다, -외다, -으
	존 대	-(ㅣ)니라, -(ㅣ)다, -(ㅣ)라, -(ㅣ)로다, -(이)다, -(이)라, -(ᄒᆞ)ㄴ다, -(ᄒᆞ)ㄴ지라, -(ᄒᆞ)노라, -(ᄒᆞ)니라, -(ᄒᆞ)더라, -(ᄒᆞ)ㄹ리라, -(ᄒᆞ)ㄹ지라, -(ᄒᆞ)라, -(ᄒᆞ)리라, -(ᄒᆞ)ᄂᆞᆫ지라, -ㄴ지라, -는지라, -니라, -다, -더라, -ㄹ지라, -라, -리다, -ᄂᆞᆫ지라
	극존대	-(ᄒᆞ)오리다, -(ᄒᆞ)옵ᄂᆞ이다, -(ᄒᆞ)옵ᄂᆡ다, -(ᄒᆞ)ᄂᆞ이다, -나이다, -니이다, -오리이다, -ᄂᆞ니다, -ᄂᆞ니라, -ᄂᆞ이다, -습/옵나이다, -ᄉᆞᆸ/ᄋᆞᆸᄂᆞ이다, -ᄉᆞᆸ/ᄋᆞᆸᄂᆡ다, -ᄋᆞᆸ더이다

의문형	보통존대	-(ᄒᆞ)리오, -(ᄒᆞ)온잇가, -오리잇가, -오릿가, -온잇가
	존 대	-(이)ㄴ가, -(이)냐, -(이)뇨, -(ᄒᆞ)뇨, -(ᄒᆞ)오, -(ᄒᆞ)ᄂᆞ뇨, -나뇨, -냐, -ᄂᆞ뇨
	극존대	-닛가, -잇가, -ᄂᆞ잇가, -ᄉᆞᆸᄂᆞ잇가
명령형	보통존대	-요
	존 대	-라, -(ᄒᆞ)라, -아라
	극존대	-(ᄒᆞ)소서, -ᄋᆞᆸ소서
청유형	보통존대	-세, -ᄋᆞᆸ/옵시다, -(ᄒᆞ)ᄋᆞᆸ시다
	존 대	-(ㅣ)오, -(ᄒᆞ)ᄌᆞ
	극존대	
감탄형	보통존대	
	존 대	-다, -(ᄒᆞ)다, -(ㅣ)라, -여, -타
	극존대	

<표 19>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심은리, 1996)

민현식(1984)과 강규선(1988) 그리고 심은리(1996)의 의향법 분석을 보면 모두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을 설정하고 있어 서로 동일한 분류를 보이고 있다. 다만, 허락법에 있어서만은 심은리(1996)에서 세우지 않았다. 이는 심은리(1996)가 분석한 자료가 대화체 위주가 아닌 문어체 위주의 교과서인 까닭에 구어의 종결어미가 되는 허락법의 '-마'에 대한 용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은리(1996)에서 허락법이 없는 것을 무시하면 의향법의 모든 등분에서 이들은 동일하므로 이들이 분류한 종결어미들을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법	-걸, -나, -나이다, -네, -노라, -는지라, -니라, -니이다, -다, -더라, -더이다, -ㄹ세, -ㄹ지라, -라, -로다, -리다, -리라, -리오, -리이다, -베, -셔, -셔요, -소, -소이다, -습니다, -시오, -십되다, -야이다, -여이다, -오, -오리다, -오이다, -올시다, -옵ᄂᆞ이다, -옵ᄂᆡ다, -외다, -으, -이지, -일세, -져, -지, -지라, -ᄂᆞ니다, -ᄂᆞ니라, -ᄉᆞᆸ/옵나이다, -ᄉᆞᆸ/ᄋᆞᆸᄂᆡ다, -ᄋᆞᆸ더이다
의문법	-가, -거라, -게, -고, -구, -구려, -ㄴ가, -나, -나뇨, -나닛가, -냐, -뇨, -누, -니잇고, -닛가, -듸, -라, -려(야/여), -려므ᄂᆞ, -리오, -ㅂ시사, -베, -사오릿가, -소, -소셔, -습닛가, -시닛가, -시오, -어, -오, -오닛가, -오리잇가, -오릿가, -와, -잇가, -지, -ᄂᆞ냐, -ᄂᆞ잇가, -ᄉᆞᆸᄂᆞ잇가
명령법	-거라, -게, -구려, -라, -려므ᄂᆞ, -ㅂ시사, -ㅂ지오, -셔요, -소셔, -십시오, -아라, -어, -오, -지, -ᄋᆞᆸ소서
청유법 및 허락법	-마, -ㅂ시다, -세, -시지오, -십시다, -십시오, -어, -오, -자, -지, -ᄋᆞᆸ/옵시다
감탄법	-걸요, -고나, -구, -구나, -구려, -네, -다, -도다, -라, -로구, -ㅂ니다그려, -스랴, -시구려, -여, -타

<표 20>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민현식(1984), 강규선(1988), 심은리(1996)]

위의 <표 20>은 최근세국어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낸 의향법에 따른 종결어미들이므로 최근세국어 의향법의 종결어미들을 보이고 있는 <표 16>과 동일한 궤의 분석이 된다. 그러므로 <표 20>은 <표 16>에 통합시킬 수 있다. 다만, <표 20>에서는 청유법과 허락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표 20>에서 허락법 종결어미는 '-마' 하나뿐이므로 이를 허락법 종결어미로 분리해내면 <표 20>은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허락법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서 '-마'는 허락법으로 또는 약속법으로 분석이 되는 종결어미이므로 이를 허락법 또는 약속법 종결어미로 한다면 <표 16>과 동일한 의향법 체계가 세워진다. 그렇다면 <표 20>을 <표 16>과 동일한 의향법 등분 체계로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21>이 이에 의해 <표 20>과 <표 16>을 통합시켜 정리해 보인 종결어미 목록이 된다.

서술법	-ᄂ걸, -ᄅ다, -ᄅ세, -ᄅ지라, -ᄆ니다, -ᄇ니다, -ᄇ니다그려, -ᄇ닌다, -ᄇ뒨다, -ᄇ디다, -ᄇ디다그려, -ᄇ지오, -걸, -게, -고ᄂᆞ, -ᄂᆞ니다, -ᄂᆞ니라, -나, -ᄂᆞ베, -나이다, -내다, -네, -네그려, -노라, -는지라, -니, -니라, -니이다, -다, -더라, -더이다, -데, -데그려, -도다, -라, -러라, -로다, -로라, -로세, -리다, -리라, -리오, -리이다, -면, -베, -보이다, -ᄉᆞ오리다, -숩나이다, -서, -소, -소그려, -소어다, -소이다, -숩닋다, -숩니다, -습니다그려, -습닌다, -습디다, -습디다그려, -습지오, -시오, -시외다, -십듸다, -아/어, -야, -야이다, -얏노라, -어라, -여이다, -오, -오그려, -오녀, -오니다, -오리다, -오이다, -온다, -올시다, -올시다그려, -옵나이다, -옵닋다, -옵니다, -옵더이다, -옵깃습니다, -외다, -왼다, -으, -을세, -을지라, -이, -이다, -이온다, -이지, -일세, -져, -지, -지라

의문법	-(으)ㄴ걸, -가, -거라, -걸, -게, -고, -구, -구려, -ㄴ가, -ㄴ고, -나, -나뇨, -나닛가, -냐, -노, -뇨, -누, -니, -니잇가, -니잇고, -닛가, -답더닛가, -더냐, -되, -ㄹ가, -ㄹ나구, -라, -랍시오, -려(러), -려므ᄂᆞ, -리오, -리잇가, -릿가, -ㅂ닛가, -ㅂ더닛가, -ㅂ딋가, -ㅂ쇼, -ㅂ시사, -ㅂ시오, -베, -사오릿가, -셔(서), -소, -소그려, -소셔, -슴닛가, -슴잇가, -습더닛가, -습딋가, -시닛가, -시오, -심닛가, -심잇가, -십더닛가, -아, -야, -어, -여, -오, -오그려, -오닛가, -오리잇가, -오릿가, -와, -은가, -은고, -을가, -을고, -이닛가, -잇가, -잇고, -지, -ᄂᆞ냐, -ᄂᆞ잇가, -ᄂᆞᆫ가, -ᄂᆞᆫ고, -습ᄂᆞ잇가, -ᄋᆞᆸ니가
명령법	-거라, -게, -게그려, -게나, -고, -구려, -너라, -라, -러, -려므ᄂᆞ, -렷다, -ㅂ소사, -ㅂ시사, -ㅂ시오, -ㅂ지오, -셔라, -셔요, -소, -소사, -소셔, -시오, -십소사, -십시오, -아/어, -아라, -압소셔, -여라, -오, -와, -으라, -을진져, -지
청유법	-구려, -ㅂ시다, -ㅂ시다그려, -세, -시지오, -십시다, -십시오, -어, -오/소, -읍시다, -자, -지, -지오, -ᄉᆞ이다, -ᄋᆞᆸ/읍시다
감탄법	-걸, -걸요, -고나, -구, -구나, -구려, -군, -그려, -ㄴ지고, -ᄂᆞ보다, -네, -네그려, -누, -다, -도다, -ㄹ세, -ㄹ세그랴, -라, -로구, -로구먼, -로다, -ㅂ니다그려, -소구려, -스랴, -시구려, -아라/-어라, -어, -여, -오구려, -지, -지고, -지그려, -타
약속법 또는 허락법	-리다, -(으)ㅁ세, -(으)마, -오리다

<표 21> 최근세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표16>, <표 20>]

<표 21>에서 보이는 종결어미들은 그간 학자들의 종결어미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이므로 최근세국어의 의향법상 종결어미에 있어서 일반적인 분류의 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 21>로써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표 6>과 <표 7> 및 <표 10>이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한 면을 보여주므로 이와 상호 비교하면 두 시기에 있어서의 종결어미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구분	서 술 법
현대국어	-거나, -거니, -거든, -게로군, -고, -고말고, -과저, -께요, -노라네, -노이다, -누나, -누마,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 -느이다, -는다, -는다나, -는다네, -는다니, -는다니까, -는다오, -는단다, -는단말아야, -는단말이오, -는단말이오, -는답니다, -다고, -다나, -다네, -다니, -다니까, -다마다, -다오, -단다, -단말이야, -단말이오, -답니다, -데나, -데라고, -데라니, -도소이다, -드만, -ㄹ걸, -라고, -라나, -라네, -라니, -라니까, -라오, -란다, -란말이야, -란말이오, -랍니다, -래, -러(레)라, -레, -로구나, -로구려, -로구료, -로소이다, -ㅂ네다, -사, -사옵니다, -세, -세라, -손, -습던다, -씨고, -어야지, -어이다, -올습네다, -으니, -으니까, -으니라, -으니이다, -으라, -으라고, -으라나, -으라니까, -으려니, -으렷다, -으리다, -으마, -으매라, -으오이다, -음, -음세, -이거나, -자고, -자나, -자니까, -지니라, -지로다, -지어다, -진저,
근대국어	-나, -ᄂᆞ니다, -ᄂᆞ베, -내다, -는지라, -니, -니이다, -더라, -더이다, -데그려, -ㄹ다, -ㄹ지라, -려라, -리라, -리오, -리이다, -ㅁ니다, -면, -ㅂ디다, -ㅂ디다그려, -ㅂ지오, -베, -보이다, -ᄉᆞ오리다, -습나이다, -서, -소어다, -습디다그려, -습지오, -시외다, -십듸다, -야, -야이다, -얏노라, -여이다, -오녀, -오니다, -오이다, -온다, -올시다그려, -옵나이다, -ᄋᆞᆸᄂᆡ다, -ᄋᆞᆸ더이다, -옵깃습니다, -외다, -왼다, -ᄋᆞ, -을세, -을지라, -이온다, -이지, -일세, -져

구분	의 문 법
현대 국어	-감, -갑쇼, -거나, -거야, -고서, -기는, -나, -냐, -냐고, -냐니, -냐니까, -네, -뇨, -느냐고, -느냐니까, -느뇨, -느니, -느이까/늬까, -는감, -는거야, -는다, -는다고, -는다며, -는다면서, -는다오, -는다지, -는담, -는데, -는면서, -는지, -니, -다, -다고, -다니, -다며, -다면서, -다오, -다지, -담, -데, -라고, -라니, -라며, -라면서, -라오, -라지, -람, -래, -랴, -런가, -려고, -려나, -려남, -련, -렷다, -로소이까, -리까, -ㅂ네까, -사옵니까, -소냐, -소이까, -손가, -습네까, -습니까, -어야지, -오이까, -울래, -으, -을지, -음에랴, -읍디까, -이, -자고, -자니, -자며, -자면서, -지
근대 국어	-가, -거라, -걸, -구, -구려, -나뇨, -나닛가, -누, -니잇고, -답더닛가, -더냐, -듸, -ㄹ나구, -랍시오, -려(러), -려므ᄂᆞ, -리오, -리잇가, -릿가, -ㅂ더닛가, -ㅂ뒷가, -ㅂ쇼, -ㅂ시사, -ㅂ시오, -베, -사오릿가, -셔(서), -소그려, -소셔, -슴잇가, -습ᄂᆞ잇가, -습더닛가, -습뒷가, -시닛가, -시오, -심닛가, -심잇가, -십더닛가, -야, -여, -오그려, -오닛가, -오리잇가, -오릿가, -와, -이니가, -잇고

구분	명 령 법
현대 국어	-도록, -라고, -라니까, -라니깐, -랴, -려마, -렴, -소서, -십사, -엇/앗, -을지어다, -읍소서, -읍시사
근대 국어	-게그려, -고, -러, -셔라, -셔요, -소사, -시사, -시오, -십소사, -압소셔, -와, -을진져, -지오

구분	청 유 법
현대 국어	-세나, -으십시다, -음세, -자고, -자꾸나, -자니까
근대 국어	-구려, -ㅂ시다그려, -시지오, -십시다, -십시오, -지오, -옵/읍시다

구분	감 탄 법
현대국어	-구먼, -노라, -는구나, -는구려, -ㄹ걸, -로구나, -로구려, -이로군
근대국어	-ㄴ지고, -걸, -걸요, -고나, -구, -그려, -ᄂᆞ보다, -네, -네그려, -누, -다, -ㄹ세, -ㄹ세그랴, -라, -로구, -로다, -ㅂ니다그려, -소구려, -스랴, -시구려, -아라/-어라, -여, -오구려, -지, -지고, -지그려, -타

구분	약속법 및 허락법
현대국어	-구려, -ㄹ게, -려마, -려무나, -렴, -어/아
근대국어	

<표 22> 현대국어와 최근세국어 간의 종결어미 비교 목록

<표 22>에서 보이는 종결어미들은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 간에 비교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표 22>의 현대국어 서술법에서 보이는 종결어미들은 최근세국어의 서술법에 들어 있지 않는 것들로서 최근세국어의 서술법 종결어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최근세국어의 서술법에서 보이는 종결어미들은 현대국어의 서술법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로서 현대국어의 서술법 종결어미와 일치되지 않는 최근세국어 서술법 종결어미들이다. 그러므로 <표 22>에서 약속법 및 허락법의 경우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약속법이나 허락법 종결어미 '-구려, -ㄹ게, -려마, -려무나, -렴, -어/야' 등을 최근세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반면에 최근세국어에서 사용하는 약속법이나 허락법의 종결어미는 모두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표 6>, <표 7>, <표 10>과 최근세국어의 종결어

미에 대한 <표 21>의 분석에 대해서 각 분석자의 개인적인 분류상 편차나 자료의 미흡성을 떠나서 분석된 결과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는 서로 간에 같으면서도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종결어미가 상호 간에 다르다는 것은 곧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형태 또한 현대국어와 최근세국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문에 있어서 사용되는 종결어미도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 결합 형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체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의향법 체계에 따른 종결어미의 분류에 있어 간여되는 것이 상대경어법이기 때문이다. 상대경어법은 대화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경어법에 의한 의향법상 종결어미 분석은 대화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의 대화체를 살펴볼 수 있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 대화체에서 쓰인 종결어미를 분석할 것이다.

2.3. 중세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2.3.1. 의향법 분류

최근세국어는 현대국어의 근간이 되는 한편 근대국어의 반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세국어에 큰 영향을 끼친 근대국어의 본영은 바로 중세국어이다. 따라서 최근세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와 근대국어뿐만 아니라 중세국어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세국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근대국어의 뿌리가 바로 중세국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현대국어와 최근세국어의 의향법과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중세국어의 의향법과 종결어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세국어의 의향법 분류에 있어서 허웅(1989)은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하여 4등분해보이고 있다. 그리고 안병희·고영근(1990)에서는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청원법 등과 같이 8개로 세분하여 나누고 있다. 하지만 고영근(1997)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과 같이 5개로 줄여 나누고 있다. 권재일(1998)의 경우는 허웅(1989)과 동일하게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누어 4등분하고 있다. 한편, 장윤희(1998)는 고영근(1997)에서와 동일한 체계로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으로 5등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수	학자	종결법 유형							
4개	허 웅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	×	×	×	×
	권재일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	×	×	×
5개	고영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	×
	장윤희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	×	×
8개	안병희 고영근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청원법

<표 23> 중세국어 의향법 유형

중세국어 의향법 분류의 경우도 현대국어나 최근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의 등분 양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현대국어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가 중세국어로 이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2.3.2. 중세국어 종결어미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분석에 있어서 허웅(1989)은 의향법을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4등분 한 후 이들 각각에 대해 낮춤, 반말, 높임, 아주높임과 같이 4등분한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분류하고 있다.

서술법	낮 춤	-다, -우마, -은뎌, -을셔
	반 말	-고나, -고녀, -고야, -ᄂᆞ매라, -오, -온다, -을샤, -을셰라, -음새, -의
	높 임	-ᅌ다
	아주높임	-으이다
물음법	낮 춤	-으냐, -으녀, -으뇨, -으니아, -으니야, -으니여, -으니오, -으랴, -으려, -으료, -으리아, -으리야, -으리여, -으리오, -은가, -은고, -은다, -을가, -을고, -을다
	반 말	-어, -으신가, -으신고, -으실가, -으실고, -은가, -은고, -을가, -을고, -의, -이잇가, -이잇고
	높 임	-으닛고, -으릿고
	아주높임	-으니잇가, -으니잇고, -으리잇가, -으리잇고
시킴법	낮 춤	-으라
	반 말	-게, -고, -고라, -고려, -셔, -우디여
	높 임	-소, -아쎠, -오, -조, -ᅀᅩ
	아주높임	-으쇼셔, -으슈셔

꾀임법	낮 춤	-져, -져라
	반 말	-새
	높 임	
	아주높임	-새이다

<표 24> 중세국어 종결어미 목록(허웅, 1989)

위의 분류에서 허웅(1989)은 서술법의 반말종결어미인 '-고나, -고녀, -고야, -느매라, -오, -온다, -을샤, -을셰라, -음새, -의'들은 모두 15세기 국어에는 없던 말로서 16세기 국어에 들어서서 나타난 것들임을 밝히고 있다.

허웅(1989)의 분석에 의하면 물음법에서 낮춤말인 '-은다, -을다'와 반말인 '-으신가, -으신고, -으실가, -으실고, -은가, -은고, -을가, -을고'는 2인칭 말이고, 낮춤말인 '-은가, -은고, -을가, -을고'는 1인칭과 3인칭 말이다. 반면, 16세기 국어에서만 찾아지는 반말인 '-의'와 낮춤말인 '-으냐, -으녀, -으뇨, -으니아, -으니야, -으니여, -으니오, -으랴 -으려, -으료, -으류, -으리아, -으리야, -으리여, -으리오' 등은 비인칭 말이다. 여기서 '-으니아, -으니야, -으니여, -으류, -으리야, -으리여'는 15세기 국어에서만 찾아지는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으냐'와 '-으랴'는 16세기 국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종결어미이다.

한편, 높임말인 '-으닛고, -으릿고'와 아주높임의 '-으니잇가, -으니잇고, -으리잇가, -으리잇고' 역시 비인칭 종결어미가 된다. 이밖에 반말로 쓰이는 '-어'는 16세기 국어에서만 찾아지는 종결어미이다.

시킴법에 있어서는 반말의 '-게, -고, -셔, -우더여'와 아주높임의 '-으슈셔'는 16세기 국어에서만 보이는 종결어미가 된다. 하지만 높임말의 '-아쎠'는 15세기 국어에서만 찾아지는 종결어미이다. 꾀임법에서는 낮춤말의 '-쟈'와 반말의 '-새'가 16세기 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종결어미이다.

15세기 국어인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분류는 안병희・고영근(1990)에서도 보인다. 이의 연구에서는 의향법을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감탄법, 약속법, 허락법, 청원법 등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되는 종결어미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의 연구에서는 상대경어법에 의한 분류는 해보이지 않았다.

설명법	-다/-라, -(오/우)라, -(오우)이다
의문법	-ㅭ고, -가, -고, -ㄴ가, -ㄴ다, -녀, -뇨, -니아, -니오, -려, -료, -리여, -리오, -어, -오, -이ᄯᆞ녀, -이ᄯᆞ니잇가, -이ᄯᆞᆫ
명령법	-라, -소, -쇼셔, -아라/어라, -아쎠
공동법	-사이다, -쟈, -져, -져라, -읍새
감탄법	-고나, -괴야, -괴여, -ㄴ뎌, -도고나, -도다, -ㄹ쎠, -로고나, -로괴여, -아/어(-거)ㅣ라, -ᄂᆞ고나, -ᄂᆞᆫ고나, -ᄂᆞᆫᄯᅩ다
약속법	-마
허락법	-려므나, -렴
청원법	-고라, -고려, -지이다, -질

<표 25> 중세국어 종결어미 목록(안병희・고영근, 1990)

위의 분석에 있어서 의문법의 '-가'와 '-어'는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에 쓰이며, '-고'와 '-오'는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에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여기서 '-어'는 '-가'에서 유래되었고 '-오'는 '-고'에서 유래되었다. 이들 '-어'와 '-오'는 선어말어미 '-니-' 또는 '-리-'와 결합하여 '-녀(니어, 니여)', '-뇨(니오)', '-려(리여, 리아, 리야)', '-료

(리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가 된다. 그리고 감탄법에서 보이는 '-괴여'는 체언 뒤의 '-로괴여'가 쓰인 것에 의해 추정되는 종결어미이다.

이러한 15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분석은 권재일(1998)에서도 볼 수 있다. 권재일(1998)은 의향법을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누어 종결어미들을 분류하였다. 다만 이의 분류에 있어서 상대경어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서술법	-다/라, -마, -은뎌, -을쎠
의문법	-가(-아), -고, -으녀, -으니/으리아, -으니/으리야, -으니/으리여, -으니/으리오, -으니가, -으니고, -으려, -으리가, -으리고, -은가, -은고, -은다, -을가, -을고, -을다
명령법	-고려, -골, -어쎠, -오라, -으라, -으쇼셔
청유법	-져, -져라

<표 26> 중세국어 종결어미 목록(권재일, 1998)

권재일(1998)에서는 감탄종결어미인 '-은뎌'와 '-을쎠'를 서술법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청원종결어미인 '-으쇼셔'는 명령법 종결어미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장윤희(1998)는 15세기와 16세기의 중세국어 종결어미를 분류하였는데 이에는 상대경어법을 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서술법	15세기	-거지라, -다, -ㄹ셰라, -마, -이
	16세기	-거지라/-어지라/-아지라/-나지라, -다, -ㄹ셰라, -마, -이
의문법	15세기	-ㄴ가, -ㄴ고, -ㄴ다, -ㄹ가, -ㄹ고, -ㄹ다, -녀, -뇨, -니잇가, -니잇고, -닛가, -닛고, -려, -료, -리잇가, -리잇고, -릿가, ?-릿고, -이
	16세기	-ㄴ가, -ㄴ고, -ㄴ다, -ㄹ가, -ㄹ고, -ㄹ다, -냐, -녀, -뇨, -니, -니잇가, -니잇고, -닛가, -닛고, -랴, -려, -료, -리, -리잇가, -리잇고, ?-릿가, -릿고
명령법	15세기	-고라, -고려, -라, -쇼셔, -시고라, -어쎠
	16세기	-ㄴ가, -ㄴ고, -ㄴ다, -ㄹ가, -ㄹ고, -ㄹ다, -리, -냐, -녀, -뇨, -니, -니잇가, -니잇고, -닛고, -랴 -려, -료, -리잇가, -리잇고, -릿고, -소, -쇼셔(-슈셔), -오
청유법	15세기	-사이다, -져, -져라,
	16세기	-새, -새이다, -져/쟈, -져라
감탄법	15세기	-ㄴ뎌, -ㄹ쎠, -게라/에라/애라
	16세기	-게라/-에라/-애라, -고녀/-고나/-괴야/-고야, -ㄴ댜, -ㄴ뎌, -ㄹ샤, -ㄹ셔, -매라

<표 27> 중세국어 종결어미 목록(장윤희, 1998)

장윤희(1998)에서는 15세기와 16세기 국어의 의향법을 설명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으로 나누어 보이고 있다. 이의 분석에서 장윤희(1998)는 15세기의 설명법 어미인 '-마'는 '약속'의 뜻으로, '-거지라'는 '소망'의 뜻으로, '-ㄹ셰라'는 '경계'

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풀이해보이고 있다. 또한 15세기의 의문법에서는 '-ㄴ가, -ㄴ고, -ㄴ다, -녀, -뇨, -ㄹ가, -ㄹ고, -ㄹ다, -려, -료' 종결어미가 하라체로 쓰였고, '-닛가, -릿가, -이'는 하야써체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니잇가, -니잇고, -리잇가, -리잇고'는 하소서체였음을 밝혔다. 장윤희(1998)의 분석에 따르면 15세기의 명령종결어미에서는 '-고라, -고려, -라'가 하라체이며, '-어써'는 하야써체, 그리고 '-쇼셔'는 하소서체임가 되며, '-고려'는 '-고라'에 비해 후대에 모습을 나타낸 형태이다. 15세기 국어의 청유종결어미 경우는 '-져, -져라'가 하라체이며, '-사이다'는 하소서체가 된다.

16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설명종결어미 중에서 '-거지라/-어지라/-아지라/-나지라'가 소망법어미가 되며, '-마'는 약속법어미, '-ㄹ셰라'는 화자의 경계・경고・염려를 표시하는 종결어미가 된다. 그리고 '-닛고, -릿고'는 하야써체이며, '-니잇가, -니잇고, -리잇가, -리잇고'는 하소서체이다.

명령종결어미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있었던 '-시고라'가 사라졌으며, '-어쎠' 또한 소멸되었다. 반면, '-소'와 '-오'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려'가 절단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도 또한 새로이 모습을 드러냈다. 감탄종결어미의 경우는 '-다'와 '-ㄹ샤'가 16세기 국어에서만 찾아진다. 이는 '-고녀/-고나/-괴야/-고야, -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들은16세기 국어에 들어와 쓰이기 시작한 종결어미들이다. 한편, 청유종결어미의 경우는 '-아져'와 '-사이다'가 사라지고 대신 '-새이다'가 모습을 모였다. 그리고 '-새'가 새로이 등장하여 쓰였다. 이와 같이 중세국어 내에서도 종결어미들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결어미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결어미의 분류는 모두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각의 분류들을 한데 모아 재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병희・고영근(1990)의 약속법은 허웅(1989), 권재일(1998), 장윤희(1998)에서는 설정하지 않은 의향법 분류이다. 따라서 약속법은 안병희・고영근(1990)에서만 세우고 있는 것인데 이에서의 종결어미 '-마'는 허웅(1989), 권재일(1998), 장윤희(1998)에서 모두 서술법

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약속법의 종결어미가 하나뿐인데다 안병희・고영근(1990)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구에는 이를 서술법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마'를 서술법에 넣으면 될 것이다.

청원법 역시 안병희・고영근(1990)에서만 세운 의향법 갈래인데 이의 종결어미 중 '-고라'는 허웅(1989)과 장윤희(1998)에서 명령종결어미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고려'는 허웅(1989)과 권재일(1998) 및 장윤희(1998)에서 명령법에 넣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결어미는 보다 많은 학자들이 분류한 명령법에 넣고 다른 학자들이 거론하지 않은 '-지이다'와 '-질'만을 청원종결어미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감탄법은 허웅(1989)과 권재일(1998)에서 설정하지 않았는데 감탄법의 종결어미 중 '-고나', '-고녀'는 허웅(1989)에서 서술종결어미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학자들이 분류한 감탄법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권재일(1998)의 경우는 감탄법에 해당되는 종결어미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탄법을 설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허락법의 '-려므나'와 '-렴'은 안병희・고영근(1990)에서만 보인다. 그러므로 이의 설정은 그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돈한다면 이들의 종결어미에 대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법	-ㅇ다, -(오우)이다, -고야, -ᄂᆞ매라, -다/라, -ᄅᆞ셰라, -마, -오, -온다, -은뎌, -을샤, -을셔, -을셰라, -음새, -의, -이
의문법	-ㄴ가, -ㄴ고, -ㄴ다, -ㄹ가, -ㄹ고, -ㄹ다, -ㅭ고, -가, -고, -냐, -녀, -뇨, -니, -니아, -니오, -니잇가, -니잇고, -닛가, -랴, -려, -료, -리, -리여, -리오, -리잇가, -리잇고, -릿가, -릿고, -어, -오, -으냐, -으녀, -으뇨, -으니, -으리아, -으리여, -으리오, -으니가, -으니고, -으니아, -으니야, -으니여, -으니오, -으니잇가, -으니잇고, -으닛고, -으랴, -으려, -으료, -으리가, -으리고, -으리아, -으리여, -으리오, -으리잇가, -으리잇고, -으릿고, -으신가, -으신고, -으실가, -으실고, -은가, -은고, -은다, -을가, -을고, -을다, -의, -이, -이잇가, -이잇고, -이ᄯᆞ녀, -이ᄯᆞ니잇가, -이ᄯᆞᆫ

명령법	-ㄴ가, -ㄴ고, -ㄴ다, -ㄹ가, -ㄹ고, -ㄹ다, -게, -고라, -고려, -골, -냐, -녀, -뇨, -니, -니잇가, -니잇고, -닛고, -라, -랴, -려, -료, -리, -리잇가, -리잇고, -릿고, -셔, -소, -쇼셔(-슈셔), -시고라, -아라/어라, -아쎠, -어쎠, -오, -오라, 우듸여, -으라, -으쇼셔, -으슈셔, -조, -ᅀᅩ
공동법	-사이다, -새, -새이다, -읍새, -쟈, -져, -져라
감탄법	-ㄴ댜, -ㄴ뎌, -ㄹ샤, -ㄹ셔, -게라/에라/애라-게라/-에라/-애라, -고녀/-고나/-괴야/-고야, -괴여, -논또다-도고나, -도다, -로고나, -로괴여, -매라, -아/어(-거)ㅣ라
허락법	-려므나, -렴
청원법	-지이다, -질

<표 28> 중세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허웅(1989), 안병희・고영근(1990), 권재일(1998), 장윤희(1998)]

위의 <표 28>은 허웅(1989), 안병희・고영근(1990), 권재일(1998), 장윤희(1998)에서 분석해 보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와 자료에서 오는 오차 등을 보지 않고 분석 결과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는 중세국어 종결어미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분석의 한 면이 될 것이다.

2.4. 근대국어 의향법과 종결어미

2.4.1. 의향법 분류

근대국어는 대체적으로 17세기경의 국어를 뜻한다. 17세기의 국어는 중세국어에

서 벗어났으나 아직 최근세국어로는 진입하지 않은 국어로서 중세국어와 최근세국어와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세국어의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근대국어이다. 따라서 최근세국어의 분석함에 있어서 근대국어 또한 더불어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기서는 근대국어의 의향법과 종결어미에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장경희(1977)에서 볼 수 있다. 장경희(1977)는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해 하라체, 하오체, 하옵소체, 하소서체로써 종결어미들을 분류하고 있다. 근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분류는 이기갑(1978)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의 연구에서는 의향법을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각각 하라체, 하소체, 하소서체로써 종결어미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김정수(1984)의 경우는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구분하고 안높임, 예사높임, 예사덧높임, 아주높임, 아주덧높임과 같은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분석하였다. 이유기(2001)는 근대국어의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으로 등분하고 이들에 각각에 대해 하라체, 하소체, 하옵소체, 하소서체로써 종결어미들을 분류하고 있다.

개수	학자	종결법 유형				
3개	장경희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	×
4개	이기갑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	×
	김정수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	×
5개	이유기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표 29> 근대국어 의향법 유형

근대국어의 의향법 분류에 있어서도 중세국어에서와 같이 그리고 현대국어나 최근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의 양태는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근대국어가 최근세국어에 바로 이어지는 국어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근세국어의 의향법 분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종결어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근대국어 의향법 분석의 다양함 역시 같은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는 근대국어의 종결어미가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와 상당히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4.2. 근대국어 종결어미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분석은 장경희(197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경희(1977)는 의향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하라체, 하오체, 하옵소체, 하소서체로 된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평서법	하라체	-고나, -과댜, -괴야, -다/라, -ㄹ샤/ㄹ셔, -야/여, -으마, -을돠, -쟈
	하오체	-(도)쇠, -데, -리, -새, -이, -ᄂᆡ
	하옵소체	-오리, -ᄉᆞ외/외, -ᄋᆞᆸ데, -ᄋᆞᆸ도쇠, -ᄋᆞᆸ새, -ᄋᆞᆸᄂᆡ
	하소서체	-으이다/응이다
의문법	하라체	-가, -고, -냐, -뇨, -라, -료, -온다, -울다, -ᄯᆞ녀/ᄯᆞ냐
	하오체	-은가, -은고, -을가, -을고
	하옵소체	-ᄉᆞ올가, -온가, -온고, -올고
	하소서체	-잇가, -잇고

시킴법	하라체	-라
	하오체	-고려, -오/소
	하옵소체	-시소, -읍소
	하소서체	-쇼셔

<표 30> 근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장경희, 1977)

장경희(1977)에서의 분석은 청유법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기갑(1978)에서는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외에 청유법도 설정하고 있다. 이기갑(1978)에서도 상대경어법에 의해 각각의 종결어미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하라체와 하소체 그리고 하소서체로서 3단계로 구분된 상대경어법이다.

서술법	하라체	-고나, -고야, -으롸, -으마, -은다, -을다, -을돠, -을셔
	하소체	-늬, -데, -쇠, -외, -으리, -음새
	하소서체	-으이다
물음법	하라체	-으냐, -으뇨, -으랴, -으료, -은다, -을다
	하소체	-은가, -은고, -을가, -을고
	하소서체	-으잇가, -으잇고
시킴법	하라체	-고려, -과댜, -으라
	하소체	-새
	하소서체	-사이다
꾀임법	하라체	-쟈
	하소체	-새
	하소서체	-사이다

<표 31> 근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이기갑, 1978)

이기갑(1978)에서는 '-쟈', '-새', '-사이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더 분석함에 의하여 장경희(1977)에 없는 꾀임법(청유법)을 더 설정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유법의 설정은 김정수(1984)에서도 볼 수 있다. 김정수(1984)는 의향법에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외에 꾀임법도 세워 4등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안높임, 예사높임, 예사덧높임, 아주높임, 아주덧높임과 같은 상대경어법 체계를 적용하여 종결어미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서술법	안높임	
	예사높임	-의
	예사덧높임	
	아주높임	
	아주덧높임	
물음법	안높임	
	예사높임	-은고, -을고, -의
	예사덧높임	-습…의
	아주높임	
	아주덧높임	
시킴법	안높임	-고라, -고려, -으라
	예사높임	-과댜, -ᄉᆞ오, -소
	예사덧높임	-습소, -으시과댜, -으시소
	아주높임	-으쇼셔
	아주덧높임	-ᄉᆞ오쇼셔, -습쇼셔

꾀임법	안높임	-쟈, -쟈ᄉᆞ라
	예사높임	-의
	예사덧높임	-숩…의
	아주높임	
	아주덧높임	

<표 32> 근대국어 종결어미 목록(김정수, 1984)

한편, 이유기(2001)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외에 약속법을 하나 더 설정하여 의향법을 모두 5등분해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의 등분 각각에 대해 하라체, 하소체, 하옵소체, 하소서체로 구분된 상대경어법에 의해 종결어미들을 분류하고 있다.

평서법	하라체	-ㄴ다, -거다, -게라, -고나/괴야, -과댜, -과라, -괘라, -ᄂᆞ다 -더라, -도다, -ㅅ다, -소라, -시다, -ᄯ냐, -아다, -아/어, -알, -애라, -엇다, -오라, -으니, -으롸, -으리, -으리라, -을다/을돠, -을샤, -지라
	하소체	-닉, -데, -쇠, -으이
	하옵소체	-올쇠, -으시옵닉, -ᄉᆞ오리/오리, -ᄉᆞ외/외, -옵게, -옵데, -옵도쇠, -옵시데, -옵시닉, -옵닉
	하소서체	-ᄉᆞ와이다, -오니이다, -오이다, -옵거이다, -옵도소이다, -옵ᄂᆞ이다, -으이다, -을소이다, -지이다

의문법	하라체	-으냐, -으뇨, -으니, -으랴, -으리, -으리오, -은가, -은고, -은다, -을가, -을고, -을다, -이여
	하소체	
	하옵소체	-ᄉᆞ오리, -ᄉᆞ오시거냐, -옵시거뇨, -옵신가, -옵신고, -옵실가, -옵실고, -은가, -은고, -을가, -을고
	하소서체	-(옵시ᄂᆞ)니잇가, -(옵시ᄂᆞ)니잇고, -(옵시)리잇가, -(옵시)리잇고, -으잇가, -으잇고
명령법	하라체	-고라, -고려, -과댜, -아, -으라
	하소체	-소/오
	하옵소체	-과댜, -숩소, -으시, -으시소
	하소서체	-으쇼셔, -옵쇼셔
청유법	하라체	-쟈
	하소체	
	하옵소체	-옵새
	하소서체	-사이다, -ᄋᆞ새이다
약속법	하라체	-오마, -으마,
	하소체	
	하옵소체	옴새
	하소서체	

<표 33> 근대국어 종결어미 목록(이유기, 2001)

이유기(2001)에서는 이기갑(1978), 김정수(1984)에 비해서는 약속법을 하나 더 설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장경희(1977)에 비해서는 피임법과 약속법을 더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유기(2001)의 약속법에서의 '-오마', '-옴새', '-으마' 등의 종결어미는

이기갑(1978)과 장경희(1977)에서 서술법에 넣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서술법 종결어미로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유법을 설정하지 않는 장경희(1977)는 '-쟈'를 서술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기갑(1978), 김정수(1984), 이유기(2001)에서는 이를 청유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 이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쟈'를 청유법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들 간의 의향법 등분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간의 종결어미 분류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일 수가 있다.

서술법	-거다, -게라, -고나/괴야, -고야, -과댜, -과라, -ᄂᆞ다 -ᄂᆡ, -다/라, -더라, -데, -도다, -ㄹ샤/ㄹ셔, -ㅅ다, -ᄉᆞ오리/오리, -ᄉᆞ와이다, -ᄉᆞ외/외, -새, -소라, -시다, -(도)쇠, -ᄯᆞ냐, -아/어, -아다, -알, -ᄋᆞᆸ거이다, -ᄋᆞᆸ게, -ᄋᆞᆸ데, -ᄋᆞᆸᄂᆡ, -ᄋᆞᆸᄂᆞ이다, -애라, -야/여, -엇다, -오니이다, -오라, -오리, -오이다, -올쇠, -외, -으니, -으롸, -으리, -으리라, -으마, -으시ᄋᆞᆸᄂᆡ, -으이, -으이다, -은다, -을다, -을돠, -을샤, -을셔, -을소이다, -음새, -ᄋᆞᆸ도소이다, -ᄋᆞᆸ도쇠, -ᄋᆞᆸ새, -ᄋᆞᆸ시데, -ᄋᆞᆸ시ᄂᆡ, -웅이다, -의 -이, -지라, -지이다
의문법	-가, -고, -냐, -뇨, -니, -다, -라, -랴, -료, -리, -리오, -ᄉᆞ오시거냐, -ᄉᆞ오리, -ᄉᆞᆸ…의, -ᄯᆞ녀/ᄯᆞ냐, -ᄉᆞ올가, -(ᄋᆞᆸ시)리잇가, -(ᄋᆞᆸ시)리잇고, -(ᄋᆞᆸ시)거뇨, -(ᄋᆞᆸ시ᄂᆞ)니잇가, -(ᄋᆞᆸ시ᄂᆞ), -잇고, -ᄋᆞᆸ신가, -ᄋᆞᆸ신고, -ᄋᆞᆸ실가, -ᄋᆞᆸ실고, -온가, -온고, -온다, -올고, -을가, -을고, -을다, -의, -이여, -잇가, -잇고
명령법	-고라, -고려, -과댜, -라, -ᄉᆞ오, -ᄉᆞ오쇼셔, -사이다, -ᄉᆞᆸ소, -ᄉᆞᆸ쇼셔, -새, -소/오, -쇼셔, -시소, -아, -ᄋᆞᆸ소, -ᄋᆞᆸ쇼셔, -으시
청유법	-사이다, -새, -의, -쟈, -쟈ᄉᆞ라, -ᄉᆞᆸ…의, -ᄋᆞ새이다, -ᄋᆞᆸ새

<표 34> 근대국어 종결어미 목록[통합-장경희(1977), 이기갑(1978), 김정수(1984), 이유기(2001)]

위의 <표 34>는 근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개인 간의 분석상 편차나 자료상의 문제를 떠나서 분석결과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근대국어에 대한 의향법상의 종결어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지는 한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른 시대의 국어 종결어미 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별 종결어미 간의 변화에 대해 잘 밝혀 놓은 연구결과가 있다. 장윤희(1998)에서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 그리고 17세기 국어 간의 종결어미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놓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18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와도 비교를 해보이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간의 비교를 장윤희(1998)의 연구로 대신하기로 한다.

의향법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서술법	-다	-다	-다	×
	-이	-이	-이	-ᄂᆡ, -데, -리, -쇠, -외
의문법	-녀/-뇨	-녀, -냐/-뇨	-냐/-뇨	×
	-려/-료	-려,-랴/-료	-라/-료(리오)	×
	×	×	-ㄹ소냐	×
	-ㄴ다, -ㄹ다	(-ㄴ다, -ㄹ다)	(-ㄴ다, -ㄹ다)	×
	-이	-니, -리	-니, -리	×
	-닛가, -릿가	-닛고, -릿고	×	×
	-니잇가.-니잇고	-니잇가/-니잇고	-니잇가-니잇고	×
	-리잇가/-리잇고	-리잇가/-리잇고	-리잇가/-리잇고	×
	-ㄴ가/-ㄴ고	-ㄴ가/-ㄴ고	-ㄴ가/-ㄴ고	×
	-ㄹ가/-ㄹ고	-ㄹ가/-ㄹ고	-ㄹ가/-ㄹ고, -ㄹ손가	×

의향법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명령법	-라	-라	-라	×
	×	-고	-고	×
	-고라, -고려	-고려	-고려	×
	×	(-소, -오)	-소, -오	×
	-어써	(-어써)	×	×
	-쇼셔	-쇼셔/슈셔	-쇼셔	×
청유법	-져	-져/쟈	-져/쟈	×
	-져라	-져라	-져라	×
	×	-새	-새	×
	-사이다	-사이다/-새이다	-사이다/-새이다	
감탄법	-ㄴ뎌	-ㄴ뎌/-ㄴ댜, * -ㄹ딘뎌	-ㄴ댜	×
	-ㄹ쎠	-ㄹ셔/ㄹ샤	-ㄹ셔/ㄹ샤	×
	-게라	-게라	-게라/어라	×
	×	-고녀/-고나	-고나	×
	×	-괴야/-고야	-괴야	×
허락법	×	×	×	-렴, -렴으나
약속법	-마	-마	-마	×
	×	-음새	-음새	×

의향법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소망법	-거지라	-거지라	-거지라	×
경계법	-셰라	-ㄹ셰라	×	×

<표 35> 근대국어 종결어미 시대별 비교 목록(장윤희, 1988)

위의 <표 35>에서 있어서 16세기와 17세기의 의문법에서 '-ㄴ다'와 '-ㄹ다'는 세력이 매우 약화된 종결어미가 된다. 그리고 명령법에서 17세기의'-어쎠'는 초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 종결어미이다. 명령법에서의 '-소, -오'는 16세기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명령종결어미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 나타난 경계법의 '-ㄹ셰라'의 경우 17세기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현대국어에서 연결어미의 성격이 강한 '-ㄹ세라'에 그 흔적을 남긴 종결어미이다. 감탄법에서 16세기의 '-ㄹ딘뎌'는 '-ㄹ진저'의 소급형이 된다. 한편, 서술법에 있어서 18세기의 '-닉, -데, -리, -쇠, -외'는 '-이'와 선어말어미의 통합체로서 이는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들이다.

이와 같이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종결어미에 따라 명맥 유지와 소멸 및 새로운 생성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세국어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과 소멸 그리고 생성을 계속하는 종결어미의 분석에 있어서 앞선 시대의 종결어미 변화와 이후 시기의 종결어미 변화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제3장부터는 이러한 종결어미의 변천과 지속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세국어의 종결어미가 이루는 어미의 결합 형태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이다.

3. 서술법 어미분석

서술법이란 청자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이, 청자에게 자기의 말을 해버리거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약속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법적 방법으로서(권재일, 1998. p.22) 한 문장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유형이다(남기심 · 고영근, 1993. p.343). 여기 제3장에서는 이러한 서술법의 종결어미에 대해 분석한다.

3.1. 일반적 종결어미

3.1.1. 동사어간+종결어미

3.1.1.1. '-다'

평서어미 '-다'는 15세기 국어 이래 지금의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이어오는 [-높임]의 대표적인 서술어미이다(권재일, 2005. p.25). 이는 어간에 직접 결합되기도 하며, 여러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다'는 계사의 어간 '이-'나 선어말어미 '-오/우', '-과-', '-니-', '-리-', '-더-'와 결합하면 '-라'로 교체된다(안병희 · 이광호, 1990. p.240). 그리고 현실법인 경우 형용사 및 '잇-', '없-', '이-'와 결합한다(권재일, 2005. p.25).

3.1.1.1.1. '어간+았/었/였+다'

권재일(2005, p.26)에서는 '-다'가 현대국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서술어미 형태이지만 초기 현대국어를 반영한 교과서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밝히고 있

다. 마찬가지로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도 동사어간과 직접 결합한 종결어미 '-다'와 같은 결합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다'는 '-엇-', '-엿-', '-얏-'과 같은 시제어미와도 결합한다(권재일, 2005. p.28).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1) 단형서사
   가. 병풍 뒤로 피ᄒᆞ엿다[녯젹에 우리나라에(제국신문, 1900. 2. 20)]
   나. 지난 밤에 류숙ᄒᆞ던 집안 쥬인의 가쟝을 죽엿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ᄅᆡ력(경향신문, 1908. 3. 27)]
   다. 더옥 잘 ᄒᆞ엿다[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다'가 과거시제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용례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찾아진다.

(2) 신소설
   가. 무슨소리가, 들리기로, 념녀가되야서, 그리ᄒᆞ얏다(귀의성, 2쪽)
   나. 네가잘못들엇다(빈상설, 55쪽)
   다. 죽을바에는 잘죽엇다[두견성(하), 94쪽]
   라. 일젼브터좀의론ᄒᆞᆯ일도잇기로편지를ᄒᆡ셔좀왓다가라고ᄒᆞ랴든ᄎᆞ에막왓스니잘되엿다[두견성(상), 116쪽]
   마. 요년아 네가인제도 늬가 너ᄒᆞᆫ번붓잡기에 졋먹든힘이 다들엇다(목단화, 22쪽)
   바. 네혼ᄉᆞ로인ᄒᆞ야 앗가까지근심을ᄒᆞ엿거니와 이제는아모걱정업시되얏다(안의성, 23쪽)

종결어미가 과거시제선어말어미와 결합됨에 있어서 어간인 동사가 반드시 본동사

이지만은 않다. 어간이 보조동사인 경우도 있는데 다음에 보이는 '단형서사' 구문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3) 단형서사

네 부친을 먼 길을 가셔 아즉 도라 오지 안엇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3)]

(3)의 구문에서 보이는 '오다'는 '않다'의 보조동사이다. 위 구문에서 '오다'의 어간 '오-'의 뒤에는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이 오고 이에 다시 종결어미 '-다'가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신소설'의 구문에서도 찾아진다.

(4) 신소설

이 경칠년 네말듯다가 나못살게되엿다(명월정, 109쪽)

위 (4)의 구문은 '신소설'인 '명월정'에서의 보이는 것으로서 이 구문에서의 '되다' 역시 '살다'의 보조동사이다. 위 구문에서 보조동사 '되다'의 어간 '되-'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되고 이에 다시 종결어미 '-다'와 결합되고 있다. 따라서 '어간+과거시제선어말어미+다'의 구조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찾아지는 구조이다.

3.1.1.1.2. '어간+겠+다'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겟-', '-깃-', '-갯-'과도 결합을 하는데(권재일, 2005. p.28) 아래의 '단형서사' 구문이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5) 단형서사

가. 길도 멀고 쥬막도 싀원찬아 요긔홀 것이 잇슬는지 모로겟다[친구 심방ᄒᆞ다

가 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0)]

나. 지금이라도 나라이 되야면 명분이 분명히 세워야 되겟다[엇던 지상 훈분이 (제국신문, 1898. 11. 29)]

다. 맛당이 사롬을 잡아 빌어야 ᄒᆞ겟다[녯적 은나라 탕군님 ᄯᅢ에(제국신문, 1899. 12. 7)]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된 종결어미 '-다'의 구조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6) 신소설

가. 너먹는것을보아야니가먹지너안이먹으면ᄂᆞ도안이먹겟다(구마검, 70쪽)

나. 네가잘싱각히셔 두가지즁에확정을ᄒᆞ면 니가젹이시름을 잇깃다(안의성, 17쪽)

다. 김상현이놈에 집의가셔 고늙은년과상현이룰 ᄒᆞᆫ쥬먹에 ᄡᅥ려쥭이고오겟다(안의성, 111쪽)

라. 며누리 져ᄋᆡ로위경을 지닉게ᄒᆞᆫ 네아비모양은 무엇이 되얏는지 몰으겟다[치악산(하), 109쪽]

마. 니 길이 아모리 총총ᄒᆞ더릭도 어듸 좀 니려가보겟다(화세계, 35쪽)

바. 엇더턴지 강변으로 ᄯᅳ어닉여다노코 이근동사롬과 의론을ᄒᆞ야 먼가릭 밥으로라도 깁숙이 뭇어나쥬겟다(화세계, 36쪽)

따라서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된 종결어미 '-다'의 구조도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된 종결어미 '-다'의 구조와 함께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된 구조가 된다.

3.1.1.1.3. '어간+으리+다'

추측을 하거나 의도 또는 의지 따위를 나타내는 예스러운 표현의 선어말어미로는 '-으리-'가 있다.[6] 종결어미 '-다'는 이 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의 어미는 '신소설' 구문에서 볼 수 있다.

(7) 신소설

가. 여보복바드리다(귀의성, 95쪽)

나. 그ᄉᆞ롬이 못밋겟거던 계약이라도 밧으리다(금강문, 41쪽)

다. 져도 과히는 고집ᄒᆞ지 안으리다(금강문, 73쪽)

라. 발업는말이 천리를간다고 혹시 그 말이 아쥬머니귀에 드러가거던 ᄂᆡ가 말막으리다(재봉춘, 97쪽)

그러나 (7)에서와 같은 '어간+으리+다'의 구조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으리+다'의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된 형태임이 확인된다.

3.1.1.1.4. '어간+ㄴ/는다'

현대국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술어미 형태인 '-ㄴ/는다'는(권재일, 2005. p.26) 중세국어에서 '-ᄂᆞ다'로 나타난다. 이들 '-ㄴ다'와 '-는다'는 현실법인 경우 동사와 결합한다(권재일, 2005. p.25).[7] 때문에 다음의 '단형서사' 구문에서도 '-ㄴ/는다'는 동사어간과 결합된 구조로 쓰이고 있다.[8] 한편, 이의 '-ㄴ(은)-'에 대해서 허웅(1989, p.149)은 확정의 때매김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는(ᄂᆞᆫ)-'의 경우에는 '-ㄴ(은)-'이 가지는 확정의 때매김 뜻이 없어지고 '-느(ᄂᆞ)-'만이 현실의 때매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ㄴ/는다'가 어간과 결합한

6) 김형철(1997, 334)에서는 '-으리-'를 추측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7) 고영근(1981, p.8)에서는 '-(으)ㄴ다'를 관형사형 '-(으)ㄴ'과 첨사 '-다'의 통합구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8) '-는다'는 '-ᄂᆞᆫ다'의 변이 표기 또는 새로운 표기이다(권재일, 2005. p25).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8) 단형서사

가. 특별ᄒᆞᆫ 샹으로 네 특별ᄒᆞᆫ 션공을 표ᄒᆞᆫ다[쇠가 무거우냐 새 깃이 무거우냐 (경향신문, 1907. 11. 15)]

나. 쓰와잇아 네게 돈줄 사ᄅᆞᆷ이 여긔 온다[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다. 내 ᄉᆡᆼ각에는 물고기 잡는 사ᄅᆞᆷ을 ᄲᅢ셔 ᄉᆞ도되게 ᄒᆞᆫ 거슨 좀 셥셥ᄒᆞᆫ줄노 녁인다[조곰 어그러지는 밋음(그리스도신문, 1901. 5. 30)]

마찬가지로 '어간+ㄴ/는다'의 어미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진다. 아래의 예문은 모두 '신소설' 구문으로서 '어간+ㄴ/는다'의 어미구성이 쓰이고 있다.

(9) 신소설

가. 망측시러운 말도ᄒᆞᆫ다(빈상설, 68쪽)

나. 그말 잘도쒼다(비행선, 4쪽)

다. 그ᄉᆞ람 말도 잘탄다(비행선, 4쪽)

라. 엇더케 알아 나는몰은다(비행선, 23쪽)

마. 너의어머니 마음만 더상ᄒᆞᆯ터이니 어셔가자 ᄇᆡ가써는다(세검정, 57쪽)

바. 남편을공경ᄒᆞ야 일가의화긔롤직혀셔 무궁ᄒᆞᆫ힝복 밧기를바란다(안의성, 38쪽)

사. 셰월이잘도간다(안의성, 115쪽)

아. 젹고만코 나는말아니ᄒᆞᆫ다(재봉춘, 77쪽)

자. 부인이되얏스닛가 몸도귀히되고 마음도 편히지닐쥴 알앗더니 지금은 후회가 뎌단히된다(재봉춘, 120쪽)

차. 뒤ㅅ들에셔 이상헌소리가 나셔 그리ᄒᆞᆫ다(추천명월, 114쪽)

카. 그런 괴이ᄒᆞᆫ술법에 고혹ᄒᆞᆯ 것은 안이온다[치악산(하), 100쪽]

타. 아이구 나는모르겟다 죽고사는것을 너만밋는다(화중화, 26쪽)

파. 간밤에 ᄭᅮᆷ자리가 뒤숭 ᄒᆞ더니 괴악ᄒᆞᆫ년의 슈작을 다듯는다(화의혈, 93쪽)

하. 요년아 누가듯는다(목단화, 37쪽)

이처럼 '어간+ㄴ/는다'의 어미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이들 자료에서 생산적으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3.1.1.1.5. '어간+시/으시+ㄴ다'

선어말어미 '-시-'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간과 결합한다. 따라서 '어간+ㄴ다'의 구조인 경우에는 '어간+시/으시+ㄴ다'의 구조가 된다. 앞의 '3.1.1.4'에서 '어간+ㄴ/는다' 구조가 '단형서사'에서 쓰이고 있음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어간+시/으시+ㄴ다'의 구조 역시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단형서사

가. 사ᄅᆞᆷ의 손으로 지은 뎐에 계시지 아니ᄒᆞ신다[아셰아 셔편에(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3. 9)]

나. 이제 새 셔방님ᄭᅴ셔 오신다[용ᄆᆡᆼᄒᆞᆫ 장ᄉᆞ 김장군(경향신문, 1909. 5. 14)]

위의 구문에서 보인 어미구성은 '단형서사'뿐만 아니라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11) 신소설

가. 이ᄋᆡ ᄲᅬ놈이 거긔잇늬 마마님ᄭᅴ셔 부르신다[구의산(상), 51쪽]

나. 이아 정ᄋᆡ야 너의아바지오신다 (금의쟁성, 50쪽)

다. 아이고어머니가드러오신다[두견성(상), 36쪽]

라. 이놈들아 하ᄂᆞ님이 보신다(명월정, 55쪽)

마. 별로 그런 사ᄅᆞᆷ은 업지마ᄂᆞᆫ 네게ᄂᆞᆫ 륙ᄃᆡ조가되신다(원앙도, 15쪽)

바. 어머니ᄭᅴ셔 기다리신다(재봉춘, 188쪽)

사. 마님게셔 벌서이러나셰셔 깃침ᄒᆞ신다(추천명월, 35쪽)

아. 허허 너의댁 령감은 ᄶᅡᆨᄒᆞᆫ말삼도 만히ᄒᆞ신다[치악산(상), 55쪽]

따라서 '어간+ㄴ/는다' 어미구성과 더불어 '어간+시/으시+ㄴ다'도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2. '-ㄹ라'

'-ㄹ라'는 어떠한 염려됨을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이다.[9] 그런데 종결어미 '-ㄹ라'는 서술법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전혀 없다. '신소설'의 경우에는 쓰인 바가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단 한 번의 용례에서 그치고 있다.

(12) 신소설

한쥬먹에마저뒤여질라(귀의성, 30쪽)

따라서 종결어미 '-ㄹ라'는 개화기의 작품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종결어미였음이 확인된다.

9) 고영근(1997, p.346)에서는 '-ㄹ라'를 경계형 어미로 부르고, 중세국어의 '-ㄹ쎄라/셰라'를 이와 비슷한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로 보았다.

3.1.1.3. '-노라'

주로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에 쓰이는 종결어미 '-노라'는(권재일, 2005. p.52)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말하거나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선언하거나 공포할 때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다. '-노라'의 '-노-'는 '-ᄂᆞ-'에 '-오-'가 녹아 붙은 것이다(김형철, 1997. p.323). 이러한 '-노라'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찾아진다.

3.1.1.3.1. '어간+노라'

종결어미 '-노라'가 동사의 어간에 바로 결합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3) 단형서사

가. 비록 十싱九ᄉᆞ홀지라도 밍셰코 ᄒᆞ고자 ᄒᆞ노라[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나. 우리 대한 국ᄉᆞ를 슬허ᄒᆞ노라[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다. 잠간 잇셔 텬명에 픔ᄒᆞᆫ 후 명령을 기ᄃᆞ림이 가ᄒᆞᆯ가 ᄒᆞ노라[디구셩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8. 1)]

라. ᄌᆞ셰히 알지도 못ᄒᆞ노라[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8)]

마. 일즉 부모를 여희고 또 강근ᄒᆞᆫ 친쳑이 업서 ᄉᆞ방으로 류리ᄒᆞ야 단이노라[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5)]

바. 이곳으로 살너왓스니 여러분은 구제ᄒᆞ기를 바라노라[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8)]

사. 됴흔 실과 맺기를 ᄀᆞᆫ절히 ᄇᆞ라노라[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롤 졉붓치는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아. 무삼 말이던지 듯기롤 원ᄒᆞ노라[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10. 4)]

자. 그 죠집을 어디 쓸 소용인지 알 슈 업서 갑갑히 지닉노라[거부오해(대한매

일신보, 1906. 2. 22)]

차. 나ᄂᆞᆫ 집으로 가노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카. ᄇᆡᆨ셩을 칙망ᄒᆞ지 말고 졍부에셔 발은 일믄 ᄒᆞ기를 ᄇᆞ라노라[공동회에 ᄃᆡᄒᆞᆫ 문답(독립신문, 1898. 12. 28)]

타. 다만 고향에 도라가 늙은 몸을 편히나 잇다가 죽기를 ᄇᆞ라노라[벼슬 구ᄒᆞᄂᆞᆫ 쟈여(대한매일신보, 1907. 12. 14)]

파. 그ᄃᆡᄂᆞᆫ ᄂᆡ의 말을 듯기를 바라노라[호토상탄 여우와 토끼가 셔ᄅᆞ 싱키다(매일신문, 1898. 9. 23)]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종결어미 ‘-노라’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유형이 널리 쓰이고 있었다.

(14) 신소설

가. ᄂᆡ라도 도을 만ᄒᆞᆫ 일이 잇슬진ᄃᆡ 진력ᄒᆞᆯ지니 듯기를원ᄒᆞ노라(설중매, 16-17쪽)

나. ᄎᆞᆷ ᄭᆞᆸ으리고 펴지못ᄒᆞᆯ 쟝본인ᄌᆞᆯ 아노라(경세종, 42-43쪽)

다. 이몸은항쳔으로가더ᄅᆡ도, 령감의정표ᄂᆞᆫ, ᄂᆡ몸에, 가지고가노라(귀의성, 39쪽)

라. 나ᄂᆞᆫ 쥭더라도 ᄂᆡ집 일은 자ᄂᆡ의게 부탁ᄒᆞ노라(몽조, 23쪽)

마. 여러분 오ᄂᆞᆯ날부터 이네조목을 쥬의ᄒᆞ야 쟝ᄅᆡ에 ᄂᆞᆯ이져물고 길이면 한탄이 업게ᄒᆞᆷ을 바라노라(설중매, 12쪽)

바. 오ᄂᆞᆯ날 형편을보면 쟝ᄅᆡ사회가 엇지될는지 듯기를원ᄒᆞ노라(설중매, 21쪽)

현대국어에서는 종결어미 ‘-노라’가 일상 대화체에서 전연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왕성한 사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화기 소설의 대화체가 아직 완전한 대화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어체의 잔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과는 달리 '-노라'가 실제로 대화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1.1.3.2. '어간+았/었/였+노라'

종결어미 '-노라'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았/었/였+노라' 형태의 어미를 구성한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 역시 '어간+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단형서사

가. 네의 ᄉᆡᆼ각을 내가 알고 ᄯᅳ라왓노라[머사현몽(그리스도신문, 1901. 8. 29)]

나. 너 잇술 곳을 예비ᄒᆞ엿노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다. 직업이 잇셔야 가ᄒᆞᆫ 쥴을 알앗노라[엇더ᄒᆞᆫ 션비가(제국신문, 1899. 10. 23)]

라. 용ᄆᆡᆼᄒᆞᆷ을 듯고 사외를 삼앗노라[용ᄆᆡᆼᄒᆞᆫ 장ᄉᆞ 김장군(경향신문, 1909. 5. 14)]

마. 나ᄂᆞᆫ 이엇을 보고 동류의 셔로 구원ᄒᆞᆷ을 깁히 감동ᄒᆞ엿노라[금슈의 말(대한매일신보, 1908. 5. 2)]

(15)에서와 같이 '-노라'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16) 신소설

가. 나ᄂᆞᆫ언의계집이 왓던지 부인이 왓던지 자세히 녁여보지도 아니ᄒᆞ엿노라(설중매, 15-16쪽)

나. 편지에 별말ᄒᆞᆫ바ᄂᆞᆫ업고 문젼쳘의 부탁ᄒᆞ던셔칙을 샤두고 통긔ᄒᆞ엿노라(설중매, 29쪽)

다. 나도 니야기홀 문데 ᄒᆞ나를 ᄉᆡᆼ각ᄒᆞ엿노라(경세종, 49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노라’ 유형의 어미도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1.3.3. ‘어간+겠+노라’

종결어미 ‘-노라’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어미 유형이 찾아진다.

(17) 단형서사

가. 교육이니 ᄒᆞᄂᆞᆫ 문구를 말홀진ᄃᆡ 춤아 붓그러워 말을 못ᄒᆞ겟노라[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30)]

나. 잠간 소관이 잇셔 어ᄃᆡ를 단여 오깃노라[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4)]

다. 내가 더욱 너를 ᄉᆞ랑ᄒᆞ겟노라[ᄉᆞ랑ᄒᆞᄂᆞᆫ 거시 사ᄅᆞᆷ을 감복케 홈(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5. 25.)]

라. 아바지ᄭᅴ셔 알으시고 무르면 모로노라고 ᄃᆡ답지ᄂᆞᆫ 못ᄒᆞ겟노라[부모가 ᄌᆞ식 ᄉᆞ랑ᄒᆞᆫ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마. 내가 아니 가겟노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바. 내 그러ᄒᆞ면 릭일 아ᄎᆷ 붉을 ᄯᅢ에 가겟노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사. 나ᄂᆞᆫ 집에셔 뎜심을 잘 예비ᄒᆞ고 기ᄃᆞ리겟노라[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아. 님군과 우리 동포 형뎨를 위ᄒᆞ야 죽어볼 ᄆᆞ옴을 기르겟노라[일젼에 엇더ᄒᆞᆫ 대한 신ᄉᆞ ᄒᆞ나이(독립신문, 1898. 1. 8)]

자. 내가 만일 그 슈박 슈ᄃᆡ롤 엇으면 대단히 즐거워 ᄒᆞ겟노라[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차. 나라 흥망을 도라 보와 열심으로 막을 계칙을 ᄒᆞᄀᆡᆺ노라[당파(매일신문, 1899. 5. 20)]

위 (17)에서 보듯이 ‘어간+겠+노라’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상당히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단 두 개의 용례만 보이고 있어 대조된다.

(18) 신소설

가. 나도오라지 안이ᄒᆞ여 집으로 도라가겟노라(원앙도, 67쪽)

나. 그ᄉᆞᄅᆞᆷ과 ᄃᆡ면을식여쥬면 그진위를알ᄀᆡᆺ노라(안의성, 171쪽)

하지만 ‘어간+겠+노라’의 유형 역시 ‘신소설’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종결어미 ‘-노라’는 어느 유형의 어미 구성이든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4. ‘-리/으리라’

종결어미 ‘-리/으리라’는 추측 또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단형서사’에서는 ‘-리/으리라’가 어간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 단형서사

가. 네 수 일만 더 잇ᄉᆞ면 집에 가리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나. 네가 간 후에라도 모듸거져로 ᄒᆞ여곰 일식히기ᄅᆞᆯ 너 잇ᄉᆞᆯ ᄣᆡᄌᆞᆺ치 ᄒᆞᆯ것 ᄌᆞᆺ ᄒᆞ면 허락ᄒᆞ여 주리라[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ᄒᆞᆷ(그리스도신문,

1902. 2. 15)]

다. 네 목숨은 살지 못ᄒᆞ리라[사ᄅᆞᆷ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어간+리/으리라'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0) 신소설

가. 이놈들무엇이라고힛다는한ᄆᆡ에쥭으리라(구마검, 52쪽)

나. ᄒᆞᆫ마ᄃᆡ라도 긔망ᄒᆞ면 쥭고남지못ᄒᆞ리라(화중화, 37쪽)

다. 네가자 근앗씨를 그럿케아랏다가는 낭패ᄒᆞ리라[치악산(상), 84쪽]

라. 네가 만일 괴이ᄒᆞᆫ 슐법으로 ᄂᆡ게 시험을 ᄒᆞ랴들다가는 너몬져 륙혈포에 쥭으리라(비행선, 130쪽)

마. 각하의힘을입으리라(철세계, 40쪽)

바. 당쟝내손에, 죽고남지못ᄒᆞ리라[홍도화(하), 107쪽]

그러나 종결어미 '-리/으리라'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됨에도 불구하고 '어간+과거선어말어미+리/으리라'와 같은 형태의 어미는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1.1.5. '-느니라'

종결어미 '-느니라'는 종결어미 '-느니'에 또 다른 종결어미 '-라'가 결합된 형태이다.[10] 한길(2004, p.428)은 '-느니라'가 '-느니+라'로 분석되지만 이들은 한 몸처럼

10) 한길(2004, p.427~428 주석32)에서는 아래의 예문을 예로 들어 '-느니'가 안맺음씨끝 외에 마

굳어져 마침씨끝으로 말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종결어미 '-느니라'에 있어서 이의 의미는 '-느니'와 동일하게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일러주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는 '있다'나 '없다' 또는 '계시다'의 어간이나 '-았/었/였-', '-겠-', '-으시-' 등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한다.

3.1.1.5.1. '어간+느니라'

종결어미 '-느니라'는 어간과 결합되는데 이 예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찾아진다.

(21) 단형서사

가. 어미를 좃다가 풀을 먹을 줄 안 후에는 그 어미도 이져ᄇᆞ리ᄂᆞ니라[부ᄌᆞ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나. 갑돌아 갑돌아 정월 쵸ᄒᆞ로ᄂᆞᆯ은 그럿케 조로지 아니ᄒᆞᄂᆞ니라[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다. ᄉᆡᆼ명의 근원이 되시ᄂᆞᆫ 줄ᄭᆞ지 아ᄂᆞ니라[부ᄌᆞ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라. 그 사ᄅᆞᆷ은 이 동리에 처음으로 온 ᄋᆞ희의게 일젼식을 주ᄂᆞ니라[무ᄃᆡ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마. 오직 범ᄀᆞᆺᄒᆞᆫ ᄃᆡ젹을 맛ᄂᆞᆫ즉 걱정이 되ᄂᆞ니라[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션비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0. 12.)]

침씨끝의 기능도 담당함을 보이고 있다.

ㄱ. 양반의 집에서 그럴 수는 없**느니라**.
ㄴ. 양반의 집에서 그럴 수는 없**느니**.

즉, 위의 예문에서 'ㄱ'은 아주낮춤에 해당하고, 'ㄴ'은 예사낮춤에 해당하므로 '-느니' 자체가 마침씨끝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느니라'를 두 개의 마침씨끝 '-느니'와 '-라'의 결합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그 토디를 확쟝ᄒᆞᄂᆞᆫ 거스로 목뎍을 숨ᄂᆞ니라[ᄀᆡᆨ창문답(대한매일신보, 1908. 11. 18)]

종결어미 '-느니'가 '단형서사'에서는 단 한 차례 쓰였음에 반해 종결어미 '-느니라'는 위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다음 (22)에서와 같이 그 용례가 나타난다.

(22) 신소설

가. 계집이사흘을, ᄆᆡ를ᄋᆞ니마지면, 여우되ᄂᆞ니라(귀의성, 30쪽)

나. 량반이 감옥맛을 안이보면 못쓰ᄂᆞ니라(화의혈, 80쪽)

다. 쥭으면못먹ᄂᆞ니라[치악산(상), 170쪽]

라. 권도라 ᄒᆞᄂᆞᆫ것이 이런ᄣᅢ 쓰ᄂᆞ니라(원앙도, 90쪽)

마. 암만정직ᄒᆞᆫᄉᆞ람도 혼인즁ᄆᆡᄒᆞ랴면 거짓말반은ᄒᆞᄂᆞ니라(안의성, 27쪽)

따라서 현대국어에서는 '-느니'나 '-느니라' 둘 다 대화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느니'에 비해 '-느니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던 종결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1.5.2. '어간+았/었/였+느니라'

종결어미 '-느니라'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 역시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23) 단형서사

가. 홍슈 ᄯᅢ에 니ᄅᆞ러 파샹ᄒᆞ엿ᄂᆞ니라[머사현몽(그리스도신문, 1901. 9. 5)]

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오년 이후로 녯적 악형은 다 바리고 새로 법률을 경

쟝ᄒᆞ며 리국편민ᄒᆞᆯ 일을 만히 마련ᄒᆞ엿ᄂᆞ니라[외양 죠흔 은궤(독립신문, 1899. 6. 9)]

다. 이 우물을 돌노 덥허 아모 사ᄅᆞᆷ도 마시지 못ᄒᆞ게 ᄒᆞ엿ᄂᆞ니라[일쟝츈몽(독립신문, 1899. 7. 7)]

라. 정부에셔 이 쉼물을 막아 사ᄅᆞᆷ으로 먹지 못ᄒᆞ게 ᄒᆞ엿ᄂᆞ니라.[일쟝츈몽(독립신문, 1899. 7. 7)].

마. 정부에셔 이 구멍을 막아 들에 잇ᄂᆞᆫ 풀노 ᄒᆞ여금 임의ᄃᆡ로 ᄌᆞ라게 ᄒᆞ엿ᄂᆞ니라[일쟝츈몽(독립신문, 1899. 7. 7)]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와는 달리 오직 하나의 용례만 볼 수 있다.

(24) 신소설

거ᄂᆞ린바-되엿ᄂᆞ니라(셩산명경, 161쪽)

'셩산명경'이 1909년도에 발행된 '신소설'이므로 1909년 이후에는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종결어미 '-느니라'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동사어간과 결합한 형태인 '어간+느니라'는 1914년도에 발행된 최찬식의 '안의성'에서도 보이고 있으므로 어간과 결합한 형태의 '-느니라'는 1909년 이후에도 여전히 쓰였지만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의 '-느니라'는 이와 달리 전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종결어미 '-느니라'가 대화체의 쓰임에서 쇠퇴할 때에 모든 형태의 어미 구성이 일시에 쇠퇴한 것이 아니라 형태 별로 따로따로 쇠퇴해 갔음이 드러난다. 즉, 종결어미 '-느니라'의 경우 '어간+느니라'보다는 '어간+았/었/였+느니라'의 어미 구성이 먼저 쇠퇴하여 대화체에서 그 쓰임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간+겠+느니라'이 경우는 '어간+았/었/였+느니라'보다 더 일찍 대화체에

서 쇠퇴하여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간에 일절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간+겠+느니라' 형태의 어미 구성은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대화체에서 자취를 감춘 유형의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1.5.3.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

종결어미 '-느니라'는 '어간+았/었/였+느니라' 외에 존대선어말어미를 이에 더 넣어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의 구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의 어미 역시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두 개에 그치고 있다.

(25) 단형서사

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실시ᄒᆞ셧ᄂᆞ니라[외양 죠흔 은궤(독립신문, 1899. 6. 9)]

나. 뎌ㅣ 너를 위ᄒᆞ여 도라가셧ᄂᆞ니라[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그러나 '신소설'의 경우에는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 구성의 어미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의 어미는 '어간+았/었/였+느니라'에 비해 보다 더 일찍 대화체에서 자취를 감추었음을 알 수 있다.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 구성의 어미가 1901년도에 발행된 '그리스도신문'의 '무듸ᄉᆞ젹'을 끝으로 본고의 자료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는 1901년도 이후에 대화체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 어미 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간+았/었/였+느니라'가 1909년의 '안의성'을 끝으로 자료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는 이보다 더 일찍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게 된 어미 구성이 된다.

3.1.1.6. '-걸'

'-걸'은 현재의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경우 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반박이나 감탄 또는 후회의 뜻을 나타내며 혼잣말에도 쓰인다. 종결어미 '-걸'은 어간에 직접 결합되는 예는 없고 '-ㄴ걸'이나 '-는걸' 또는 '-은걸'의 형태로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와 결합된다.[11] 그리고 '-ㄹ걸'은 어간하고만 결합한다.

3.1.1.6.1. '어간+ㄴ/는/은걸'

'-ㄴ/는/은걸'은 전달하는 명제 내용에 대해 그 정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 종결어미로서(윤석민, 2000. p.122 참조) 이의 종결어미가 동사어간에 결합된 예는 '단형서사'의 경우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26) 신소설

가. 그ᄅᆡ우리집우환이산화로그러ᄒᆡ그말이어지간ᄒᆞ기ᄂᆞᆫᄒᆞᆫ걸(구마검, 35쪽)

나. 션초ᄀᆞᆺ치 연ᄒᆞ고 싹싹ᄒᆞᆫ사름을 나은 몃살안이되얏셔도 처음보ᄂᆞᆫ걸(화의혈, 78쪽)

다. ᄂᆡ역시 그러케아ᄂᆞᆫ걸[두견성(하), 52쪽]

라. 졔가 ᄯᅥᄂᆞᆯᄯᅢ에 상ᄒᆡ가셔 편지를 부치마더니 이ᄯᅢ가지 편지도 한장 아니오ᄂᆞᆫ 걸(금강문, 173쪽)

따라서 '-ㄴ/는/은걸'은 '단형서사'에 비해 보다 더 대화체로 쓴 '신소설'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종결어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걸'이 대화체이므로 아직은 문어체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대화체 종결어미를 쓰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

11) '-ㄴ/는/은걸'은 '-ㄴ/는/은 것을'의 준말이지만 준말 형태 그 자체로 하나의 종결어미가 되는 특이한 경우의 어미이다. '-ㄴ/는/은 것을'의 준말 형태인 '-ㄴ/는/은걸'은 종결어미가 되지만 이의 풀이 형태인 '-ㄴ/는/은 것을'은 종결어미가 되지 않는다.

3.1.1.6.2. '어간+ㄹ걸'

'-ㄹ걸'은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 같은 주관적인 정서를 담아 진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윤석민, 2000. p.139). 이러한 '-ㄹ걸'이 동사어간에 결합된 예는 '-ㄴ/는/은걸'이 결합된 경우와 달리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그 용례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에 불과하다.

(27) 단형서사

이 길이 멀지라도 다ᄅᆞᆫ 길노 나갓더면 이런 환난ᄅᆞᆯ 면ᄒᆞᆯ 걸[ᄌᆡ간 만ᄒᆞᆫ 도적 놈(경향신문, 1908. 2. 14)]

위 (27)에서 보이는 '어간+ㄹ걸' 유형의 어미는 '신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두 개만 찾아진다.

(28) 신소설

가. 만일무엇이라고 아가리를버리거던 경찰셔로 ᄭᅳᆯ고가셔 이ᄯᅡ위렴치업ᄂᆞᆫ것을 좀처치ᄒᆞ야 달나고ᄒᆞᆯ걸(재봉춘, 141쪽)

나. 내눈에 흙드러가기전에ᄂᆞᆫ 엇의좀두고 볼걸(화의혈, 70쪽)

이처럼 오늘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는 '-ㄹ걸'이 최근세국어 시기의 작품에서는 그 쓰임이 대단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ㄹ걸'은 개화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대화체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종결어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1.1.7. '-아/어/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가 반말로써 대우할 청자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인 '-아/어/야'는 서술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윤석민, 2000. p.119 참조). '어간+아/어/야'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찾아진다. 다만, '단형서사'에서는 두 개의 용례만 보인다.

(29) 단형서사

가. 쐬를 닉면 진평이 묘계가 잇는 듯ᄒᆞ야[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8)]

다. 나를 일고 살 먹이려거든 어서 ᄯᅥᆨ국을 쑤어 쥬어[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29)에서와 동일한 결합 형태의 종결어미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 신소설

가. 예편네들은, 아무것도모르면서, 집안에셔, 방정을ᄯᅥᆯ고잇스니, 될것도 아니되야(귀의성, 5쪽)

나. 요런쥭일놈보아(안의성, 111쪽)

다. 에그 뎌런말보아(산천초목, 24쪽)

라. 예-죠런 도담스러온년보아(산천초목, 39쪽)

그러므로 종결어미 '-아/어/야'와 '어간+아/어/야'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소설'에서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종결어미 '-아/어/야'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이의 종결어미가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작품에서 대화체에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1.1.8. '-지'

종결어미 '-지'는 바램이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김형철(1997, p.333)에서는 19세기에 해체로서의 '-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1.8.1. '어간+지'

종결어미 '-지'가 동사어간에 바로 결합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31) 단형서사

가. 그 빅셩들의 쇼원ᄒᆞᄂᆞᆫ 일이 잘 되여야 우리 병뎡들도 ᄎᆞᄎᆞ 잘 되야 가지 [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홍홍 아니 못 되지[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9)]

다. 나는 갑돌의게 졸려서 구리ᄒᆞ지[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라. 엇져고 엇져고 ᄭᅮᆷ여므 노면 되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마. 무엇이던지 돈 싱길 일을 허고 돈을 바라지[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26)]

바. 형갑을 세울 슈가 잇셔야 원 노릇슬 ᄒᆡ먹지[어늬 고을 원 ᄒᆞ나히(매일신문, 1898. 6. 13)]

마찬가지로 '어간+지'로 된 구성의 어미는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

다.

(32) 신소설

가. 사룸이 그러히야쓰지(화의혈, 24쪽)

나. 남의게 망신만 더되지(화세계, 32쪽)

다. 이약이를ᄒᆞ랴면 어ᄃᆡ던지 죵용이안저야 말를ᄒᆞ지(세검정, 5쪽)

라. 몸갑- 몸갑시 한륙천냥되지(세검정, 97쪽)

마. 형님은우숸소리도 툭ᄒᆞ면 잘ᄒᆞ지 하하하(산천초목, 15쪽)

따라서 동사어간에 종결어미 '-지'가 결합된 구성의 어미는 '단형서사' 및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8.2. '어간+았/었/였+지'

종결어미 '-지'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았/었/였+지'의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도 쓰였다.

(33) 단형서사

가. 됴흔 ᄉᆡᆼ각을 ᄒᆞ나 ᄒᆞ엿지[동전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나. 병뎡들이 그 외국 사룸의게 ᄆᆡ도 만히 마졋지[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다. 죵로에 나가면 ᄒᆞ로 셰 ᄭᅵ식 쟝국밥은 엇어 먹엇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라. 나는 년젼에 참 아슬아슬ᄒᆞᆫ 일도 보앗지[밤은 드러 삼경되여(대한매일신보, 1910. 1. 18)]

마. 됴흔 ᄉᆡᆼ각을 ᄒᆞ나 ᄒᆞ엿지[동전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어간+았/었/였+지’로 구성된 어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4) 신소설

가. 응 마누라ᄂᆞᆫ 죄ᄅᆞᆯ지여도 알뜰이잘지엿지[은세계, 26쪽]

나. 그형님이장가ᄒᆞᆫ번을잘못들더니것잡을식업시더모양으로망ᄒᆞ엿지(구마검, 59-60쪽)

다. 대관절우리형님이글너그러케되엿지(구마검, 60쪽)

라. 긔갈을 못견ᄃᆡ여 도야지나 먹ᄂᆞᆫ것을먹고 져 디경들이된것은 모로고 무정지칙을 홀번ᄒᆞ얏지(모란병, 10쪽)

마. 조거시 인물갑슬ᄒᆞ느라고 남의집을망ᄒᆞ엿지[치악산(상), 105쪽]

바. 내가 어림업시쇽고 소영ᄉᆞ만랑ᄑᆡ를ᄒᆞ얏지(화의혈, 31쪽)

따라서 종결어미 ‘-지’가 동사어간에 온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곧 이러한 어미 구성은 개화기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1.8.3. ‘어간+겠+지’

종결어미 ‘-지’는 ‘-았/었/였-’ 외에 ‘-겠-’과도 결합을 하여 ‘어간+겠+지’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구성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단, 이의 용례는 오직 하나만 찾아진다.

(35) 단형서사

시골 ᄇᆡᆨ셩이 되야 셔울 구경도 못ᄒᆞ고 죽으면 그역 한이 되겟지[어느 시골 친구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1. 2)]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와는 다르게 그 용례를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36) 신소설

가. ᄂᆡ가 ᄀᆡ갓거니 돗갓거니 제아비계집이오 제어미벌은되겟지(목단화, 11쪽)

나. 아모리 친척의 집일망정 남들이 알면 항여나 내가 엇지 ᄒᆞ여셔 그리 나보다ᄒᆞ겟지(명월정, 66쪽)

다. 제가소견이잇슬터이닛가 만나보겟지(금의쟁성, 13쪽)

라. 그만치 ᄭᅮ지졋스면 뎌도 조심을ᄒᆞ겟지[구의산(상), 4쪽]

‘신소설’은 ‘단형서사’에 비해 대화체가 발달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어간+겠+지’ 형태의 어미 구성은 ‘어간+았/었/였+지’로 구성된 결합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게 된 유형의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1.8.4. ‘어간+아야/어야+하+지’

종결어미 ‘-지’는 ‘어간+아야/어야+하+지’의 구성으로서 ‘어간+아야지/어야지’의 형태로도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있다.

(37) 신소설

가. 나도 ᄉᆡᆼ각이 나야지(송뢰금, 84쪽)

나. 어셔가 보아야지(재봉춘, 35쪽)

다. 차지ᄒᆞᆯ 사ᄅᆞᆷ 네마ᄋᆞᆷ에 드러야지(원앙도, 74쪽)

라. 흉흔누명을 뒤집어씌워야지(안의성, 111쪽)

마. 내게는 은인이라 이공속죄(以功贖罪)는 법에도 잇다ᄒᆞ니 제자의로 가는디 로수돈은 주어야지(명월정, 108쪽)

따라서 '어간+아야지/어야지'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체가 발달된 '신소설'에 들어와서야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3.1.1.9. '-네'

종결어미 '-네'는 어떠한 내용을 단순히 서술하는데 쓰이거나 감탄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혼잣말에도 쓰이는 종결어미 '-네'는 막상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태엽(2001, p.228~229)은 '-네'가 문장의 명제 내용을 새로 알게 됨을 나타내거나 문장의 명제 내용을 청자에게 알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권재일(2005, p.54)에서는 서술어미 '-네'가 20세기 초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운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나 '신소설'과 같은 소설류의 대화체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3.1.1.9.1. '어간+네'

종결어미 '-네'는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네'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38) 단형서사

가. 긔가 탁 막혀 말이 아니 나오네[병명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그 량반의 친구가 여긔 셔 오 리 쯤 되는 아모 동닉 김싱원 현명씨 집으로 가네[친구 심방ᄒᆞ다가 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다. 앗다 그사룸 말은 시원이 ᄒ네[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라. 말허면 긔가 막히네[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7)]

마. 이 사룸 자네는 다리가 병신이라 허되 돌아단이면셔 소문을 쐴니 듯네[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9)]

마찬가지로 '어간+네'의 유형은 아래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9) 신소설

가. 나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옴기게 되야 명일 상히로 떠나는 터인고로 이 말이나 ᄒ고 작별겸 왓다가 이 말을 드르니 긔가 막히네(송뢰금, 84쪽)

나. 허 참 곤란은 몹시도 한 곳에 모히네(송뢰금, 84쪽)

다. 허 허 그냥반 일너드려도 그리ᄒ네(화중화, 6쪽)

라. 벌셔 뎌긔를 넘어가네(화세계, 17쪽)

따라서 종결어미 '-네'가 동사어간에 바로 결합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는 '-네'가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1.9.2. '어간+았/었/였+네'

종결어미 '-네'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았/었/였+네'의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0) 단형서사

가. 어이 다 풀앗너[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춤 큰 욕 보앗네[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21)]

다. 그러치마는 편진ᄉ의 덕이 쇼뎌쟝을 축츌ᄒ엿네[군ᄉ련습 시에 살인 력력(경향신문, 1908. 3. 27)]

라. 쳥전구물 몃 가지를 노코 돌잡이을 ᄒ얏네[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마. 나도 그 덕으로 근 ᄒᆞᆫ 돌이나 잘 먹엇네[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이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40)의 예문에서 보이는 어미의 구성과 동일한 형태의 어미를 찾아볼 수 있다.

(41) 신소설

가. 볼러, 자네, 눈우숩만ᄒ여도, 사람여럿굿칠즐아랏네(귀의성, 27쪽)

나. 어-운션인가 지금 막 ᄂᆡ려왓네(모란병, 48쪽)

다. ᄂᆡ가ᄌ네, 목소리를 듯고, 츈천마마를숩것네(귀의성, 34쪽)

라. 그, 의원을천거, ᄒ자고, 젼위ᄒ야, 나아왓네[홍도화(하), 99쪽]

마. 내가, 죽년겨울에, 지ᄂᆡ논길에, 자네짜님을잠ᄭᆞᆫ드러가보왓네(귀의성, 45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네'로 구성된 어미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1.9.3. '어간+겠+네'

종결어미 '-네'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어간+겠+네'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널리 쓰였다.

(42) 단형서사

가. 인제는 어서 가야 쓰겟네[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그러나 져러나 엇더케 마졋던지 굴신을 못ᄒᆞ겟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다. 내 말 드ᄅᆞ면 술밥을 슬컷 먹겟네[친구 심방ᄒᆞ다가 뵐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라. 우리가 팔ᄌᆞ 조하 정부 대신이 되엿슬진ᄃᆡ 그 부샹패들을 당쟝에 업시것네[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어간+겠+네’ 구성의 어미를 잘 보이고 있다.

(43) 신소설

가. 자ᄂᆡ말맛다나 옥츄경을 지독ᄒᆞ게 닑어 움도싹도 업게 갓우어 버리겟네(구마검, 5쪽)

나. 자네, ᄀᆞ, 이번에ᄂᆞᆫ, 셔울왓다가, 자미보깃네(귀의성, 45쪽)

다. ᄎᆞᄌᆞ오ᄂᆞᆫ길로 잔치질을ᄒᆞᆫ바탕잘히노아야 버르장이를 가라치겟네(모란병, 50쪽)

라. 나ᄂᆞᆫ 우연히 병이드러 암만히도 죽깃네(금강문, 21쪽)

마. 예셔부터ᄂᆞᆫ 산길이 ᄃᆡ단히 험ᄒᆞ니 등불이ᄂᆞ 켜가지고 셜 니가야 ᄒᆞ깃네(금강문, 112쪽)

그러므로 ‘어간+겠+네’의 유형도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1.1.10. '-느니'

'있다'나 '없다' 또는 '계시다'의 어간에 붙는 종결어미에는 '-느니'가 있다. '-느니'는 어떠한 사실이나 진리를 일러주는 뜻을 가지는 종결어미이다. 예사낮춤의 마침씨끝인 '-느니' 아주낮춤의 마침씨끝 '-느니라'에서 끝 음절이 삭제된 꼴로 보이지만 실은 '-느니' 자체가 '-느니라'와 높임의 정도에서 대립되는 마침씨끝이다(한길, 2004. p.310 참조). '-느니'는 나이 많은 성인인 말할이가 젊거나 어린 들을이에게 예스러운 말투로 당연한 사실이나 진리인 명제 내용을 예사낮춤으로 알린다는 의미적 특징을 갖는다(한길, 2004. p.311). 이러한 종결어미 '-느니'는 동사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았/었/였-', '-겠-', '-으시-' 등의 뒤에서 결합되지만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동사어간과 결합한 용례만 보이고 나머지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 (44)에서 보이는 종결어미 '-느니'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는 것으로서 '단형서사'에서는 아래의 용례 하나만 보이고 있다.

(44) 단형서사

무솜 일이든지 찬찬히ᄒᆞ면 십샹팔구가 잘 되ᄂᆞ니[직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6)]

종결어미 '-느니'는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었으나 그 용례는 다음 (45)에서 보듯이 단 두 개에 지나지 않는다.

(45) 신소설

가. 쥭ᄂᆞᆫ놈은 쥭거니와 사ᄂᆞᆫ놈은 사라야 ᄒᆞᄂᆞ니(은세계, 23쪽)

나. 나부터 완고이니 우리갓치 나만한 사룸은 하로밧비 쥭고업셔야 나라가 아니망ᄒᆞ느니[치악산(상), 54쪽]

따라서 종결어미 '-느니'는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간에 거의 쓰이지 않았던 종결어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느니'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잘 쓰이지 않는 종결어미였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1.11. '-이'

종결어미 '-이'는 평서법, 청유법, 약속법에만 쓰이고 의문법과 명령법에서는 쓰이지 않는다(이유기, 2001, p.40). 이 종결어미는 자신의 어떠한 생각한 바를 말할 때에 쓰인다. 이는 주로 '-보+이'나 '-더+이'로 쓰이며, '-보+이'는 '-베'의 형태로, '-더+이'는 '-데'의 형태로 축약되어 쓰인다. '-보+이'의 경우 그대로 '-보이'의 형태로도 쓰이지만 '-더+이'의 경우에는 '-더이'로 쓰이는 일은 없고 반드시 이의 축약형인 '-데'의 형태로만 쓰인다.[12)]

3.1.1.11.1. '의문종결어미+보+이'

종결어미 '-이'는 '-보+이'의 형태로 쓰일 때 반드시 의문종결어미와 결합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 뜻은 평서문이어서 이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어미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의문종결어미의 앞에서 결합하는 어휘의 품사는 동사이다.

(46) 단형서사

소금이 이ᄉᆞ에 좀 올나셔 몃 원이나 리 되엿나베[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0. 18)]

---

12) '-(으)이'에 대해 서정목(1993, p.138, 1997, p.576)에서는 '-(으)이다'에서 '-다'가 절단된 후 나머지 '-(으)이'가 선행 요소와 융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문종결어미+보+이’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그러나 그 용례는 많지 않아 단지 세 개만 찾아진다.

(47) 신소설

가. 누구ᄂᆞᆫ모르ᄂᆞᆫ쥴아나베[치악산(상), 87쪽]

나. 여보게 아마 하ᄂᆞ님이 나를불상이녁이ᄉᆞ 자네를 지시ᄒᆞ야보너셧나보이[치악산(하), 16쪽]

다. 구덕이 무셔워 장못담으기로 남의말 무셔워셔 아모노릇도 못ᄒᆞ나베(산천초목, 21쪽)

‘의문종결어미+보+이’의 구성에 있어서 의문종결어미로는 ‘-나’ 외에 ‘-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의문종결어미 ‘-가’가 이의 구성에 쓰인 경우는 ‘신소설’에서 단 한 차례만 찾아질 뿐이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 대화체에 쓰이고 있는 ‘-베’가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대화체에 쓰이고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3.1.1.11.2. ‘어간+더+이’

‘-보+이’가 반드시 의문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반면 ‘-더+이’는 반드시 어간하고만 결합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더+이’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아래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48) 단형서사

가. 다른 사ᄅᆞᆷ들은 그러고도 잘ᄆᆞᆫ 되데[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나. 의복 속에만 두 놈이 불이 펄젹 나케 뒤여 보다가 돈이 업스닛가 그만 ᄇᆞ리고 가데[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1. 1)]

다. 그ᄅᆡ도 실셰ᄆᆞᆫ 되면 상쇼들 잘 ᄒᆞ데[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라. 그 ᄂᆡ각이 결단나닛가 역젹 쥭이자ᄂᆞᆫ 상쇼도 만코 복슈 ᄒᆞ자ᄂᆞᆫ 의론도 나

데[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이는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어간+더+이'의 형태로 된 어미 구성이 쓰이고 있다.

(49) 신소설

가. 불야 집을잡힌다셰간을 판다ᄒᆞ야 간신히 오ᄇᆡᆨ원을ᄒᆞ야쥬데(모란병, 89쪽)

나. 야만이커진 문명국사ᄅᆞᆷ은 악수례만 잘들ᄒᆞ데(추월색, 8쪽)

다. 내아는 사ᄅᆞᆷ즁에 남의쳡 되고져ᄒᆞᄂᆞᆫ 년이 잇스면 봇짐싸가지고 말니겟다 ᄒᆞ데(명월정, 12쪽)

따라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의문종결어미+보+이'와 더불어 '어간+더+이' 형태의 어미 구성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더+이'의 축약형인 '-데'가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해 '-더+이(데)'가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대화체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1.1.11.3. '어간+았/었/였+더+이'

'어간+더+이'의 구성에 있어서 이에 과거선어말어미가 놓여 '어간+았/었/였+더+이'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성의 어미도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50) 단형서사

가. 참 근릐는 관찰군슈의 불망비는 거리거기 만히 셧데[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9)]

나. 써근 밥 ᄯᅥᆨ 죠각에 굴머서 다 쥭엇데[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11)]

이는 '신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단형서사'에서처럼 '어간+았/었/였+더+이' 구성의 어미를 볼 수 있다.

(51) 신소설

가. 아니, 김승지덕마님이, 부리던죵을, 쥬엇데(귀의성, 45쪽)

나. 얼골에, 분한푼어치도, 못사발으고, 비단초마하나, 안이입엇데[홍도화(하), 5쪽]

다. 일젼에 자닉두번연셜은 셰상에 미오소문이낫데(설중매, 15쪽)

라. 여보게 나곳안이갓더면 돈흔푼 안이 될번헛데(모란병, 89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더+이'의 형태로 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11.4. '어간+겠+더+이'

'어간+더+이'의 구성에는 '-았/었/였-' 외에 '-겠-'도 놓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어미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52) 단형서사

가. 오장륙부 바로 박인 즈식은 춤아 눈으로는 못 보겟데[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무엇을 흐든지 일어만 알어야흐겟데[긔쟈ㅣ쥰부 엇던 방곡을(대한매일신보, 1908. 12. 11)]

다. 그리셔 걱정이 되어 그 때는 하도 아슬아슬 흐더니 요스이는 발을 쑥 뻣고 자겟데[밤은 드러 삼경되여(대한매일신보, 1910. 1. 18)]

마찬가지로 '어간+겠+더+이'로 된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53) 신소설

가. 학문도잇데마는 힝실은 말못되야 이번까지 몃번지 신문에 오로너리는지 모로겟데(설중매, 50쪽)

나. 악가 가는거슬 붓들러오랴다가 가만이 싱각을흔즉 안이되깃데(추천명월, 32쪽)

이와 같이 '어간+겠+더+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두루 사용되었던 어미 구성임이 확인된다.

3.1.1.12. '-오/소'

'-오/소'는 평서법과 의문법 그리고 명령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나 17세기에 명령법에서 먼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이기문, 1972. p.214, 장경희, 1977. p.119 참조). 이 종결어미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데에 쓰인다.

어간말음절 또는 선어말어미의 끝소리가 'ㄹ'이나 모음이면 '-오'가 결합된다. 어간말이나 선어말어미의 'ㄹ'은 '-오'의 앞에서 탈락된다. 이때 '-오'는 간혹 '-우'로 변이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아동의 말이나 어리광부릴 때에 나타난다. 이러한 '-우'에 대하여 이경우(1998, p.58)는 연구에서 다룬 개화기 신소설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른 자료인 '단형서사'의 '몽조(황성신문)'에서 보인다. 그리고 어간말음절이나 선어말어미의 끝소리가 'ㄹ' 이외의 자음이면 '-소'가 결합된다. '-소'의 경우도 간혹 '-수'로 쓰이는데 이때는 대체로 방언형의 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소'의 변이형인 '-수'는 쓰이

지 않았다.

3.1.1.12.1. '어간+오/소'

종결어미 '-오/소'는 어간과 직접 결합하여 '어간+오/소'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54) 단형서사

가. ᄋᆡ덜은 ᄉᆡ 칙을 가졋던데 나두 ᄉᆡ 칙 사쥬우[몽조(황성신문, 1907.8.19)]

나. 술이나 ᄒᆞᆫ 잔 내소[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다. 술장ᄉᆞ만 잘 될 거시니 념려 마소[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라. 쇼쥬 ᄒᆞᆫ 잔만 먹게 부어 주소[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9)]

마찬가지로 '어간+오/소'로 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55) 신소설

가. 나ᄂᆞᆫ, 우리길슌의ᄉᆡᆼ각을ᄒᆞ면, ᄲᅧ가녹ᄂᆞᆫ듯ᄒᆞ오[귀의성, 3쪽]

나. 아씨게셔 아젹 진지도 못 잡슈셔ᄂᆞᆫᄃᆡ ᄯᅡᆨ도ᄒᆞ오[빈상설, 3쪽]

다. 마누라, 여보졍신좀ᄎᆡ리오[귀의성, 96쪽]

라. 우리갓한사람은, 암만아더라도, 관게치아니ᄒᆞ오(귀의성, 33쪽)

마. 셔방님은 아마 나다려 야속ᄒᆞ다ᄒᆞᆯ터이나 나도군ᄉᆡᆨᄒᆞ야 ᄯᅩ ᄌᆡ촉ᄒᆞ오(설중매, 22쪽)

바. 안심ᄒᆞ소[홍도화(하), 98쪽]

종결어미 '-오/소'는 현대국어의 경우 대화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54)와 (55)에서 보듯이 대화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오/소'는 최근세국어 시기에 널리 쓰였던 종결어미였음을 알 수 있다.

3.1.1.12.2. '어간+았/었/였+오/소'

종결어미 '-오/소'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어간+았/었/였+오/소'의 경우 역시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56) 단형서사

가. 나ᄂᆞᆫ 관진량방에셔 향일에 ᄌᆞ치회를 발긔ᄒᆞᆫ다 ᄒᆞ기로 대단히 근심ᄒᆞ엿소 [오동츄야 돌밝은ᄃᆡ(대한매일신보, 1908. 9. 4)]

나. 녜 뎡령ᄒᆞ엿소[동창이 발가오ᄆᆡ 보관문을(대한매일신보, 1910. 1. 25)]

다. 우리 일가에 머리 버혀오ᄂᆞᆫ쟈 잇ᄉᆞ면 륙만원을 주마 ᄒᆞ여도 머리 버혀갓다ᄂᆞᆫ 말을 듯지 못ᄒᆞ엿소[조곰 어그러지ᄂᆞᆫ ᄆᆡᆺ음(그리스도신문, 1901. 5. 30)]

이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56)에서 보이는 유형의 어미 구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57) 신소설

가. 그쇼원이쓸ᄃᆡ업고, ᄉᆞ위업ᄂᆞᆫᄊᆞᆯᄒᆞᄂᆞᆫ ᄆᆞᆫ, 다리고잇게되얏쇼(귀의성, 4쪽)

나. 우리령ᄀᆞᆷ이, 잘못ᄒᆞ엿소(귀의성, 29쪽)

다. 에구 나ᄂᆞᆫ 쳐음보앗소(빈상설, 5쪽)

라. 필젹긔도잘ᄒᆞᄂᆞᆫ집잘되ᄂᆞᆫ것별로못보앗소(구마검, 29쪽)

마. 우리ᄂᆞᆫ, 평싱, 에, 말젼쥬라고ᄂᆞᆫ, 아니ᄒᆞ여보앗소(귀의성, 33쪽)

바. ᄂᆞᄂᆞᆫ순돌어머니의,부탁듯고집보아쥬러왓소(귀의성, 30쪽)

따라서 ‘어간+았/었/였+오/소’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1.12.3. ‘어간+겠+오/소’

‘단형서사’에서는 종결어미 ‘-오소’가 ‘-았/었/였-’과 결합한 형태를 썼듯이 ‘-겠-’과 결합한 형태도 썼다.

(58) 단형서사

가. 음역셜은 쇠ᄂᆞ 아니 쇠ᄂᆞ 양역셜을 쇠깃쇼[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나. 셔로 싀긔ᄒᆞ야 디위들만 닷토니 원통ᄒᆞ야 못 살겟쇼[동창에 ᄃᆞᆯ이 빗처 밤이거ᄌᆞᆫ(대한매일신보, 1908. 7. 21)]

다. 대감의 말이여 텬싱 부ᄉᆞᄌᆞ ᄌᆞ격에 지나지 못ᄒᆞ겟소[오동츄야 ᄃᆞᆯ밝은ᄃᆡ(대한매일신보, 1908. 9. 4)]

라. ᄇᆡ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우일 정게도 되엿겟소[조곰 어그러지ᄂᆞᆫ ᄆᆡᆺ음(그리스도신문, 1901. 5. 30)]

위 (58)에서 보이는 ‘어간+겠+오/소’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59) 신소설

가. ᄂᆡ가어제밤에, ᄃᆡᆨ으로좀가려하엿다니, 몸이압파셔못갓쇼(귀의성, 45쪽)

나. ᄂᆞ도가셔구경좀ᄒᆞ깃소(귀의성, 69쪽)

다. 어머니 나ᄂᆞᆫ죽겟소(빈상설, 90쪽)

라. 나ᄂᆞᆫ셔방님이 오ᄅᆡ지안이ᄒᆞ야 나오시겟스니 힝ᄒᆞ게가야ᄒᆞ겟소(빈상설, 55쪽)

마. 이삼삭은엇지ᄒᆞ든지 밥갑을잘쥬다가 차 건체되야 셰음을ᄂᆡ지못ᄒᆞ고 도망ᄒᆞ야 간곳도모로는 사ᄅᆞᆷ이 얼마인지 모로겟소(설중매, 23쪽)

그러므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어간+았/었/였+오/소'와 더불어 '어간+겠+오/소'의 형태도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1.12.4. '어간+시/으시+오'

종결어미 '-오/소'는 '-았/었/였-'과 '-겠-' 외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와도 결합을 하여 '어간+시/으시+오'의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60) 단형서사

가. 굿이 가신다니 조심ᄒᆞ여 가시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어셔 드러 오시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25)]

다. 약주 잡수시고 웃층 샤쳐방에 가셔 조리나 편히 ᄒᆞ시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라. 그는 걱정 마시오[ᄌᆡ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21)]

마. 신장님 살녀 주시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릐력(경향신문, 1908. 4. 17)]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의 경우와 같이 '어간+시/으시+오'로 구성된 어미를 찾아볼 수 있다.

(61) 신소설

가. 길슌이는, 쥭던지사던지, ᄂᆡ버려두고, 드러가셔쥬무시오(귀의성, 2쪽)

나. 에그 춤 딱도ᄒᆞ시오(목단화, 69쪽)

다. 우리가 이러케 만ᄂᆞᆫ것도 텬뎡연분 인줄아시오(명월정, 34쪽)

라. 엇지ᄒᆞ시료 죽어도 이유혹에 핍박을 밧지아니 ᄒᆞ시고져 ᄒᆞ시ᄂᆞᆫ이는 니러 셔시오(명월정, 42쪽)

마. ᄂᆡ소견것말을ᄒᆞᆯ것이니과히착오ᄂᆞ업ᄂᆞ드러보시오(구마검, 42쪽)

이처럼 종결어미 '-오/소'가 어미 구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간에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종결어미 '-오/소'가 잘 쓰이지 않지만 최근세국어 시기까지만 해도 이의 종결어미가 대화체에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1.1.13. '-ㅂ/습디다'

동사 또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ㅂ/습디다'는 지난 일을 돌이켜 회상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대화체에서 가끔 쓰이는 정도이다. 이 종결어미는 '단형서사'의 경우 어떤 유형의 결합 형태이든 일체 쓰인 바가 없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3.1.1.13.1. '어간+ㅂ/습디다'

'-ㅂ/습디다'는 어간에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종결어미로서 다음에 보이는 구문에서의 '-ㅂ/습디다'가 이에 해당된다.

(62) 신소설

가. 비장나리가 벼릅듸다(화중화, 19쪽)

나. 그량반 ᄃᆡᆨ은 루동이고 벼ᄉᆞᆯ은 참령이라고ᄒᆞᆸ듸다(화세계, 78쪽)

다. 웃지 ᄒᆡᆺ던지 셔울까지 소문이 낫습듸다(추천명월, 67쪽)

라. 그사이에 두사람은 가장 ᄯᅥ러지기가 어려워서 소ᄆᆡ를붓들고 ᄆᆡ달니니 그 사나희가 ᄲᅮ르치고 갑듸다(재봉춘, 166쪽)

위의 구문에서 '-ㅂ/습디다'는 모두 동사어간과 바로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보이고 있어 '어간+ㅂ/습디다'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1.13.2. '어간+았/었/였+습디다'

종결어미 '-습디다'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한다. 다음에 보이는 구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결어미 '-습디다'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을 하고 있다.

(63) 신소설

가. 오날 관보를보닛가 리도ᄉᆞ가 ᄒᆞ얏습듸다(화의혈, 10쪽)

나. ᄂᆡ가 들창틈으로 ᄂᆡ여다본즉 져손님이 엇던사람을 업고셧습듸다[치악산(하), 30쪽]

다. 직작년에 사범속소학교에셔 졸업ᄒᆞ고 즉시관립즁학교에 립학ᄒᆞ야 올에삼학년이 되얏답듸다(추월색, 29쪽)

라. ᄂᆡ가 그자리에 쓰러져셔 자는듯 마는듯ᄒᆞ다가 얼마후에 졍신을차려 눈을 ᄯᅥ본즉 흑특ᄉᆡᆼ병원에가 누엇습듸다(비행선, 98쪽)

마. 비둙이가 물어왓습듸다(비행선, 99쪽)

바. ᄂᆡ졍신이 ᄯᅩ 혼미히지며 미구에 이특나가 비ᄒᆡᆼ션을타고 왓습듸다(비행선, 80쪽)

사. 졔집이 평양셩안관암동이라고 차져오라기에 가본즉 이ᄉᆞᄒᆞ엿습듸다(금의쟁성, 52쪽)

종결어미 '-습디다'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유형은 (63)에서 보듯이 '신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ㅂ/습디다'의 유형에 이어 '어간+과거선어말어미+습디다'의 유형도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1.13.3. '어간+겠+습디다'

종결어미 '-습디다'는 '-았/었/였-'에 결합하듯이 이에 상대되는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종결어미 '-습디다'가 '-겠-'과 결합한 예는 다음의 '신소설' 구문에서 볼 수 있다.

(64) 신소설

가. 또샤회의 폐습을 말홀진뎐 확실훈 단톄는 못보겟습듸다(자유종, 19쪽)

나. 너가조션ᄉ룸의 부자이고 아닌것을 엇지알깃소만은 이곳에와셔 돈쓰는것 만보면 알깃습듸다(추월색, 48쪽)

다. 춤 사룸이라는것은 긔명을 쏙ᄒ여야 ᄒ겟습듸다[구의산(하), 54쪽]

라. 누구던지 녀학도며느리를 엇는다는ᄉ룸이 잇스면 손목잡고 말니겟습듸다 (금강문, 47쪽)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동사어간에 온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종결어미 '-습디다'와 같은 유형은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형서사'에서는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경우와 같이 '-겠-'의 경우에서도 종결어미 '-습디다'가 결합된 유형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3]

13) '신소설'에서는 '-다고 합디다'의 준말인 '답디다' 형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셔양ᄉ룸들은 신랑신부가 즉졉으로 결혼ᄒ답듸다(추월색, 6쪽)
- 즉시관립즁학교에 립학ᄒ야 올에삼학년이 되얏답듸다(추월색, 29쪽)

따라서 종결어미 '-ㅂ/습디다'는 특이하게도 '단형서사'에서는 어떠한 유형이든 막론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인 종결어미라는 것이 확인된다.

3.1.1.13.4. '어간+오+ㅂ디다'

종결어미 '-ㅂ디다'는 공대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여 '어간+오+ㅂ디다'의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도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이 오직 '신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

(65) 신소설

가. 요사이는 감긔도 ᄆᆡ우 죠심이 되옵듸다[금국화(하), 19쪽]

나. ᄌᆞ작일촌으로산다ᄒᆞ옵듸다(구마검, 45-46쪽)

다. 어ᄃᆡ로갓는지 모른다ᄒᆞ옵듸다(철세계, 79쪽)

종결어미 '-디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쓰이지만 주로 연령이 높은 남성층에서 가끔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디다'는 '단형서사'에서 일체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그 모습이 보이고 있으므로 '-디다'의 쇠퇴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단형서사'의 경우에는 아예 이의 자취를 감추었고 '신소설'에서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오는 정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 그집은ᄃᆡ구인ᄃᆡ 이번에ᄂᆞ가면 셔울로 이ᄉᆞᄒᆞᆫ답듸다(추월색, 48쪽)
· 그쌀이밥솟에보다 장ᄉᆞ앗치 광쥬리속으로 더만히들어갓답듸다(빈상설, 43쪽)
· 일쳥젼징도 민영쥰이란양반이 쳥인을불러왓답듸다(혈의루, 27쪽)
· ᄉᆞᄅᆞᆷ ᄉᆞᄅᆞᆷ이 다 세상에 ᄉᆞ는 것이 목뎍이 잇답듸다(몽조, 25쪽)
· 그시골에도 녀학교가 잇답듸다(명월정, 46쪽)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답디다'의 유형에 있어서도 전혀 쓰인 바가 없다. 따라서 '-ㅂ/습디다'는 어떤 유형이든 간에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1.1.14. '-ㅂ니다'

합쇼체 종결어미인 '-ㅂ니다'는 '-ㅁ내다'에서 나온 표기로서(권재일, 2005. p.36) 이는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서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때문에 '-ㅂ니다'는 과거시제선어말어미와 결합되지 않는다.

3.1.1.14.1. '어간+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동사어간과 바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구성은 '신소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66) 신소설

가. 져ᄂᆞᆫᄇᆡ곱ᄒᆞ지안이ᄒᆞᆷ니다(구마검, 70쪽)

나. 좀잡슈셔야지속이넘어뷔셔셔못씁니다(구마검, 70쪽)

다. 이러케ᄃᆡᆨ에와셔ᄃᆡ죄ᄒᆞᄂᆞᆫ것은당신말ᄉᆞᆷᄒᆞᆫ마듸만듯기를바ᄅᆞᆷ니다(구마검, 50쪽)

라. ᄉᆞ촌은아달을ᄉᆞ형데ᄂᆞ두엇ᄂᆞᆫᄃᆡ모다감긔ᄒᆞᆫ번안이알코잘자람니다(구마검, 43쪽)

마. 제죄ᄂᆞᆫ 그ᄲᅮᆫ이니 살여쥬시기만바ᄅᆞᆷ니다(모란병, 98쪽)

바. 슌사도게셔ᄂᆞᆫ ᄇᆞᆰ은법 으로 다사려주시기를 바ᄅᆞᆷ니다(은세계, 38쪽)

사. 무슨약인지먹고, 지금은진징이됩니다(귀의성, 47쪽)

아. ᄂᆡ집은여긔셔지격이니, 그앗씨를ᄂᆡ집에로, 모시고갑니다(귀의성, 57쪽)

자. 예셔 아모리 됴흔약을먹어도 급작이 낫지를못ᄒᆞᆷ니다(화의혈, 29쪽)

차. 소승 문안듸림니다(금강문, 120쪽)

카. 밧게 엇던 폭도ᄒᆞ나히 ᄌᆞ현ᄒᆞ야 귀화ᄒᆞ기를 쳥ᄒᆞᄂᆞᆫᄃᆡ 셩명은 남규직이라 ᄒᆞᆷ니다(금강문, 170쪽)

타. 월젼에 관찰ᄉᆞ인장을 위조ᄒᆞ야 남에게돈을 탈취ᄒᆞᆫ것이 오날입념이되어 미

구에 포박나옵니다(화중화, 20쪽)

동사어간에 '-ㅂ니다'가 결합된 유형의 의미구조가 '신소설'에서는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용례가 풍부함에 비해 '단형서사'에서는 단 하나의 용례도 없어 상호 대조적임을 보인다.

3.1.1.14.2. '어간+시/으시+ㅂ니다'

동사어간에 '-ㅂ니다'가 결합된 예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사어간에 존대선어말어미 '-시-'가 오고 그 뒤에 종결어미 '-ㅂ니다'가 결합된 예는 볼 수 있다.

(67) 단형서사

령감 오십니다[화수(대한민보, 1909. 6. 2)]

그러나 이러한 '어간+존대선어말어미+ㅂ니다'로 된 어미구성은 오직 한 차례만 나타난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구성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68) 신소설

가. 망녕의말숨도ᄒᆞ십니다(화의혈, 16쪽)
나. 원쥬시셔방님오십니다[치악산(상), 36쪽]
다. 에그 마님게셔는 별걱정을 다 ᄒᆞ십니다[치악산(상), 118쪽]
라. 마님 마님게셔 올히셜은 참자미잇게 지닉십니다[치악산(상), 178쪽]
마. 그만콤 사람의피를ᄲᅡ라 잡스셧스면 이만일은좀 거져히쥬셔도 밋지지는 아니ᄒᆞ십니다(재봉춘, 79쪽)
바. 나으리는 별말숨도 ᄒᆞ십니다(명월정, 93쪽)
사. 대감ᄭᅴ셔는 릭일이나 오십니다[구의산(상), 48쪽]

아. 어머니 하라바지 여긔지금 오심니다[구의산(하), 75쪽]

자. 져약잡수시면 차차 돌니심니다(금강문, 3쪽)

따라서 종결어미 '-ㅂ니다'는 '단형서사'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종결어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신소설'에서는 '-ㅂ니다'가 대단히 선호되어 쓰인 종결어미였음을 알 수 있다.

3.1.1.14.3. '-다+ㅂ니다'

종결어미 '-답니다'는 종결어미 '-다'에 다시 종결어미 '-ㅂ니다'가 결합되어 파생된 특이한 구조의 어미이다.[14] 이는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데 동사어간과 결합된 경우에 있어서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질 뿐 '단형서사'에서는 그 용례가 없다.

(69) 신소설

가. 쇤네의ᄌᆞ식은, 마님게셔, ᄌᆞ미로거두어쥬신담니다(귀의성, 88쪽)

나. 관비가 가셔 보기ᄭᆞ지ᄒᆞ고 왓담니다(화의혈, 77쪽)

다. 차후에 ᄯᅩ다시 그리ᄒᆞ지아니헌담니다(추천명월, 13쪽)

라. 지금세상은 이젼과 달나셔 자식도 못파라 먹ᄂᆞᆫ담니다(추천명월, 34쪽)

마. 장별감에게 드르닌가 약인률(略人律)이 잇셔 잡아다가 증역을 식킨담니다 (추천명월, 34쪽)

바. 새셔방집에셔 자긔ᄯᅳᆺᄃᆡ로 잘ᄒᆞ던지 못ᄒᆞ던지 자담ᄒᆞ여 ᄉᆡᆨ씨만 다려간담니다(명월정, 25쪽)

사. ᄂᆡ힝모신 ᄇᆡ놈은 더욱 조심ᄒᆞᆫ담니다(명월정, 89쪽)

---

14)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과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나 '-다고 합니다'도 역시 종결어미 '-답니다'처럼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상으로나 문맥상으로나 종결어미와 준말을 구별해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답니다'를 '합쇼체'의 종결어미로 통일시켜 처리하였다.

아. 청국 려슈구로 갓담니다[두견성(하), 113쪽]

자. 우리죠션에 화족외에는 다평민이옵고 평민즁에도 유싱은 류달니 ᄃᆡ우ᄒᆞᆫ담니다(금의쟁성, 53쪽)

차. 모래ᄂᆡᄂᆞᆫ 가시지못ᄒᆞ고 길에서 강도를맛나 그일을 당ᄒᆞ셧담니다[금국화(상), 59쪽]

카. 시ᄋᆞ씨가 삿갓가마를ᄐᆞ고 뒤에ᄯᅡ라오시닛가 일남이가 ᄉᆡ서방님일이 원통히서 ᄃᆡ리ᄒᆞᆫ담니다[구의산(상), 66쪽]

타. 절의쥬장으로잇ᄂᆞᆫ 쇼승의 당호도 팔영대ᄉᆞ라고 ᄒᆞ얏담니다[구의산(하), 23쪽]

파. 오한광열과 슈족젼이나옵니다(철세계, 25쪽)

하. 아-고 긔차가 드러옵니다(송뢰금, 114쪽)

가′. 소인 문안들임니다(빈상설, 1쪽)

나′. 사름들의 악한 힝위를 말ᄒᆞ려면 긋치 업겟스나 시간이 부족ᄒᆞ야 고만 둡ᄂᆡ다(금수회의록, 30쪽)

따라서 '-다+ㅂ니다'의 구조로 된 결합 형태는 '신소설'에서만 사용된 어미유형이 됨을 알 수 있다.

3.1.1.14.4. '-라+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종결어미 '-다' 외에 종결어미 '-라'와도 결합하여 '-라+ㅂ니다'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인 바가 없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70) 신소설

가. 나ᄂᆞᆫᄌᆞ식을나으면죽어도ᄂᆡᄉᆞ촌은아달을ᄉᆞ형데ᄂᆞ두엇ᄂᆞᆫᄃᆡ모다감긔ᄒᆞᆫ번안이

알코잘자람니다(구마검, 43쪽)

나. 아모려나누의님덕턱만바람니다(구마검, 49쪽)

다. 무슨죄인지 자세이토죄나ᄒᆞ여쥬시고 ᄒᆞᆫ시밧비 죽여쥬시기를 바람니다[치악산(상), 110쪽]

라. 져ᄉᆞ롬의게 ᄒᆞᆫ마듸 무러볼말숨이 잇ᄉᆞ오니 잠진 허가ᄒᆞ심을 바람니다(추월색, 65쪽)

마. 혼인이ᄶᅢ에ᄃᆡᄒᆞ야셔는 두말숨마시기를바람니다(추월색, 49쪽)

바. 이근쳐언의 쥬막에 지가룰ᄒᆞ야 두셧다가 신병이좀낫거던 다려가시고 져만 잡아가시기룰 ᄇᆞ람니다[구의산(하), 69쪽]

따라서 '-라+ㅂ니다'는 '-다+ㅂ니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인 형태의 어미 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여러 유형을 막론하고 '신소설'에서는 모두 용례가 풍부하게 찾아짐에 반해 '단형서사'에서는 '대한민보'의 '화수'에 '어간+시/으시+ㅂ니다'의 유형만 단 한 차례 쓰이고 있어 종결어미 '-ㅂ니다'는 주로 '신소설'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화수'는 1909년 6월 2일에 발표된 작품이므로 이는 '혈의루(1906)', '귀의성(1906)', '구마검(1908)', '금수회의록(1908)', '빈상설(1908)', '송뢰금(1908)', '은세계(1908)', '철세계(1908)', '치악산 상(1908)' 등의 신소설이 발표된 이후에 나온 작품이 된다. 따라서 '-ㅂ니다'는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대화체에 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더구나 '혈의루(1906)', '귀의성(1906)', '구마검(1908)', '금수회의록(1908)', '빈상설(1908)', '송뢰금(1908)', '은세계(1908)', '철세계(1908)', '치악산 상(1908)' 등의 신소설에서는 모두 종결어미 '-ㅂ니다'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들 '신소설' 이후에 발표된 '화수'는 '신소설'의 영향에 의해 '-ㅂ니다'가 사용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혈의루', '귀의성', '은세계', '치악산'의 작가가 '이인직'이므로 종결어미 '-ㅂ니다'의 사용을 특정 작가의 작문상

특성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마검', '빈상설', '철세계'는 '이해조'의 작품이고 '금수회의록'은 '안국선' 그리고 '송뢰금'은 '육정수'의 작품이므로 종결어미 '-ㅂ니다'의 사용을 특정 작가의 작문상 특성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ㅂ니다'는 '신소설'이 쓰이기 시작할 무렵에 대화체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종결어미라 할 것이다.

3.1.1.15. '-습니다'

현대국어의 '-습니다'는 15세기 국어의 '-으이-다'를 대치하여 생성된 것이다. 여기서 청자높임어미 '-으이-'는[15] 16세기부터 불안정하기 시작하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주 생략되며 그 기능도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를 객체높임어미 '-습-'에 의지하여[16] '-습-'으로써 청자높임법을 실현시켰다. 이에 '-습-ᄂᆞ-이-다 > -습ᄂᆞ이다 > -습ᄂᆡ다 > -습니다'와 같은 변천을 가지게 되었다(권재일, 1998. p.42 참조). 이러한 종결어미 '-습니다'는 현재의 동작 또는 상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종결어미 '-습니다'는 어간으로 동사와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다. 여기 '3.1.1.15'에서는 동사가 어간으로 오는 경우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3.1.1.15.1. '어간+습니다'

종결어미 '-습니다'는 어떠한 선어말어미 없이 어간 바로 뒤에 올 수 있다. 이러한 '어간+습니다'와 같은 어미구성은 '신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

(71) 신소설

15) 선어말어미 '-으이(이)-'는 아주 높임을 나타낸다(허웅, 1989. p.142).
16) '-습-'은 중세국어에서 객체존대의 선어말어미로 쓰였으나 17세기 이후 상대존대의 선어말어미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허웅, 1963. pp.64~69 참조).

가. 흉악ᄒᆞᆫ놈의손에 무죄ᄒᆞᆫ사ᄅᆞᆷ 모다죽슴니다(화중화, 33쪽)

나. 불과 얼마 안이되야 삼남각쳐에 격양가 니러놀쥴로 쏙 밋슴니다(화의혈, 12쪽)

다. 지금이처럼 분부를ᄒᆞ옵시니 쇼인등의 죄가죽어 남슴니다(화세계, 60쪽)

위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간+습니다'는 흔히 쓰이는 어미 구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단형서사'에서는 (71)에서와 같은 어미 구성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간+습니다'는 '신소설'에서만 찾아지는 어미 구성이 된다.

3.1.1.15.2. '어간+았/었/였+습니다'

'어간+습니다'로 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동사어간에 과거선어말어미가 놓인 '어간+과거선어말어미+습니다'의 경우도 '단형서사'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소설'의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그 용례가 풍부하다.

(72) 신소설

가. ᄂᆞᄂᆞᆫ이집이뉘집인쥴도모르고왓더니, 지금령감을뵙고, 령감ᄃᆡᆨ인쥴, 아랏슴니다(귀의성, 59쪽)

나. 어머니 잘못 힛슴니다[몽조(황성신문, 1907. 8. 23)]

다. 셔방님게엿ᄌᆞ올말삼이잇스되 이ᄯᅢᄭᅡ지 이져바렷슴니다(설중매, 26쪽)

라. 다른것이안이라산갑을엄청나게달나ᄒᆞ니나는긔가막혀션뜻ᄃᆡ답을못ᄒᆞ고왓습니다(구마검, 56쪽)

마. ᄯᅩᆨᄯᅩᆨᄒᆞᆫ 계집이 잇다ᄒᆞ기에 령감약쥬나 ᄯᅡ라드릴소용을 ᄒᆞ자고ᄃᆡ리러 갓다왓습니다(모란병, 51쪽)

바. 션싱님을 못모시어 소리를ᄇᆡ오지 못힛습니다(모란병, 37쪽)

사. 시싱의집은 이동안 아조 결단을 당힛슴니다(화의혈, 9쪽)

아. 지금 자랴고 바느질을 고만두엇습니다(화세계, 18쪽)

자. 쇼인등이 죽을힘을드려 번ᄎᆞ례로 업어다가 슈월암을 즁로에셔 맛겨보닛습니다(화세계, 60쪽)

차. 셔방님닉외분은 조흔운슈가도라올써가되얏습니다[치악산(상), 30쪽]

카. 졈자는량반과상약을ᄒᆞᆫ터에실신홀도리는업고분주히오노라는것이이러케느졋습니다(구마검, 40쪽)

따라서 ‘어간+과거선어말어미+습니다’와 같은 어미의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대신 ‘신소설’에서만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3.1.1.15.3.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종결어미 ‘-습니다’가 동사어간에 놓인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구조에서 존대선어말어미인 ‘-시-’가 과거선어말어미의 앞에 위치하는 ‘어간+존대선어말어미+과거선어말어미+습니다’와 같은 어미의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 이는 오직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73) 단형서사

신쟝님 신낭님 하ᄂᆞ님이 보내셧숨니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려력(경향신문, 1908. 4. 17)]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와 달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74) 신소설

가. 마님 마님의정셩이 지극ᄒᆞ시더니 칠셩님이 돌보셔 삼신힝ᄎᆞ가 계시게 ᄒᆞ셧습니다(구마검, 3쪽)

나. 에그 념으나 잘 싱각ᄒᆞ셧습니다(구마검, 5쪽)

다. 줌으시노라고 건너초막에셔 글익든소져 써나가는것도 모르셧습니다(설중매, 38쪽)

라. 어-길, 잘못드르셧습니다(귀의성, 100쪽)

마. 게동박참봉나리오셧습니다(귀의성, 70쪽)

바. 벌셔진지를 다잡스셧습니다(빈상설, 72쪽)

사. 마님게셔 잘못싱각 ᄒᆞ셧습니다[치악산(상), 77쪽]

아. 스님스님 인제야 구씨한분이 오셧습니다(화세계, 76쪽)

자. 비셔승지니시고 초산군수로 도라가셧습니다(추월색, 67쪽)

차. 어머니 이번일은자쳐사ᄒᆞ셧습니다(안의성, 98쪽)

카. 에그 그만ᄒᆞᆫ것도 덕 운슈가 대통ᄒᆞ셧습니다(산천초목, 83쪽)

타. 어머니 아바지씌셔 안이도라가셧습니다[구의산(하), 93쪽]

파. 포천 서방님이 오셧습니다(금강문, 20쪽)

그러므로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활발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1.15.4. '어간+겠+습니다'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대응되는 선어말어미 '-겠-'이 동사어간에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의 어미구성도 역시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75) 단형서사

가. 그 문이 좀체로 ᄎᆞ셔는 깨지지도 아니 ᄒᆞ깃습니다[소설단편(만세보, 1906. 7. 3)]

나. ᄒᆞᆫ 집에서 오래 뫼시고 지내갯습니다[화수(대한민보, 1909. 6 .2)]

다. 내일이라도 돈 세갯습니다.[화수(대한민보, 1909. 6. 13)]

위 (75)에서 보이는 '어간+겠+습니다'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어미 구성이다.

(76) 신소설

가. 형님나는가오인제가면언의쩌쏘뵈러올지모로겟슴니다(구마검, 30쪽)

나. 말삼을듯자오니, 알아듯겟사오나, 양계(陽界)를, 써나기젼에는, 왕사를 잇고져ᄒᆞ야도, 못잇겟슴니다[홍도화(하), 99쪽]

다. 셔방님가시면 저도 ᄯᅡ라가겟슴니다(화중화, 22쪽)

라. 요ᄉᆞ이 디방쇼문을드르닛가 하로밧비 진졍안이ᄒᆞ오면 인민이 무여디ᄒᆞ게 어륙이되겟슴니다(화의혈, 11쪽)

마. 시싱이 ᄌᆞ격도 부족ᄒᆞᄋᆞᆸ고 여러가지 층절이잇셔못되겟슴니다(화의혈, 13쪽)

바. 제역시 형편을싱각ᄒᆞ야보ᄋᆞᆸ고 릐일다시 낫자와 좌우간 말솜을 엿줍겟슴니다(화의혈, 13쪽)

사. 오날부터는 결단코 그런힝위를 다시 아니ᄒᆞ깃슴니다(금강문, 14쪽)

따라서 '신소설'에서만 찾아지는 '어간+았/었/였+습니다' 어미 구성과는 달리 '어간+겠+습니다'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인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1.15.5. '어간+시/으시+겠+습니다'

'어간+겠+습니다'의 어미구성에 있어서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가 '-겠-'의 앞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런데 '어간+시/으시+겠+습니다'와 같은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어미구성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질 뿐이다.

(77) 신소설

가. 춤- 아히는 여무진걸료 그덕에셔 ᄉᆞ롬줄어더왓다고 조와ᄒᆞ시깃슴니다(세검정, 55쪽)

나. 참 인제는 마님께셔 안심ᄒᆞ시깃슴니다[두견성(하), 122쪽]

다. 이ᄉᆞ롬인들 무엇을 알깃슴잇가만은 방정마진말로 마님이 오릐지아니하여 참쳑을 보시깃슴니다(금강문, 83쪽)

따라서 '어간+겠+습니다'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인 반면에 '어간+시/으시+겠+습니다'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1.1.16. '-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예스러운 표현에 속하는 것으로서 '-ᄂᆞ이다', '-나이다', '-ᄂᆡ다', '-내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ᄂᆞ이다'는[17] 옛 표기이고 '-나이다'는 새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ᄂᆞ이다'는 '-ᄂᆡ다'로 축약되고, '-나이다'는 '-내다'로 축약되기도 한다(권재일, 2005. p.30). 이러한 '-나이다'는 현재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거나 대답을 하는 데에 쓰이는 어미로서 동사나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다. 현대국어에서는 대화체에 '-나이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3.1.1.16.1. '어간+나이다'

동사어간에 종결어미 '-나이다'가 바로 결합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의 구문에서 볼 수 있다.

17) '-ᄂᆞ-이-다'로 분석되는 '-ᄂᆞ이다'에서 '-ᄂᆞ-'는 15세기 국어의 현실법을 실현한 것으로서 이 기능은 그 이후 약화되거나 소멸하였고, '-이-'는 15세기 국어의 청자 높임법 '-으이-'를 이은 것이다(권재일, 2005. p.30).

(78) 단형서사

가. 내가 량두ᄉᆞ를 보앗신즉 부모를 리별ᄒᆞ고 죽을ᄭᅡ ᄒᆞ나이다[ᄇᆡ암이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7. 20)]

나. 나ᄂᆞᆫ 신라 사ᄅᆞᆷ이온ᄃᆡ 나라 붓거러옴을 씻고져ᄒᆞ야 여긔와셔 맛나는거시 잇슬가 ᄇᆞ라ᄂᆞ이다[김유신(그리스도신문, 1901. 10. 31)]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신소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9) 신소설

가. 곤고ᄒᆞᆫ것ᄲᅮᆫ일줄 아ᄂᆞ이다(경세종, 35쪽)

나. 서로 권면ᄒᆞ시기를 ᄀᆞᆫ절히 ᄇᆞ라ᄂᆞ이다(경세종, 53쪽)

다. 소녀도 아직일이년안에ᄂᆞᆫ 출가치 아니ᄒᆞ랴ᄒᆞᄂᆞ이다(설중매, 53쪽)

라. 다만 결혼일ᄉᆞᄂᆞᆫ 소녀의 마암ᄃᆡ로 ᄒᆞ게바려두심을 바라ᄂᆞ이다(설중매, 55쪽)

마. 셩산보다 더됴흔ᄃᆡ가 업슬ᄯᅳᆺᄒᆞᄂᆞ이다(셩산명경, 130쪽)

바. 셰상에 신션이 업ᄂᆞᆫ줄노 ᄋᆞᄂᆞ이다(셩산명경, 154쪽)

사. 져의들이 이산소묘직인고로 츈츄로일ᄎᆞ식 차사를 밧드나이다(화중화, 51쪽)

아. 오ᄂᆞᆯ부터 부녀의 의를 뎡ᄒᆞ심을 바라나이다(원앙도, 54쪽)

따라서 동사어간에 종결어미 ‘-나이다’가 결합되는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 ‘-나이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어간+나이다’ 유형에 있어서는 ‘신소설’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쓰였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나이다’의 이형태인 ‘-노이다’의 경우 ‘단형서사’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이다’는 15세기 국어의 ‘-ᄂᆞ-’와 일인칭어미 ‘-오-’의 결합이다(권재일, 2005.

p.34). 다만, 이의 용례는 (80)에서 보이는 세 개가 전부이다.

(80) 단형서사

가. 지금 이곳에 왓기로 대스를 심방ᄒᆞ노이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8. 8)]

나. 션싱이 무르시니 감히 은휘치 못ᄒᆞ노이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0)].

다. 쳥컨디 듯기를 원ᄒᆞ노이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9)]

위 (80)의 구문에서 어미는 동사어간에 '-노이다'가 결합된 '어간+노이다'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신소설'에서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 '신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만 있을 뿐이다.

(81) 황숑ᄒᆞ노이다[구의산(상), 41쪽]

따라서 '어간+노이다'는 '단형서사'에서 '신소설'보다 조금 더 쓰였을 뿐 '단형서사'나 '신소설' 모두에서 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로는 동사어간 뒤에 놓인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노이다' 형태의 어미가 '신소설'에서 쓰였으나 이것 역시 하나의 용례만 있을 뿐이다.

(82) 결단코 이말삼은 봉힝치못ᄒᆞᆺ갯노이다(설중매, 55쪽)

그나마 '단형서사'에서는 전혀 쓰인 바도 없다. 따라서 초기 현대국어에서 '-노이다'의 쓰임이 매우 드물 듯이(권재일, 2005. p.34) '-나이다'의 옛 형태가 되는 '-노이다'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이미 거의 쓰이지 않는 종결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1.16.2. '어간+았/었/였+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과거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하여 '어간+았/었/였+나이다'의 유형을 이룬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83) 단형서사

가. 손익리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고로 거믜를 ᄒᆡ롭게 ᄒᆞ고 벌은 구원ᄒᆞ엿ᄂᆞ이다[거믜니야기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23)]

나. 근일 도하에 장관이 잇다 ᄒᆞ기로 수 일 젼에 관광ᄒᆞᆯ 량으로 올나왓나이다[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다. 그릇 험ᄒᆞᆫ 길에 드러가면 그 위ᄐᆡᄒᆞᆷ이 이와 ᄀᆞᆺ다 ᄉᆡᆼ각ᄒᆞ엿나이다[션악 두 길(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1899. 9. 27)]

또한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83)에서와 동일한 유형의 어미가 찾아진다.

(84) 신소설

가. 서울돈 만냥가지고 오는ᄉᆞ롬을 우금것 못 보왓나이다(추천명월, 55-56쪽)

나. 오날ᄒᆞ로 댁에신세를 씻치고 가고ᄌᆞᄒᆞ야 왓나이다(추천명월, 89쪽)

다. 제가 용렬미거 ᄒᆞᆷ으로 로파의 눈밧게나셔 일신을 용납지 못ᄒᆞ엿나이다(원앙도, 79쪽)

라. 잠간 참셕이 되엿ᄂᆞ이다(경세종, 38쪽)

마. 남의말로 ᄌᆞᆼ지ᄒᆞ지말고 속히 결심ᄒᆞ야 유학ᄒᆞ라ᄒᆞ얏ᄂᆞ이다(설중매, 29-30쪽)

바. ᄯᅩ 모친게도 그런말삼은 듯지못ᄒᆞ얏나이다(설중매, 57쪽)

사. 련텰초이발셔이발세망ᄒᆞ고 인비는죽엇ᄂᆞ이다(철세계, 96쪽)

아. 令監을 訪事ᄒᆞ얏나이다(다정다한, 64쪽)

이처럼 ‘어간+과거선어말어미+나이다’는 ‘어간+나이다’의 경우와 같이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소설’에서 특히 활발하게 쓰였음이 확인된다.

3.1.1.16.3. ‘어간+겠+나이다’

선어말어미 ‘-겠-’이 ‘-나이다’와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도 ‘-았/었/였-’이 ‘-나이다’와 결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이의 용례는 두 개뿐이다.

(85) 단형서사

가. 이 ᄌᆞ식이 그젼에 잘못ᄒᆞᆫ 죄도 알고 부모의게 봉양ᄒᆞᆯ 바를 알겟ᄂᆞ이다[죄샹샤 산일 션싱은(제국신문, 1899. 4. 12)]

나. 만일 건져 주시면 그런 은혜는 죽도록 못다 샤례ᄒᆞ겟ᄂᆞ이다[ᄌᆡ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21)]

그리고 이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다음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용례는 두 개에서 그치고 있다.

(86) 신소설

가. 장하에쥭ᄉᆞ와도 죄명을 씨닷지못ᄒᆞ겟ᄂᆞ이다(화의혈, 33쪽)

나. 이일에, 더ᄒᆞ야셔ᄂᆞᆫ, 죽사와도, 봉승치못ᄒᆞ겟ᄂᆞ이다[홍도화(하), 9쪽]

따라서 ‘어간+겠+나이다’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두루 쓰인 유형의 어미이지만 이러한 결합 형태는 ‘어간+았/었/였+나이다’ 결합 형태와는 달리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임상 세력이 이미 쇠퇴하였음이 확인된다.

3.1.1.16.4. '어간+시/으시+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의 뒤에서 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어간+시/으시+나이다'의 유형을 보이게 되는데, 의외로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찾아지나 이의 용례는 단 두 개에 그치고 있다.

(87) 신소설

가. 셔방님 오날은 뮈오곤히 줌으시나이다(설중매, 38쪽)

나. 외모를 보시지 아니ᄒᆞ시ᄂᆞ이다(경세종, 31쪽)

따라서 종결어미 '-나이다'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와 결합된 유형의 어미는 최근세국어에서도 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종결어미 '-나이다'를 존대선어말어미 '-시-'에 결합시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미 거의 소멸된 형태였음을 보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1.1.16.5. '어간+삽/옵+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존대선어말어미 '-시-' 외에 공대선어말어미 '-삽/옵-'과도 결합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에 '-나이다'가 결합한 경우와는 달리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삽/옵-'이 형용사나 동사와 두루 결합하는데 반해 '단형서사'에서는 '-삽/옵-'이 동사어간과 결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88) 단형서사

가. 아모죠록 잘 자닉시기 쳔만축슈ᄒᆞ옵닉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10. 6)]

나. 소신이 병풍 한좌를 진헌ᄒᆞ옵닉다[녯젹에 셔양 어늬 나라에(매일신문,

1899. 1. 27)]

다. 오리비 훈 명만 살녀셔 소녀 부모의 혈육이나 보젼ᄒᆞ시기를 쳔만 바라옵나이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1.2)]

'-옵-', '-습-'이 '-ᄂᆞ이다'와 결합한 형태는 20세기 초기의 국어에서 꽤 자주 나타난다(권재일, 2005. p31).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어간+삽/옵+나이다'의 유형에 대한 용례가 (88)에서 보인 세 개의 구문이 모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소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이 유형에 대한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 '단형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동사어간에 '-삽/옵-'을 결합시킨 유형은 보이지 않는다.[18]

(89) 신소설

가. 엿주어 보옵니다(송뢰금, 45쪽)

나. 그림으로 사진 ᄒᆞᆫ쟝식 드리옵ᄂᆞ이다(경세종, 52쪽)

다. 여러분은 이뜻을 본밧아 이 회의에셔 결의ᄒᆞᆫ일을 진힝ᄒᆞ시기를 바라옵ᄂᆞ이다(금수회의록, 8쪽)

라. 인장위조ᄒᆞᆫ 월일이 지난달이라ᄒᆞ오니 이일이 분명ᄒᆞᆫ증거 되옵나이다(화중화, 35쪽)

마. 이불효의 ᄌᆞ식을 과히근심ᄒᆞ실ᄉᆡᆼ각에 잠이달지 아니ᄒᆞ며 먹어도맛을 아지못ᄒᆞ고 항상민망히 지니옵나이다(추월색, 76쪽)

바. 소승의 속가친정이 여기셔 숨십리쯤되오니 그곳ᄭᅡ지만 다려다 쥬시기를 바라옵나이다(금강문, 121쪽)

사. 고부ᄶᅡ에 보닛던일은 잇ᄉᆞ와도 최슌팔은 엇던쟈인지 평싱에 얼골도 알지못ᄒᆞ옵ᄂᆞ이다(화의혈, 33쪽)

---

18) '-옵나이다'와 '-옵니다'는 동일한 종결어미이다(권재일, 2005. p.33 참조).

아. 여러분끠옵서는 조곰도 의려말으시고 쇼승에게 맛기심을 바루옵누이다(화세계, 39쪽)
자. 다만륙슌, 편친시하에, 불효를, 면치못ᄒᆞ오니, 그일이, 유감이, 되옵니다[홍도화(하), 98쪽]
차. 셩명은, 소인이자세, 몰옵니다[홍도화(하), 108쪽]
카. 죵시정셩이부족ᄒᆞ야오날이야뵈옵니다(구마검, 37쪽)
타. 쳐음 뵈옵니다(세검정, 121쪽)
파. 쇤네는 아모것도 몰옵니다(산천초목, 38쪽)
하. 숨은욕은 나라상감도 드르신다 ᄒᆞ옵니다(화중화, 18쪽)
가′. 살기는 진보면사옵니다(추천명월, 126쪽)
나′. 소승은 팔영ᄉᆞ에 잇ᄉᆞᆸ는ᄃᆡ 당호를 팔영대ᄉᆞ라 ᄒᆞ옵니다[구의산(하), 23쪽]

이처럼 '어간+삽/옵+나이다' 유형은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세국어에서 '어간+시/으시+나이다'의 유형은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어간+삽/옵+나이다' 유형은 여전히 왕성하게 쓰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어간+삽/옵+나이다' 유형은 현대국어에 들어서면서 대화체에서 모습을 감춘 것으로 분석된다.

3.1.1.16.6. '어간+았/었/였+삽+나이다'

어간에 과거선어말어미가 결합될 경우 종결어미 '-나이다'는 '-옵-'의 이형태인 '-삽-'과 결합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예는 세 개에 그치고 있다.

(90) 단형서사
가. 령감님 반찬거리나 싱겻ᄉᆞᆸᄂᆡ다[믹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예 그리 ᄒᆞ엿습ᄂᆞ이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뤼력(경향신문, 1908. 4. 10)]

다. 근심이 업고 깃븜이 ᄒᆞᆼ샹 ᄆᆞ음에 잇ᄉᆞ리라 ᄒᆞ엿습ᄂᆞ이다[선악 두 길(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9. 27)]

반면, ‘신소설’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그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91) 신소설

가. 제가자조 와셔뵈오나 념오 곤히줌으시는듯ᄒᆞ기로 감히깨오지 못ᄒᆞ얏습나이다(설중매, 39쪽)

나. 셔방님어ᄃᆡ셔 편지왓습ᄂᆞ이다(설중매, 24쪽)

다. 지금 여덜점을 쳣습나이다(설중매, 38쪽)

라. 소녀의 머리치를잡고 방으로드러가 칼로찌르려ᄒᆞ는것을 다ᄒᆡᆼ이 졍불히의 구완홈을 엇어 잔명을 보존ᄒᆞ엿습ᄂᆞ이다(화중화, 35쪽)

마. 마조막 칼을쎄여 초월을 힝흉ᄒᆞ려ᄒᆞ옵기에 분홈을 이긔지못ᄒᆞ와 뛰여드러가죰 ᄯᅡ리고 초월을 구원ᄒᆞ엿습ᄂᆞ이다(화중화, 36쪽)

바. 박소ᄉᆞ가 구사위 김헤븡을 ᄯᅦ여바리려 ᄒᆞᆫ다ᄒᆞ오니 긔화가 맛치 잘되엿습ᄂᆞ이다(화중화, 18쪽)

사. 츄호라도 ᄯᅦ여먹지 아니ᄒᆞ엿습ᄂᆞ이다(경세종, 24쪽)

아. 어머님이니러나거라ᄒᆞ시고니르키시는김에겨우정신을진뎡ᄒᆞ얏습ᄂᆞ이다[두견성(상), 57쪽]

따라서 ‘어간+았/었/였+삽+나이다’ 유형의 결합 형태는 ‘신소설’의 경우 널리 쓰였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부터 소멸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1.16.7. '어간+겠+삽+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하듯이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나이다'가 '-겠-'과 결합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단, 이의 용례는 세 개만 찾아진다.

(92) 단형서사

가. 아버지와 홈믜 지게 지고 나무나 부즈런이 ᄒᆞ겟삽ᄂᆞ이다[부ᄌᆞ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1. 23)]

나. 아모케나 내 그거슬 ᄒᆞ겟삽ᄂᆞ이다[부ᄌᆞ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다. ᄯᅩ 무슨 일이 잇슬는지도 모로겟삽ᄂᆞ이다[사ᄅᆞᆷ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라. 쥬인님의 거룩ᄒᆞ고 씩긋ᄒᆞᆫ 싸흘 써나 취ᄒᆞ도록 ᄆᆞ시고 오겟삽ᄂᆞ이다[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홈(그리스도신문, 1902. 2. 15)]

'어간+겠+삽+나이다'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단지 세 개의 유형만 보인다.

(93) 신소설

가. 이 실과는 먹지못ᄒᆞ겟삽ᄂᆞ이다(경세종, 16쪽)

나. 소경력ᄉᆞ를 말ᄒᆞ겟삽나이다(경세종, 21-22쪽)

다. 노비안(奴婢案)에 긔록ᄒᆞ여 두어주시면 쳡이비록 만번죽ᄉᆞ와도 사양치 안겟삽ᄂᆞ이다(화중화, 45쪽)

따라서 '어간+겠+삽+나이다'와 같은 유형의 결합 형태는 비록 사용은 되었으나 '단형서사'나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1.17. '-오이다'

종결어미 '-오이다'는 '-외다', '-ᄉᆞ오이다', '-ᄉᆞ외다'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여기서 '-외다'는 '-오이다'의 축약 형태가 된다(권재일, 2005. p.41 참조). '-오이다'에서 '-오-'는 15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ᄉᆞᆸ-'이 형태변화한 것으로서 공손의 표지이다(김형철, 1997. p.332). 하지만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오이다'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서 '단형서사'에 있어서도 동사어간과 결합한 '-오이다'의 용례가 보인다. 그렇지만 동사어간에 있어서는 이의 유형이 전부로서 이외의 다른 유형은 쓰이지 않았다.

(94) 단형서사

가. 텽힝으로 하문ᄒᆞᆸ신즉 불승감격ᄒᆞ오이다[황국단풍 됴흔 집에(대한매일신보, 1908. 9. 24)]

나. 감격ᄒᆞ오이다[황국단풍 됴흔 집에(대한매일신보, 1908. 9. 24)]

'신소설'의 경우에는 동사어간에 '-오이다'가 온 경우는 없고, 단지 보조동사에 '-오이다'가 온 경우만 보인다. 그나마 하나의 용례만 있다.

(95) 신소설

관계치아니ᄒᆞ외다(박연폭포, 207쪽)

따라서 종결어미 '-오이다'가 동사어간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단형서사'든 '신소설'이든 대단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종결어미 '-오이다'에 있어서 '어

간+오이다'의 결합 형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을 뿐 나머지 다른 결합 형태는 이미 소멸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1.18. '-오리다'

종결어미 '-오리다'는 '-오리이다'가 줄어진 꼴로서 '-오-'는 '-삽-'의 변이형태이고 '-으리-'는 추측·미래의 선어말어미이며 '-이-'는 상대존대의 형태소이다(김형철, 1997. p.333). 이는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보이는 종결어미로서 반드시 동사어간하고만 어울린다.

3.1.1.18.1. '어간+오리다'

'단형서사'에서 종결어미 '-오리다'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형태를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96) 단형서사

가. 죽을 지연뎡 그리ᄒᆞ오리다[사룸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나. 셜치홀 것은 날를 골ᄋᆞ치고 가히 긔약ᄒᆞ오리다[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9)]

다. 네 그리ᄒᆞ오리다[동창이 발가오믜 보관문을(.대한매일신보, 1910. 1. 25)]

라. 분부ᄃᆡ로 ᄒᆞ오리다[동창이 발가오믜 보관문을(.대한매일신보, 1910. 1. 25)]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어간+오리다'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단지 네 개의 용례만 보였으나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97) 신소설

가. 다시는 그리 아니ᄒᆞ오리다[몽조(황성신문, 1907. 8. 23)]

나. ᄂᆡ일은 올나 가오리다(송뢰금, 17쪽)

다. 내가 춤 우수운 니야기 ᄒᆞ나 ᄒᆞ오리다(경세종, 43쪽)

라. 이곳으로다시오면입으실만ᄒᆞᆫ의복을몃벌이던지말ᄉᆞᆷᄒᆞ시는ᄃᆡ로갓다드리리다(구마검, 39쪽)

마. ᄂᆡ가다조처하오리다(귀의성, 46쪽)

바. ᄌᆞ고이ᄅᆡ로 ᄉᆞ긔에 빗난일이 ᄒᆞᆫ두가지가 아니오니 대강 말삼 ᄒᆞ오리다(금수회의록, 11쪽)

사. ᄆᆞᆫ져 셔양셔 드른 니야기를 잠간 ᄒᆞ오리다(금수회의록, 26쪽)

아. 그외 여러 귀즁ᄒᆞ신 부인들이 만좌ᄒᆞ셧스니 두어말ᄉᆞᆷ ᄒᆞ오리다(자유종, 1쪽)

자. 변변치못ᄒᆞᆫ 구변이나 ᄂᆡ먼져 말ᄉᆞᆷᄒᆞ오리다(자유종, 4쪽)

차. 한마듸 말ᄉᆞᆷ만쾌히ᄒᆞ시면 ᄅᆡ일이라도 ᄃᆡᆨ나으리ᄭᅴ셔 ᄂᆞ오시도록 힘을 써보오리다(화의혈, 41쪽)

카. 현풍 디경ᄭᆞ지만 ᄃᆡ려다주시면 그동안 쟝ᄉᆞ에 손해당ᄒᆞ신 것은 쇼승이 무러드리오리다(화세계, 55쪽)

타. 령감 령감 이왕잘못ᄒᆞᆫ일을 용셔히 쥬시면 다시ᄂᆞᆫ 이심을 두지안이ᄒᆞ고 령감ᄃᆡᆨ에셔 골을뉘오리다(산천초목, 75쪽)

따라서 종결어미 '-오리다'가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형태의 어미는 '단형서사'보다는 '신소설'에 들어와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유형이 됨을 알 수 있다.

3.1.1.18.2. '어간+시/으시+오리다'

종결어미 '-오리다'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여 '어간+시/으시+오리다'의 유형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없다. 오

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지는데 이 역시 다음에서 보이는 세 개의 용례만 있을 뿐이다.

(98) 신소설

가. 이일는 ᄆᆡ일진ᄆᆡᆨᄒᆞ든 의ᄉᆞ에게 하문ᄒᆞ여보옵시면 아시오리다(화중화, 35쪽)

나. 그녀승은 지금 ᄃᆡᆨ으로 오시니 보시면 자연 아시오리다[치악산(하), 108쪽]

다. 당장 웃옷을 벳기고 됴사ᄒᆞ야 보시면 가히 진가ᄅᆞᆯ알으시오리다[구의산(하), 94쪽]

이처럼 종결어미 ‘-오리다’가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는 유형은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거의 쓰이지 않았던 결합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3.1.1.19. ‘-이다’

종결어미 ‘-이다’는 계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이는 어떠한 내용을 서술하는 의미를 가진다. 종결어미 ‘-이다’는 주로 회상선어말어미 ‘-더-’나 공대선어말어미 ‘-옵-’ 또는 역시 공대선어말어미인 ‘-사옵-’과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김형철(1997)에서는 ‘-이다’의 ‘-이-’를 15세기 국어에서 상대존대의 기능을 담당하던 ‘-이-’의 변화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3.1.1.19.1. ‘어간+더+이다’

종결어미 ‘-이다’가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형태인 ‘-더이다’는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소멸된 어미이다(권재일, 2005. p.38).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의 경우에서도 역시 단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종결어미가 찾아진다.

(99) 신소설

가. 약이나잘쓰고 조리ᄒᆞ시면 차 회춘ᄒᆞ시리니 아모 념려ᄒᆞ지말나 ᄒᆞ더이다(설중매, 1쪽)

나. 그부인의 일가댁이 문산포ᄶᅡ에 잇셔그곳으로 가신다ᄒᆞ더이다(설중매, 40쪽)

다. 칠십리라ᄒᆞ더이다(설중매, 40쪽)

라. 국한문과양셔를 능히 보기로 쥬인다려무른즉 경셩사ᄅᆞᆷ이라ᄒᆞ더이다(설중매, 47쪽)

마. 군자가 근일에 쥬식에 참혹ᄒᆞ야 옥도라ᄒᆞᄂᆞᆫ 기ᄉᆡᆼ과 백년금실을 맷엿다ᄒᆞ야 쳡의단망ᄒᆞ기를 도모ᄒᆞ더이다(설중매, 77쪽)

바. 자근아씨 문밧게 송교관이 오셔서 그누의님의말삼을 젼ᄒᆞ고자ᄒᆞ야 잠간뵈ᄋᆸ기를 쳥ᄒᆞ더이다(설중매, 59쪽)

사. 나는 젼셜로 드름의 셩죠와 친밀히 지ᄂᆡᄂᆞᆫ녀자가 형과갓가와 형의려비ᄶᅡ지담당ᄒᆞ야 준일을알고 시긔ᄒᆞ야 그리홈이라 ᄒᆞ더이다(설중매, 66쪽)

아. 아즉그리년만ᄒᆞᆫ 터이아니시니 약이나잘쓰고 조리ᄒᆞ시면 차 회춘ᄒᆞ시리니 아모 념려ᄒᆞ지말나 ᄒᆞ더이다(설중매, 1쪽)

자. 문산포가 어ᄃᆡ인지 그곳으로 간다ᄒᆞ더이다(설중매, 38쪽)

차. 이것을 셔방님게 드리라ᄒᆞ더이다(설중매, 39쪽)

카. 그 아씨게셔 유지ᄒᆞ신량반의 곤난격그심을 ᄋᆡ셕히녁여 보ᄂᆡ신것이라ᄒᆞ더이다(설중매, 71쪽)

20세기 초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회상법의 '-더이다'가 널리 쓰이지 않았지만(권재일, 2005. p.38) (99)에서는 이의 표기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례는 모두 '설중매'에서 나온 것으로서 '설중매' 외에는 '신소설'에서도 '어간+더+이다'

의 형태는 일체 쓰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99)에서 보이는 '어간+더+이다'는 작가 구연학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쓰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중매'를 제외하면 '어간+더+이다'는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유형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어간+더+이다'는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설중매'를 제외한 '신소설'과 '단형서사'에서도 역시 이를 대화체에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간+더+이다'는 개화기 이전부터 이미 대화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1.19.2. '어간+옵+더+이다'

'어간+더+이다'로 된 유형은 '-더-'의 앞에 공대선어말어미 '-옵-'을 더 둘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간+옵+더+이다'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있다.

(100) 신소설

가. 우리아는사ᄅᆞᆷ에도 ᄎᆡᆨ만드는사ᄅᆞᆷ이잇스나 요사이 ᄆᆡᄆᆡ가업셔셔 아모리 됴흔ᄎᆡᆨ이라도 팔니지아니 ᄒᆞᆫ다ᄒᆞᄋᆞᆸ더이다(설중매, 23쪽)

나. 어ᄃᆡ셔왓는지 아지못ᄒᆞ나 하인은 인력거군갓흔ᄃᆡ 편지는두고간다ᄒᆞ고 즉시어ᄃᆡ로 가ᄋᆞᆸ더이다(설중매, 25쪽)

그러나 이 역시 '구연학'의 '설중매'에서만 보이는 것이므로 '설중매'를 제외하면 '어간+옵+더+이다' 유형도 '어간+더+이다'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어간+더+이다'와 '어간+옵+더+이다'로 이루어지는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소멸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3.1.1.19.3. '어간+았/었/였+사오+이다'

종결어미 '-이다'는 공대선어말어미 '-사옵-'과도 결합이 된다. 그런데 공대선어말어미 '-사옵-'이 어간과 결합한 예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보이지 않고, 대신 '-사옵-'이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는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101) 신소설

향자에집에잇는손님들이 신문을보다가 (짜이나마이드)를 맛츄엇다 ᄒᆞ던그소릐가 귀에져겻ᄉᆞ오이다(설중매, 27쪽)

위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간+았/었/였+사오+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인 '설중매'에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 어미 구성은 '설중매' 외에는 '단형서사'는 물론 어떤 '신소설'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01)의 '어간+았/었/였+사오+이다' 형태를 '구연학' 개인의 성향에 의한 사용인 것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은 최근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쓰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1.1.19.4. '어간+겠+사오+이다'

'-사오+이다'의 유형은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하여 '어간+겠+사오+이다'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이 '단형서사'에서 보인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02) 단형서사

셰샹 리치를 ᄭᅢ닷겟ᄉᆞ외다[이젼에 ᄒᆞᆫ 노인이(매일신문, 1898. 7. 21)]

위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미의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하지만 앞의 경우와는 달리 '설중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중화'에서 하나의 용례가 보이고 있다.

(103) 신소설

이일일곳 되기만ᄒᆞ면 소인이 ᄲᅡᆷ마진셜원을 ᄒᆞ겟ᄉᆞ외다(화중화, 18-19쪽)

이와 같이 '어간+겠+사오+이다'는 종결어미 '-이다'에 있어서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그나마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유형이 된다. 이는 곧 종결어미 '-이다'의 여러 결합 형태 중에서 '어간+겠+사오+이다'만 최근세국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1.20. '-로소이다'

종결어미 '-로소이다'는 현재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로소이다'는 미래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하여 '어간+리+로소이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는 '단형서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보이고 있다.

(104) 신소설

가. 실로 얼골이 둑겁사와 진시 대답지못ᄒᆞ얏ᄉᆞ오ᄂᆞ 그죄ᄯᅩ한 쥭어도 남지 못 ᄒᆞ리로소이다[금국화(상), 66쪽]

나. 쳡은 만번쥭어도 싼ᄉᆞ롬이어늘 무슴일로 이갓치 화헌긔식으로 무르시ᄂᆞᆫ지 몸둘ᄯᅡᆼ을 아지못 ᄒᆞ리로소이다(추천명월, 128쪽)

종결어미 '-로소이다'는 현대국어에서 대화체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문에 쓰이고 있어 현대국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어체에 가까운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다가 대화체에 가까운 '신소설'에서는 쓰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로소이다'가 대화체이므로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 쓰

였지만 현대국어에 들어서면서 대화체에서의 쓰임이 쇠퇴되어 오늘날에는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 종결어미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3.1.2. 형용사어간+종결어미

앞의 '3.1.1'에서는 종결어미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종결어미는 동사하고만 결합하지는 않는다. 형용사하고도 결합을 하는데 여기 '3.1.2'에서는 종결어미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3.1.2.1. '-다'

3.1.2.1.1. '어간+다'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5) 단형서사

가. 너무 무겁다[님금의 ᄆᆞ옴을 용케 돌님(경향신문, 1907. 11. 8)]

나. 남의 집 아희들은 다 식 옷 입엇는ᄃᆡ 너 혼ᄌᆞ 식깜한 옷을 입고 놈붓글업다[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다. 밋지 아니ᄒᆞ는 나만큼 편안ᄒᆞ지 못ᄒᆞ다[늙은 흑인(그리스도신문, 1901. 5. 16)]

라. 불가불 손을 묵고 항복홀 슈 밧게 업다[당파(제국신문, 1899. 5. 20)]

마. 이 화원이 비록 조흐나 산지동만 못ᄒᆞ다[붉은 거울을 보시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25)]

바. 산이 촉도에 어려온ᄃᆡ 그 어려운 거슬 다흠만 갓지 못ᄒᆞ고 물이 황하에

궁흔딕 가셔 그 궁흔 거슬 다흠만 갓지 못ᄒᆞ다[녯젹에 소년 남ᄌᆞ 두 샤룸 이(매일신문, 1899. 3. 15)]

사. 사룸은 죽엿ᄉᆞ나 안쥬인의 소원대로 ᄒᆞᆫ 거시니 걱정ᄒᆞᆯ 거슨 업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3. 27)]

아. 힝보ᄒᆞ기가 ᄃᆡ단히 괴롭다[근일에 돈암란화라 ᄒᆞᄂᆞᆫ(매일신문, 1898. 7. 23.)]

자. 썩은 나무ᄂᆞᆫ 삭일 수가 업다[신진학이라 ᄒᆞᄂᆞᆫ 사룸은(매일신문, 1898. 7. 29)]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를 볼 수 있다.

(106) 신소설

가. 네게ᄂᆞᆫ 빅긔를들고 항복아니ᄒᆞᆯ슈가업다(혈의루, 71쪽)

나. ᄂᆞᄂᆞᆫ, ᄂᆞᄒᆞ고시푼ᄃᆡ로, ᄒᆞ지, 너ᄒᆞ라ᄂᆞᆫᄃᆡ로ᄒᆞᆯ병신갓ᄒᆞᆫ놈업다[귀의성, 30쪽]

다. 허, 허, 이놈들아 산ᄋᆡ와다르고 계집ᄋᆡ를 헹가리가 다— 무엇이냐 처치ᄒᆞᆯ도리가 잇다(금강문, 100쪽)

라. ᄂᆡ가 인제ᄂᆞᆫ 아모걱정근심이읍다[구의산(상), 21쪽]

마. 오냐 예셔 장황히 말ᄒᆞᆯ것업다[구의산(상), 98쪽]

바. ᄂᆡ가 무엇으로ᄒᆞ던지 져보다 못ᄒᆞᆫ것은업다[금국화(상), 9쪽]

사. 네소위가 죽을죄를 범ᄒᆞ얏스니 쥭이지 아니ᄒᆞᆯ슈ᄂᆞᆫ업다[금국화(상), 33쪽]

아. 네학력이 과히즁등이잇다(금의쟁성, 33쪽)

자. 차지라ᄂᆞᆫ 박씨도 궁극시럽거니와 슯기ᄂᆞᆫ 나역시 지독ᄒᆞ다(산천초목, 47쪽)

차. ᄂᆡ가 져다려 즁언부언 말ᄒᆞᆯ것업다(산천초목, 69쪽)

카. 에구 ᄇᆡ가엇지부른지 젼역먹을슈업다(안의성, 23쪽)

타. 나ᄂᆞᆫ남의 심부름으로 먹고사ᄂᆞᆫ 사람이닛가 그져ᄂᆞᆫ ᄒᆞᆯ슈업다(재봉춘, 78쪽)

따라서 ‘어간+다’로 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 및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2.1.2. ‘어간+겠+다’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을 하여 ‘어간+겠+다’의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찾아진다.

(107) 신소설

가. 늬가, 조년븟터처쥭여야, 속이시연ᄒᆞ깃다(귀의성, 20쪽)

나. 이대뎌대 눈치를 뵈이지말고 됴흔낫으로 예란듯이 구는편이 올켓다(산천초목, 43-44쪽)

다. 이왕 집심을 곳치고 장가들바에는 다른곳보다 리승지의 쏠만ᄒᆞᆫ 혼쳐가 업겟다[치악산(하), 101쪽]

비록 ‘어간+겠+다’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앞의 ‘3.1.1.1.2’의 (5)에서처럼 동사어간에 온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종결어미 ‘-다’의 용례가 ‘단형서사’에서 보이므로 이는 ‘어간+겠+다’의 유형이 쓰일 만한 구문이 없었던 것이지 ‘어간+겠+다’의 유형 자체가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1.2.1.3. ‘어간+으리+다’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으리-’와도 결합을 하는데 이러한 유형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그 용례가 찾아진다.

(108) 신소설

가. 희붕은 죄를 바드려니와 아자머니쩍은 아무관계 업스리다(화중화, 26쪽)
나. 니군아 만일 여긔만 오려잇스면 후일 복녹은 한량니 업스리다(비행선, 176쪽)

따라서 형용사어간에 놓인 선어말어미 '-으리-'와 결합한 종결어미 '-다'와 같은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만 보이는 유형이 된다. '어간+으리+다'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간이 동사이건 형용사이건 간에 '어간+으리+다'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쇠퇴하고 '신소설'에서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2. '-리/으리라'

'-리/으리라'는 어떤 사실에 대한 추정 또는 좀 더 강하게는 확신의 의미를 실현한다(권재일, 2005. p.50). 이러한 종결어미 '-리/으리라'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하여 '어간+리/으리라'의 형태를 이룬다. 이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09) 단형서사
가. 네가 보면 ᄌᆞ연이 ᄭᅢ닷ᄂᆞᆫ 도리가 잇스리라[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롤 졉붓치ᄂᆞᆫ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나. 이러ᄒᆞ고야 흥왕치 아닐 리치가 업스리라[상목지 문답(독립신문, 1898. 12. 2)]

'어간+리/으리라'는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하지만 용례에 있어서는 '단형서사'와는 달리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110) 신소설

가. ᄂᆡ가 엇던턴지 쳔년ᄒᆞᆫ긔ᄉᆡᆨ으로 참고잇스리라[치악산(상), 60쪽]

나. 시ᄒᆡ에는 너의댁에 조흔일은업스리라[치악산(상), 184쪽]

다. 지금ᄀᆞᆺ치 젼황ᄒᆞᆫ 셰월에 공연히 들고만 도라단이면 물건만 쳔ᄒᆡ지지 작쟈가별로 업스리라(화세계, 139쪽)

라. 김승지갓치어진ᄉᆞ롬이 죽을리는 업스리라(추월색, 23쪽)

따라서 종결어미 '-리/으리라'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서 종결어미 '-리/으리라'는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음에 비해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여전히 대화체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1.2.3. '-느니라'

종결어미 '-느니라'는 동사어간이나 형용사어간과 결합한다. '-느니라'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경우는 앞에서 '3.1.1.5.1'의 (21)에서 보았듯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마찬가지로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도 이의 형태가 '단형서사'에 찾아진다.

(111) 단형서사

가. 뎌 골노 드러가면 ᄎᆞᆷ 조흔 경ᄀᆡ가 잇ᄂᆞ니라[ᄇᆞᆰ은 거울을 보시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25)]

나. 지금ᄭᆞ지 평양 셩즁에는 깁흔 우물이 업ᄂᆞ니라[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션비ᄒᆞ나이(독립신문 : 1899. 10. 12.)]

다. 젼일에 의연히 션션ᄒᆞᆫ 일단 민족이 개개히 어육이 되는 쟈도 잇ᄂᆞ니라[ᄀᆡᆨ창문답(대한매일신보 : 1908. 11. 18)]

그리고 위의 '어간+느니라' 형태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112) 신소설

가. 내가남에악담이아니라 남의 못ᄒᆞᆯ노릇을ᄒᆞ고 제게안치지아니ᄒᆞᄂᆞᆫ법이 업ᄂᆞ니라(화의혈, 35쪽)

나. 이다음 갑흠을 바람이안인즉 구구히 오네가네 말ᄒᆞᆯ리도 업고 이곳에 ᄶᅡ라올 곡졀도업ᄂᆞ니라(화세계, 69쪽)

다. 그런일업ᄂᆞ니라(안의성, 81쪽)

라. 몸압흔ᄡᅥᆨᄂᆞᆫ 집만ᄒᆞᆫ데가 업ᄂᆞ니라(안의성, 96쪽)

따라서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느니라'가 결합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2.4. '-걸'

3.1.2.4.1. '어간+ㄴ/는/은걸'

'어간+ㄴ/는/은걸' 유형에 있어서 어간이 동사인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단, 이의 용례는 하나만 있다.

(113) 단형서사

응 이 셜은 지낫지마ᄂᆞᆫ 음역셜이 ᄯᅩ 잇ᄂᆞᆫ걸[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그리고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

다.

(114) 신소설

가. 여합부절로 말ᄒᆞᄂᆞᆫ양을 본즉 귀신이라는 것이 잇기는 잇ᄂᆞᆫ걸(구마검, 21쪽)

나. 돈 표를써셔 드리밀고 술러달나 노아달나 그ᄯᅡ위쳥ᄒᆞ고 십흔마음은 읍는걸(은세계, 27쪽)

다. 여보 마음도 급ᄒᆞ기도ᄒᆞ지 오날은너무일은걸[치악산(상), 90쪽]

라. 에그 뎌아씨보게 그런줄몰낫더니 보장이 어지간치안케큰걸(화의혈, 65쪽)

따라서 '어간+ㄴ/는/은걸'로 된 어미의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 '-걸'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이러한 종결어미가 찾아지므로 이는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1.2.4.2. '어간+ㄹ걸'

종결어미 '-ㄹ걸'은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한다. '단형서사'에서는 동사어간과 결합한 '어간+ㄹ걸'의 형태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어간+ㄹ걸'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115) 단형서사

그러면 릭일 시벽에 니러나가면 넉넉홀걸[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ㄹ걸'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품사를 보지 않는다면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어간+ㄹ걸' 유형의 어미 구성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어간+ㄹ걸'과 같은 결합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의 결합 형태가 '단형서사'에서 하나만 찾아지므로 이러한 결합 형태는 최근세 국어에서부터 널리 쓰였던 것이 아니라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3.1.2.5. '-지'

종결어미 '-지'도 동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여 결합한다. 다음에 보이는 '단형서사'에서의 예문은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지'가 결합된 예이다.

(116) 단형서사

가. 또 내가 늙엇지마는 아직은 씃씃ᄒᆞ여 졂은 놈 두엇 줌이야 념려 업지[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우리 술먹는 버ᄉᆞ시 잇지[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117) 신소설

가. 두셔방이니, 두게집이니, 그까지소리도할것업지(귀의성, 69쪽)

나. 사실ᄒᆞ야보아셔 졔죄업스면 무사ᄒᆞ지(화중화, 27쪽)

다. 긔셩아니라 의쥬를가더라도 한집안속에 잇는듯ᄒᆞ야 못니칠것이업지(재봉춘, 170쪽)

그러므로 '어간+지'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모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결어미 '-지'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듯이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1.2.6. '-네'

종결어미 '-네'는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과 결합을 한다. 여기서는 어간이 형용사 또는 보조형용사인 경우에 한해 다룬다.

3.1.2.6.1. '어간+네'

종결어미 '-네' 형용사어간과 결합하여 '어간+네'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18) 단형서사

가. 텬지가 아득ᄒᆞ여 몸둘 곳이 바이 업네[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13)]

나. 감봉도 ᄒᆞᆫ 일 업고 슈유도 ᄒᆞᆫ 일 업네[긔쟈ㅣ 즁부 엇던 방곡을(대한매일신보, 1908. 12. 10)]

다. 밤은 깁허오고 인력거 부르는 잡놈 반갠도 업네[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라. 뎌 빅생들이 무엇이 미워셔 정부에셔는 긔어히 히ᄒᆞ려 ᄒᆞᄂᆞᆫ지 참 알슈 업네[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마. 이 사룸 돈은 벌기 젼에 훌 것은 만히 잇네[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25)]

마찬가지로 '어간+네'로 이루어진 어미의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119) 신소설

가. 그수 밧게는 다른 수가 업네(송뢰금, 84쪽)

나. 뤼일은 부득이 쪄나니 박졍훈 말로 날니는 쥬션을 훌수가 업네(송뢰금, 84쪽)

다. 여보게지ᄂᆞ간일은쓸ᄯᅦ업시말훌것업네(구마검, 54쪽)

라. 시골노 가자며 갈곳도잇네(모란병, 14쪽)

그러므로 '어간+네'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어간+네'의 유형이 대화체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인다.

3.1.2.6.2. '어간+았/었/였+네'

종결어미 '-네'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어간+았/었/였+네'의 형태를 만든다. 그런데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다.

(120) 신소설

가. 어ᄃᆡ를가던지, 뉵회졉시, 술잔이쪄날쩍가, 업셧네(귀의성, 5쪽)

나. 춤되엿네(명월정, 12쪽)

다. 으―그 계집ᄋᆞ희의일로 ᄂᆡ가 퍽 셩가시엿네[두견성(하), 123쪽]

'어간+았/었/였+네'의 형태가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따라서 품사를 떠나서 본다면 이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2.6.3. '어간+겠+네'

종결어미 '-네'는 선어말어니 '-겠-'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결합은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21) 단형서사

가. 그러나 우리 무삼 일을 좀 서로 ᄒᆞ여 보면 됴켓니[동전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나. 싱이 업서 쥭겟네[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7)]

다. 일낙서산 가ᄂᆞᆫ 히ᄂᆞᆫ 불遠간에 어둡깃네[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12)]

라. 나ᄂᆞᆫ 꿈에라도 셔울 와셔 ᄒᆞᆫ 번 살어보면 됴켓네[어느 시골 친구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1. 2)]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와 같이 '어간+겠+네'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122) 신소설

응 그러ᄒᆞ겟네[금국화(하), 102쪽]

'신소설'에서는 종결어미 '-네'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예가 하나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용례가 찾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간+겠+네'는 품사를 떠나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두루 쓰인 어미 구성이라 할 것이다.

3.1.2.7. '-느니'

종결어미 '-느니'는 동사어간 외에 형용사어간과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간+느니'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을 볼 수 있다.

(123) 신소설

가. 그냥반덕에, 우리가, 쏘수눌때잇느니(귀의성, 5쪽)

나. 허 아희들은 그런슈가 혹간잇느니[치악산(하), 32쪽]

다. 여보게 그러도 그런법이업느니[치악산(하), 67쪽]

'어간+느니'가 비록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보이므로 어간의 품사를 떠나서 보면 '어간+느니'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쓰였다고 할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종결어미 '-느니'는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종결어미 '-느니'가 대화체에서 그나마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종결어미 '-느니'의 쓰임상 쇠퇴는 최근세국어 시기가 아닌 현대국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1.2.8. '-이'

종결어미 '-이'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한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어간으로 왔을 경우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3.1.2.8.1. '의문종결어미+보+이'

'-보+이'는 의문종결어미와 결합하는데 이때 의문종결어미의 앞에서 결합되는 어휘의 품사가 형용사인 경우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신소설'에서도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24) 신소설

망칙홀것도 업던가보이(산천초목, 21쪽)

의문종결어미의 앞에서 결합되는 어휘가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서사'에서도 용례가 있지만 이때에도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각각 하나와 세 개의 용례에 불과하므로 이의 용례는 많지 않다.

현대국어에서도 '의문종결어미+보+이' 형태는 대화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이의 용례가 극히 적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2.8.2. '어간+더+이'

'-더+이'의 유형은 동사어간이나 형용사어간과 결합한다. 아래의 예문에서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경우이다.

(125) 단형서사

가. 그려 그러치마는 인제는 춤 다 늙어셔 길을 거러본즉 이젼보다 다르데[밋은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근일에도 별노 엇어 볼 슈 업데[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7)]

다. 그죠-집은 무삼 죠-집인지 알 슈 업데[거부오해(대한매일신보, 1906. 2. 20)]

위 '단형서사'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다.

(126) 신소설

가. 셩졍셩니가무당의말듯기젼에명풍을맛나랴고졍셩도젹지안이드려보앗네마는 다쓸듸업데(구마검, 35쪽)

나. 알만흔친구ᄂᆞᆫ 모죠리 보고 부탁을 힛더니 혼인이라ᄂᆞᆫ것은 쪽텬싱연분이 잇나보데(모란병, 12쪽)

다. 속담에 츈치자명(春雉自鳴)인가ᄒᆞ며 드러가 살펴본즉 알뜰 살뜰 셰간치장은 물론이고 데일 보이ᄂᆞᆫ것이 잇데(명월정, 9쪽)

라. 우리부형들도 념우완고ᄒᆞ셔셔 참민망ᄒᆞ야 견댈수업데(설중매, 17쪽)

마. 그 령감이 쳔년 만년이나 살쥴알앗 던지 격실네를 마암대로 휘둘넛던가 보데(산천초목, 33쪽)

따라서 '어간+더+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례는 많지 않아서 '-더+이'의 축약형인 '-데'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널리 쓰이는 것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더+이'는 최근세국어 시기에 대화체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3.1.2.8.3. '어간+았/었/였+더+이'

'-더+이'의 형태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신소설'에서는 찾아지지만 이 역시 그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27) 신소설

압다 그식시 꽤 잘싱겻데(화세계, 58쪽)

하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신소설'은 물론 '단형서사'에서도 용례가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용례는 각각 네 개와 두 개로서 많지 않다. 따라서 '-더+이' 형태의 경우에는 어미의 구성 형태와 상관없이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그렇게 널리 쓰이는 말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3.1.2.9. '-오/소'

종결어미 '-오/소'는 동사어간과 형용사어간 모두와 결합하는 어미이다.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어간+오/소'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8) 단형서사

가. 귀버힌 니야기를 보고 수도된 거술 싱각흐면 븟그럽소[조곰 어그러지는 밋음(그리스도신문, 1901. 5. 30)]

나. 인녁 남편이 져기 잇다흐니 나는 볼 수 업소[군수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다. 망홀 디경된 연후에 후회하여 쓸 딕 업소[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12)]

라. 무령ᄒᆞᆫ ᄯᆞ닭에 살 슈가 업소[북촌 사ᄂᆞᆫ 사ᄅᆞᆷ ᄒᆞᄂᆞ이(매일신문, 1898. 9. 20)]

마찬가지로 '어간+오/소'는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진다.

(129) 신소설

가. 웬일인지, 마ᄋᆞᆷ이고약ᄒᆞ오[귀의성, 11쪽]

나. 저러ᄒᆞᆫ 의논을드르면 ᄂᆡ속이시연ᄒᆞ오(혈의루, 73쪽)

다. 어니고ᄉᆡᆼ을면하게, 할도리가잇스면, ᄒᆞ고십소[귀의성, 117쪽]

라. 여보마누라, ᄂᆡ가, 무ᄉᆞᆫ의논을, 죰, 할일이잇소[귀의성, 90쪽]

마. 여보요란스랍쇼[귀의성, 69쪽]

바. ᄂᆡ가 그ᄃᆡ의은혜를바다서 오ᄂᆞᆯ이럿케 공부를ᄒᆞ얏스니 심히곰압소(혈의루, 71쪽)

따라서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종결어미 '-오/소'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이 확인된다.

3.1.2.10. '-ㅂ/습디다'

종결어미 '-ㅂ/습디다'는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한다. 여기 '3.1.2.10'에서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하는 '-ㅂ/습디다'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3.1.2.10.1. '어간+ㅂ/습디다'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ㅂ/습디다'가 결합된 경우 이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보인다.

(130) 신소설

가. 그경칠년이 우리ᄃᆡᆨ을 이지경이되게 망ᄒᆡ노코 무에낫바셔 화ᄀᆡ동아씨까지 팔아먹으랴나봅되다(빈상설, 54쪽)

나. 밥갑한ᄑᆞᆫ 주지못ᄒᆡᆺ겟지마는 그녀승은 돈이퍽 만은것인가봅되다(화세계)

다. 혼쳐ᄂᆞᆫ 져긔조흔곳잇습되다(추월색, 29쪽)

라. ᄃᆡ단히 유슌ᄒᆞ고 곰압게ᄒᆞᄂᆞᆫ 모냥이니 그것이 제일다ᄒᆡᆼ합되다(재봉춘, 138쪽)

마. 참사ᄅᆞᆷ것지 아니ᄒᆞᆫ것도 세상에만습되다(재봉춘, 139쪽)

바. 천덕이 천덕이ᄒᆡ도 다시 그런천덕이ᄂᆞᆫ 업습되다(산천초목, 73쪽)

그런데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어간+ㅂ/습디다'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어간의 품사를 떠나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2.10.2. '어간+겠+습디다'

종결어미 '-ㅂ/습니다'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보이고 있다. 단,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31) 신소설

홍참의집산다ᄂᆞᆫ소문을드르면 참 부자집ᄀᆡ만도 못ᄒᆞᄀᆡᆺ습되다[치악산(상), 134쪽]

그런데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역시 '어간+겠+습디다'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찾아지고 있으므로 이 유형은 품사에 관계없이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이 확인된다.

'-습디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따라서 '-습디다'가 쓰인 어미의 결합 형태 중에서 '어간+ㅂ/습디다'와 '어간+겠+습디다'는 '신소설'에서

만 찾아질 정도로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세력이 쇠하였으며, 특히 '어간+겠+습디다'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틀어 하나의 용례만 있으므로 이는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3.1.2.10.3. '어간+오+ㅂ디다'

종결어미 '-습니다'가 형용사어간 또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였을 경우 이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공대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찾아진다. 다만,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32) 신소설

네 편안ᄒᆞ옵듸다(안의성, 26쪽)

'어간+오+ㅂ디다'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은 것은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이의 유형은 어간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단형서사'에서는 일체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간+오+ㅂ디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 형태이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이의 형태는 오직 하나의 용례만 있으므로 이의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소멸 단계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2.11. '-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에 있어서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간+ㅂ니다'의 형태로는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쓰이지 않았다. 대신 '어간+시/으시+ㅂ니다'와 '-다+ㅂ니다' 그리고 '-라+ㅂ니다'의 형태로 쓰였다.

3.1.2.11.1. '어간+시/으시+ㅂ니다'

형용사의 어간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가 오고 이에 종결어미 '-ㅂ니다'가 결합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보이고 있다.

(133) 신소설

가. 그말삼이꼭올으십니다(구마검, 43쪽)

나. 참 너무야속 ᄒᆞ십니다(재봉춘, 78쪽)

다. 네 형님 말삼이 올흐십니다(원앙도, 87쪽)

따라서 '어간+시/으시+ㅂ니다'의 형태는 '신소설'에 들어서서 쓰이기 시작한 결합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1.2.11.2. '-다+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또 다른 종결어미 '-다'와 결합하여 '-다+ㅂ니다'의 구성을 이루어 어떠한 사실이나 내용을 일러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다.

(134) 신소설

가. 오늘도, 령감게셔, 마마댁에가셧는데, 침모도거긔, 잇답니다(귀의성, 71쪽)

나. 령감게셔 심귀가 그러케 어두시답니다(구마검, 5쪽)

다. 자녀를 물론ᄒᆞ고 귀ᄒᆞᆫ마음을 다를때가 업답니다(금강문, 5쪽)

'-다+ㅂ니다'의 유형은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쓰이는데 이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따라서 '-다+ㅂ니다'는 어간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은 어미 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3.1.2.11.3. '-라+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종결어미 '-다' 외에 종결어미 '-라'와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동사어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간이 형용사인 여기에서도 '-라+ㅂ니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있다.

(135) 신소설

가. 쉽도허스가 안이랍니다(목단화, 30쪽)

나. 홍져도 상놈은 안이랍니다[치악산(하), 72쪽]

따라서 종결어미 '-ㅂ니다'는 오늘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이는 '단형서사' 때까지만 해도 대화체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종결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2.12. '-습니다'

종결어미 '-습니다'는 동사 외에 형용사하고도 결합한다. 여기서는 어간이 동사인 '3.1.1.15'와는 달리 어간이 형용사로서 이에 결합하는 종결어미 '-습니다'가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어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2.12.1. '어간+습니다'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습니다'가 바로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의 경우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의 경우에는 많은 용례가 찾아진다.

(136) 신소설

가. 악가여긔, 왼, 교군이잇더니, 지금은업습니다(귀의성, 26쪽)

나. 거복이말은 좋홀슈업지만 안이쩐굴둑에 연긔나는법이 업습니다(빈상설, 67쪽)

다. 시싱은가운이, 불힝ᄒᆞ야, 기간소경력을, 무엇이라고, 엿쥴말삼이, 업습니다[홍도화(하), 98쪽]

라. 할멈도이러케심신이화창ᄒᆞ여본적이업습니다[두견성(상), 104쪽]

마. 이사이에는밤마다몽ᄆᆡ지간에옥안을ᄃᆡᄒᆞ오니실로일각이숨츄갓습니다[두견성(상), 57쪽]

바. 정신들써에 넓어보시면 니 육신에 ᄆᆡ우 리익이 잇습니다[두견성(하), 83쪽]

사. 저는 아모말솜도 듣기실습니다(화세계, 20쪽)

따라서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습니다'가 결합된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사어간의 경우에도 '어간+습니다'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간+습니다'의 형태는 어간이 동사이건 형용사이건 '단형서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2.12.2. '어간+았/었/였+습니다'

종결어미 '-습니다'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간+습니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어미 구성이 보인다.

(137) 신소설

가. 급히 구ᄒᆞ랴ᄒᆞ다가 밋처 조수족홀사이도 업셧습니다(모란병, 76쪽)

나. 다른말은 업셧습니다(추천명월, 12쪽)

다. 여러가지 경우를 다 당ᄒᆞ야보앗셔도 그ᄯᅢᆺ갓치 분훌젹은 업셧습니다(재봉춘, 166쪽)

‘어간+과거선어말어미+습니다’에 있어서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다. 따라서 ‘어간+았/었/였+습니다’의 유형은 ‘어간+습니다’의 유형과 더불어 특이하게도 어간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쓰이지 않은 어미 구성이었음이 확인된다.

3.1.2.12.3.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존대선어말어미 ‘-시-’는 과거선어말어미의 앞에 놓일 수가 있다. 따라서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을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 구성에 있어서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찾아졌다. 그러나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신소설’에서만 찾아질 뿐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도 용례는 단지 두 개만 보인다.

(138) 신소설

가. 창가를ᄒᆞ여보신지도참오러되셧습니다[두견성(상), 12쪽]

나. 오날은ᄆᆡ오 졈으셧습니다[구의산(하), 26쪽]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 있어서 널리 쓰이지 않았던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2.12.4. ‘어간+겠+습니다’

종결어미 ‘-습니다’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어간+겠+습니다’ 형태의 어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의 구성은 ‘어간+습니다’나 ‘어간+았/었/였+습니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볼 수 있

다.

(139) 신소설

가. 사도게셔 일시의분을 춤으셔셔 물고 령을거두시면 죳켓슴니다(은세계, 66쪽)

나. 여보 리약이는 추추 드르시고 이쳐녀를 좀업어다 주시면 그런공덕이 업겟슴니다(화세계, 55쪽)

하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겠+습니다'의 형태가 '신소설'은 물론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따라서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 한해서 '어간+겠+습니다'가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3.1.2.12.5. '어간+시/으시+겠+습니다'

'어간+겠+습니다'의 형태에 있어서 이에 존대선어말어미 '-시-'가 '-겠-'의 앞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어간이 동사인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다. 그러나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형서사'에서도 쓰이고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40) 단형서사

허- 그러시갯슴니다[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하지만 '신소설'의 경우에는 '어간+시/으시+겠+습니다' 유형의 용례가 많이 찾아진다.

(141) 신소설

가. ᄆᆡ우시장ᄒᆞ시깃슴니다(세검정, 15쪽)

나. 그러케 ᄒᆞᄂᆞᆫ것이 낫겟슴니다(송뢰금, 53쪽)

다. ᄂᆡ일부터ᄂᆞᆫ쉰 네가댁에와셔, 마마님ᄋᆡ기를, 젓먹이고, 잇깃슴니다(귀의성, 88쪽)

라. 큰공이잇셔셔 속냥이나 어더ᄒᆞ면 일등훈장이나타 고 ᄃᆡ신이나ᄒᆞᆫ것과 다름 업깃슴니다[치악산(상), 82쪽]

따라서 ‘어간+겠+습니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널리 쓰인 어미 구성이 된다.

현대국어에서 종결어미 ‘-습니다’는 다양한 어미 구성으로써 이들 모두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어간+습니다’, ‘어간+았/었/였+습니다’, ‘어간+겠+습니다’,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등의 어미 구성에 있어서 이들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고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쓰이지 않았다. 이는 현대국어와는 다른 현상으로서 종결어미 ‘-습니다’가 어미의 구성 형태를 막론하고 대화체에서 모두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종결어미 ‘-습니다’는 어미의 구성에 있어서 유형별로 쓰임의 발달 단계가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간+습니다’, ‘어간+았/었/였+습니다’, ‘어간+시/으시+겠+습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어간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일절 쓰이지 않았으므로 대화체의 쓰임에 있어 발달 단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간+겠+습니다’의 경우에는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만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어간+습니다’, ‘어간+았/었/였+습니다’, ‘어간+시/으시+겠+습니다’의 유형에 비해 조금 더 쓰임이 발달된 어미 구성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의 어미 구성은 어간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쓰임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결어미 '-습니다'는 어미의 구성 형태와 상관없이 일시에 널리 쓰인 것이 아니라 구성 형태의 유형별로 쓰임의 발달이 각각 달랐음이 확인된다.

3.1.2.13. '-나이다'

종결어미 '-나이다'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한다. 여기서는 어간이 형용사 또는 보조형용사인 경우를 다룬다.

3.1.2.13.1. '어간+나이다'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나이다'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42) 단형서사

갑작이 어디 경을 당ᄒᆞ엿시니 나밧긔 구원하야 줄 쟈가 업ᄂᆞ이다[모되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ᄒᆞᆷ(1902. 2. 15)]

'어간+나이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3) 신소설

가. 아ᄒᆡ와 부인말삼을ᄒᆞ시니 ᄉᆡᆼ각이 나ᄂᆞᆫ일이잇나이다(설중매, 46쪽)

나. 그부인의거쥬가 여긔잇ᄂᆞ이다(설중매, 40쪽)

다. 이ᄂᆞᆫ 쇼승을 불ᄉᆞ히녁이심이라 다시ᄂᆞᆫ 얼골을들어뵈올수업ᄂᆞ이다(화세계, 91쪽)

라. 혹 ᄃᆞ리오시ᄂᆞᆫ 손이잇스면 이갓치 관곡히 ᄃᆡ접헐ᄲᅮᆫ이지 다ᄅᆞᆫ일은 업나이

다(추천명월, 55쪽)

따라서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나이다'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하나만 보이고 있듯이 이의 결합 형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1.2.13.2. '어간+겠+나이다'

형용사어간에 선어말어미 '-겠-'이 오고 이에 종결어미 '-나이다'가 결합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144) 신소설

가. 부즈럽시 슈고말으시고 어셔 가시면 그런은덕은 다시 업겟ᄂᆞ이다(화세계, 38쪽)

나. 만번죽을졔 죽ᄉᆞ와도 결박을 잠시글너 주시고 졔ᄌᆞ식을 마즈막 한번 더면케 ᄒᆞ야주옵시면 연한이 업겟ᄂᆞ이다[구의산(하), 12쪽]

하지만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겠+나이다'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도 보이므로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문상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가 없었을 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의 결합 형태도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3.1.2.13.3. '어간+삽+나이다'

형용사어간에 공대선어말어미 '-삽-'이 오고 이에 다시 종결어미 '-나이다'가 결합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45) 단형서사

가. ᄯᅩ 알욀 말ᄉᆞᆷ이 잇ᄉᆞᆸᄂᆞ이다[님금의 ᄆᆞ옴을 용케 돌님(경향신문, 1907. 11. 8)]

나. 증인이 잇ᄉᆞᆸᄂᆡ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3)]

다. 져긔 잇ᄉᆞᆸᄂᆞ이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라. 져기 잇ᄉᆞᆸᄂᆞ이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이는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어간+삽+나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다.

(146) 신소설

가. 창희가 엿ᄌᆞ오니 즁ᄒᆞᆫ덕턱은 틔산이 가뷔엽ᄉᆞᆸ나이다(화중화, 49쪽)

나. ᄇᆡᆨ년가약이란 말ᄉᆞᆷ은 무ᄉᆞᆷ말ᄉᆞᆷ이온지 의미를 알슈업ᄉᆞᆸᄂᆞ이다(화중화, 29쪽)

다. 아씨게셔 쳡을 이갓치ᄋᆡ호ᄒᆞ샤 용납ᄒᆞ야 드리시니 덕턱이 하해갓ᄉᆞᆸᄂᆞ이다(화중화, 46쪽)

라. ᄒᆞᆫᄭᆞ닭이 잇ᄉᆞᆸᄂᆞ이다(경세종, 27쪽)

마. 교훈 거리가 될만ᄒᆞᆫ거시 ᄒᆞ나도 업ᄉᆞᆸᄂᆞ이다(경세종, 51쪽)

바. 그사ᄅᆞᆷ을잘ᄃᆡ졉ᄒᆞᄂᆞᆫ것도모친게는한가지효도라고ᄒᆞᆯ슈잇ᄉᆞᆸᄂᆞ이다[두견성(상), 53쪽]

따라서 형용사어간과 공대선어말어미 '-삽-' 그리고 종결어미 '-나이다'가 한데 결합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의 결합 형태는 소멸의 길에 들어선 '어간+나이다'나 '어간+겠+나이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2.13.4. '어간+겠+삽+나이다'

'어간+삽+나이다'의 유형에 있어서 공대선어말어미 '-삽-'의 앞에는 또 다른 선어말어미인 '-겠-'이 놓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도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단,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47) 단형서사

장군의 명이 계시니 죽어도 좃겟숩ᄂᆞ이다[김유신(그리스도신문, 1901. 10. 7)]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일절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겠+삽+나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의 어미가 '신소설'에서는 쓰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의 구문이 작품의 대화상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용례는 하나만 있으므로 '어간+겠+삽+나이다'와 같은 결합의 형태는 현대국어가 아닌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2.14. '-니이다'

종결어미 '-니이다'는 '-습니다'나 '-ㅂ니다'의 옛말로서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종결어미가 형용사어간에 결합된 형태가 찾아진다. 그러나 그 용례는 하나에 불과하다.

(148) 단형서사

그러ᄒᆞ니이다[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홈(그리스도신문, 1902. 2. 15)]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간+니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신소설'도 역시 '단형서사'처럼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49) 신소설
그러ᄒᆞ니이다(설중매, 76쪽)

종결어미 '-니이다'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이의 용례는 각각 하나만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종결어미 '-니이다'는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결어미 '-니이다'는 최근세국어 이전에 이미 쓰임이 쇠퇴하여 대화체에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2.15. '-오이다'

종결어미 '-오이다'는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하는데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용례는 두 개만 보인다.

(150) 단형서사
가. 차쟈 오시니 감샤ᄒᆞ오이다[디구셩 미러몽(대한매일신보, 1909. 8. 8)]
나. 태극팔괘 독립긔를 광대ᄒᆞᆫ 짜에 세우고 젼진ᄒᆞ면 거의 될듯 하오이다[완고와 신진의 문답(대한매일신보, 1908. 7. 29)]

마찬가지로 '어간+오이다'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와는 달리 그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51) 신소설

가. ᄌᆞ식되야제화픠ᄂᆞᆫ고사ᄒᆞ고부모빅골이불안ᄒᆞ시니일사가민망ᄒᆞ오이다(구마검, 37쪽)

나. 여러번실긔를ᄒᆞ여대단히불안ᄒᆞ오이다(구마검, 40쪽)

다. 졀당졀당ᄒᆞ오이다(자유종, 2쪽)

라. 그ᄂᆞᆫ 싱산도잘ᄒᆞ고 교육도 잘ᄒᆞ고 영광도대단ᄒᆞ오이다(자유종, 28-29쪽)

마. 어졔밤에 걱정나던일은 예ᄉᆞ일이 아닌듯 ᄒᆞ오이다[치악산(상), 123쪽]

바. 그러ᄂᆞ오ᄂᆞᆯ 나ᄒᆞ신아기가 ᄃᆡ단이슉셩하오이다(혈의루, 40쪽)

사. 감ᄉᆞ감ᄉᆞ ᄒᆞ오이다(화중화, 11쪽)

아. ᄒᆞ기는 어렵지 안소이다마는 드르시기에 자미업슬듯 ᄒᆞ오이다(화중화, 14쪽)

자. ᄯᅩ 쳡의 죄를ᄒᆞᆫ가지 더 지어쥬시어 만만불가ᄒᆞ오이다(화중화, 48쪽)

차. 죵쳐에 츄농을배혀버려 셩ᄒᆞᆫ살에 젼염치못ᄒᆞ게ᄒᆞ듯ᄒᆞ얏ᄉᆞ오면 깁흔 후려(後慮)가 업슬듯ᄒᆞ오이다(화의혈, 17쪽)

카. 위션아슈신데쓰시라고 아ᄂᆞᆫ듯 모로ᄂᆞᆫ듯 이것을 편지속에다 너어보내신것인가보오이다(화의혈, 65쪽)

따라서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어간+오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며 특히 '신소설'에서 보다 왕성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2.16. '-사오이다'

종결어미 '-사오이다'는 '—으오이다'의 정중한 표현이다. 이는 준말로서 '-사외다' 또는 '-소이다'의 형태로도 쓰인다. 그런데 '단형서사'에서는 종결어미 '-사오이다'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선어말어미 '-겠-'의 뒤에서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152) 단형서사

가. 그러켓소이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나. 그러켓소이다[군ᄉ련습 시에 살인럭력(경향신문, 1908. 4. 10)]

마찬가지로 '어간+겠+사오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153) 신소설

가. 됴켓소이다(박연폭포, 207쪽)

나. 단여오시려면 늣기 쉽겟소이다(박연폭포, 213쪽)

다. 이몸한나 의지만 식여주시면 그런 은덕이 업겟소이다(화세계, 40쪽)

라. 그ᄃᆡ와 ᄀᆞᆺ흐면 걱정이 업겟소이다(부부의 모본, 252쪽)

마. 텹이 차라리 서방님압헤 죽어업서져 버리는것이 도리혀 흉악ᄒᆞᆫ놈 간계에 빠져 비명횡ᄉ 홈보다 낫겟ᄉ오이다(화중화, 23-24쪽)

그러므로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겠-'과 결합한 종결어미 '-사오이다'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제 잘 쓰이지 않는 '-사오이다'가 최근세국어 시기까지는 그래도 대화체에서 그나마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1.2.17. '-이다'

종결어미 '-이다'는 동사어간 또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이다. 여기서는 어간이 형용사 또는 보조형용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다룬다.

3.1.2.17.1. ‘-더+이다’

종결어미 ‘-이다’가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154) 단형서사

다른 사ᄅᆞᆷ은 업더이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ᄅᆡ력(경향신문, 1908. 4. 10)]

‘신소설’의 경우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더+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이 찾아진다.

(155) 신소설

가. 일산에셔 문젼쳘이라 ᄒᆞᄂᆞᆫ친구와 기외 유지ᄒᆞᆫ슈인을만나 슈일두류ᄒᆞ얏ᄂᆞᆫ ᄃᆡ 슈셕이 ᄆᆡ오졀승ᄒᆞ더이다(설중매, 65쪽)

나. 그소져ᄂᆞᆫ 셔방님을 아ᄂᆞᆫ것 갓더이다(설중매, 35쪽)

그러나 이의 용례는 두 개에 그치고 있어 ‘-더+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소설’의 경우 두 개의 용례가 다 ‘설중매’에서 나온 것이므로 결국은 ‘단형서사’나 ‘신소설’ 모두 하나의 용례를 보이는 격이 된다. 이는 그만큼 ‘-더+이다’의 형태가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더+이다’는 쓰이지 않는 유형이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비록 용례는 있으나 그 용례는 각각 하나와 두 개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더+이다’ 형태의 어미 구성은 최근세국어 시기 이미 대화체에서 그 쓰임이 다한 것으로 분석된다.

3.1.2.17.2. ‘어간+사오+이다’

형용사어간에 선어말어미 '-사오-'가 결합하였을 때 이의 뒤에는 종결어미 '-이다'가 결합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하지만 이의 용례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156) 단형서사

소동의 나히 어려 억긔히 어렵ᄉ외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4)]

'어간+사오+이다'의 경우 '단형서사' 외에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용례 역시 '단형서사'처럼 하나에 그치고 있다.

(157) 신소설

실로 미물의고기가 룡문의 올음을 엇음갓ᄉ오이다(설중매, 74쪽)

'어간+사오+이다'의 유형이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각각 하나의 용례만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이의 유형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한편, 현대국어에서 '-사오+이다'와 같은 형태는 대화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거의 쓰지 않고 있으므로 '-사오+이다'는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쓰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개화기 이전부터 대화체에서 쓰임이 이미 쇠퇴하여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2.17.3. '어간+겠+사오+이다'

'-사오+이다'는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합을 보이는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오직 '신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 그나마 이의 용례는 두 개에 그치고 있다.

(158) 신소설

가. 텹이 차라리 셔방님압헤 죽어 업셔져 버리는것이 도리혀 흉악ᄒᆞᆫ놈간계에 빠져 비명횡ᄉᆞ ᄒᆞᆷ보다 낫겟ᄉᆞ오이다(화중화, 23-24쪽)

나. 한목숨은이곳에셔죽어도 한이업겟ᄉᆞ오이다(철세계, 61쪽)

따라서 종결어미 '-이다'의 경우 모든 형태의 어미 구성에 있어서 최근세국어 시기에 이미 대화체에서 그 쓰임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3.1.3. 계사+종결어미

여기 '3.1.3'에서는 서술법에 있어서 계사에 종결어미가 결합되는 형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3.1.3.1. '-다/라'

종결어미 '-다'는 계사와 결합하여 '이+다'의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159) 신소설

가. 네가김승지ᄃᆡᆨ에가셔, 침모노릇ᄒᆞ지아니ᄒᆞ얏스면, 그런소리저런소리다, 듯지 아니ᄒᆞ얏슬거시다(귀의성, 35쪽)

나. 오냐 긔특ᄒᆞᆫ말이다(은세계, 108쪽)

다. 앗가 그사람은 결고 흑마가 쥭엿슨즉 늬가 당장에 경관을 다리고와셔 잡아갈터이다(비행선, 22쪽)

라. 우리쥬인 달민군의 말이다(비행선, 23쪽)

마. 네가힝실이그르면, 내가너를버리고 내가두계집을두거든, 네가날을버리ᄂᆞᆫ일

이, 올흔일이다(귀의성, 69쪽)

바. 그리지안코보면 쓷 ᄂᆡ 알뜰살뜰이고싱만될 것이다(모란병, 41쪽)

사. 우리는 그릐두 짐지지 아니ᄒᆞ구 가니 져 ᄉᆞ름덜보담은 좀 편ᄒᆞᆫ 심이다(몽조, 34쪽)

아. ᄂᆞ기 직금 너어 아버니의 산소에 갓다오는 길이다(몽조, 37쪽)

'계사+다'의 형태가 계사가 쓰인 어미의 구성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형서사'에서는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지 대화의 내용상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형서사' 때까지만 해도 '계사+이다'의 유형은 널리 쓰이지 않아서인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결어미 '-다'는 계사와 결합하여 '-라'도 변형되기도 한다. 그런데 '계사+라'의 형태는 '계사+다'의 경우와는 달리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60) 단형서사

가. 나도 ᄯᅩᄒᆞᆫ 긔호에셔 몃 쳔셕 츄슈ᄒᆞᄂᆞᆫ 거시 즉 아모 감ᄉᆞ지낸 후에 엇은 바이라[로쇼문답(대한매일신보, 김시언, 1908. 2. 13)]

나. 비컨ᄃᆡ 산골작은 사룸의 싱명이 활동ᄒᆞᄂᆞᆫ 곳이오 물은 ᄒᆞᆫ량업ᄂᆞᆫ 셰계라[머사현몽(그리스도신문, 1901. 8. 29)]

다. 겁이 ᄂᆞ셔 못 ᄂᆞ오고 잇ᄂᆞᆫ 것이라[소설단편(만세보, 1906. 7. 3)]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계사+라'의 형태가 찾아지는데 이에 있어서도 '계사+다'에 못지않은 용례를 보인다.

(161) 신소설

가. 모든 싱물로 ᄒᆞ여곰 인ᄌᆞᄒᆞᆫ 은덕을 베프러 영원ᄒᆞᆫ 힝복을 밧게ᄒᆞ랴홈이라

(금수회의록, 5쪽)

나. ᄌᆡ물을 무한이 내바리고 사ᄅᆞᆷ을 무수히 쥭여셔 나라를 만들ᄯᅢ에 만반경륜은 다 남을 해ᄒᆞ려ᄂᆞᆫ ᄆᆞᄋᆞᆷᄲᅮᆫ이라(금수회의록, 40쪽)

다. 밤낫 시시ᄯᅢᄯᅢ로 멋거리잇고 홍치시러온 일ᄲᅮᆫ이라(모란병, 36쪽)

라. 그와 갓치 우리는 다아 하나님의 아달이오 ᄯᆞᆯ이라(몽조, 44쪽)

마. 이제는 만고풍상을 다 격고보니 젼일이모다 잘못이라(화중화, 41쪽)

바. 도로혀 절긔잇는 자식의마음을 만분의일도 ᄯᅡ르들 못ᄒᆞ엿스니 죄사무셕(罪死無惜)이라(화중화, 43쪽)

사. ᄌᆞ고로 ᄋᆡᆨ화와 환난이라ᄒᆞᄂᆞᆫ것이 별 일이 다 마느니 그역시 팔ᄌᆞ이라(화중화, 24쪽)

아. 이곳에셔 뵈앗ᄂᆞᆫᄃᆡ 이ᄀᆞᆺ치 령락히 ᄃᆡ답을ᄒᆞ오시니 이ᄂᆞᆫ 쇼승을 불ᄉᆞ히녁이심이라(화세계, 91쪽)

자. ᄋᆡ비의말을 아니드르면 집이망ᄒᆞᄂᆞᆫ법이라[치악산(상), 32쪽]

따라서 종결어미 '-다'에 있어서 계사와 결합할 때에 '-다'의 모습이든 이의 변형된 '-라'의 모습이든 '신소설'에서는 둘 다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라'의 모습인 경우에는 '단형서사'에서도 그 쓰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1.3.2. '-로다'

'-로다'는 '-도다'보다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체언의 용언형 또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과 결합한다. 이는 해라체의 말씨로 어떠한 사실을 감탄조로 그리고 위엄있게 선포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종결어미다. 따라서 장중한 어조를 띤다.[19] 계사와 결합한 '-이+로다'는 '-일다'로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20] '단형서사'의 경우

19) 조선말 대사전(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1993), 표준 국어대사전(1999) 참조.

다음과 같이 '-이+로다'가 쓰이고 있다.

(162) 단형서사

가. 지금 당ᄒᆞ야 본즉 과연 이곳이 왕ᄉᆞ셩이로다[근일에 엇더ᄒᆞᆫ 친구 ᄒᆞ나히 (매일신문: 1899. 3. 1)]

나. 그ᄃᆡ 등은 진개ᄭᅮᆷㅅ속에 ᄭᅮᆷ을 ᄭᅮ는 쟈ㅣ로다[안셕을 의지ᄒᆞ여 다섯 학ᄉᆡᆼ의 ᄭᅮᆷ니약이 ᄒᆞ는 말을 듯는다(대한매일신보, 1910. 1. 25)]

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미로다[누옥ᄉᆡᆼ이 상두에 골한 잠이(매일신문, 1898. 11. 29)]

라. 깃부도다 볼이로다[향일에 엇더ᄒᆞᆫ 션비(제국신문, 1898. 12. 22)]

이러한 '-로다'는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많은 용례가 찾아진다.

(163) 신소설

가. 나는누구냐ᄒᆞ면 네가모히잡든 그아씨의 유모화긔동마마일다[치악산(하), 23쪽]

나. 허ㅣ ᄂᆡ가 괴악ᄒᆞᆫ놈이로다(화세계, 96쪽)

다. 경찰이 지독ᄒᆞ게엄히셔 두수업시 ᄶᅮᆨ 죽을판인대 사ᄅᆞᆷ살곳은 골골마다 잇다더니 ᄂᆡ게두고 ᄒᆞᆫ말이로다(화세계, 132쪽)

라. 그대가 만일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로 다행한 일이로다(추천명월, 127쪽)

마. 참민망ᄒᆞᆫ일이로다[두견성(상), 32쪽]

20) '3.1.3.3'의 (164)에서 '네 밋는 거시 공연ᄒᆞᆫ 일일다[늙은 흑인(그리스도신문, 1901. 5. 16)]'라는 구문이 보이나 여기서의 '-일다'는 '-이로다'의 축약이 아닌 종결어미 '-ㄹ다'이다. (164)의 구문은 공연한 일임을 감탄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일임을 서술한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의 '-일다'는 '-이로다'와 무관하다.

종결어미 '-로다'는 현대국어에서도 대화체에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은 아니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적지 않은 용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종결어미 '-로다'가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대화체에서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3.1.3.3. '-ㄹ다'

앞 시대의 언어 흔적인 '-ㄹ다'는 점차 소멸하여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서 20세기 초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용례가 아주 드물다(권재일, 2005. p.29 참조).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도 '-ㄹ다'는 오직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164) 단형서사

네 밋는 거시 공연훈 일일다[늙은 흑인(그리스도신문, 1901. 5. 16)]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하나의 용례만 보이는 '단형서사'와는 달리 의외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65) 신소설

가. 지금 남은것은 단지 집 하나쁜일다(화중화, 45쪽)

나. 교육바든사람도 그런소리ᄒᆞ기는 대실쇼망일다[치악산(하), 96쪽]

다. 그는 네가 고루훈쇼견일다(비행선, 81쪽)

라. 그는 나도 의심을 ᄒᆞ눈즁일다(비행선, 83쪽)

마. 잠간문안만 구경ᄒᆞ고 려관에 숙박ᄒᆞ고 다른날 겨를 잇눈ᄃᆡ로 구경훌 작뎡일다(명월정, 17쪽)

따라서 ‘-ㄹ다’가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며 20세기 초기의 국어에서도 아주 드물게 사용된 형태이지만 ‘신소설’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활발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ㄹ다’의 왕성한 쓰임은 ‘신소설’을 끝으로 하여 이후 이의 쓰임이 완전히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3.1.3.4. ‘-ㄴ걸’

종결어미 ‘-ㄴ걸’은 어간으로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를 둔다. 그런데 어간이 계사로서 이에 ‘-ㄴ걸’이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66) 신소설
  가. 무슨사업을ᄒᆞᄂᆞ니 못ᄒᆞᄂᆞ니ᄒᆞᄂᆞᆫ소리가 참제법인걸[치악산(상), 21쪽]
  나. 속아ᄂᆞᆫ 놈의게셔 편지가온것은 ᄂᆡ가확실히 아ᄂᆞᆫ일인걸(재봉춘, 114쪽)
  다. 지금여긔 뎌러케와셔 말ᄒᆞᄂᆞᆫ것을보아도 의리잇ᄂᆞᆫ 사ᄅᆞᆷ인걸(원앙도, 50쪽)
  라. 성질도 찬물의돌갓흔터에 이런더러온욕을당ᄒᆞ니 분막심언인걸(목단화, 4쪽)
  마. 그런ᄃᆡ 하라비도 아직 근력이 됴흔모양인걸[두견성(하), 103쪽]

이에 ‘이+ㄴ걸’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ㄴ걸’은 ‘단형서사’를 지나 ‘신소설’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대화체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3.1.3.5. '-아/어/야'

종결어미 '-아/어/야'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를 어간으로 한다. 계사가 어간으로 왔을 경우 '단형서사'에서 용례를 볼 수 있다.

(167) 단형서사

가. ᄂᆞᆫ ᄉᆡᄒᆡ가 되야도 여섯 살 ᄯᅢ로 그ᄯᅢ로 잇슬터이야[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나. 그럿치 아니ᄒᆞ면 ᄉᆡᄒᆡ에도 소학교 아니 갈 터이야[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다. 분ᄒᆞᆫ 말이야[긔쟈ㅣ 중부 엇던 방곡을(대한매일신보, 1908. 12. 11)]

라. ᄌᆞ연 궁금이 슉쳥하여질 터이어[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4)]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형태의 어미는 그대로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8) 신소설

가. 논밧두렁말고물구덩이에다장ᄉᆞ를지ᄂᆡ라히도손톱만치도셔슴지안코써볼터이야(구마검, 44쪽)

나. 번연이알고ᄌᆞ식을 이고ᄉᆡᆼ식이시ᄂᆞᆫ 아바지게ᄂᆞᆫ 전후 폭빅을 다 ᄒᆞᆯ터이야(모란병, 33쪽)

다. ᄂᆡ라도그디경이면 쥭을ᄉᆡᆼ각밧게 안이날터이야(빈상설, 16쪽)

라. ᄂᆞᆫᄌᆞ식업시, 이ᄃᆡ로, 잇슬터이야(귀의성, 91쪽)

마. 이런일은, 나혼ᄌᆞ쳐결할, 슈ᄂᆞᆫ업ᄂᆞᆫ일이야(귀의성, 90쪽)

바. 어머니 나ᄂᆞᆫ더ᄌᆞ라거던 ᄉᆡ집을 갈터이야[홍도화(상), 11쪽]

따라서 '-이+아/어/야'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하여 이의 유형은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3.1.3.6. '-지'

종결어미 '-지'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를 어간으로 한다. 계사를 어간으로 하였을 경우 이는 '-이+지'의 형태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9) 단형서사

가. 마누라는 졸라도 슬쩍업는 줄 알면서 조르니 답답흔 일이지[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나. 리익이 잇는 ᄭᅡ닭에 두 말 아니 ᄒᆞ고 줄 터이지[동젼 서 픈에 쇼쥬가 ᄒᆞᆫ통(경향신문, 1907. 11. 22)]

다. 정부 죠직이라 ᄒᆞ는 말이지[거부오해(대한매일신보, 1906. 2. 22)]

라. 넝슈 마시고 니슈시는 모양이지[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8)]

마. 근일에 마쥬ᄉᆞ 전참봉도 그런 협잡비에 슈단으로 된 것이지[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8)]

바. 실업이 데일이지[학계에 비참ᄒᆞᆫ 말을 긔록홈(대한매일신보, 1908. 1. 21)]

사. 독악낙이 데일이지[시사문답(대한매일신보, 1906. 4. 8)]

마찬가지로 '신소설'의 경우에도 '단형서사'에서처럼 '-이+지'의 형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170) 신소설

가. 무던ᄒᆞᆫ것이 탈이지(구마검, 4쪽)

나. 이놈도됴ᄎᆞ 뎌놈도됴 ᄎᆞᄒᆞ야 셰샹 보ᄂᆡᄂᆞᆫ것이 샹칙이지(화의혈, 7쪽)

다. 외양으로 ᄀᆞ장 고결ᄒᆞᆫ톄ᄒᆞ고 은근히 별 일이 다 만흔법이지(화의혈, 7쪽)

라. 무얼 조놈이 돈푼에 팔녀셔 바로 말을 안이ᄒᆞᄂᆞᆫ것이지(화세계, 85쪽)

마. 허 마누라ᄂᆞᆫ 종작이업ᄂᆞᆫ사ᄅᆞᆷ이지[치악산(상), 15쪽]

바. 그런계집은 진작버리ᄂᆞᆫ거시제일이지[치악산(상), 62쪽]

사. 아씨당ᄒᆞ신일이 쇤네가 당ᄒᆞᆫ것이나 일반이지(빈상설, 21쪽)

아. 죄ᄂᆞᆫ무슨죄 돈잇ᄂᆞᆫ거시죄이지(은세계, 17쪽)

이처럼 '-이+지'의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 있어서도 '-이+지'의 형태는 폭넓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이의 유형이 대화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으므로 '-이+지'는 적어도 개화기 이전부터 대화체에서 왕성하게 사용되던 유형의 어미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3.1.3.7. '-ㄹ세'

종결어미 '-ㄹ세'는 남에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는 의미를 지닌 어미로서 반드시 계사만을 어간으로 둔다.

3.1.3.7.1. '-이+ㄹ세'

종결어미 '-ㄹ세'가 계사와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널리 쓰였다. 때문에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그 용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1) 단형서사

가. 아 갑갑ᄒᆞᆫ 사ᄅᆞᆷ일세[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나. 문열고 살면 신문은 뎨일 급ᄒᆞᆫ 것일세[경향문답(독립신문, 1899. 5. 10)]

다. 불을 밥들러도 밍셰코 회피치 아니ᄒᆞᆯ 터일세[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라. 이ᄂᆞᆫ ᄌᆞ네가 모로ᄂᆞᆫ 말일세[동젼 서 ᄑᆞᆫ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마. 우리 세히 가셔 둘흔 안흐로 드러가고 ᄒᆞ나흔 문밧긔셔 먼 눈을 ᄉᆞᆯ피면 그ᄆᆞᆯ을 ᄡᅳ을어내기ᄂᆞᆫ 여반장일세[친구 심방ᄒᆞ다가 ᄆᆞᆯ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바. 그 경치도 가련일세[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5. 12. 29)]

사. 마음에 대단이 깃부어 그러이 노래함일세[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계사+ㄹ세'가 널리 쓰인 것은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이의 용례 또한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찾아진다.

(172) 신소설

가. 글세 그죵적이나 탐지ᄒᆞ고 ᄉᆞ면으로친고를차ᄌᆞ 나션길일셰(모란병, 49쪽)

나. 증거ᄒᆞᆯ필ᄃᆡᆨ이 잇다ᄒᆞ니 그것이 진실ᄒᆞᆫ말갓흐면 걱정일셰(설중매, 28쪽)

다. 정말급ᄒᆞᆫᄉᆞ정이잇서 돌아ᄃᆡᆼ기ᄂᆞᆫ판일셰(빈상설, 61쪽)

라. 령감버션일셰(귀의성, 109쪽)

마. ᄌᆞ네말이 올은말일셰(구마검, 10쪽)

바. 참 자ᄂᆡ볼낫이업스나 슈일기다리면 ᄎᆡᆨ갑이 ᄉᆡᆼ길터일셰(설중매, 23쪽)

사. (ᄯᅡ이야몬드)라ᄒᆞᄂᆞᆫ옥편일셰(설중매, 26쪽)

아. 별안간에 알슈업ᄂᆞᆫ일일셰(빈상설, 90쪽)

자. 글세 그죵적이나 탐지ᄒᆞ고 ᄉᆞ면으로친고를차ᄌᆞ 나션길일셰(모란병, 49쪽)

차. 증거ᄒᆞᆯ필덕이 잇다ᄒᆞ니 그것이 진실ᄒᆞᆫ말갓흐면 걱정일세(설중매, 28쪽)

따라서 '계사+ㄹ세'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폭넓게 쓰였던 유형의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계사+ㄹ세'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형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으므로 '계사+ㄹ세'의 유형은 개화기 이전부터 대화체에서 왕성하게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3.7.2. '-이+오+ㄹ세'

종결어미 '-ㄹ세'는 공대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여 '-이올세'와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한다. 이런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일 뿐이다.

(173) 단형서사

그ᄃᆡ은 가위 녯 사ᄅᆞᆷ이요 현량ᄒᆞᆫ ᄇᆡᆨ셩이올세[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그나마 '신소설'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 있어서도 '-일세'는 많이 쓰이지만 '-이올세'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오+ㄹ세'는 현대국어 이전에 이미 '단형서사'에서부터 거의 쓰이지 않았던 유형의 어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1.3.8. '-이'

종결어미 '-이'는 '-더+이'의 형태로서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를 어간으로 하여

결합한다. 따라서 '-더+이'에 있어서 어간이 계사인 경우 이는 '-이+더+이'의 형태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예문에서 보듯이 세 개가 모두이다.

(174) 단형서사

가. 이 버릇 잇ᄂᆞᆫ 거시 ᄀᆞ만히 ᄉᆡᆼ각ᄒᆞ니 아모 일도 아니 ᄒᆞᄂᆞᆫ ᄭᆞ닭이데[동젼 서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나. 무ᄉᆞᆷ ᄭᆞ닭으로 ᄒᆞᄂᆞᆫ지 실노 ᄶᅡᆨᄒᆞᆫ 일이데[경향문답(독립신문, 1899. 5. 10)]

다. 일젼 뎨국신문에 ᄯᅥᆨ타령이 챰 명담이데[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2. 7)]

'-이+더+이'의 형태는 '단형서사' 외에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진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5) 신소설

가. 그ᄋᆡ를 ᄂᆡ가보잇가 아쥬철몰오ᄂᆞᆫ 아ᄒᆡ데(모란병, 52쪽)

나. 그쟈가ᄯᆞᆯ본이나모쟝사로ᄉᆡᆼ애ᄒᆞᄂᆞᆫ위인이데(구마검, 52쪽)

다. 침모도두고, ᄌᆞᆼ도부리고세ᄀᆞᆫ도갓게잇ᄂᆞᆫ모양이데(귀의성, 45쪽)

라. 인쳔감리가 로가보다더 망ᄒᆞᆫ놈이데(모란병, 76쪽)

마. 엇지힛든지 그것이 이상ᄒᆞᆫ물건이데[금국화(상), 72쪽]

이처럼 계사에 '-더+이'가 결합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용례를 통하여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더+이'의 결합형인 '-데'가 쓰이고 있듯이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이의 유형이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1.3.9. '-오'

종결어미 '-오'는 동사나 형용사가 어간으로 온다. 그리고 계사 또한 어간으로 온다. 그런데 계사가 종결어미 '-오'와 결합된 형태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176) 단형서사

가. 나ᄂᆞᆫ 본ᄃᆡ 팔도강산 구경이나 잘 ᄒᆞ고 ᄉᆞ면팔방에 뎡쳐 업시 ᄂᆡᄌᆞ유ᄃᆡ로 놀기가 소원이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10. 6)]

나. 다만 일용량만 엇을 ᄲᅮᆫ이오[ᄌᆡ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다. 당치 아닌 말솜이오[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라. 웬 오날 드러 가겟다 ᄒᆞ엿ᄉᆞ니 집에셔 기ᄃᆞ릴 거시오[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마. 나ᄂᆞᆫ 양역 ᄂᆞᆫ 후에 ᄂᆞᆫ 사람이오[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이+오'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177) 신소설

가. ᄂᆞᄂᆞᆫ, 이집쥬인의어미되ᄂᆞᆫ사람이오(귀의성, 3쪽)

나. 내가인력거우에셔낙상을하야, 이모양이오(귀의성, 60쪽)

다. 나 ᄒᆞ라ᄂᆞᆫᄃᆡ로만 다ᄒᆞ고 보면 젼쳔이나 잘 쩨여먹을터이오(구마검, 11쪽)

라. 박참봉이, 우리마누라의게, 미움을바들ᄶᅡ념녀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오(귀의성, 45쪽)

마. 천만의외 말솜이오(목단화, 113쪽)

따라서 '-이+오'의 형태는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간에 모두에서 널리 쓰인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오'의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176)과 (177)에서 보이는 용례에 의하여 이는 최근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널리 쓰였던 것임이 확인된다.

3.1.3.10.'-ㅂ/습디다'

종결어미 '-ㅂ/습디다'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가 어간으로 온다. 여기서는 계사가 어간으로 쓰인 경우에 대해 분석한다.

3.1.3.10.1. '-이+ㅂ디다'

종결어미 '-ㅂ디다'가 계사와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형태가 쓰이지 않았고 '신소설'에서만 쓰였다. 그런데 '단형서사'에서는 단 하나의 용례도 없는 반면에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178) 신소설

가. 그말이 별말이아니라 작은아씨말솜입듸다(화의혈, 39쪽)

나. 한가지 놀나운것은 허부령의힘세 입듸다(재봉춘, 139쪽)

다. 서로 구구치는 것을 가마니보닛가 적지안인 모양입듸다(화세계, 132쪽)

라. 말ᄒᆞᄂᆞᆫ눈치가 아는모양입듸다[치악산(상), 103쪽]

마. 그러도요젼보다미우나은모양입듸다[두견성(상), 117쪽]

바. 아마 병낫ᄂᆞᆫᄃᆡ로 곳 ᄯᅩ 전쟝으로 가실모양입듸다[두견성(하), 52쪽]

사. 우리나 넉넉ᄒᆞ면 죽술간갓다쥬겟지마는 나먹기도 어려온닛가 맘 ᄲᅮᆫ입듸다 (금의쟁성, 3쪽)

아. 엇던사롬이 우리아버지를 차자와서 통혼을 허는모양입듸다[금국화(하), 52

쪽]

자. 에그 원슈갑는일은 둘ㅅ지가되고 그덕에 초샹이 ᄯᅩ한아 날모양입듸다[구의산(상), 75쪽]

이처럼 계사에 종결어미 '-ㅂ디다'가 결합된 유형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3.10.2. '-이+겠+습디다'

종결어미 '-습디다'는 계사의 뒤에서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소설'에서 이의 유형이 보이나 용례는 하나밖에 찾아지지 않는다.

(179) 신소설

녀ᄌᆞ가 졍졀을 직히ᄌᆞ면 승노륵ᄒᆞᄂᆞᆫ것이 졔일이깃습듸다(금강문, 125쪽)

따라서 종결어미 '-ㅂ/습디다'에 있어서 계사가 어근으로 온 경우에는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이 확인된다.

종결어미 '-ㅂ/습디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성 연장자 층에서 주로 사용하며 그나마도 간혹 쓰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종결어미는 현대국어에 있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ㅂ/습디다'는 '단형서사'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다. 다만 '신소설'에서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계사+겠+습디다'와 같은 결합의 형태는 하나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ㅂ/습디다'는 최근세국어에서도 이미 쇠퇴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는 '계사+ㅂ디다'의 형태가 용례를 하나만 보이는 '계사+겠+습디다'의 형태보다는 쇠락의 정도가 약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3.1.3.11. '-ㅂ니다'

종결어미 '-ㅂ니다'는 동사나 형용사 외에 계사하고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시+ㅂ니다'에 있어서는 '신소설'에서 용례가 보인다.

(180) 신소설

가. 마님 그짜짓일에 은혜란말숨이 천만에 망녕이십니다(재봉춘, 157쪽)

나. 실로마님도걱정이십니다[두견성(상), 44쪽]

그러나 이의 용례는 단 두 개에 불과하여 '이+시+ㅂ니다' 유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 '-ㅂ니다'와 계사가 결합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현대국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아예 용례가 없으며 용례가 보이는 '신소설'에서조차도 '이+시+ㅂ니다' 유형에서 단 두 개의 용례만 찾아진다. 이는 현대국어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의외적인 결과이다. 다만, 이의 결과를 통해 계사와 결합한 종결어미 '-ㅂ니다'의 유형들은 적어도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을 정도로 대화체에서 그 쓰임이 미약하였음이 확인된다.

3.1.3.12. '-오이다'

현재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종결어미 '-오이다'는 반드시 계사와 결합을 하여 '-이+오이다'의 형태를 보이는 어미이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181) 단형서사

윗단 집이외다[군ᄉ련습 시에 살인릐력(경향신문, 1908. 4. 10)]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종결어미 '-오이다'가 계사와 결합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82) 신소설

가. 또는닉외의정의도 친근치못할것이외다(안의성, 22쪽)

나. 네—부모의 뜻을밧앗스니 가히치하홀일이외다(안의성, 94쪽)

다. 아이고 놀나온 말숨이외다(명월정, 98쪽)

라. 더 돌기와집이외다(금의쟁성, 53쪽)

마. 다 아니홀수 업는고로 셜명이외다(경세종, 27쪽)

바. 춤 올흔 말숨이외다(경세종, 37쪽)

따라서 계사와 결합된 종결어미 '-오이다'는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의 경우 단 하나에 불과하고 '신소설'에서도 모두 하여 여섯 개밖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임이 적었다. 이는 현대국어에서도 종결어미 '-오이다'가 대화체에서 쓰임이 적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현대국어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세국어 시기에도 종결어미 '-오이다'는 쓰임이 크지 않은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3.1.3.13. '-사오이다'

'-사오+이다'의 형태는 어간으로서 동사나 형용사 또는 계사를 둔다. 아래 (183)은 '-사오+이다'의 어간으로 계사가 온 경우로서 이의 어미 구성은 계사와 존대선어말

어미 '-올-' 그리고 공대선어말어미 '-사옵-'과 종결어미 '-이다'가 한데 결합된 형태이다.

(183) 단형서사

가. 젼에 긔도 리치를 무러보시는 말숨이올쇠다[늙은 흑인(1901. 5. 16)]

나. 내 가쟝이 도라 가신지 임의 쥬년이올세다[군ᄉ련습 시에 살인리력 (경향신문, 1908. 4. 17)]

이와 같이 '-이+올+사오+이다'의 어미 구성을 보이는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184) 신소설

가. 화평ᄒᆞᆫ 셰ᄃᆡ가 될거시올세다(경세종, 9쪽)

나. 나는 올뱀이올세다(경세종, 27쪽)

다. 참 익셕ᄒᆞᆫ 일이올세다(경세종, 32쪽)

라. 자벌네라ᄒᆞ는 벌네올세다(경세종, 40쪽)

마. 대강 이러ᄒᆞᆫ 즘싱이올세다(경세종, 46쪽)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올+사오+이다'의 형태가 오직 김필수의 '경세종'에서만 보이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신소설'에서 더 이상 '-이+올+사오+이다'와 같은 유형은 쓰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올+사오+이다'의 축약형인 '-올세다'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오직 '경세종'에서만 '-올세다'가 보이고 있으므로 이의 어미가 대화체에서 쓰임이 약해진 것은 이미 '신소설' 때부터 보이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3.1.3.14. '-올시다'

종결어미 '-올시다'는 '-ㅂ니다'의 뜻을 가진 어미로서 계사만을 어간으로 한다. 신기철・신용철(1981)의 "새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올시다'를 '-옵니다'보다 좀 더 정중하게 이르는 종결어미로서 '-로소이다'의 변형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김형철(1997, p.331)은 '-올시다'가 외형으로 보아 하나의 형태소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 기원을 찾기 힘든 것으로 말하고 있다.

3.1.3.14.1. '-이+올시다'

계사에 대하여 종결어미 '-올시다'가 결합된 '-이+올시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하나의 용례를 볼 수 있다.

(185) 단형서사

져ᄂᆞᆫ 동편 말 사ᄂᆞᆫ 소년이올시다[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올시다'의 용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86) 신소설

가. 물고령을 거두시ᄂᆞᆫ거시 조흘일이올시다(은세계, 66쪽)

나. 이런말이ᄂᆞ셔, 마님귀에드러가면, 령감은큰일, 나실일이올시다(귀의성, 59쪽)

다. 져긔보이ᄂᆞᆫ산소가ᄂᆞ의죠부모합폄으로모신곳이올시다(구마검, 42쪽)

라. 지금이식젼이오닛가ᄂᆡ가오기ᄂᆞᆫ, 식젼에왓습니다마ᄂᆞᆫ, 지금은낫이을시다(귀의성, 44쪽)

마. 그러치 안이ᄒᆞ여도 지금 가뵈오랴고 ᄒᆞᄂᆞᆫ터이올시다(송뢰금, 83쪽)

바. 한갓실낫갓흔, 목숨끈어지기만, 기다릴쑨이올시다[홍도화(하), 99쪽]
사. 황은률은 오히려 멋지가는죄올시다(빈상설, 92쪽)
아. 낫션돈흔푼 먹지못ᄒᆞ도록 나라법을세워노흔써올시다(은세계, 134쪽)

따라서 '-이+올시다'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보이나 '신소설'에서 보다 더 월등히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3.14.2. '-이+시+올시다'

종결어미 '-올시다'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찾아지나 그 용례는 세 개에 그치고 있다.

(187) 신소설
가. 어머니 망령이시올시다(모란병, 95쪽)
나. 셩싱님게셔이갓치박복ᄒᆞᆫ위인을아시기가불찰이시올시다(구마검, 43쪽)
다. 션싱님은참신안이시올시다(구마검, 57쪽)

그러므로 종결어미 '-올시다'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한 유형은 계사에 결합한 유형에 비해 그 쓰임이 훨씬 적었음이 확인된다.

3.1.3.15. '-로소이다'

종결어미 '-로소이다'는 미래선어말어미 '-리-' 외에 계사 '-이-'와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이+로소이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88) 단형서사

가. 불감텽이언뎡 고 소원이로소이다[황국단풍 됴흔 집에(대한매일신보, 1908. 9. 24)]

나. 이거슨 구라파나 미국의 삼쳑동ᄌᆞ가 드러도 코으로 우슴을 발홀 바ㅣ로소이다[완고와 신진의 문답(대한매일신보, 1908. 7. 29)]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와 같이 '-이+로소이다'의 유형을 볼 수 있다.

(189) 신소설

가. 참 희한ᄒᆞᆫ일이로소이다(설중매, 25쪽)

나. 셔방님은 참 영웅이로소이다(설중매, 25쪽)

다. ᄯᅩ 다시 민의원슈를갑허쥬시오니 하해갓흔 은턱은 빅골난망이로소이다(화중화, 38-39쪽)

라. 졍신으로도 부모를 뵈옵고 이 슬운ᄉᆞ졍을 호소ᄒᆞ고져 작뎡ᄒᆞᆫ 이날이로소이다(명월정, 124쪽)

따라서 계사에 종결어미 '-로소이다'가 결합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2. 인용어미

3.2.1. 종결어미+종결어미

어떠한 내용이나 말에 대해 끌어다 말할 때에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에 대

해 친근하게 일러줄 때에 종결어미 '-ㄴ다'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때 '-ㄴ다'는 어간과 결합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종결어미와 결합한다. '-ㄴ다'에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다' 또는 '-라'로서 이들은 각각 '-다+ㄴ다'와 '-라+ㄴ다'의 형태를 이룬다.

한편, 종결어미 '-라'와 종결어미 '-오'도 서로 결합하여 인용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종결어미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들 종결어미 둘이 결합한 '-라+오'는 인용의 의미 외에 어떤 내용이나 사실에 대해 친근하게 일러주는 의미로도 쓰인다.

3.2.1.1. '-다+ㄴ다'

종결어미 '-ㄴ다'가 종결어미 '-다'와 결합한 경우 이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90) 단형서사

요새 세상에는 종 부리는 법도 업단다[화수(대한민보, 1909. 6. 2)]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다+ㄴ다'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지는데 '신소설'의 경우에는 '단형서사'와는 달리 그 용례가 상당히 풍부하다.

(191) 신소설

가. 증남아 너아버니가 그럿케 도라갓단다(몽조, 26쪽)

나. 너는 나희가 어리여서 철은 읍지마는 어려서 들은 말은 잇치지 아니 혼단다(몽조, 30쪽)

다. 증남아아 산아희는 울지 아니혼단다(몽조, 31쪽)

라. 셰상을만난듯이 밤낫돌아뎅긴단다(빈상설, 64쪽)

마. 멋ㅊ례를 불닛는되 찻집은 제집에 잠간뒤겨오겟다고 갓단다(빈상설, 19쪽)

바. 나도 지금 보앗단다(송뢰금, 9쪽)

사. 아망위는 부마가되얏셔도 긔를펴고지냇단다[치악산(상), 8쪽]

아. 이익검홍아 셔방님은 타국으로 공부ᄒᆞ러가신단다[치악산(상), 12쪽]

자. 우리집에는, 그런일이, 잇단다[홍도화(하), 6쪽]

차. 네싱각죠곰아니ᄒᆞ고 발셔외국으로 다라는지가 두달이나된단다(안의성, 114쪽)

카. 가산 시별령에셔 낫단다(원앙도, 34쪽)

타. 어머니께셔 몸이곤ᄒᆞ다고 ᄒᆞ시더니 잠이 막드셧단다(금강문, 8쪽)

파. 나는 졀머셔브터 산길을 만히단여보아셔 각력은 오히려 졀문너의보다 낫단다(금강문, 129쪽)

하. 이금강산에는 이갓치 붉은물에 물고기라고는 하나 도업단다(금강문, 130쪽)

가′. 그신부가 너와 결혼ᄒᆞ얏다고 다른듸로 싀집 을 아니 간다는듸 져경원이는 그신부와 동셔되기를 원ᄒᆞᆫ단다(금강문, 182쪽)

따라서 '-다+ㄴ다'의 경우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소설'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다+ㄴ다'는 '신소설'에 들어서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3.2.1.2. '-라+ㄴ다'

종결어미 '-라'에 또 다시 종결어미 '-ㄴ다'가 결합한 '-라+ㄴ다'의 형태도 어떤 내용이나 말에 대해 끌어다 말할 때에 사용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나 사실에 대해 친근하게 일러줄 때에도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그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2) 신소설

가. 이아ᄒᆡ란다(세검정, 55쪽)

나. 루동 사시ᄂᆞᆫ 구 참령령감 이시란다(화세계, 78쪽)

다. 너무어엿버걱정이란다[치악산(상), 62쪽]

라. 암ᄃᆞᆰ이 ᄉᆡ벽에울면(雌鷄有晨)집에ᄌᆡ앙이란다[홍도화(상), 12쪽]

마. 령감조차 자근아씨를 미워ᄒᆞ면 그불ᄯᅩᆼ이 마님ᄭᅦ로 ᄯᅱᆯ가염녀가 되시ᄂᆞᆫ ᄶᅡ닭이란다(재봉춘, 11쪽)

바. 요젼번에 모친병환이라고 편자ᄒᆞᆫ것이 너의양모 병이아니라 너의 ᄉᆡᆼ모병이란다(재봉춘, 72쪽)

사. 고ᄀᆡ마루에ᄂᆞᆫ 가산사ᄅᆞᆷᄃᆞᆯ이 죽엇ᄂᆞᆫᄃᆡ 겻희 돈한견ᄃᆡ와 빈 술병과 술잔하나히 노여잇드란다(원앙도, 34쪽)

아. 효순아 금쥐가 조판셔어룬의 ᄯᆞᆯ이란다(원앙도, 80쪽)

자. 너를 촌가ᄭᆞ지 업어다쥬시든 어룬이 져스님이시란다(금강문, 133쪽)

따라서 '-라+ㄴ다'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ㄴ다'에서와 같이 '신소설'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대화체에 본격적으로 쓰인 어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라+ㄴ다'는 '신소설'에서 주로 쓰이기 시작한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3.2.2. '-라+오'

종결어미 간의 결합에 의한 종결어미 '-라오'는 계사만 어간으로 놓인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어미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종결어

미 '-라오'가 계사와 결합한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3) 신소설

가. 져, 교군ᄐᆞ고가ᄂᆞᆫ사ᄅᆞᆷ이우리ᄃᆡᆨ마마님이라오(귀의성, 13쪽)

나. 나ᄂᆞᆫ별츌입이나 ᄒᆞ시ᄂᆞᆫ쥴알앗더니 긔쁜가신ᄃᆡ가 쳥셕골ᄯᅮ장이집이라오(빈상설, 54쪽)

다. 나는아부지나는산슐이갑(甲)이라오[두견성(상), 34쪽]

라. 팔ᄌᆞ가 긔 박ᄒᆞ여 이모양이라오(금강문, 124쪽)

마. 지금 그ᄋᆞ히가 열아홉살이라오[구의산(상), 80쪽]

바. 올에 열다셧살이라오[구의산(상), 82쪽]

사. 못 거느릴것은 남의 ᄌᆞ식이라오(원앙도, 68쪽)

아. 뎌ᄋᆡ가 그량반의 ᄯᆞᆯ이라오(원앙도, 78쪽)

자. 여긔는 평안도 의쥬셔촌 황동지집이라오(목단화, 82쪽)

차. 그년은 져건너 뎡초시의 누의년인ᄃᆡ 얼골은 인두겁을 썻스나 힝실은 ᄀᆡ만도 못ᄒᆞᆫ년이라오(목단화, 89쪽)

'단형서사'에서는 단 하나의 용례도 보이지 않던 '-이+라+오'의 형태가 '신소설'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라오'가 '신소설'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종결어미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대국어에 있어서도 종결어미 '-라오'는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어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가 '신소설'에서만 왕성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종결어미 '-라오'는 '단형서사'를 지나 '신소설'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대화체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3.2.3. 종결어미+존대선어말어미+종결어미

어떤 내용이나 말에 대하여 끌어다 말할 경우에 '종결어미+종결어미'로 이루어진 형태 외에 '종결어미+존대선어말어미+종결어미'로 구성된 형태도 사용된다. 이때 사용되는 존대선어말어미는 '-시-'이고 '-시-'의 앞에 놓이는 종결어미는 '-다' 또는 '-라'가 된다. 그리고 '-시-'의 뒤에 놓이는 종결어미는 '-어요'이다. '-어요'는 반말체 종결어미 '-어'에 첨사 '-요'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들의 결합형이 하나의 종결어미로 기능한다.

3.2.3.1. '-다+시+어+요'

종결어미 '-다'에 존대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반말체 종결어미 '-어'에 첨사 '-요'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94) 신소설

어머니가 검홍이란년을써려죽인다셔요[치악산(상), 9쪽]

'-다+시+어+요'의 어미 구성을 보이고 있는 위의 구문은 딸(남순)이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 하나의 용례만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단형서사'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이는 '-다+시+어+요'의 쓰임상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흔히 쓰이는 '-다+시+어+요'의 결합 형태가 '신소설'에서는

오직 하나의 용례만 보이는 것은 여기에 오는 첨사 '-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첨사 '-요'는 최근세국어 시기 대화체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첨사 '-요'가 대화체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가 개화기이므로 '-다+시+어+요'도 이때 대화체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어+요'는 대화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형태의 어미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 자취가 1908년에 간행된 이익직의 '치악산'에서 나타난 것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2.3.2. '-라+시+어+요'

'-시+어+요'의 형태는 종결어미 '-다' 외에 '-라'와도 결합을 한다. 이때 의미는 '-다+시+어+요'와 동일하게 어떠한 내용이나 말의 전달이다. 종결어미 '-라'에 '-시+어+요'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용례가 찾아진다.

(195) 신소설
가. 어머니가 아버지엿쥬라셔요[치악산(상), 11쪽]
나. 앗씨게셔 셔방님끠 좀뵈옵깃다고 사랑에ᄂᆞ가셔 그말슴좀 ᄒᆞ라셔요(은세계, 15쪽)

'-라+시+어+요'의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그 모습이 없고 '신소설'에서만 단지 두 개의 용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의 형태가 현대국어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으므로 '신소설'에서 보이는 두 개의 용례를 '-라+시+어+요'의 쓰임상 쇠퇴가 아니라 쓰임상

시초인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라+시+어+요'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에서 그 쓰임이 미약한 것은 '-다+시+어+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첨사 '-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첨사 '-요'가 최근세국어 시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에 '-라+시+어+요'가 대화체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악산'과 '은세계'에서 보이는 '-라+시+어+요'는 이러한 어미 구성의 출현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직의 '치악산'과 '은세계'가 둘 다 1908년에 간행된 것이므로 1908년도에 문헌상 '-라+시+어+요' 형태의 어미 구성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08년도이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형서사'가 여전히 발표되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도 이들 '단형서사'에서는 '-라+시+어+요' 또는 '-다+시+어+요'의 형태가 쓰이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라+시+어+요'나 '-다+시+어+요'는 완전한 구어체이므로 대화 구문에 있어 아직 문어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단형서사'에서는 이를 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형서사'보다 더욱 발달된 구어체를 보이는 '신소설'에 들어서서 이들 형태의 어미 구성이 시범적으로 쓰인 것으로 분석한다.

3.3. 첨사

여기 '2.3'에서 다루는 첨사는 '-요'로서 이는 '-ㄴ가', '-ㄹ까', '-거든', '-게', '-군', '-나', '-네', '-데', '-아/어/여', '-지' 등의 종결어미와 결합한다. 이중에서 평서문에 쓰이는 종결어미는 '-게', '-군', '-네', '-데', '-아/어/여', '-지' 등이다. 여기서 '-게', '-네', '-데', '-지'는 의문문 종결어미로도 쓰인다. 그리고 '-게', '-아/어/여'는 명령문 종결어미로도 사용된다. 종결어미 '-군'은 '-구나'의 준말 형태이지만 그 형태 그대로 평서문에서 반말을 뜻하는 종결어미로 쓰인다. 한편, 종결어미 '-ㄴ가', '-ㄹ까',

'-거든', '-나' 등은 전적으로 의문문에서 쓰인다. 여기서는 서술법에서의 어미를 다루므로 이들 중에서 '-게', '-군', '-네', '-데', '-아/어/여', '-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3.3.1. '-게+요'

첨사 '-요'는 평서문 종결어미로서의 '-게'와 결합하여 '-게+요'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다.

(196) 신소설

가. 속이시원ᄒᆞ게 ᄌᆞ세히 알고나잇게요(세검정, 38쪽)

나. 다시는안이그리고 ᄒᆞ라는ᄃᆡ로다ᄒᆞᆯ게요(목단화, 23쪽)

다. 독갑이가 어셔좀왓스면 그다라나는ᄊᆞᆯ을 좀보게요[치악산(하), 7쪽]

라. ᄅᆡ일아적에 그리헉게요(추천명월, 33쪽)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게+요'가 널리 쓰이지만 최근세국어 시기에는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종결어미+첨사'의 유형에 있어서 '-게+요'의 형태는 '단형서사'를 지나서 '신소설'에 들어와서야 대화체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3.3.2. '-데+요'

첨사 '-요'는 서술법 종결어미 '-데'와 결합하여 '-데요'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소설'에서는 비록 이

의 형태가 찾아지나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21]

(197) 신소설

안이ᄒᆞᆫ데요(송뢰금, 5쪽)

따라서 첨사 '-요'가 종결어미 '-데'와 결합한 '-데요'의 형태는 개화기의 작품에서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거의 쓰이지 않은 유형의 어미 구성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곧 '-요' 통합형 중에서 '-데+요'의 형태는 현대국어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3.3. '-아/어/여+요'

종결어미 '-아/어/여'는 평서문의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어미들이다. 이들 종결어미는 첨사 '-요'와 결합하여 '-아요', '-어요', '-여요'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198) 단형서사

가. 그 쥬의는 참 올 슈 업서요[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5. 12. 30)]

나. 제가 답답히요[지난 겨울 밍렬ᄒᆞᆫ 바ᄅᆞᆷ에(대한매일신보, 1910. 3. 9)]

비록 그 용례가 두 개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 구문에서 보이는 어미의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첨사'와 동일한 어미의 형태이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종결어미+첨사'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단형서사'에서는 두 개의 용례만 보이

21) 허웅(1989, p.146)에서는 평서종결어미 '-데'를 '-더이다 > -데이다 > -데'로 분석하고 있다.

나 '신소설'에서는 대단히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199) 신소설

가. ᄆᆞ님게, 말솜한ᄆᆞ듸만, 하려두섯더면, ᄆᆞ님게서, 그럿케ᄃᆡ단이하실리가, 업셔요(귀의성, 85쪽)

나. ᄂᆞᆫ는발셔, 다, 알아요(귀의성, 33쪽)

다. 사ᄅᆞᆷ도ᄆᆡ우얌전히요(귀의성, 89쪽)

라. ᄒᆞᆫ번, 심부름식엿더니, 이런야단이낫지, 고만두어요[홍도화(하), 29쪽]

마. 남의나온구멍ᄶᅡ지, 들쳐드러, 욕먹이지말고, 고만두어요[홍도화(하), 29쪽]

바. 그아씨ᄉᆡᆼ각만ᄒᆞ나보아요[홍도화(하), 62쪽]

사. 일가산이단단히, 될만치, 묘막묘답을, 배치히, 노은곳이업나보아요(홍도화(하), 81쪽]

아. 오날 션유회 구경ᄒᆞ다가 긔막힌것보앗셔요(화중화, 10쪽)

자. 장셩읍에를 갓다가 션초를 얼픗보닛가 과연 ᄉᆡᆼ기기ᄂᆞᆫ 썩 도뎌ᄒᆞ게 ᄉᆡᆼ겟셔요(화의혈, 8쪽)

차. 갓난어멈을불너 알아보앗스면 됴켓셔요(화의혈, 59쪽)

카. 공연히 마ᄋᆞᆷ이 슈란히셔 그리힛셔요(화의혈, 66쪽)

타. 에그 어머니 나ᄂᆞᆫ 이자리에셔 죽어요(화세계, 20쪽)

파. 사ᄅᆞᆷ이 ᄀᆡ즘ᄉᆡᆼ 안인바에 그일은 ᄒᆡᆼ홀수ᄂᆞᆫ 업셔요(화세계, 20쪽)

하. 필공 량반의 신세ᄂᆞᆫ 엇지ᄒᆞ면 갑흘ᄂᆞᆫ지 모로겟셔요(화세계, 68-69쪽)

가′. 관계치 안어요(안의성, 62쪽)

나′. 정녕그런가보아요(안의성, 78쪽)

다′. 이편지가아마 정ᄋᆡ의 못이져ᄒᆞᄂᆞᆫᄉᆞ람의 편지인듯히요(안의성, 44쪽)

라′. 분명 신부의 조화지 다른ᄃᆡ셔 병난것이 안인듯십어요[구의산(상), 75쪽]

마′. 마님마님 ᄌᆞ근아씨 아바지가 오셧나보아요(모란병, 72쪽)

바′. 져의 부친이 ᄎᆞᄌᆞ오셧셔요(모란병, 72쪽)

사′. 아마더위날에 독흔감긔가 드셧나보아요(재봉춘, 51쪽)
아′. 여보 허부령 령감이 오셧셔요(재봉춘, 25쪽)
자′. 오날져녁까지는 방에계시다가 뒤문안에셔 거니시더니 인흐야 드로오시지를 아니흐셧셔요(재봉춘, 151쪽)
차′. 감끠셔 혼인날 끼여드리신 반지를 마님끠셔 업시셧다고 뎌분마님끠셔와 령감끠셔 야단을 치셧셔요(재봉춘, 153쪽)
카′. 드른즉 셔울이나 시골이나 일가는하나도 업나보아요(세검정, 14쪽)
타′. 이것이셔울셔온편지인가보아요[두견성(상), 3쪽]
파′. 그다지오릭그레실것은안이외다고그럿다는가보아요[두견성(상), 44쪽]
하′. 아마폐병이되얏나보아요[두견성(상), 96쪽]
가″. 아무리보아도당신은ᄋ희들을너무ᄉ랑희요[두견성(상), 36쪽]
나″. 법국말을공부희라덕국말이요긴흐다고칙망만흐니참민망희요[두견성(상), 90-91쪽]
다″. 예수교 흐시는이들은 다 셩질이 변흐는가보아요[두견성(하), 80쪽]
라″. 그 로부인흔테던지 엽셔 한쟝이업스니 미우 궁금희요[두견성(하), 49쪽]
마″. 그만 젼신이 ᄯᅡᆷ에 저젓고 가슴이 울넝 희요[두견성(하), 91쪽]
바″. 아마 졍든랑군의게 흐는편지인가 보아요(금강문, 49쪽)
사″. 어셔 잡슈셔요(빈상설, 8쪽)
아″. 그날지나던 비일홈을 낫낫치젹어 가지시고 각쳐로ᄎᄌ가 보신다고 ᄯᅥ나가셧셔요(빈상설, 134쪽)
자″. 우리고향에 단길너 가셧셔요(빈상설, 87쪽)
차″. 뵈옵기만희요(빈상설, 145쪽)
카″. 지금누가 ᄉ톰흐나를 식로어드랴고흐니 파실것갓트면 돈쳔드리고 다려가깃고희요(추천명월, 21쪽)
타″. 문박게를 갓다가 결이나 삭거던 다려올터이니 이리 힛스면 좃킷다고 희요(추천명월, 35쪽)

파″. 자셰히본즉 요젼에 뒤ㅅ사랑에셔 ᄌ던소년닌 듯 ᄒ요(추천명월, 103쪽)

하″. 다름이 안이라 김순이팔ᄶᅵᆨ에 쇤네를 ᄯᅡ로이 일쳔오ᄇᆡᆨ냥을 쥬어요(추천명월, 107쪽)

가‴. ᄉᆞᆷ도촘 고약ᄒ요(목단화, 30쪽)

나‴. ᄯᅩᆼ먹은ᄉᆡᆼ각을ᄒᆞ면 지금ᄭᅡ지 분ᄒ요(목단화, 52쪽)

다‴. 녀학교 졸업례식에는 지샹가 부인들이 오시는고로 밤에 ᄒᆞᆫ다고ᄒ요(목단화, 56쪽)

라‴. 에그촘 그는 그러ᄒ요[구의산(상), 73쪽]

이와 같은 용례의 빈도는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쓰임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어/여+요'의 유형에 있어서는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이 이미 '신소설'에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종결어미+요'의 형태 중에서 대표형인 '-해요'로 축약되는 '-아/어/여+요'의 유형이 '단형서사'에 이어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고 있었으며, 특히 '신소설'에 들어서서는 현대국어와 같은 수준의 쓰임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영근(1974)에서는 '-요' 통합형이 1920, 30년대부터 우세하다고 하였고, 신창순(1984)에서는 1940년대부터 '-요'가 경어법에 많이 쓰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경우(1998)도 해요체가 하소서체와 더불어 가장 적게 사용한 경어법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199)의 용례에 따르면 이의 시기를 20~40년 올려서 1900년 초엽부터 이미 우세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에서 들어 보인 용례의 작품만을 보더라도, '귀의성(이인직, 1906)', '빈상설(이해조, 1908)', '홍도화(이해조, 상: 1908, 하: 1910)', '모란병(이해조, 1911)', '목단화(김교제, 1911)', '화세계(이해조, 1911)', '구의산(이해조, 1912)', '두견성(선우일, 1912)', '재봉춘(이상협, 1912)', '화의혈(이해조, 1912)', '화중화(미상, 1912)', '세검정(지송욱, 1913)', '금강문(최찬식, 1914)', '안의성(최찬식, 1914)', '추천명월(김홍제, 1914)' 등의 작품들은 모두 1906년에서 1914년 사이에 나

온 작품들이다. 따라서 '-아/어/여+요'의 유형은 (199)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작품상에서 '-아/어/여+요'의 유형이 이토록 활발히 쓰일 정도라면 실제의 언어생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왕성한 사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의 통합형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시기는 기존의 학설보다 최소한 20년에서 40년 그리고 많게는 50년에서 60년은 더 올려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소설'에서 보이는 '-요'의 통합형이 일부 작가의 집필상 개인적 성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199)에서 보이는 작품의 작가들은 '이익직, 이해조, 김교제, 선우일, 이상협, 지송욱, 최찬식, 김홍제, 미상' 등으로서 총 9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어느 일부 작가의 집필상 성향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 통합형은 이르면 1800년대 중엽부터 이미 대화체에서 쓰이기 시작하였고 작품에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1900년 초엽부터인 것으로 분석된다.

3.3.4. '-지+요'

첨사 '-요'는 종결어미 중에서 '-지'와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200) 단형서사

지금 나라히 이만치 문명부강ᄒᆞ엿지요[샹목ᄌᆞ란 사름이(매일신문, 1898. 12. 13)]

그리고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요'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 신소설

가. 어느놈과 ᄇᆡ가마져 도망을 ᄒᆡᆺ다고ᄒᆞ지요(추천명월, 21쪽)

나. 웃지ᄒᆡᆺ던지 나무덕종보다는 낫깃지요(추천명월, 43쪽)

다. ᄯᅩ 셜혹잇슬지라도 기ᄉᆡᆼ마음에 불합ᄒᆞ면 신병으로 칭탈을 ᄒᆞ지요(추천명월, 56쪽)

라. 얼마안이 되지요(추천명월, 64쪽)

마. 얼마는 안이되지마는 부ᄌᆞ에집이라 ᄒᆡ만 ᄶᅥ러지면 ᄉᆞ룸이 드나드지를 못ᄒᆞ지요(추천명월, 66쪽)

따라서 '-지+요'의 형태는 '-아/어/여+요'와 같이 '-요' 통합형의 어미로서 '단형서사'에서도 쓰였으나 '-아/어/여+요' 유형과는 달리 '신소설'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요' 통합형은 각각의 유형이 일시에 널리 쓰인 것이 아니라 형태별로 저마다 쓰임의 발달 정도가 달랐음이 확인된다.

한편, '-지+요'가 '-지+오'의 변이형과도 닮아 있어 이것을 첨사 '-요'와의 결합형이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에서 보이는 구문의 '-지+요' 결합형은 '-지+오'의 변이형이 아니다. 종결어미 '-오'는 '하오체'의 종결어미로 쓰이므로 이는 상대를 존대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201)에서 보이는 예문에서는 구문의 전개상 존대의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위의 구문에서 첨사 '-요'를 제거하여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 신소설

가. 어느놈과 ᄇᆡ가마져 도망을 ᄒᆡᆺ다고ᄒᆞ지(추천명월, 21쪽)

나. 웃지ᄒᆡᆺ던지 나무덕종보다는 낫깃지(추천명월, 43쪽)

다. ᄯᅩ 셜혹잇슬지라도 기ᄉᆡᆼ마음에 불합ᄒᆞ면 신병으로 칭탈을 ᄒᆞ지(추천명월, 56쪽)

라. 얼마안이 되지(추천명월, 64쪽)

마. 얼마는 안이되지마는 부즈에집이라 힉만 쩌러지면 스룸이 드나드지를 못 훗지(추천명월, 66쪽)

따라서 (201)에서 쓰인 '-지'는 반말의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 '-지'로 보아야 한다. 즉, 이는 '-지+오'에서 쓰이는 어간형성접미사 '-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추천명월'의 작가인 김홍제는 (199)의 예문에서 보듯이 '-요' 통합형을 사용하는 작가이므로 위의 (201)에서 보이는 '-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요' 통합형의 첨사 '-요'로 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지+요' 형태의 '-요' 통합형 역시 개화기 때부터 쓰였으며, 다만 '-아/어/여+요'의 유형보다는 쓰임이 적었고 '단형서사'에서까지는 쓰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요' 통합형은 개화기 때부터 널리 쓰였으며 특히 '신소설'에서 왕성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요' 통합형이 쓰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요' 통합형 중에서 '-군+요' 형태와 '-네+요' 형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형서사'이건 '신소설'이건 간에 '-군+요'와 '-네+요'의 형태는 일체 찾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곧 본고에서 다룬 자료 내에서 본다면 이들 유형의 '-요' 통합형은 개화기 즉,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이지 않은 '-요' 통합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이들 '-요' 통합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는 '-군'과 '-네'가 종결어미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군'과 '-네'가 작품 내에서 종결어미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종결어미하고 결합하는 첨사 '-요'는 당연히 '-군+요'나 '-네+요'와 같은 형태의 결합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군'이나 '-네'를 종결어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군'이 종결어미로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3) 신소설

가. 허허 무당도 헛것이 안이로군(구마검, 21쪽)

나. 그까짓것으로 호구별셩을 못 오시게 ᄒᆞ깃군(구마검, 8쪽)

다. 그일홈미오조흔ᄃᆡ 벽도 우리가 무릉도원에 드러온모양이로군(모란병, 37쪽)

라. 압다 이리면 몃치나 쥭는줄 아ᄂᆞᆫ군(빈상설, 5쪽)

마. ᄂᆡ가 ᄯᅥᄀᆡ걸여 넘어졋군(빈상설, 15쪽)

바. 나를못먹겟다고 으르렁거리더니 제ᄯᅡᆯ이 먼져뒤여졋군(빈상설, 16쪽)

그리고 '신소설'에 있어서 '-네'가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4) 신소설

가. 그늘은우리가ᄯᅩᄒᆞᆫ번다시모혀야ᄒᆞ깃네(구마검, 68쪽)

나. 만신의 ᄂᆞ히 손아릐일듯ᄒᆞ니 쳐음보아도 셔어ᄒᆞ지 안토록 ᄒᆞ게ᄒᆞ겟네(구마검, 14쪽)

다. 우리금션이가 이셜만지ᄂᆞ면 춤말열셰살이되네(모란병, 4쪽)

라. ᄌᆞ네일이야밀로 ᄂᆡ일이니 일호달음업시 걱졍이되네(모란병, 7쪽)

마. 벌셔ᄌᆞ졍을치ᄂᆞᆫᄃᆡ 그져드러오지안이ᄒᆞ네[홍도화(상), 48쪽]

바. 여보소 오날더쟝황히 말ᄒᆞᆯ것업네[홍도화(상), 62쪽]

따라서 '-군+요'와 '-네+요' 형태의 '-요' 통합형은 '-게+요', '-아/어/여+요', '-지+요' 통합형과는 달리 '신소설' 이후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요' 통합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요' 통합형은 유형에 따라 개화기 때에 이미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왕성한 쓰임을 보이는 것과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각각 차이를 가졌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 통합형의 유형들

은 거의 동시에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3.4.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서술법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를 요약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다'	'어간+았/었/였+다'	○	○
	'어간+겠+다'	○	○
	'어간+으리+다'	×	○
	'어간+ㄴ/는다'	○	○
	'어간+시/으시+ㄴ다'	○	○
'-ㄹ다'	'어간+ㄹ다'	○	○
'-ㄹ라'	'어간+ㄹ라'	×	○
'-노라'	'어간+노라'	○	○
	'어간+았/었/였+노라'	○	○
	'어간+겠+노라'	○	○
'-리/으리라'	'어간+리/으리라'	○	○

'-느니라'	'어간+느니라'	○	○
	'어간+았/었/였+느니라'	○	○
	'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	○	×
'-걸'	'어간+ㄴ/는/은걸'	×	○
	'어간+ㄹ걸'	○	○
'-아/어/야'	'어간+아/어/야'	○	○
'-지'	'어간+지'	○	○
	'어간+았/었/였+지'	○	○
	'어간+겠+지'	○	○
	'어간+아야/어야+하+지	×	○
'-네'	'어간+네'	○	○
	'어간+았/었/였+네'	○	○
	'어간+겠+네'	○	○
'-느니'	'어간+느니'	○	○
'-이'	'의문종결어미+보+이'	○	○
	'어간+더+이'	○	○
	'어간+았/었/였+더+이'	○	○
	'어간+겠+더+이'	○	○
'-오/소'	'어간+오/소'	○	○
	'어간+았/었/였+오/소'	○	○
	'어간+겠+오/소'	○	○
	'어간+시/으시+오'	○	○

‘-ㅂ/습디다’	‘어간+ㅂ/습디다’	×	○
	‘어간+았/었/였+습디다’	×	○
	‘어간+겠+습디다’	×	○
	‘어간+오+ㅂ디다’	×	○
‘-ㅂ니다’	‘어간+ㅂ니다’	×	○
	‘어간+시/으시+ㅂ니다’	○	○
	‘-다+ㅂ니다’	×	○
	‘-라+ㅂ니다’	×	○
‘-습니다’	‘어간+습니다’	×	○
	‘어간+았/었/였+습니다’	×	○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	○
	‘어간+겠+습니다’	○	○
	‘어간+시/으시+겠+습니다’	×	○
‘-나이다’	‘어간+나이다’	○	○
	‘어간+았/었/였+나이다’	○	○
	‘어간+겠+나이다’	○	○
	‘어간+시/으시+나이다’	×	○
	‘어간+삽/옵+나이다’	○	○
	‘어간+았/었/였+삽+나이다’	○	○
	‘어간+겠+삽+나이다’	○	○
‘-오이다’	‘어간+오이다’	○	○

‘-오리다’	‘어간+오리다’	○	○
	‘어간+시/으시+오리다’	×	○
‘-이다’	‘어간+더+이다’	×	○
	‘어간+옵+더+이다’	×	○
	‘어간+았/었/였+사오+이다’	×	○
‘-로소이다’	‘어간+겠+사오+이다’	○	○
	‘어간+리+로소이다’	×	○

형용사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다’	‘어간+다’	○	○
	‘어간+겠+다’	×	○
	‘어간+으리+다’	×	○
‘-리/으리라’	‘어간+리/으리라’	○	○
‘-느니라’	‘어간+느니라’	○	○
‘-걸’	‘어간+ㄴ/는/은걸’	○	○
	‘어간+ㄹ걸’	○	×
‘-지’	‘어간+지’	○	○

‘-네’	‘어간+네’	○	○
	‘어간+았/었/였+네’	×	○
	‘어간+겠+네’	○	○
‘-느니’	‘어간+느니’	×	○
‘-이’	‘의문종결어미+보+이’	×	○
	‘어간+더+이’	○	○
	‘어간+았/었/였+더+이’	×	○
‘-오/소’	‘어간+오/소’	○	○
‘-ㅂ/습디다’	‘어간+ㅂ/습디다’	×	○
	‘어간+겠+습디다’	×	○
	‘어간+오+ㅂ디다’	×	○
‘-ㅂ니다’	‘어간+시/으시+ㅂ니다’	×	○
	‘-다+ㅂ니다’	×	○
	‘-라+ㅂ니다’	×	○
‘-습니다’	‘어간+습니다’	×	○
	‘어간+았/었/였+습니다’	×	○
	‘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	○
	‘어간+겠+습니다’	×	○
	‘어간+시/으시+겠+습니다’	○	○
‘-나이다’	‘어간+나이다’	○	○
	‘어간+겠+삽+나이다’	○	×

‘-니이다’	‘어간+니이다’	○	○
‘-오이다’	‘어간+오이다’	○	○
‘-사오이다’	‘어간+사오이다’	○	○
‘-이다’	‘어간+더+이다’	○	○
	‘어간+사오+이다’	○	○
	‘어간+겠+사오+이다’	×	○

계 사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다’	‘계사+다“	×	○
‘-라’	‘계사+라’	○	○
‘-로다’	‘계사+로다’	○	○
‘-ㄴ걸’	‘계사+ㄴ걸’	×	○
‘-아/어/야’	‘계사+아/어/야’	○	○
‘-ㄹ세’	‘계사+ㄹ세’	○	○
	‘계사+오+ㄹ세’	○	×

'-이'	'계사+더+이'	○	○
'-오'	'계사+오'	○	○
'-ㅂ디다'	'계사+ㅂ디다'	×	○
'-습디다'	'계사+겠+습디다'	×	○
'-ㅂ니다'	'계사+시/으시+ㅂ니다'	×	○
'-오이다'	'계사+오이다'	○	○
'-사오이다'	'계사+사오이다'	○	○
'-올시다'	'계사+올시다'	○	○
	'계사+시+올시다'	×	○
'-로소이다'	'계사+로소이다'	○	○

인용어미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다', '-ㄴ다'	'-다+ㄴ다'	○	○
'-라', '-ㄴ다'	'-라+ㄴ다'	×	○
'-라', '-오'	'-라+오'	×	○

'-요' 통합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어'	'-다+시+어+요'	×	○
	'-라+시+어+요'	×	○
'-게'	'-게+요'	×	○
'-데'	'-데+요'	×	○
'-아/어/여'	'-아/어/여+요'	○	○
'-지'	'-지+요'	○	○

위의 표에서 '동사어간+ㄹ걸', '동사어간+겠+지', '동사어간+느니', '동사어간-의문종결어미+보+이', '동사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동사어간+겠+사오+이다' 등은 '단형서사'에서 오직 하나의 용례만 보인다.

반면, '동사어간+ㄹ라', '동사어간+았/었/였+느니라' 등은 '신소설'에서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그리고 '동사어간+겠+사오+이다'의 경우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오직 하나의 용례만 보이고 있다.

한편,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형용사어간+ㄴ/는/은걸', '형용사어간+시/으시+겠+습니다', '형용사어간+나이다', '형용사어간+겠+삽+나이다', '형용사어간+더+이다' 등은 '단형서사'에서 한 번 용례를 보인다.

그리고 '형용사어간+겠+네', '형용사어간-의문종결어미+보+이', '형용사어간+았/었/였+더+이', '형용사어간+겠+습디다', '형용사어간+오+ㅂ디다' 등은 '신소설'에서 한 번의 용례를 보인다. 하지만 '형용사어간+니이다', '형용사어간+사오+이다'의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단 한 번만 찾아지고 있다.

종결어미가 계사와 결합한 형태인 '-이+ㄹ다', '-이+오+ㄹ세', '-이+오이다', '-이+올시다'의 경우는 '단형서사'에서 한 번 용례가 나타난다. 반대로 '-이+겠+습디다'는 '신소설'에서 한 번 용례를 볼 수 있다.

이외로 '-다+ㄴ다'는 '단형서사'에서 한 번 찾아지며, '-다+시+어+요'는 '신소설'에서 한 번 용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요'는 '단형서사'에서 한 번 쓰였고 '-데+요'는 '신소설'에서 한 번 쓰였다.

4. 의문법 어미분석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으로서(이관규, 1999, p.268)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양식의 문이 된다(김민수, 1971, p.294). 이러한 의문법에 쓰이는 종결어미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여 결합한다. 여기서는 의문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로 양분하여 의문종결어미가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와 이루는 양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4.1. 일반적 의문종결어미

4.1.1. 동사어간+의문종결어미

4.1.1.1. '-냐/느냐'

'-냐/느냐'는 [-높임]의 대표적인 의문어미로서 의문어 없는 의문문과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 두루 쓰인다(권재일, 2005. p.65 참조). 여기서 '-느냐'는 격식을 갖춘 의문종결어미이다(남기심・고영근, 1993. p.350). 이러한 '-냐/느냐'는 동사 및 형용사와 계사를 어간으로 한다(권재일, 2005. p.66 참조). 여기 '4.1.1.1'에서는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는 다루지 않으므로 동사가 어간인 경우만 분석한다.

4.1.1.1.1. '어간+느냐'

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느냐'가 결합된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1) 단형서사

가. 네가 이 나무를 엇더케 보ᄂᆞ냐[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를 졉붓치ᄂᆞᆫ비유라 (1897. 6. 16)]

나. 서지 못ᄒᆞᄂᆞ냐[사ᄅᆞᆷ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다. 너희가 이ᄀᆞᆺᄒᆞᆫ 이 일을 당ᄒᆞ기를 원ᄒᆞᄂᆞ냐[션악 두 길(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9. 27)]

라. ᄋᆞ희야 엇지 나를 속이ᄂᆞ냐[부모가 ᄌᆞ식 ᄉᆞ랑ᄒᆞᆫ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위의 용례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가 있다.

(2) 신소설

가. 우의, 나가지아니ᄒᆞ고, 알진알진하느냐(귀의성, 20쪽)

나. 요방정마진것들, 계집년들이, 식젼참에, 울기ᄂᆞᆫ우의우ᄂᆞ냐(귀의성, 10쪽)

다. ᄂᆡ가 너잇ᄂᆞᆫ곳을 알아야 안이되ᄂᆞ냐(모란병, 75쪽)

라. 이의 증남아 너어 느아버니가 읏덧케 도라가셧는지 ᄂᆡ가 아ᄂᆞ냐(몽조, 30쪽)

마. 왜안이들어오ᄂᆞ냐(빈상설, 54쪽)

그러므로 '어간+느냐'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며, 현대국어에서 의문종결어미 '-느냐'가 쓰이고 있듯이 개화기 때에도 작품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의 의문종결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2. '어간+았/었/였+느냐'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

합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3) 단형서사

가. 너는 엇지ᄒᆞ야 지우금 ᄉᆞ당을 면치 못ᄒᆞ얏나냐[경상남도 문경군에(매일신문, 1906. 9. 22)]

나. 아희야 우리가 어제 큰 나무를 엇더케 버혀 뉘엿ᄂᆞ냐[부ᄌᆞ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1. 23)]

다. 네가 보지 아니 ᄒᆞ엿ᄂᆞ냐[악ᄒᆞᆫ 나무에 됴ᄒᆞᆫ 가지를 졉붓치는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그리고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3)에서 보인 어미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4) 신소설

가. 오별감집 하인이면 무슨일로 뭇놈을 ᄃᆡ리고 남의집 ᄂᆡ뎡을돌닙ᄒᆞ얏ᄂᆞ냐(모란병, 97쪽)

나. 웨 문진에그져게시게 ᄒᆞ얏ᄂᆞ냐(모란병, 72쪽)

다. 이놈 그ᄯᅱ위버릇을어ᄃᆡ셔 ᄇᆡ왓ᄂᆞ냐(빈상설, 2쪽)

라. 이ᄋᆡ영자야 너는무엇을보고 어머니ᄭᅴ무슨 말솜을ᄒᆞ엿ᄂᆞ냐(안의성, 81쪽)

마. 네심장이 엇지되야 이러케변ᄒᆞ엿ᄂᆞ냐(안의성, 82쪽)

바. 이년아 네가죽엇ᄂᆞ냐(명월정, 73쪽)

사. 응-괴상ᄒᆞ고응-누가긴치안케일너쥬엇노(구마검, 36쪽)

아. 엇지면뎌모양으로동퇴셔락ᄒᆞ엿노(구마검, 59쪽)

자. 응 자네가 웨 올나왓노[치악산(하), 108쪽]

차. 무엇에 ᄯᅩ 노염이싱겻노[두견성(하), 5쪽]

카. 그러면 네ᄌᆞ식은 엇의롤갓노[구의산(하), 3쪽]

타. 얼마나 고싱을ᄒᆞ고 이모양이 되얏노(금강문, 162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느냐'의 유형은 '어간+느냐' 경우와 같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걸쳐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쓰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신소설'이 '단형서사'보다 더 많았다.

4.1.1.1.3. '어간+았/었/였+더+냐'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을 하기도 한다. 이때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어간이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냐'로 바뀐다. 원래 의문종결어미 '-냐'는 어간으로서 받침 없는 형용사나 계사가 온다. 하지만 회상선어말어미 '-더-'가 올 경우에는 어간으로서의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서 동사나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다. 여기서는 어간이 동사 또는 보조동사인 경우를 다룬다.

그런데 동사어간에 과거선어말어미가 오고 이에 회상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된 '어간+과거선어말어미+더-'의 형태에 다시 의문종결어미 '-냐'가 결합된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래에서와 같이 이의 용례가 찾아진다.

(5) 신소설

가. 꿈을꾸고가위를눌엿더냐(귀의성, 11쪽)

나. 리동지의집에가 잇다가 져에 어머니를 반가히만나지 안이ᄒᆞ엿더냐(모란병, 61쪽)

다. 내가, 네집에드러가, 거누구의며나리모양으로, 싱피죄를범ᄒᆞ얏더냐[홍도화(하), 113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더+냐'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쓰인 어미 구성이 된다고

할 것이다.

4.1.1.1.4. ‘어간+겠+느냐’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과거선어말어미 외에 ‘-겠-’과도 결합을 한다. 이의 경우 ‘어간+과거선어말어미+느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6) 단형서사

가. 법에 업ᄂᆞᆫ 일이야 엇지 ᄒᆞ갯ᄂᆞ냐[화수(대한민보, 1909. 6. 2)]

나. 이애 네가 나 ᄒᆞ라ᄂᆞᆫ 대로 ᄒᆞ겟ᄂᆞ냐[늙은 흑인(1901. 5. 16)]

다. 내가 만일 고구려에 드러가셔 해ᄅᆞᆯ 볼 것 ᄀᆞᆺ흐면 공이 안져셔 보겟ᄂᆞ냐[김유신(그리스도신문, 1901. 11 .7)]

라. 내게 뭇ᄂᆞᆫ 사ᄅᆞᆷ을 ᄌᆞ네가 엇지ᄒᆞ겟노[사ᄅᆞᆷ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이것은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다음에서 보듯이 ‘어간+겠+느냐’의 유형이 찾아진다.

(7) 신소설

가. 한ᄆᆡ에 ᄶᅡᆼ그리 ᄯᅵ려쥭일터이ᄃᆞ 너의년ᄶᅳᆷ 쥭이면 귀양밧게 더ᄀᆞ겟ᄂᆞ냐(구마검, 22쪽)

나. 이ᄋᆡᄃᆡ신의첩일ᄶᅵ라도, 너만ᄒᆞᆫ사ᄅᆞᆷ이, 몃치나되깃ᄂᆞ냐(귀의성, 35쪽)

다. 이놈 괘심ᄒᆞᆫ놈 네가 언제ᄶᅧᆨ 군밤이냐 ᄂᆡ돈은 ᄯᅩᆼ이뭇어 못팔겟ᄂᆞ냐(빈상설, 2쪽)

라. 죽은져ᄶᅡ라 산사ᄅᆞᆷ 마져죽겟ᄂᆞ냐[구의산(하), 76쪽]

마. 다시발ᄒᆞ지못ᄒᆞ겟ᄂᆞ냐(고영규전, 239쪽)

그러므로 '어간+겠+느냐'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대국어에서 이의 유형이 쓰이고 있듯이 개화기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1.5. '어간+시/으시+느냐'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찾아지나 이의 용례는 다음에 보이는 예문 하나가 모두이다.

(8) 신소설

이애, 룡네오늬, 우리덕아씨, 관계치안이ᄒᆞ시냐[홍도화(하), 47쪽]

그러므로 '어간+시/으시+느냐'의 유형은 개화기 때의 작품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던 어미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4.1.1.1.6. '어간+려+느냐'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외에 특이하게도 연결어미 '-려'하고도 결합을 한다. 이때 이의 어미 구성은 '어간+려+느냐'가 된다.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에 그친다.

(9) 단형서사

누구롤 속이려ᄂᆞ냐[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2. 6)]

의문종결어미 '-느냐'가 연결어미 '-려'와 결합된 특이한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 비해 더 많이 찾아진다.

(10) 신소설

가. 네오놀부터 곳역쇼에가려느냐(철세계, 23쪽)

나. 죽을년이왼일은아라무엇ᄒᆞ려느냐(귀의성, 24쪽)

다. 나와갓치 원산항에가셔 학교교육을 밧아보려느냐(금의쟁성, 32~33쪽)

라. 웨 그것은 알면 무엇ᄒᆞ려느냐(박연폭포, 217쪽)

따라서 '어간+려+느냐'의 형태는 현대국어에서도 쓰이고 있듯이 개화기 때의 작품에서도 쓰이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걸쳐 모두 쓰였으며, 특히 '신소설'에서 보다 많이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1.1.1.7. '종결어미+더+냐'

의문종결어미 '-느냐'가 '-냐'의 형태로써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하되 이의 '-더-'가 종결어미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종결어미로는 '-다'가 온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에 있어서는 하나만 찾아진다.

(11) 단형서사

우리나라에셔 언제 양력셜 쇠엿다더냐[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위 (11)에서 보이는 '-다+더+냐'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용례도 '단형서사'에 비해 많이 찾아진다.

(12) 신소설

가. 누가, 김승지덕종노릇아니ᄒᆞ면죽는다더냐(귀의성, 68쪽)

나. 령감이그교군을모르시고, 무르신다더냐(귀의성, 24쪽)

다. 우익아니드러오고, 무슨거드름을, 그리피운다더냐(귀의성, 25쪽)

라. 검홍이를 왜 찌려죽인다더냐[치악산(상), 10쪽]

마. 우의 리가가 홍가의집을 망ᄒᆞ야 준다더냐[치악산(상), 42쪽]

바. 아씨, 아씨, 아씨ᄂᆞᆫ, 셰상에, 못홀짓업시ᄒᆞᆫ다더냐[홍도화(하), 17쪽]

사. 이의 서울지상의ᄯᅡᆯ은 시어미도모르고 시뉘도모른다더냐[치악산(상), 8쪽]

따라서 '-다+더+냐'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였으며 '신소설'에서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이의 유형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듯이 개화기 때의 '신소설'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2. '-뇨/ᄂᆞ뇨'

의문법어미 '-뇨'는 선어말어미 '-니-'와 설명의문의 '-오'가 결합된 것으로서(안병희・이광호, 1990. p.243) 의문종결어미 '-뇨'는 의문어 없는 의문문이나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 모두 쓰이는 '-냐'와는 달리 주로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서 쓰인다(권재일, 2005. p.65 참조). 이처럼 '-뇨'는 '-냐'와 쓰이는 환경을 달리하므로 여기서는 '-뇨'를 '-냐'와 분리하여 따로 분석한다.

'-뇨'는 다른 한편으로 '-느뇨'로도 쓰인다. '-뇨'의 경우는 형용사와 '이-'하고 결합하고, '-ᄂᆞ뇨'는 동사와 결합한다(권재일, 2005. p.67 참조). 그러나 동사와 결합한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뇨'가 결합하기도 하며, 과거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할 때는 '-더-'와 결합한 어간이 동사이더라도 전적으로 '-뇨'가 결합된다. 이에 여기서는 어간이 비록 동사이지만 '-뇨'와 '-느뇨'의 형태를 모두 다룬다.

4.1.1.2.1. '어간+느뇨'

의문종결어미 '-느뇨'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형태의 경우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그 용례가 많이 찾아진다.

(13) 단형서사

가. 내가 츙청도 사는 박셔방이라 엇지 현풍 곽가라 ᄒᆞ나뇨[살신성인(매일신문, 1906. 11. 1)]

나. 이졔 네가 나를 바리고 어ᄃᆡ로 가려 ᄒᆞ나뇨[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4)]

다. 그ᄂᆞᆫ 그러나 ᄆᆡ일 버ᄂᆞᆫ 돈은 얼마나 되ᄂᆞ뇨[직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라. 대ᄉᆞᄂᆞᆫ 어ᄂᆞ 명산에 잇스며 어ᄃᆡ로 향ᄒᆞ며 법호ᄂᆞᆫ 무엇이라 ᄒᆞᄂᆞ뇨[디구셩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16)]

마. 그ᄂᆞᆫ 그러나 ᄆᆡ일 버ᄂᆞᆫ 돈은 얼마나 되ᄂᆞ뇨[직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바. 엇지ᄒᆞ여 그 사ᄅᆞᆷ이 내게 돈 줄줄을 아ᄂᆞ뇨[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사. 엇지ᄒᆞ야 가랴 ᄒᆞᄂᆞ뇨[무듸ᄉᆞ젹(그리스도신문, 1901. 4. 4)]

아. 네가 잠시간에 헐어ᄇᆞ리니 엇지 벌은 후ᄃᆡᄒᆞ고 거믜ᄂᆞᆫ 박ᄃᆡᄒᆞᄂᆞ뇨[거믜 니야기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23)]

마찬가지로 '어간+느뇨'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그 용례가 많이 찾아진다.

(14) 신소설

가. 문형은 웃지 ᄒᆞ야 시세젹당치아니ᄒᆞᆫ말을ᄒᆞ나뇨(설중매, 47쪽)

나. 불션ᄒᆞᆫ집에ᄂᆞᆫ 앙화가잇슴은 소소ᄒᆞᆫ 리치어ᄂᆞᆯ 엇지구구히 부쳐에게 비나뇨(자유종, 39쪽)

다. 엇지ᄒᆞ야인졔오ᄂᆞ뇨(구마검, 37쪽)

라. ᄌᆞ고이리로 사ᄅᆞᆷ들이 우리의게 해를 밧은쟈이 몃명이나 되ᄂᆞ뇨(금수회의록, 39쪽)

마. 도호는 뉘라ᄒᆞᄂᆞ뇨(성산명경, 129쪽)

바. 다른사ᄅᆞᆷ은 뎌갓치ᄋᆡ를쓰고 겁니ᄂᆞᆫᄃᆡ 그ᄃᆡᄂᆞᆫ 엇지ᄒᆞ야 글을외우ᄂᆞ뇨(금의쟁성, 39쪽)

사. 무어슬 이ᄀᆞᆺ치 깁히 ᄉᆡᆼ각ᄒᆞᄂᆞ뇨(부부의 모본, 255쪽)

아. ᄂᆡ가 벌서알고 잇거ᄂᆞᆯ 웃지나를 속이나뇨(추천명월, 91쪽)

따라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어간+느뇨'의 유형이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옛말 형태인 '-뇨'가 '어간+느뇨'의 유형으로서 개화기 때까지만 해도 아직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2.2. '어간+았/었/였+느뇨'

의문종결어미 '-느뇨'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의 경우 역시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5) 단형서사

가. 어ᄃᆡ셔 그 말을 드럿ᄂᆞ뇨[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홈(1902. 2. 15)]

나. 지금은 엇더케 되엿ᄂᆞ뇨[외양 죠흔 은궤(독립신문, 1899. 6. 9)]

다. 졍부에셔 돈을 만히 허비ᄒᆞ야 구멍을 막엇ᄂᆞ뇨[일쟝츈몽(독립신문, 1899. 7. 7)]

라. 그ᄃᆡᄂᆞᆫ 대한 디도를 보지 못ᄒᆞ엿ᄂᆞ뇨[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션비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0. 12)]

위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간+과거선어말어미+느뇨'의 용례는 '신소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6) 신소설

가. 그듸가 려관에 잇는일긔셔싱으로 이갓흔위험혼물건을 사 무엇ᄒᆞ려ᄒᆞ엿나뇨(설중매, 30쪽)

나. 무슨리유로 별안간 파혼을 ᄒᆞ엿ᄂᆞ뇨(금강문, 93쪽)

다. 나의 마누라되는ᄉᆞ롬에 이약이는 어듸셔 드런나뇨(추천명월, 94쪽)

라. 셩조와 형이 무삼큰 혐의가잇기로 그런 흉칙ᄒᆞᆫ 마암을먹엇나뇨(설중매, 66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느뇨'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쓰였지만 '어간+느뇨'의 어미 구성에 비해 그 쓰임이 많이 쇠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4.1.1.2.3. '어간+겠+느뇨'

의문종결어미 '-느뇨'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경우에도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7) 단형서사

가. 그듸가 릉히 듸답ᄒᆞ겟나뇨[신구문답(독립신문, 1899. 3. 10)]

나. 비단 졋만 잇술 ᄲᅮᆫ 아니라 털ᄭᆞ지 쓰지 안겟ᄂᆞ뇨[로인의 부부지락(1901. 12. 19)]

그리고 위의 구문에서 쓰인 ''어간+겠+느뇨'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진다.

(18) 신소설

가. 뉘가 그말을 밋겟ᄂᆞ뇨(셩산명경, 146쪽)

나. ᄌᆞ미라 칭ᄒᆞ겟ᄂᆞ뇨(셩산명경, 146쪽)

다. 능히 이ᄀᆞᆺ치 ᄒᆞ겟ᄂᆞ뇨(셩산명경, 168쪽)

라. 의방ᄒᆞ야 만들겟ᄂᆞ뇨(셩산명경, 169쪽)

이에 의문종결어미 '-느뇨'는 '어간+겠+느뇨'의 유형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이의 유형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화기 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1.1.2.4. '어간+시/으시+뇨'

의문종결어미 '-뇨'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9) 단형서사

가. 그동안 어ᄃᆡ로 유람ᄒᆞ시다가 지금이야 오시뇨[디구셩 미ᄅᆡ몽(대한매일신보, 1909. 8. 8)]

나. 엇지 이 곳에 니르시뇨[디구셩 미ᄅᆡ몽(대한매일신보, 1909. 7. 16)]

그러나 이의 유형은 '신소설'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간+시/으시+뇨'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만 쓰였으나 그 용례가 두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쓰임이 극히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1.2.5. '어간+더+뇨'

의문종결어미 '-뇨'는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을 볼

수 있다.

(20) 신소설

가. 그부인이어듸로 향ᄒᆞ야간다ᄒᆞ더뇨(설중매, 40쪽)

나. 엇더케 말ᄒᆞ더뇨(고영규전, 241쪽)

다. 어듸계신다고 ᄒᆞ더뇨(고영규전, 241쪽)

따라서 '어간+더+뇨'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의 결합 형태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3. '-ㄹ/을가'

'-ㄹ/을가'는 추측이나 예정 또는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미 '-ㄹ/을'과 의문종결어미 '-가'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의 결합형 자체가 하나의 의문종결어미로 쓰인다.[22] 이는 어떠한 의문이나 추측 혹은 자신이나 상대편의 의중을 묻는데 사용되며 '어간+ㄹ/을가'의 구성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단형서사

가. 뎌 ᄇᆡᆨ셩들이 무ᄉᆞᆷ ᄭᅡ닭에 각부 문젼이니 죵로니 인화문 밧그로 모할ᄭᅡ[병뎡의리(1898. 11. 23)]

나. 말ᄉᆞᆷ 업셔 상쇼 못ᄒᆞᆯ가[힝셰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다. 허물을 잡으랴면 무ᄉᆞᆫ 말을 못ᄒᆞᆯ가[힝셰문답(독립신문, 1899. 1. 23)]

22) '-을가'에서 '-을-'은 때매김을 나타낸다(허웅, 1989. p.155).

라. 글셰 그리ᄒᆞ면 공동회 슈죄나 ᄒᆞ여 볼가[힝셰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어간+ㄹ/을가'의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다.

(22) 신소설

가. 에그ᄂᆞ는언제ᄂᆞ어머니를뫼시고, 집에잇셔셔, 조셕걱정이나아니, 하여 볼가 (귀의성, 119쪽)

나. 이놈죵시도, 발오고ᄒᆞ지못ᄒᆞᆯ가[홍도화(하), 84쪽]

다. 천천히도로가볼가[두견성(상), 106쪽]

라. 엇더케ᄒᆞ고 계실가[두견성(하), 115쪽]

마. 너는 내가 업고갈가(송뢰금, 6쪽)

바. 그러면 이비에 ᄉᆞ공ᄃᆞᆯ은 새동모람 이비가지고 보츙ᄒᆞᆯᄭᆞ(명월정, 92쪽)

따라서 동사어간과 결합한 의문종결어미 '-ㄹ/을가'의 경우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의 결합 형태가 최근세국어 시기에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4. '-ㄹ고'

의문종결어미 '-ㄹ고'는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ㄹ-'에 의문종결어미 '-고'가 결합된 형태로서 이의 결합형인 '-ㄹ고'는 그 자체로서 의문종결어미로 쓰인다. '-ㄹ고'는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의심 또는 의문의 뜻을 가진다. 이러한 '-ㄹ고'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경우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23) 단형서사

가. ᄆᆞ옴을 화ᄒᆞ고 뜻을 합ᄒᆞᆯ 일은 어렵지 안흐나 무슴 계칙으로 셜분ᄒᆞᆯ고[시ᄉᆞ문답(1908. 10. 28)]

나. 혼인 지내잔 말도 못ᄒᆞ고 엇지ᄒᆞᆯ고[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14)]

다. 너 안이면 누가 갈고[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라. 텬싱 싱긴 대로 ᄌᆞ라 이러ᄒᆞ니 쟝ᄎᆞᆺ 엇지ᄒᆞᆯ고[최샹샤 산일 션싱은(매일신문, 1899. 4. 12)]

동사어간에 '-ㄹ고'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뿐만 아니라 '신소설'에서도 보이고 있다.

(24) 신소설

가. 무슨별슈로더모양이안이될구(구마검, 60쪽)

나. 잇지ᄒᆞ 면, 그동ᄂᆡ가, 오날밤ᄂᆡ로, ᄶᅡᆼ이, 쑥, 두려ᄲᅡ저서, 업서질고(귀의성, 75쪽)

다. 결단ᄂᆡ아노흘것을 ᄌᆞ식이라고 살녀두어 무엇ᄒᆞᆯ구[홍도화(상), 12쪽]

라. 우리들은상전의게, ᄆᆡ인몸이라침모마누라님갓치어ᄃᆡ로가지도못ᄒᆞ고엇지될구(귀의성, 32쪽)

따라서 동사어간에 종결어미 '-ㄹ고'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4.1.1.5. '-ㄹ라고'

의문종결어미 '-ㄹ라고'는 미래시제선어말어미 '-ㄹ-'에 의문종결어미 '-라고'가 결합된 형태로서 이의 형태 그대로 의문종결어미로 쓰인다. '-ㄹ라고'는 반문의 의미를 가지며 동사 또는 계사를 어간으로 한다. 여기 '4.1.1.5'에서는 어간이 동사 또는 보조동사인 경우에 한해 분석하므로 어간이 계사인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4.1.1.5.1. '어간+ㄹ라고'

의문종결어미 '-ㄹ라고'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경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25) 신소설

가. 아무죄도업는사ᄅᆞᆷ을, 혈마쳐쥭일라구(귀의성, 68쪽)

나. 요ᄉᆡ, 볼, ᄋᆞ니ᄯᅥ기로, 못ᄌᆞᆯ라구(귀의성, 40쪽)

다. 구덕이무셔워셔, 장못당글라구(귀의성, 4쪽)

라. 그흉악ᄒᆞᆫ 놈에게 붓들니기만ᄒᆞ면 에그 그ᄯᅢ에 욕을면ᄒᆞᆯ라구[치악산(하), 74쪽]

따라서 '어간+ㄹ라고'는 '단형서사'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의 결합 형태가 '단형서사'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편적으로 널리 쓰였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5.2. '어간+시/으시+ㄹ라고'

의문종결어미 '-ㄹ라고'는 어간과 결합한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도 결합을 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용례가 없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

의 용례를 볼 수 있으나 그나마 그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26) 신소설
　마님솜씨에, 살려, 두실라구(귀의성, 32쪽)

따라서 ‘어간+시/으시+ㄹ라고’ 유형은 ‘신소설’에서 하나의 용례만 보일 정도로 개화기의 작품에서는 그 쓰임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생산적이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6. ‘-ㄹ걸’

의문종결어미 ‘-ㄹ걸’은 불확실한 것에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는 받침이 없는 어간과 결합한다. 여기서는 어간이 동사 또는 보조동사인 경우에 한해 분석한다.

동사나 보조동사에 의문종결어미 ‘-ㄹ걸’이 결합되는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두 개뿐이다.

(27) 단형서사
　가. 나ㅣ 임의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호리도 틀니지 아니ᄒᆞᆯ걸[ᄌᆡ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14)]
　나. 이 길이 멀지라도 다ᄅᆞᆫ 길노 나갓더면 이런 환난ᄅᆞᆯ 면ᄒᆞᆯ 걸[ᄌᆡ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14)]

위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미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용례도 ‘단형서사’에 비해 많이 찾아진다.

(28) 신소설

가. 무리(無理)로 무엇을 차려가지고 가면 도로혀 걱정ᄒᆞᆯ걸(몽조, 33쪽)

나. 평양집이아모리 구미호갓치 셔방님을ᄒᆞᆯ이 드ᄅᆡ도 동풍에문다ᄅᆡ ᄯᅥ러지듯 ᄒᆞᆯ걸(빈상설, 16쪽)

다. 차ᄅᆞ리 사위가살고 내ᄯᆞᆯ이죽엇더면 일시원통ᄒᆞ고 셔룰ᄲᅮᆫ이지 두고 쳐량시러온ᄭᅩᆯ은 보지 안이ᄒᆞᆯ걸[홍도화(상), 42쪽]

라. 내ᄌᆞ식의 자랑이안이라 원ᄅᆡ 쏙쏙ᄒᆞ닛가 응당 실수는 안이ᄒᆞᆯ걸[구의산(상), 55쪽]

마. 아모리 계집의게 ᄲᅡ진사람이라도 정신이 좀 날걸(재봉춘, 128쪽)

따라서 ‘어간+ㄹ걸’의 형태에 있어서 이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으나, ‘단형서사’의 경우에는 용례가 두 개에서 그치고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4.1.1.7. ‘-어’

의문종결어미 ‘-어’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묻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문이나 추측의 의문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한편, ‘-어’는 ‘이-’ 다음에서 ‘-야’로 나타난다(권재일, 2005. p.79). 이의 경우는 ‘4.1.3. 계사+의문종결어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4.1.1.7.1. ‘어간+어’

의문종결어미 ‘-어’는 동사어간과 결합되어 ‘어간+어’의 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29) 신소설

가. 아모리법이업는 세상이기로 ᄉᆞ부뒥부인아씨를 팔아먹어(빈상설, 55쪽)

나. 녀편네가, 남의집에셔, 쪽쪽울기는, 우이울어(귀의성, 27쪽)

다. 누가 술을 먹어(빈상설, 4쪽)

라. 남, 열ᄂᆞᆫ데, 왼방정을그리쩌러(귀의성, 30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어'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유형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의 형태 결합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일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4.1.1.7.2. '어간+았/었/였+어'

과거선어말어미는 의문종결어미 '-어'와 결합하여 '어간+과거선어말어미+어'와 같은 어미의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볼 수 없다. 하지만 '신소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30) 신소설

가. 도망을힛셔(모란병, 51쪽)

나. 억쇠야 그러 엇지고엇지힛셔[치악산(하), 111쪽]

다. 네가 아모소리도 안이힛셔(추천명월, 10쪽)

라. 만일 면상을상힛더면 엇더케훌번힛셔[구의산(상), 4쪽]

마. 그러셔 야조기를 당도힛는디 엇지힛셔[구의산(하), 84쪽]

이에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의문종결어미 '-어'의 경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일 정도로 보편적이지는 않

았음도 확인된다.

4.1.1.8. '-지'

'-지'는 서술법과 의문법 그리고 명령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의문법 종결어미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재일(2005, p.79)에서는 범용어미 '-지'가 20세기 초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용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이의 용례가 찾아지며 특히 '신소설'에서 많은 용례를 볼 수 있다.

4.1.1.8.1. '어간+지'

의문종결어미 '-지'는 동사어간과 결합하여 '어간+지'의 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찾아볼 수 있다.

(31) 신소설

가. 이번에 나의 셔울간일은 자네도알지(모란병, 49쪽)

나. 무슨말을 발오ᄒᆞ지(빈상설, 98쪽)

다. 쥭은ᄉᆞ롬이 누구 줄 너는알지(비행선, 23쪽)

라. 그귀신을 가두기커녕 범접이나 ᄒᆡ보겟습닛가 덧들이기나ᄒᆞ지(구마검, 5~6쪽)

그러므로 '어간+지'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쓰였던 어미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8.2. '어간+았/었/였+지'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지'는 여느 의문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과거선어말어미하고도 결합을 한다. 그렇지만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32) 신소설

가. 잠고ᄃᆡᄒᆞ엿지(귀의성, 25쪽)

나. 네가 사돈복 하인노릇을 ᄒᆞ다가 마젹ᄉᆡᆼ 공원에서 쥭엿지(비행선, 58쪽)

다. ᄀᆡ마장에서 ᄉᆞ롬죽ᄂᆞᆫ 것을 너도보앗지(비행선, 16쪽)

라. 츄월아 너도보앗지[치악산(하), 9쪽]

그러므로 '어간+과거선어말어미+지'의 유형은 '어간+지'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던 의문종결어미임이 확인된다.

4.1.1.8.3. '어간+았/었/였+는+지'

의문종결어미 '-지'는 현재선어말어미 '-는-'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23] 이때 '-는-'은 어간 또는 과거나 미래선어말어미와 결합한다. '단형서사'에서는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한 경우가 보인다. 다만,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는지'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형태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는지'까지만을 예문으로 보일 경우 '-는지'가 종결어미로 쓰인 것인지 연결어미로 쓰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이의 확인을 위하여 종결어미 '-는지'의 뒤에 이어지는 다른 구문도 함께 제시한다. 추가되는 다른 구문은 '-는지' 구문보다 작은 글자체로써 제시한다.

23) '-는-'은 '-ᄂᆞ-'에서 형성되었다(안병희・이광호, 1990. p.241 참조).

(33) 단형서사

여보 대ᄉᆞ 우리 대한에 절ᄉᆞᄒᆞᆫ 민영환씨를 혹 맛나 보**앗ᄂᆞᆫ지** 과연 대ᄉᆞ의 말ᄉᆞᆷ과 ᄀᆞᆺᄒᆞᆯ진ᄃᆡ 민츙정도 환생ᄒᆞᆯ 긔한이 묘연ᄒᆞ리로다[디구셩 미ᄅᆡ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위의 예문에서 '어간+았/었/였+는+지'는 이의 뒤에 놓인 다른 말을 보면 의문법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문법으로 쓰인 '어간+았/었/였+는+지'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4) 신소설

가. 숑군셔가 어제밤에 늣게오더니 이럿낫ᄂᆞᆫ지 건너방을 향ᄒᆞ야 송군셔를부르며(설중매, 28쪽)

나. 본집에셔 ᄯᅥ날ᄯᅢ에 여러날되지아니ᄒᆞᆯ줄노 말ᄒᆞ고 왓ᄂᆞᆫ데 그간굼씨는 아니 ᄒᆞ**엿ᄂᆞᆫ지** ᄯᅩ셔간도갈ᄯᅢ에 편지붓친것이 바로가기는ᄒᆞ엿는지(금의쟁성, 50쪽)

다. ᄯᅩ셔간도갈ᄯᅢ에 편지붓친것이 바로가기는ᄒᆞ**엿ᄂᆞᆫ지** 허— 살아다니ᄂᆞᆫ나는이제가건마는 죽은일남은 다시볼수업고나 쳘텬지한일다(금의쟁성, 50쪽)

라. 엇지면 그러케 감쪽갓치 발나넘기고 도망ᄒᆞ**엿ᄂᆞᆫ지** 아마간부놈이 뒤를ᄯᅡ라 왓든것이야요(빈상설, 108쪽)

'신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간+았/었/였+는+지'의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는 의문법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과거선어말어미에 의문종결어미 '-지'가 결합된 형태는 비록 용례가 하나뿐이지만 '단형서사'에서도 쓰였으며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에 비해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1.1.9. '-(ㄴ)는가/고'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높임]의 의문어미인 '-ᄂᆞᆫ가'는 중세국어 이래 지금의 현대 국어까지 계속 이어오는 의문종결어미로서 '-는가'는 '-ᄂᆞᆫ가'의 변이표기이다. 그리고 '-는고'는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서만 쓰이는 종결어미로서 의문어의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는가'와는 표기 환경이 다르다(권재일, 2005. pp.69～71 참조).[24] 여기서 '-는(ᄂᆞᆫ)-'은 현실의 때매김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허웅, 1989. p.149 참조)이므로 '-는가/고'는 현실 때매김 선어말어미와 의문종결어미 '-가/고'의 결합이 된다. 이러한 '一는가/고'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며, 특히 '-는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25] 이와 결합하는 어간에 있어서는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여기 '4.1.1.9'에서는 동사어간을 다루므로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1.1.9.1. '어간+는가'

의문종결어미 '-는가'는 동사어간과 결합하여 '어간+는가'와 같은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단, 용례는 두 개에서 그치고 있다.

(35) 단형서사

가. ᄌᆞ유ᄂᆞᆫ 내게 잇ᄂᆞᆫ 것이니 북미합즁국을 보지 못ᄒᆞᄂᆞᆫ가[디구셩 미릐몽(대한매일신보, 1909. 7. 30)]

나. 이러ᄒᆞᆫ 번화쟝에셔 걱졍 업시 사ᄂᆞᆫ가[어ᄂᆞ 시골 친구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1. 2)]

---

24) 허웅(1989, 151～153)에서는 1·3인칭의 물음월에 물음말이 없을 때에 '-가'가 쓰이고, 1·3인칭의 물음월에 물음말이 있을 때에는 '-고'가 쓰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25) 표준 국어대사전(1999) 참조.

동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는가'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뿐만 아니라 '신소설'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36) 신소설

가. 무엇이라ᄒᆞ는가(설중매, 38쪽)

나. 쥬인이엇지(짜이나마이드)라ᄒᆞ는것을 아는가(설중매, 27쪽)

다. 그 부인의 오날ᄂᆞᆯ 당ᄒᆞᆫ 욕이 ᄅᆡ일 졔 어미나 졔 안ᄒᆡ의게 쏘 도라올줄을 아지못ᄒᆞ는가(금수회의록, 33쪽)

라. 동포끼리 서로 ᄉᆞ랑ᄒᆞ고 서로 구졔ᄒᆞᆫ 거슨 하나님의 리치어ᄂᆞᆯ 사ᄅᆞᆷ들은 과연 뎌의 동포끼리 서로 ᄉᆞ랑ᄒᆞ는가(금수회의록, 37쪽)

따라서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는가'의 형태는 비록 '단형서사'의 경우 두 개의 용례만 있지만 '신소설'과 더불어 이들 모두에서 두루 쓰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4.1.1.9.2. '어간+았/었/였+는가'

의문종결어미 '-는가'는 동사어간에 앞서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

(37) 신소설

가. 여보게 자ᄂᆡ리태순문젼쳘의일을 들엇는가(설중매, 28쪽)

나. 셔울갓드니 맛참 참ᄒᆞᆫ 계집ᄒᆞ나히잇기에 삼쳔소슈를쥬고 ᄃᆡ려오지 안이ᄒᆡᆺ는가(모란병, 49쪽)

이에 의문종결어미 '-는가'가 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하는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선어말어미 '-았/었/였-'에 대응되는 선어말어미 '-겠-'도 의문종결어미 '-는

가'와 결합하는데, 특이하게도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는가'의 형태가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단 하나의 용례조차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화기의 작품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이 의문문에 쓰일 때는 의문종결어미로 '-는가'는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어간+겠+는가'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대단히 비생산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9.3. '어간+더+ㄴ가'

'-ㄴ가'는 형용사와 결합하지만(권재일, 2005. p.70) 과거선어말어미 '-더-'가 동사어간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는 어간이 비록 동사더라도 '-ㄴ가'가 결합되어 '-더+ㄴ가'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용례는 두 개만 찾아진다.

(38) 단형서사

가. 아모던지 셰도홀 때 누가 상쇼ᄒᆞ던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나. 을미년 역젹 닉각이 등양홀 때 누가 상쇼을 ᄒᆞ던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신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사어간에 '-더+ㄴ가'가 결합된 형태는 다음에서와 같이 용례를 볼 수 있다.

(39) 신소설

가. 그녀자가 문안으로 드러간다ᄒᆞ던가(설중매, 38쪽)

나. 다른절로 간다ᄒᆞ던가(설중매, 38쪽)

다. 여보게늬가무슨 약속ᄒᆞᆫ일을ᄒᆞ던가(빈상설, 31~32쪽)

라. 그러면 누가ᄌᆞ늬다려 욕셜을ᄒᆞ던가(빈상설, 32쪽)

따라서 '-더+ㄴ가'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였으며 '신소설'이 '단형서사'에 비해 더 생산적으로 이의 형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1.9.4. '종결어미+더+ㄴ가'

'-더+ㄴ가'는 어간 외에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여기서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동사어간과 결합한 것으로서 이는 '-다' 또는 '-라'가 된다. 이의 종결어미 중 '-다'는 의문법의 '-다'이다. 즉, 2인칭 물음법에서의 '-ㄴ/는다'이다(허웅, 1989. p.149~150 참조). 그런데 이러한 의문 표기의 중복 형태인 '-ㄴ/는다+더+ㄴ가'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ㄴ/는다'의 앞에 오는 어간은 동사이다.

(40) 신소설

가. 병든다고, 사람이, 다, 죽ᄂᆞᆫ다던가[홍도화(하), 98쪽]

나. 김승지의부인즘되면, 우리갓흔상년은, 싱으로회를쳐셔먹어도, 관게치아니ᄒᆞᆯ 쥴안다던가(귀의성, 34쪽)

다. 기ᄉᆡᆼ 츌신으로 ᄃᆡ신협판의 마누라ᄂᆞᆫ 못되고 군수관찰ᄉᆞᄒᆞᆫ 아달은 못둔다던가(모란병, 22쪽)

라. 여보게 그ᄅᆡ 꼭 셩사만ᄒᆞ면 그럿케ᄒᆞ신다던가[금국화(상), 27쪽]

이에 '-ㄴ/는다+더+ㄴ가'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쓰인 어미 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일 정도로 최근세 국어에서 보편적인 쓰임을 갖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더+ㄴ가'는 종결어미 '-다' 외에 '-라'하고도 결합을 하여 '-라+더+ㄴ가'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때 동사어간과 결합한 어미 '-라'는 의문종결어미로 온 것이다. 이는 곧 의문종결어미에 다시 의문 표기가 결합된 것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ㄴ/는다+더+ㄴ가'와는 달리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41) 단형서사

아는 길이고 ᄒᆞ닛가 조곰 져물더라도 거긔 못 갈나든가[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한편, '신소설'에서도 '-라+더+ㄴ가'의 유형이 찾아지는데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 비해 많이 찾아진다.

(42) 신소설

가. 제몸 위ᄒᆞ는 목뎍 제 집 위ᄒᆞ는 목뎍 ᄯᅩ ᄒᆞᆫ아는 뫼라던가(몽조, 25쪽)

나. 오늘 ᄯᅩ 누가 와셔 연설이라던가(몽조, 25쪽)

다. 셰상에락이 업셔 동문밧묘하언으동리라든가(빈상설, 147쪽)

라. 그릭 김션달이 무엇이라고 ᄒᆞ드라던가(화의혈, 47쪽)

따라서 '-라+더+ㄴ가'의 유형은 '-ㄴ/는다+더+ㄴ가'의 유형과는 달리 '단형서사'에서도 쓰였으나 '신소설'에서 보다 더 많이 쓰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ㄴ/는다+더+ㄴ가'의 결합 형태에 비해 '-라+더+ㄴ가'의 결합 형태가 최근세국어에서 더 보편적으로 쓰였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1.9.5. '어간+는고'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서 쓰이는 '-는고'는 중세국어 이래 지금의 현대국어에까지 계속 이어오는 의문어미로서(권재일, 2005. p.70 참조), 동사어간과 바로 결합한 형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 이의 용례는 하나만 나타난다.

(43) 단형서사

친구여 일년이면 돈을 얼마나 버는고[지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신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동일하게 '어간+는고'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 비해 월등히 많이 쓰이고 있다.

(44) 신소설

가. 나는여긔셔죽거니와, 우리령감은, 어디가 셔죽는고(귀의성, 64쪽)

나. 우연히 물은것이어니와 문산포가 이곳셔 몃리나되는고(설중매, 40쪽)

다. 오늘놀 정치와사회상에 기량홀일이 허다ᄒᆞ거놀 유지쟈들이 언의여가에 그 만일로 써드는고(설중매, 49쪽)

라. 이 슬음을 당ᄒᆞ는고(송뢰금, 85쪽)

마. 엇지차마 금슈와갓치 길너 이갓흔고히에 빠지게ᄒᆞ는고(자유종, 6쪽)

따라서 '어간+는고'는 개화기 때에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두루 쓰였던 유형이었음이며, 특히 '신소설'에서 보다 왕성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9.6. '어간+았/었/였+는고'

의문종결어미 '-는고'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보인다. 단,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45) 단형서사

시쟝에셔 잠을 사 오지 못ᄒᆞ엿는고[지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동사어간과 결합한 과거선어말어미에 결합된 '-는고'의 형태는 '단형서사' 외에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46) 신소설

가. 지금몃시가량이나 되얏는고(설중매, 38쪽)

나. 아귀갓튼럽나더왕은 어는구석에빅엿스며 우리처주는엇떠케되얏는고(혈의루, 13쪽)

다. 셔로잇지못ᄒᆞ는정이는 그간의 엇지되얏는고(안의성, 140쪽)

라. 엇지면 이 무정ᄒᆞᆫ세상이 우리 두사롬의 인연을 쓴엇는고[두견성(하), 76쪽]

이처럼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에 비해 이의 용례가 더 많으므로 쓰임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가 '단형서사'보다는 '신소설'에서 좀 더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1.9.7. '어간+더+ㄴ고'

의문종결어미 '-고'는 현재시제선어말어미 'ㄴ'과 결합하여 '-ㄴ+고'의 어미 구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의 통합 형태이자 그 자체로서 의문종결어미인 '-ㄴ고'는 동사어간과 결합된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하여 '어간+더+ㄴ고'의 형태를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있다.

(47) 신소설

뎌 압초막에셔 류숙ᄒᆞ던부인이 언의곳에 산다ᄒᆞ며 셩씨는 누구라ᄒᆞ던고(설중매, 39쪽)

그러나 '신소설'의 경우에도 이의 용례는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최근세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1.1.9.8. '어간+았/었/였+더+ㄴ고'

의문종결어미 '-ㄴ고'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회상선어말어미 '-더-'와 결합하

기도 한다. 그런데 이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용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과거선어말어미는 동사어간과 결합한다.

(48) 신소설

가. ᄉᆞᆯ업신사ᄅᆞᆷ 셔울은 무엇ᄒᆞ러갓든고(모란병, 51쪽)

나. 네 비ᄌᆞᆼ짜러 박소사의집에 웨갓든고(화중화, 36쪽)

다. 고두쇠ᄂᆞᆫ본ᄅᆡ검홍이를 미워죽으려 ᄒᆞ던놈이라 무ᄉᆞᆫ곡절로그럿케 미워ᄒᆞ얏든고[치악산(상), 124쪽]

라. 김승지ᄂᆞᆫ, 젼ᄉᆡᆼ에 무ᄉᆞᆫ원수를, 짓고만낫던고(귀의성, 38쪽)

마. 박참봉이, 우ᄋᆡ, 남ᄌᆞ가되얏던고(귀의성, 48쪽)

바. 무ᄉᆞᆫ팔자가 그리긔박ᄒᆞ야이런ᄯᅢ에 ᄉᆡᆼ겨낫던고(은세계, 123쪽)

사. ᄂᆡ가귀염은엇더케밧아스며 호강은엇더케ᄒᆞ얏던고[치악산(상), 164쪽]

아. 대톄 엇던놈이 나를ᄃᆡ려가랴드럿던고[홍도화(상), 65쪽]

따라서 ‘단형서사’와는 다르게 ‘신소설’에서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어간+았/었/였+더+ㄴ고’의 유형이 비교적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4.1.1.10. ‘-게’

어미 ‘-게’는 평서법이나 명령법 종결어미 또는 의문법 종결어미로 쓰인다. 그런데 ‘-게’가 의문법 종결어미로서 동사어간과 결합한 경우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그 용례가 찾아진다.

(49) 신소설

가. 열살이되도록, 코물을, 줄줄흘리고당기는, 경필의둘지아들은, 다려다가, 무엇하게(귀의성, 91쪽)

나. 에그 이턋져턋남의턋은ᄒᆞ야무엇ᄒᆞ게[치악산(하), 44쪽]

다. 에그 남의쳡노릇을ᄒᆞ면셔 쇽을알ㅅ들이 썩이고살면무엇ᄒᆞ게[치악산(하), 60쪽]

라. 령감은 기ᄃᆞ려 무엇ᄒᆞ게(원앙도, 71쪽)

따라서 의문법 종결어미로 쓰인 '-게'의 경우 동사어간과 결합한 형태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1. '-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자문이나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둔다. 여기서는 어간이 동사 또는 보조동사인 경우만을 다루므로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의문종결어미 '-나'는 경상도 방언에서 '-노'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노'가 다시 '-누'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이형도 모두 다룬다.

4.1.1.11.1. '어간+나'

의문종결어미 '-나'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경우 이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50) 단형서사

가. 방금 물 트고 간 량반이 누구인 줄을 아나 몰나[친구 심방ᄒᆞ다가 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0)]

나. 긔도는 웨 ᄒᆞ나[늙은 흑인(1901. 5. 16)]

다. 어는 날에 나온다 ᄒᆞ노[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5. 12. 28)]

라. 오날은 무슨 마음으로 허허 우스며 말을 ᄒᆞ누[화수(대한민보, 1909. 6. 13)]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나'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51) 신소설

가. 허허, 시하사람이, 웨, 단쳐의말을, 그러케ᄒᆞ나[홍도화(하), 99쪽]

나. 별 망칙ᄒᆞᆫ소리를 짓거려 남의ᄯᆞᆯᄌᆞ식을 버리러드노[홍도화(상), 9쪽]

다. 엇더ᄒᆞᆫ녀인이더러케 구슯흐게우노[홍도화(상), 59쪽]

라. 어ᄃᆡ 말이 나오나(송뢰금, 84쪽)

마. 급ᄒᆞᆫ일이잇ᄂᆞᆫᄃᆡ 언제게를 가고잇나(빈상설, 60쪽)

바. 나ᄂᆞᆫ져사람을 모로겟ᄂᆞᆫᄃᆡ 져사람은 나를엇지아노(빈상설, 146쪽)

사. 아모리 사ᄂᆡ량반이기로 ᄉᆡᆼ각이 엇지면 그러케드러가나(구마검, 5쪽)

아. 아바지 오셧네 진지가 업스니 무엇을 드리나(모란병, 11쪽)

자. 차도못타고 거러ᄂᆡ려왓슬터인ᄃᆡ 지금 막왓다면 엇의를 이리 분쥬히가나(모란병, 48쪽)

차. 애고애고 평ᄉᆡᆼ에 남의게 시른소리 ᄒᆞᆫ번아니ᄒᆞ고 ᄉᆞᄂᆞᆫ사ᄅᆞᆷ이 무슨죄가 잇서셔 이지경을당ᄒᆞ노(은세계, 11쪽)

카. 원 져짜진놈을 무엇 잘낫다고 ᄭᅩᆺ갓ᄒᆞᆫ ᄉᆡ약시가 그득ᄒᆞ게 달녀드노(금강문, 182쪽)

'-나'는 [-높임]의 의문어미로서 20세기 초기의 국어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권재일, 2005. p.69).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50)과 (51)에서 보듯이 종결어미 '-나' 및 '어간+나'의 형태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이미 활발히 쓰

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간+나'의 유형은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50)과 (51)을 통해 이의 유형이 최근세국어에서도 역시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1.1.11.2. '어간+시/으시+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도 결합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52) 신소설

가. 어ᄃᆡ를그리당기시ᄂᆞ(귀의성, 109쪽)

나. 허......허......허 우리사위오시ᄂᆞ(추월색, 14쪽)

다. 아 우리ᄌᆞ근아씨갓흐신 믲고ᄭᅳᆫ은듯ᄒᆞ신량반이 그런몹슬욕설을 당ᄒᆞ시나(목단화, 7쪽)

따라서 '어간+시/으시+나'의 경우는 '어간+나'의 경우와는 달리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은 결합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4.1.1.11.3. '어간+았/었/였+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여느 의문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과거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경우 '단형서사'에서도 그 유형을 볼 수 있다.

(53) 단형서사

가. 각쳐 신문샤에서 징판 당ᄒᆞᆫ다ᄂᆞᆫ 말 듯지 못ᄒᆞ엿나[경향문답(독립신문, 1899. 5. 10)]

나. 정부에서 ᄭᅮᆷ이나 ᄭᅮ엇나[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다. 하 그 사룸 공동회 말도 못 들엇나[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라. 그동안 슐이나 잘 먹엇나[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7)]

마. 우에 앗짜 술 ᄒᆞᆫ잔을 못 먹게 ᄒᆞ엿나[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9)]

이러한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54) 신소설

가. 자네ᄀᆞ어ᄃᆡ롤가려고, 교군을갓다노앗나(귀의성, 23쪽)

나. 조음셸리왓ᄂᆞ(귀의성, 82쪽)

다. 여보게침모, ᄌᆞ네는, 우ᄋᆡ유모의등뒤에가셔, 숨엇ᄂᆞ(귀의성, 27쪽)

라. 에구 우리ᄂᆞ라군ᄉᆞ가 이럿케만이죽엇ᄂᆞ(혈의루, 44쪽)

마. 오날은식젼에 무슨바람이불엇ᄂᆞ(빈상설, 49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나’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며, 이들 모두에서 왕성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어간+았/었/였+나’는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쓰인 결합 형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4.1.1.11.4. ‘어간+겠+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선어말어미 ‘-았/었/였-’ 외에 이에 대응되는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이의 유형 역시 ‘어간+았/었/였+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55) 단형서사

가. 술장ᄉ᠆ᆞ를 ᄒᆞ면 되겟나[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나. 허허 그 돈은 삽보 쇽에 너허 머리에 썻더니 뎌희가 그죵 져죵 알겟나[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1. 1)]

다. 우에 아니 주겟나[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라. 누가 몬져 들고 가겟나[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9)]

마. ᄒᆞᆯ 만ᄒᆞᆫ 일 ᄀᆞᆺᄒᆞ면 웨 아니 ᄒᆞ겟나[친구 심방ᄒᆞ다가 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위에서처럼 '어간+겠+나'가 '단형서사'에서 많은 용례를 보였듯이 '신소설'에서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56) 신소설

가. 그ᄭᅡ진년이야 엇더가뒤여졋든지 아모리ᄂᆡ자식이지만 상젼비반ᄒᆞᄂᆞᆫ년ᄎᆞ자무엇ᄒᆞ겟나(빈상설, 61쪽)

나. 디관을엇더케ᄒᆞ면맛나겟나(구마검, 35쪽)

다. 과히 어렵지안이ᄒᆞᆫ집으로 츌가를ᄒᆞ엿스면 비곱흐고 헐벗ᄂᆞᆫ고ᄉᆡᆼ은 당장 면ᄒᆞ지안이 ᄒᆞ겟나(모란병, 8쪽)

라. 아모리ᄂᆡ자식이지만 상젼비반ᄒᆞᄂᆞᆫ년 ᄎᆞ자무엇ᄒᆞ겟나(빈상설, 61쪽)

마. 우리네 ᄌᆞ식이야 혈마 그것이야 비호겟나(자유종, 35쪽)

바. 바로홍씨덕에셔 ᄃᆞ른ᄃᆡ로 이사를힛스면 모로거니와 바모로안이 얼마나되겟나[홍도화(상), 38쪽]

사. 영감이 하 불상히알기에 그럿치 진정 불상ᄒᆞᆫ줄 알고보면 팔ᄌᆞ로 돌녀보ᄂᆡ고뵐겟나[홍도화(상), 42쪽]

따라서 '어간+겠+나'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보이므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쓰였던 형태라는 것이 확인된다.

4.1.1.11.5. '어간+시/으시+었/였+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결합은 '단형서사'에서 하나의 용례만 찾아지고 있다.

(57) 단형서사

우에 그리 ᄒᆞ셧나[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3. 27)]

그러나 '신소설'에서도 '어간+시/으시+었/였+나'의 유형이 쓰이고 있으나 '단형서사'와는 달리 비교적 많은 사용을 보이고 있다.

(58) 신소설

가. 구참령령감끠셔 즁로에셔 병환이 나셔셔 그사ᄅᆞᆷ을 더신보니여 ᄎᆞᄌᆞ가셧나 (화세계, 140쪽)

나. 어머니께셔 망영이 드셧나[금국화(상), 34쪽]

다. 벌셔 들어오셧나[금국화(하), 22쪽]

라. 뉘딕인지 알지못ᄒᆞ고 오셧나(모란병, 19쪽)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나 '신소설'에서 주로 활발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2. '-니'

현대국어 구어에 자주 쓰이는 의문어미 '-니'는 '-ᄂᆞ니 > -느니 > -느이 > -늬 > -니'의 단계로 생성되었다(권재일, 2005. p.66). 이러한 의문종결어미 '-니'는 '-냐' 또는 '-느냐'보다 더 부드럽고 친밀하게 묻는 말로 쓰인다.[26] 이에 남기심・고영근(1993, p.350)에서는 이를 친밀성을 띤 비격식적 의문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니'에 대하여 권재일(2005, p.66)에서는 초기 현대국어 교과서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초기 현대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니'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소설'에서 많은 용례가 찾아진다. '신소설'에서는 '-니'와 이의 전단계인 '-늬'가 쓰이고 있다.

4.1.1.12.1. '어간+니'

동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니'가 결합된 경우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서 하나의 용례가 찾아진다.

(59) 단형서사

공동회 슈죄를 무엇이라고 ᄒᆞ니[힝셰문답(독립신문, 1899. 1. 23)]

그러나 '신소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용례를 '단형서사'에 비해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60) 신소설

가. 그아둘을 ᄉᆞ경업시 포술ᄒᆞ얏스니 엇지ᄒᆞ니(화의혈, 88쪽)

---

26) 의문종결어미 '-니'에 대하여 표준 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말 큰사전(1997)에서는 '-느냐'보다 정답거나 부드러운 뜻을 띠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나. 에그 옵바가 우리집안일을 싱각하면 엇지ᄒᆞ니[치악산(하), 90쪽]

다. 지금무슴 ᄂᆡ우를ᄒᆞ니(추천명월, 29쪽)

라. 누군인쥴 알고이리ᄒᆞ니(추천명월, 79쪽)

따라서 '어간+니'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한 차례만 쓰일 정도로 쓰임이 미약했으나 '신소설'에서는 이와 달리 비교적 왕성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1.1.12.2. '어간+았/었/였+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진다.

(61) 신소설

가. 이놈그런법 어셔보앗늬(빈상설, 71쪽)

나. 아쥬머닌지 두루쥬머닌지 언제방구셕에 붓터잇는것보앗니(빈상설, 54쪽)

다. 네가죽어 혼이왓늬(빈상설, 153쪽)

라. 아가 어머니 말숨을 다 드럿늬(구마검, 6쪽)

마. 응 그러 너 쪽쪽이 알앗늬(화세계, 79쪽)

바. 네가 보넌 사름인쥴알고 네패물을 즉시내여주엇는ᄃᆡ 웨 그져 못보앗늬(화세계, 117쪽)

사. 져녁 져녁이 벌셔 다 되얏나 업바는 어ᄃᆡ 갓니(몽조, 18쪽)

아. 부득불 쓸 일이 잇스면 아니 쥴 것시 아닌데 즁간에셔 무어슬 ᄒᆞ랴구 가져갓니(몽조, 29쪽)

따라서 '어간+과거선어말어미+니'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던 유형임이 확인된다. 비록 이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으나 '신소설'에서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에서 이의 결합 형태는 널리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4.1.1.12.3. ‘어간+겠+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선어말어미 ‘-았/었/였-’ 외에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이는 ‘신소설’에서 볼 수 있다.

(62) 신소설

가. 글셰 너가 김션달을 언제 보앗더고 알아보겟니(화세계, 117쪽)

나. 내눈이 아모리 어둡기로 그량반을 몰나보겟늬(화세계, 118쪽)

다. 이년아 그러도 몰으겟늬[치악산(하), 22쪽]

다. 오냐 너가 네량쥬를 두엇스니 무슨걱정을ᄒᆞ겟늬[치악산(하), 39쪽]

라. 이년 찌져쥭이고 땃가쥭일년아 인제도 무엇이라 조동이를 놀니겟늬[치악산(하), 22쪽]

마. 의쥬집은 무슨념치로 그져 두겟늬(목단화, 76쪽)

이와 같이 ‘신소설’에서는 ‘어간+겠+니’의 유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신소설’에서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에서는 ‘어간+았/었/였+니’의 형태와 같이 이의 형태에 있어서도 역시 널리 사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12.4. ‘종결어미+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외에 종결어미하고도 결합을 한다. 이때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다’ 또는 ‘-라’가 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종결어미 ‘-다’와 결합되는 예는 없고 종결어미 ‘-라’와 결합된 경우만 하나 찾아진다.

(63) 단형서사

돈을 내라니[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2. 6)]

위의 구문에서 종결어미 '-라'와 결합되는 어간은 동사이다. 이처럼 '동사어간+라'와 결합하는 종결어미 '-니'가 이루는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4) 신소설

가. 너다려 그런참견ᄒᆞ라늬(목단화, 2쪽)

나. 져다려 ᄆᆡ음을ᄒᆞ라니(목단화, 130쪽)

그리고 이외에 동사어간에 종결어미 '-다'가 결합되는 유형도 '신소설'에서는 볼 수 있다.

(65) 신소설

가. 화ᄀᆡ동아씨를 팔아먹다니(빈상설, 55쪽)

나. 네가이곳을오다니(추월색, 100쪽)

다. 그사람의 부인으로 안져셔 엇져녁에 간부를ᄯᅡ라 도망질을허다니(재봉춘, 171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니'가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의문종결어미 '-니'가 오직 종결어미 '-라'와 결합한 형태만 쓰인 반면에 '신소설'에서는 종결어미 '-라'는 물론 종결어미 '-다'와 결합한 형태도 쓰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는 의문종결어미 '-니'는 '신소설'에서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4.1.1.13. '-오/소'

'-오/소'는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로서 평서법 종결어미로 쓰이거나 의문법 종결어미로 쓰인다. 여기 '4.1.1.13'에서는 의문법으로서의 종결어미 '-오/소'를 분석한다.

개화기의 교과서류・신문류・성경류・자전류・서유견문 등의 자료를 검토한 김형철(1997, p.335)은 의문법어미로 쓰인 '-오'는 찾아지지만 '-소'의 예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이와 달리 '-소'가 의문종결어미로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신소설'에서는 그 용례가 풍부하게 찾아진다.

4.1.1.13.1. '어간+오/소'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오/소'는 동사어간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66) 단형서사

누가 조르고 시펴셔 조르오[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위의 '단형서사'에서와 같은 어미의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에 비해 용례가 조금 더 많이 찾아진다.

(67) 신소설

가. 쵀가의집ᄒᆞ나 망ᄒᆞᄂᆞᆫ것만 그리더단히아오(은세계, 108쪽)

나. 남붓그러운쥴도, 모르오(귀의성, 25쪽)

다. 왼소리를그럿케몹시지르오(귀의성, 17쪽)

라. 이리로가면 엇의로가오(화세계, 107쪽)

따라서 ‘어간+오/소’ 유형의 경우 용례는 많지 않지만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 형태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왕성한 쓰임이 사라졌음이 드러난다.

4.1.1.13.2. ‘어간+았/었/였+소’

의문종결어미 ‘-소’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간+오/소’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68) 단형서사

가. 돈은 그 엇지 아니 쎗겻소[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나. 어제 일이 엇더케 되엿소[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2. 6)]

다. 여보 만졔씨 이제ᄭᆞ지 나를 고관ᄒᆞ지 못ᄒᆞ엿소[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3)]

라. 대감은 무숨 ᄭᆞ닭으로 근심ᄒᆞ엿소[오동츄야 돌밝은듸(대한매일신보, 1908. 9. 4)]

위에서 보인 ‘어간+과거선어말어미+소’의 유형은 ‘신소설’에도 찾아진다. 이 역시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많은 용례를 볼 수 있다.

(69) 신소설

가. 셔방님압헤와횡셜슈셜ᄒᆞ게법이업셔졋소(빈상설, 71쪽)

나. 령감이산소쓴지몃히ᄂᆞ되엿소(구마검, 42쪽)

다. 이집쥬인이어듸갓소(귀의성, 30쪽)

라. 길슌이는, 신선이ᄂᆞ되는듯ᄒᆞ더니, 사위덕을, 얼마ᄂᆞ보앗쇼(귀의성, 4쪽)

마. 우ᄋᆡ인제, 왓소(귀의성, 82쪽)

바. 무슨팔자조흘일이, 싱겻소(귀의성, 9쪽)

따라서 '어간+았/었/였+소'와 같은 유형의 경우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13.3. '어간+겠+소'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소'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가 찾아진다.

(70) 단형서사

가. 엇지 보겟소[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나. 이거슨 매국 대신의 ᄉᆞ업이라 엇지 긔화 ᄉᆞ업이라 ᄒᆞ겟소[북촌에 로인들이 모혀(대한매일신보, 1908. 3. 3)]

다. 그러ᄒᆞ면 일진회도 모다 머리를 깍것스나 온 세샹이 창귀라 지목ᄒᆞ니 이것도 문명샹에 진보라 ᄒᆞ겟쇼[북촌에 로인들이 모혀(대한매일신보, 1908. 3. 3)]

위의 '단형서사' 구문에서 보이는 '동사어간+겠+소'의 결합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찾아진다.

(71) 신소설

가. ᄂᆡ첩이댁에가잇셔, 무엇이득지, 박참봉의게, 페를ᄶᅵ처셔야, 쓰깃소(귀의성, 45쪽)

나. ᄂᆡ가 안이드르며 ᄯᅩ 돈이 싱기기로 ᄂᆡ가 마누라님을 모르ᄂᆞᆫ데 ᄒᆞ깃소(구마검, 11쪽)

다. 셔방님요사이 칙갑칙갑ᄒᆞ시니 언제ᄂᆞᆫ되겟소(설중매, 23쪽)

라. 둘이 다 싱시에 심덕이 극히 착ᄒᆞ든 사ᄅᆞᆷ인ᄃᆡ 쥭어젓기로 무슨 침탈을 ᄒᆞ겟소(구마검, 4쪽)

따라서 '어간+겠+소'의 경우 '단형서사'와 더불어 '신소설'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1.1.13.4. '어간+시/으시+오'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는 의문종결어미 '-오'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때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72) 단형서사

그만 밋고 가려ᄒᆞ시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어간+시/으시+오'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 비해 많이 쓰이고 있다.

(73) 신소설

가. 우ᄋᆡ사ᄅᆞᆷ를그리몹시보시오(귀의성, 33쪽)

나. 아버지, 어머니ᄂᆞᆫ, 그ᄃᆡ단ᄒᆞᆫ길슌이가, 무슨넘녀가되야, 저러케애를쓰시오(귀의성, 2쪽)

다. 남을 웨 ᄃᆡ려다 셩가시게ᄒᆞ시오(구마검, 4쪽)

라. 여보시오 아씨 무슨죄로 공연ᄒᆞᆫᄉᆞᄅᆞᆷ의 뺨을치고 이러케 몹시 압제를 ᄒᆞ시오(화중화, 17쪽)

마. 그러면 웨 엿히두어 이화를당ᄒᆞ시오(화중화, 20쪽)

바. 이랑반 ᄃᆡᆨ이 뎌쳐녀와 엇지되시오(화세계, 42쪽)

사. 복단이ᄎᆞᄌᆞ ᄃᆡᆼ기시노라고 그리ᄒᆞ시오(빈상설, 61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오’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쓰임이 미미했으나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쓰임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1.1.13.5. ‘어간+시/으시+았/었+소’

‘어간+존대선어말어미+과거선어말어미’로 된 구성에 의문종결어미 ‘-소’가 결합된 경우 이의 형태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 이의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74) 단형서사

오날은 무슨 바람이 부러서 령감이 여긔ᄶᅡ지 오셧소[화수(대한민보, 1909. 6. 13)]

한편,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간+시/으시+았/었+소’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형서사’에 비해 많은 용례를 보인다.

(75) 신소설

가. 슐이취ᄒᆞ셧소(빈상설, 71쪽)

나. ᄒᆞᄂᆞᆫ, ᄂᆡ말은, 진정으로ᄂᆞ온말은, 아니오마ᄂᆞᆫ, 그ᄯᅢ령감이, 무엇이라고 말삼하셧소(귀의성, 94쪽)

다. 미국에오실ᄯᅢ 십칠세라ᄒᆞ셧스니 조션갓치혼인을 일즉ᄒᆞᄂᆞᆫᄂᆞ라에셔 엇지ᄒᆞ야 그ᄯᅢᄶᅡ지 장가를아니드르셧소(혈의루, 71쪽)

라. 형님마ᄋᆞᆷ이변ᄒᆞ셧소(구마검, 28쪽)

이처럼 '어간+시/으시+았/었+소'의 형태는 '단형서사'의 경우 쓰임이 미미하였으나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쓰임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1.1.13.6. '어간+리/으리+오'

의문종결어미 '-오'는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 '-리/으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보이는 '단형서사'의 구문에서 보이는 어미 구성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서는 선어말어미 '-리/으리-'가 의문종결어미 '-오'와 결합하고 있다.[27]

(76) 단형서사

가. 신셰가 이 디경이 된 바에 유익홀 도리만 잇스면 엇지 ᄉᆞ양ᄒᆞ리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6)]

나. 늙은 모친과 약ᄒᆞᆫ 안해를 엇지ᄒᆞ리오[규즁호걸(경향신문, 1909. 8. 20)]

다. 쥰쥰무지 뎌 창싱들 엇지ᄒᆞ면 구원ᄒᆞ리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2)]

라. 님ᄌᆞ가 잇슬 터이어늘 엇지 우리가 쓰리오[정기급인(제국신문, 1906. 10. 9)]

마. 집을 일울 수도 업슬지니 엇지 취셔ᄒᆞ기를 ᄇᆞ라리오[대한 엇던 관인이(독립신문, 1899. 10. 26)]

바. 엇지 우물 밋헤 ᄀᆡ고리의 신세를 면ᄒᆞ리오[대한에 유디ᄒᆞᆫ 션비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0. 16)]

이러한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단형서사'에서처럼

27) '-으리-'와 결합하는 '-오'는 본래 '-고'로서 '-고'가 '-으리-' 다음에서 '-오'로 바뀐 것이다(허웅, 1989. p.158 참조).

'어간+리/으리+오'의 유형이 구문에 쓰인 경우이다.

(77) 신소설

가. 우리가 엇지 그 동류되기야 허락ᄒᆞ리오(경세종, 19쪽)

나. 증거물을 잡고 보증인을 ᄃᆡᄒᆞ야 조사ᄒᆞᄂᆞᆫ마당에 아모리 발명ᄒᆞᆫ들 엇지ᄒᆞ리오(설중매, 32쪽)

다. 우리 족속 여러분들을 멸시ᄒᆞ니 우리가 엇지 그 횡포를 밧으리오(금수회의록, 7쪽)

라. 사ᄅᆞᆷ들이 엇지 우리 가마귀의 족속만 ᄒᆞ리오(금수회의록, 14쪽)

마. 국문과 한문이 다름업스나 엇지우리 녀ᄌᆞ권리로 연혁을 확뎡ᄒᆞ리오(자유종, 14쪽)

이처럼 '어간+리/으리+오'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일반적인 쓰임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4.1.1.13.7. '종결어미+오'

의문종결어미 '-오'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외에 종결어미하고도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오'와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지'로서 이는 평서법 종결어미로서의 '-지'가 아닌 의문법 종결어미로서의 '-지'이다.

'-지'가 평서법이 아닌 의문법의 종결어미로 쓰였음은 '-지'와 결합되어 있는 '-오'를 제거하여도 구문이 여전히 의문문이 됨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문종결어미 '-오'가 또 다른 의문종결어미 '-지'와 결합하여 이루는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78) 단형서사

가. 한가지 계칙이 잇지만은 상제님이 능히 닉 말을 용납홀는지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9)]

나. 슐장ᄉ를 ᄒ얏스면 셩도가 될 터이나 상쥬가 능히 홀는지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9)]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지+오'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79) 신소설

가. 여보, 어제, 댁에사룸ᄒ나보닛지오(귀의성, 45쪽)

나. 아짜 셔방님무삼칙이라 ᄒ시든지오(설중매, 26쪽)

다. 나으리께셔는 이런길을 쳐음 단여 보시지오[금국화(하), 9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지'와 결합하는 의문종결어미 '-오'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1.1.14. '-ㅂ니까'

'-ㅂ니까'는 의문종결어미로서 현대국어에서의 표기이다. '근대계몽기'에서는 '-ㅁ닛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ㅁ닛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용례는 많이 나타난다. '신소설'에서의 용례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에 '-ㅁ닛가'가 결합한 형태이다.

(80) 신소설

가. 지난말에 스므날한을 정ᄒ고 가져가신 반지쎡문에도 얼마나 고싱을허는지

아심닛가(재봉춘, 78쪽)

나. 어머님병환이 요사이는 좀엇더ᄒᆞ심닛가(재봉춘, 118쪽)

다. 그ᄇᆡᆨ셩이 무슨 죄가잇길늬 병뎡을 풀어 뭇질느러드심닛가(화의혈, 11쪽)

라. 졈자느신처디에 무슨일로 뎌러케 ᄉᆞ면단이심닛가(화세계, 93쪽)

마. 형님마옴은 그러시거니와 졍진이가 드르면 엇지홀지 아심닛가(금강문, 56쪽)

바. 그 즁의 당호는 무엇이며 글을잘ᄒᆞᆫ다니 그글을더러 외오심닛가[구의산(하), 64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ㅁ닛가'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ㅂ니까' 또는 '-ㅂ니싸'와 같은 표기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ㅂ니까'나 '-ㅂ니싸'와 같은 표기의 경우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 '-ㅂ니까'에 해당하는 중세의 의문종결어미는 '-ㅁ잇가'이다. 여기서 '-잇-'은 상대높임선어말어미이다. 상대높임선어말어미는 평서법의 경우 '-이-'로 쓰이고 의문법의 경우는 '-잇-'으로 쓰인다. 여기 '4.1.1.14'에서는 의문법을 다루므로 '-잇-'의 형태로 쓰였다. 이 '-잇-'과 결합하는 '-가'는 의문종결어미이다.

소리를 고르는 음소인 '-ㅁ-'과 상대높임선어말어미 '-잇-' 그리고 의문종결어미 '-가'는 한데 결합하여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의문종결어미가 '-ㅁ잇가'가 된다. '-잇-'에는 상대높임의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니-'에는 상대높임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잇가'를 '니까'와 대응시키는 것이 틀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원도 방언에서는 아직도 '니까'를 '잇가'로 쓰고 있으므로 '니까'의 고형이 '잇가'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잇가'가 '니까'로 바뀌면서 '잇'에 들어 있던 상대존대의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세국어에서의 의문종결어미 '-ㅁ잇가'는 중세도 아닌 최근세국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음이 '신소설'을 통해 확인된다. 의문종결어미 '-ㅁ잇

가'가 보이고 있는 아래의 예문은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용례이다. 단, '단형서사'에서는 의문종결어미 '-ㅁ잇가'의 용례가 없다.

(81) 신소설

가. 이역풍토에, ᄀᆡ테가, 못잡지안이, 하심잇가[홍도화(하), 98쪽]

나. 이, 다락속에, 누가, 잇길내, 졀을ᄒᆞ라ᄒᆞ심잇가[홍도화(하), 6쪽]

다. 션싱님게셔고양디명을엇지그러케력력히아심잇가(구마검, 45쪽)

라. 다름이안이라뎍에림싱원이라ᄒᆞ시ᄂᆞᆫ량반이오셔셔류ᄒᆞ심잇가(구마검, 52쪽)

마. 묵셔가에ᄂᆞᆫ 언제팔녀갓다고 ᄒᆞ심잇가(모란병, 95쪽)

바. 령감마님 지금 올나 오심잇가(모란병, 80쪽)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쓰이던 의문종결어미 '-ㅁ잇가'가 최근세국어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세국어 시기임에도 위 (81)에서 보듯이 '-ㅁ잇가'가 쓰이고 있다. 최근세국어의 이후는 현대국어이므로 시기상으로 보면 현대국어의 '-ㅂ니까'와 가까운 형태인 '-ㅁ닛가'가 최근세국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이의 중세국어 표기인 '-ㅁ잇가'가 여전히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ㅁ잇가'가 '-ㅁ닛가'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ㅁ닛가'는 다시 '-ㅂ니까'로 완전히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것은 '구마검'과 '홍도화'가 1908년도의 작품이고 '모란병'이 1911년도의 작품이므로 '모란병' 이후에 진행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백년도 채 안된 근세에 모두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 중세국어 표기인 '-ㅁ잇가'가 근대국어의 표기라 할 수 있는 '-ㅁ닛가'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인가. 위의 (80)와 (81)을 보면 '신소설'에 이들 표기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소설'이 발표되던 시기가 이들 표기의 교체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동일한 작품에서 그리고 같은 구문 내에서 더욱이 동일한 두 개의 어간에서 '-ㅁ잇가'와 '-ㅁ닛가'가 각각 함께 공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2) 신소설

덕 마님께셔 싀앗시 인물을 *모르*<u>**심잇가**</u> 지조를 *모르*<u>**심닛가**</u>(금강문, 62쪽)

여기서 쓰임에 있어 '-ㅁ잇가'는 쇠퇴되어 가는 의문종결어미이고, '-ㅁ닛가'는 왕성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의문종결어미가 된다. 그러므로 '신소설'이 간행되던 최근세국어의 시기가 바로 이들 의문종결어미의 교체기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ㅂ니까'에 있어 이의 한 표기인 '-ㅁ잇가'가 또 다른 표기인 '-ㅁ닛가'로 바뀌어 가는 시기가 최근세국어의 시기였으며 쓰임상 이들의 혼돈은 '신소설'에서 목격된다고 할 것이다.

4.1.1.15. '-나이까'

'-나이까(-ᄂᆞ잇가)'에서 '-나(ᄂᆞ)-'는 직설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15세기 국어에서 하소서체의 상대높임 기능을 담당하던 '-이-'로서 [ㆁ] 음가가 소실된 16세기 후반의 형태이다. '-ㅅ가'는 하소서체 의문법 어미가 된다. 이들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바로 의문종결어미 '-나이까(ᄂᆞ잇가)'이다(이경우, 1998. p.38 참조).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현재의 동작에 대해 묻는 의미를 가진 어미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한다. 여기 '4.1.1.15'에서는 어간이 동사 또는 보조동사인 경우만을 다룬다.

4.1.1.15.1. '어간+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동사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83) 단형서사

가. 미천흔 녀즈의 말이나마 들으려 흐나잇가[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6)]

나. 년 젼 아모 히에 이곳셔 스당 돈 빅 량 쥰 일을 싱각지 못흐나잇가[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2)]

다. 아비를 모로면 쟝구히 그 어미만 좃느잇가[부즈문답(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이는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어간+나이까'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84) 신소설

가. 당초에 이 셰계가 엇더케 싱겻다 흐느잇가(성산명경, 133쪽)

나. 엇지 굿흔뜻이라 흐느잇가(성산명경, 136쪽)

다. 엇지흐야 구셰쥬를 밋으시지아니 흐느잇가(성산명경, 173쪽)

라. 죵시쌔둧지 못흐나잇가(성산명경, 143쪽)

따라서 '어간+나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된 어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미임에 비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여전히 대화체에서 쓰이는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4.1.1.15.2. '어간+았/었/였+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와도 결합을 하여 '어간+과거선어말어미+나이까'의 어미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85) 단형서사

가. 우리 아바지는 엇지 되얏나잇가[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3)]

나. 전라도 동복을 구경 ᄒᆞ얏나잇가[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8)]

다. 사당을 작별홀ᄯᅢ에 다시 만나자고 ᄒᆞ던 말을 니졋나잇가[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10. 6)]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어간+았/었/였+나이까' 형태의 어미 구성은 일체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는 오직 '단형서사'에서만 쓰였음이 확인된다.

4.1.1.15.3. '어간+였+삽+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과거선어말어미 '-였-'과 결합한 공대선어말어미 '-옵-'과 결합하여 '어간+였+삽+나이까'의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오직 '단형서사'에서만 보일 뿐 '신소설'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단,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86) 단형서사

아ᄭᅡ 죽은 오리는 그만 두고 샹ᄒᆞᆫ 오리를 잡으라시지 아니ᄒᆞ엿숩낫가[늙은 흑인(1901. 5. 16)]

이에 '어간+였+삽+나이까'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는 쓰이지 않고 '단형서사'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5.4. '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시/으시+겠-'과 결합한 공대선어말어미 '-삽-'과

결합하여 '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의 경우 쓰이지 않았고 '신소설'에서만 쓰였다. 아래의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87) 신소설

나으리가 희붕이만못ᄒᆞ면 무엇ᄒᆞ며 나으면 엇지ᄒᆞ시겟ᄉᆞᆸᄂᆞ잇가(화중화, 30쪽)

하지만 '신소설'에서도 '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 하나의 용례만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세국어에서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이미 소멸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1.1.15.5. '어간+시/으시+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공대선어말어미 '-삽/옵-' 외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나이까'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88) 단형서사

가. 소 풀너 가시더니 평안히 도라 오시ᄂᆞ잇가[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닐 년이나 ᄌᆞ란 거ᄉᆞᆯ 엇지 일조에 이ᄃᆡ지 박ᄃᆡᄒᆞ시ᄂᆞ잇가[악ᄒᆞᆫ 나무에 됴ᄒᆞᆫ 가지ᄅᆞᆯ 쳡붓치ᄂᆞᆫ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다. 아바님 안력이 종시 부족ᄒᆞ샤 이 ᄋᆞ희를 몰나보시ᄂᆞ이ᄭᅡ[규즁호걸(경향신문, 1909. 8. 20)]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 형태가 찾아진다.

(89) 신소설

가. 부인되시는니가 투긔지심이 만타ᄒᆞ니 쳡과연을밋고ᄌᆞᄒᆞ시면 웃지코ᄌᆞᄒᆞ시나잇가(추천명월, 94쪽)

나. 존쟝이 뉘신지 시싱을보시고 이갓치 ᄒᆞ시ᄂᆞ잇가(세검정, 122쪽)

다. 하나님 보옥이가 젼싱에무숨죄로 오날이갓치 쥭게ᄒᆞ시나잇가(세검정, 108쪽)

따라서 '어간+시/으시+나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5.6. '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시/으시-'와 결합한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하여 '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90) 신소설

대셩인이 되셧ᄂᆞ잇가(성산명경, 136쪽)

하지만 '신소설'에서도 이의 유형이 쓰인 예는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의 유형은 작품에 있어서 최근세국어의 시기에 이미 거의 쓰이지 않는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4.1.1.15.7. '어간+시/으시+옵+나이까'

한편, 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시/으시-'와 결합한 공대선어말어미 '-옵-'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신소설'에서

는 볼 수 있는데 이의 용례는 두 개에 불과하다.

(91) 신소설

가. 나는 몃히를 살나 ᄒᆞ시옵ᄂᆞ잇가(경세종, 43쪽)

나. 드러오시ᄋᆞᆸᄂᆞ잇가(다정다한, 61쪽)

따라서 '어간+시/으시+옵+나이까'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쓰였으나 그 쓰임은 미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16. '-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어간으로 온다. 여기 '4.1.1.16'에서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만을 분석한다.

4.1.1.16.1. '어간+았/었/였+ᄉᆞᆸ+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객체존대선어말어미 '-ᄉᆞᆸ-'과 결합하기도 하는데[28]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 없고 '신소설'에서 그 용례가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92) 신소설

가. 나도 ᄃᆞ른학도와갓지 손을드렷사오니 지금공부를 중도이폐ᄒᆞ면 제마암을 속이고 션싱님도속인것이 안이되엿슴닛가[홍도화(상), 9쪽]

나. 그사ᄅᆞᆷ 단여간지가 몃칠이나 되엿슴닛가(화세계, 117쪽)

28) '-니잇가'는 '-ᄉᆞᆸ-'과 결합하여 '-슴닛가'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국어 '-습니까'로 이어진다(권재일, 2005. p.75 참조).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미이지만 ‘신소설’에서는 그나마 그 용례가 찾아지므로 ‘-니이까’는 최근세국어 때까지는 그래도 대화체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1.16.2. ‘어간+겠+습+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았/었/였-’과 대응되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객체존대선어말어미 ‘-습-’과도 결합을 하는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93) 신소설

가. 제까짓것들이 그귀신을 가두기커녕 범접이나 히보겟슴닛가(구마검, 6쪽)

나. 련비 물어덩향업시 차자단여야 홀것이니 졔가안이가고되겟슴닛가(모란병, 86쪽)

다. 네황송홉니다마는 이쳐럼훈문 훈시눈딕 일호나긔망훈겟슴닛가(빈상설, 130쪽)

따라서 ‘신소설’에서는 ‘어간+았/었/였+습+니이까’ 유형과 더불어 ‘어간+겠+습+니이까’ 유형도 쓰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이들은 모두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4.1.1.16.3. ‘어간+시/으시+겠+습+니이까’

종결어미 ‘-니이까’는 ‘어간+시/으시+겠-’과 결합한 객체존대선어말어미 ‘-습-’과 결합하여 ‘어간+시/으시+겠+습+니이까’의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형서사’와는 달리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94) 신소설

가. ᄃᆡᆨ마님게셔는 져게기ᄃᆡ리시겟슴닛가[홍도화(상), 50쪽]

나. 더구나 지금이야 무슨경황에 벼슬을 단이시겟슴닛가[구의산(상), 78~79쪽]

다. 그러ᄒᆞ오면 시ᄉᆡᆼ에게 ᄃᆡ감의위엄을빌니시고 권한을 엇의ᄭᆞ지 허락ᄒᆞ야주시겟슴닛가(화의혈, 14쪽)

라. 에그 ᄃᆡᆨ에서야 여복 걱정이되시겟슴닛가(화의혈, 35쪽)

마. 셜마 ᄅᆡ일도 안이오시겟슴닛가(화세계, 108쪽)

바. 늙은시어머니ᄭᅴ셔 얼마나사시겟슴닛가(안의성, 112쪽)

사. 셔울량반이 초ᄒᆡᆼ으로 길을 차 져가시겟슴닛가[구의산(하), 57쪽]

이에 '어간+시/으시+겠+습+니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 결합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4.1.1.16.4. '어간+시/으시+ㅂ+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니이까'의 사이에서 소리를 고르는 음소 '-ㅂ-'과 결합하여 '어간+시/으시+ㅂ+니이까'의 형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소설'에서만 보이는데 '신소설'에서도 이의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95) 신소설

아쥬머니게셔됴 관게치안으심닛가(빈상설, 60쪽)

따라서 '어간+시/으시+ㅂ+니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 용례가 있는 '신소설'에서도 한 번만 나타날 정도로 쓰임이 거의 없는 결합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4.1.1.16.5. '어간+시/으시+ㅂ+더+니이까'

한편,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소리를 고르는 음소 '-ㅂ-'과 결합한 회상선어말어미 '-더-'에 결합하는 특이한 형태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신소설'에서만 하나의 용례가 찾아진다.

(96) 신소설

자리거지 ᄒᆞ신다고 나를 불너 오라십드닛가(구마검, 10쪽)

따라서 '어간+시/으시+ㅂ+더+니이까'와 같은 특이한 구성의 어미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하나의 용례만 보일만큼 거의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1.1.16.6. '어간+삽/옵+더+니이까'

공대선어말어미 '-삽/옵-'과 결합한 회상선어말어미 '-더-'는 의문종결어미 '-니이까'와 결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7) 단형서사

그러키에 처음브터 가시지 말나고 아니 ᄒᆞ옵더니짜[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25)]

'어간+삽/옵+더+니이까'는 비록 하나의 용례지만 그래도 '단형서사'에서 보이나 '신소설'에서는 일절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 때에 이미 그 쓰임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1.1.16.7. '의문종결어미+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외에 특이하게 또 다른 의문종결

어미와도 결합을 한다. 이때 결합되는 의문종결어미는 '-오' 또는 '-나'이다. '-오'는 서술종결어미로도 쓰이나 여기서는 의문종결어미로 쓰인 어미가 된다. 의문종결어미 '-오'에 다시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된 형태는 다음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98) 단형서사

가. 뉘 군도오닛가[조곰 어그러지는 밋음(1901. 5. 30)]

나. 현풍 곽셔방님이 안이오닛가[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1. 1)]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9) 신소설

가. 사고무친혼데 밋을 사람이 누구오닛가(송뢰금, 83쪽)

나. 넘어ᄂᆞ감격무디ᄒᆞ오이다그ᄌᆞ리가어더오닛가(구마검, 44쪽)

이처럼 의문종결어미 '-오'에 다시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의문종결어미 '-오' 외에 또 다른 의문종결어미 '-나'하고도 결합을 한다. 이런 경우 '신소설'에서 '어간+시/으시+나+니이까'의 형태로서 용례가 찾아진다.

(100) 신소설

가. 남의댁 부인의 거취ᄂᆞ무삼연고로 물으시나닛가(설중매, 40쪽)

나. 벌셔네시나 되엿ᄉᆞ오니 약을잡스시지 아니ᄒᆞ시려ᄂᆞ닛가(설중매, 1쪽)

하지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또 다른 의문종결어미 '-나'와 결합한 예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위 (100)에서 보이는 유형은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어미 구성이지만 '신소설'에서는 두 차례나 용례가 보이듯이 개화기 때에는 그래도 쓰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1.1.17. '-리이까'

의문종결어미 '-리잇가'는 '-잇가'에 '-으리'가 결합한 형태이다(권재일, 2005. p.75). 이는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이의 용례가 찾아진다. 따라서 개화기 때까지만 해도 의문종결어미 '-리잇가(리이까)'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4.1.1.17'에서는 이러한 '-리이까'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4.1.1.17.1. '어간+오+리이까'

의문종결어미 '-리이까'는 종결어미 '-오'와 결합하여 '-오리이까'의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의 결합 형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문종결어미로 쓰인다.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오+리이까'의 형태가 어간과 결합한 유형이 찾아진다.

(101) 단형서사

가. 당장 헌병소에 가셔 ᄌᆞ현 취슈ᄒᆞ오릿가[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3)]

나. 정치법령이 붉어지면 극락세계 엇지 못되오리잇가[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마찬가지로 '어간+오+리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 외에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2) 신소설

가. 다만 광슈의만 입고 ᄶᅮ러만안졋스면 사ᄅᆞᆷ마다 천만년 죵교부ᄌᆞ가 되오릿가(자유종, 8쪽)

나. 연회에 뉘고기를 쓰오릿가(경세종, 16쪽)

다. 늙은어머니를 집에혼자 ᄂᆡ버리고 뎌도 소견이잇겟지 셜마 안이드러오릿가[구의산(상), 81쪽]

라. 일이년은 고사ᄒᆞ고 십년이지나간들 누가 무숨말숨을 ᄒᆞ오릿가(화중화, 41쪽)

마. 쳡의마음으로 결단ᄒᆞᆫ일이온즉 고싱을웃지 사양ᄒᆞ오릿가(화중화, 46쪽)

따라서 '-오+리이까'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지만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이의 결합 형태가 여전히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1.1.17.2. '어간+시/으시+오+리이까'

'-오+리이까'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여 '어간+시/으시+오+리이까'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다음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03) 단형서사

엇지 무거온 짐을 당ᄒᆞ시오리잇가.[님금의 ᄆᆞ옴을 용케 돌님(경향신문, 1907. 11. 8)]

'어간+시/으시+오+리이까'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하나의 용례가 찾아진다. 그러

나 '신소설'에서는 일체 용례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어간+오+리이까' 유형과는 달리 개화기 때의 작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의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소멸의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1.17.3. '어간+사오+리이까'

의문종결어미 '-리이까'는 공대선어말어미 '-사오-'와도 결합을 하여 '어간+사오+리이까'의 형태를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 없고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다.

(104) 신소설
 속담을 엇지밋ᄉᆞ오릿가(금강문, 132쪽)

그러나 '신소설'에서도 이의 용례는 하나만 찾아지므로 '어간+사오+리이까'의 어미 구성은 '어간+시/으시+오+리이까'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개화기 때의 작품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최근세국어에 있어서 이러한 결합 형태는 이미 소멸 단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 형용사어간+의문종결어미

4.1.2.1. '-냐/느냐'

의문종결어미 '-냐'는 동사를 어간으로 하지 않고 형용사와 계사만을 어간으로 하는 어미이다. 여기서는 형용사어간만을 다루므로 계사가 어간인 경우는 분석하지 않는다.

의문종결어미 '-느냐'는 동사와 형용사를 어간으로 두지만 '-냐'의 경우는 동사를

어간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의문종결어미로 '-느냐'만 쓰이지만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냐'와 '-느냐'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쓰인다.

4.1.2.1.1. '어간+냐/느냐'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냐/느냐'가 결합된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5) 단형서사

가. 내의 ᄌᆞ손이 엇더ᄒᆞ냐[원텬셕(그리스도신문, 1901. 8. 29)]

나. 듸사가 안ᄒᆡ가 잇ᄂᆞ냐[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홈(1902. 2. 15)]

다. 무슴 도리가 잇나냐[일젼에 엇더ᄒᆞᆫ 대한 신ᄉᆞ ᄒᆞ나이(독립신문, 1898. 1. 8)]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의문종결어미 '-냐/느냐'의 형태를 볼 수 있다.

(106) 신소설

가. 이ᄋᆡ옥년아 그럿치아니ᄒᆞ냐(혈의루, 73쪽)

나. 상놈이랑반의ᄆᆡ좀마즌것이그리원통ᄒᆞ냐(구마검, 52쪽)

다. 이ᄋᆡ 금션아 ᄂᆡ소리엇더ᄒᆞ냐(모란병, 35쪽)

라. 이ᄋᆡ 힝낭어머 거긔잇ᄂᆞ냐(모란병, 65쪽)

따라서 '어간+냐/느냐'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2.1.2. '어간+겠+냐/느냐'

의문종결어미 '-냐/느냐'는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한다. 이때 이의 형태 역시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07) 단형서사

가. 온젼히 텬명이 아니고야 그러켓냐[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나. 평생을 아니 오시기로 무슨 걱정이 잇썟느냐[화수(대한민보, 1909. 6. 2)]

다. 우리 나라에 큰 힉가 업겟느냐[어리셕은 사룸들의 문답(제국신문, 1898. 11. 26)]

그리고 '단형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8) 신소설

가. 어린것이 비가 좀곱흐겟느냐(모란병, 3쪽)

나. 그럭 엇더케ᄒ면 무ᄉ하겟느냐(빈상설, 22쪽)

다. 사룸이 어딕잇겟느냐(고영규전, 235쪽)

라. 셜마 아조모로는데홀리가 잇겟느냐(화의혈, 18쪽)

마. 너의 아바지에게 죄를 씨우는일인딕 아무짓을ᄒ기로 효험이잇겟느냐(화의혈, 34쪽)

이와 같이 '어간+겠+냐/느냐'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에 비하여 이러한 결합 형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음도 확인된다.

4.1.2.1.3. '어간+시/으시+냐'

의문종결어미 '-냐'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신소설'에서만 이러한 결합 형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용례는 단 두 개에 그친다.

(109) 신소설

가. 어머니두 안영ᄒᆞ시냐(몽조, 26쪽)

나. 너의댁에셔는, 다안영ᄒᆞ시냐[홍도화(하), 56쪽]

이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가 의문종결어미 '-냐'와 결합한 경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쓰였으나 '신소설'에서도 두 개의 용례만 보일 정도로 쓰임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는 '어간+시/으시+냐'는 적어도 최근세국어의 작품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4.1.2.1.4. '종결어미+더+냐'

한편, 회상선어말어미 '-더-'가 종결어미 '-다'와 결합한 후 의문종결어미 '-냐'와 다시 결합하기도 있다. 이때 종결어미 '-다'의 어간으로서 형용사인 경우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풍부한 용례를 보인다.

(110) 신소설

가. 시럽에아ᄃᆞᆯ놈 지금세상에 량반이 ᄯᅡ로잇다더냐(화세계, 77쪽)

나. 암 그년들이야 샹전에게 무ᄉᆞᆫ정셩이 잇다더냐[치악산(하), 17쪽]

다. 약을먹여쥭일터이니 구타여 이십이못되야비명원사를ᄒᆞ면너먼 셔럿지쓸ᄃᆡ가 잇다더냐[치악산(하), 69쪽]

라. 그ᄅᆡ셔 셩운경의집안이 다 ᄐᆡ평ᄒᆞ다더냐(안의성, 26쪽)

마. 응 혼쳐가 어딕잇다더냐(안의성, 27쪽)

바. 누가 비곱흐다더냐(산천초목, 66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냐'가 '다+더-'의 형태에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은 반면 '신소설'에서는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쓰이는 '종결어미+더+냐'는 '근대계몽기'의 '신소설'에서도 흔히 쓰이는 유형이었음이 확인된다.

4.1.2.1.5. '종결어미+우+냐'

의문종결어미 '-냐'는 접사 '-우-'와 결합하여 '어간+우+냐'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11) 단형서사

그딕들은 다 즐거오냐[붉은 거울을 보시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25)]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112) 신소설

가. 네마음에못미더우냐(귀의성, 118쪽)

나. 너는한번안젓다가, 이러느려면, 우익, 몸이그리묵어우냐(귀의성, 75쪽)

다. 이익 붓그러오냐(모란병, 103쪽)

라. 말훈마딕훈기가 그리도어려우냐(안의성, 83쪽)

따라서 '어간+우+냐'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나

'신소설'에서 '단형서사'에 비해 보다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2.2. '-뇨/느뇨'

'-뇨'는 형용사와 '이-'를 어간으로 둔다(권재일, 2005. p.67 참조). 하지만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이 형용사어간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는 이 '-겠-'과 결합하는 종결어미로 '-뇨'가 아닌 '-느뇨'가 쓰이므로 여기서는 '-뇨'와 '-느뇨' 두 가지의 형태를 모두 다룬다.

4.1.2.2.1. '어간+뇨/느뇨'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뇨/느뇨'가 결합되었을 때 이의 형태는 아래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13) 단형서사

가. 우리는 잠시 류ᄒᆞ는 과직으로 무슴 샹관이 잇ᄂᆞ뇨[모로는 사롬을 구원홈(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5. 4)]

나. 그 비암이 지금 어ᄃᆡ 잇ᄂᆞ뇨[비암이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7. 20)]

마찬가지로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어간+뇨/느뇨'의 결합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14) 신소설

가. 십년에홀일을 다삿히면홀것이니 그리익이 엇더ᄒᆞ뇨(자유종, 4쪽)

나. 군 쇼견이 엇지그리 비루ᄒᆞ뇨(비행선, 181쪽)

다. 나의 혼인ᄒᆞᆫ후 나기다려 잔치ᄒᆞ고 고르게난우는것이 엇더하뇨(명월정, 55

쪽)

라. 셰상에 진정ᄒᆞᆫ 인도를 의론ᄒᆞᄂᆞᆫ자가 잇나뇨(금수회의록, 41쪽)

마. 션싱도 능히 그러ᄒᆞᆫ 운치와 정셩이 잇겟ᄂᆞ뇨(셩산명경, 130쪽)

바. 곤고히 부릴수 있나뇨(부부의 모본, 250쪽)

사. 학ᄃᆡᄒᆞᆯ수 잇ᄂᆞ뇨(부부의 모본, 250쪽)

아. 용서ᄒᆞᆯ수 잇ᄂᆞ뇨(고영규전, 242쪽)

따라서 '어간+뇨/느뇨'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형태가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서 최근세국어에서는 이의 형태가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의 시기를 지나서 소멸된 것으로 분석된다.

4.1.2.2.2. '어간+시/으시+뇨'

의문종결어미 '-뇨'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아래에서와 같이 사용되었으나 이의 용례는 단 두 개 밖에는 찾아지지 않는다.

(115) 신소설

가. 이러ᄒᆞ시뇨(철세계, 5쪽)

나. 셩인의 도리가 엇지 그러ᄒᆞ시뇨(셩산명경, 139쪽)

따라서 '어간+시/으시+뇨'의 어미 구성은 '신소설'에서 두 개의 용례만 보일 정도로 쓰이지 않은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간+시/으시+뇨'가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데, 이의 쓰임상 쇠퇴는 '근대계몽기'의 '신소설'에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4.1.2.2.3. '어간+더+뇨'

형용사어간과 회상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한 형태에 의문종결어미 '-뇨'가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소설'에서는 비록 이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래의 예문에서 보이고 있는 하나의 예가 전부이다.

(116) 신소설

션생이 근일에산슈됴흔곳에 유람ᄒᆞ셧다ᄒᆞ오니 어ᄃᆡ 경치가 가장아름답더뇨 (설중매, 65쪽)

따라서 '어간+더+뇨'의 결합 형태는 현대국어에서 이미 그 쓰임이 다했듯이 최근세국어에서도 그 쓰임이 쇠퇴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4.1.2.2.4. '어간+겠+느뇨'

의문종결어미 '-느뇨'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어간+겠+느뇨'와 같은 형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17) 신소설

의리에 합당ᄒᆞ겟ᄂᆞ뇨(성산명경, 135쪽)

따라서 '어간+겠+느뇨'는 '어간+시/으시+뇨'와 '어간+더+뇨' 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만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어미 구성은 더 이상 쓰지 않듯이 '신소설'에서도 이의 쓰임은 이미 쇠퇴하여 거의 쓰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곧 최근세국어에 있어서도 '어간+겠+느뇨'와 같은 결합 형태는 이미 소멸 단계에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3. '-ㄹ가'

의문종결어미 '-ㄹ가'는 형용사어간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가 결합된 형태에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의 경우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 용례가 찾아진다.

(118) 신소설

가. 져모양으로가면 하놀이무심ᄒᆞ실가(빈상설, 72쪽)

나. 이ᄢᅢᄭᆞ지 서울계실가[두견성(하), 103쪽]

이에 '어간+시/으시+ㄹ가'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1.2.4. '-지'

의문종결어미 '-지'가 동사어간과 결합하였을 때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었다. 그러나 형용사어간과 결합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그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지'는 의문법 외에 서술법에서도 쓰이는 어미이므로 구문에 따라 의문법인지 서술법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예문이 의문문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하여 아래의 예문에서는 제시되는 구문의 앞뒤에서 이어지는 다른 구문도 아울러 보인다. 본문보다 작은 글자체가 예문 외로 추가 제시되는 구문이다.

(119) 단형서사

됴흔 ᄉᆡᆼ각을 ᄒᆞ나 ᄒᆞ엿지 우리 술먹ᄂᆞᆫ 버ᄉᆞᆺ시 **잇지** 그러치 이 버릇 잇ᄂᆞᆫ 거시 ᄀᆞ만

히 ᄉᆡᆼ각ᄒᆞ니 아모 일도 아니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데[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위의 예문에서처럼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지'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하는 예는 '신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120) 신소설

가. 만득아 시원ᄒᆞ지(구마검, 6쪽)

나. 만득아 상쾌ᄒᆞ지(구마검, 6쪽)

하지만 이에 대한 용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지 않다. 따라서 '어간+지'의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이기는 하였으나 그 용례는 각각 하나와 두 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1.2.5. '-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어간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둔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2.5.1. '어간+나'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나'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1) 단형서사

가. 아모 ᄃᆡ 이러이러ᄒᆞᆫ 조고만 고개 ᄒᆞ나 업나[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

문, 1907. 11. 1)]

나. 두 놈이나 되고 또 침침칠야에 무심결이라 홀 수 잇나[밋은 나무에 곰이퓌 다(경향신문, 1907. 11. 1)]

다. 하 국슈 국슈 그것 쓸 디 잇나[동전 서 푼에 쇼쥬가 흔 통(경향신문, 1907. 11. 29)]

라. 여보게 먼 장호원까지 갈 것 잇나[동전 서 푼에 쇼쥬가 흔 통(경향신문, 1907. 12. 6)]

마. 오날밤에 헛슈고를 좀 흐여슨들 그더지 말홀 것 무엇잇나[지간 만흔 도적 놈(경향신문, 1908. 1. 31)]

바. 내가 신쟝이 될 수 잇나[군ᄉ련습 시에 살인러력(경향신문, 1908. 4. 17)]

그리고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나'의 유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22) 신소설

가. 우이무슨걱정잇누(귀의성, 3쪽)

나. 고런방정이잇누(귀의성, 7쪽)

다. 이런 밋친 무당년도 잇누(구마검, 19쪽)

라. 마암을 그러케 독흐게 쓰고셔야 ᄌ식을 보젼홀슈ᄀ 잇누(구마검, 21쪽)

마. 에그 량반님네는 이러케 경우가업나(화의혈, 64쪽)

바. 허 그런줄은 발셔부터아럿지마는 치마폭둘는녀편제가 이보다 더홀짓은업나[치악산(하), 44쪽]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나'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흔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2.5.2. '어간+았/었/였+나'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는 의문종결어미 '-나'와 결합하여 '어간+과거선어말어미+나'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례는 아래에서 보듯이 두 개만 찾아진다.

(123) 단형서사

가. 인화문 밧긔 밤늦 모혀 잇던 빅셩들이 무숨 죄가 잇섯나[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뎐보 우톄 텰도 광산은 이젼에 잇섯나.1899. 5. 10.경향문답[경향문답(독립신문, 1899. 5. 10)]

'신소설'의 경우에도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한 의문종결어미 '-나'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보다도 더 적은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124) 신소설

웨 쏘 무슨일이 잇섯나[금국화(하), 22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나'는 '단형서사'에서나 '신소설' 모두에서 거의 쓰이지 않은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4.1.2.5.3. '어간+겠+나'

의문종결어미 '-나'는 '-았/었/였-' 외에 '-겠-'과도 결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형서사'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125) 단형서사

가. 그럴 듯도 ᄒᆞ니마는 관계찬치 뭇슴 일 잇겟나[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그럴 듯도 ᄒᆞ니마는 관계찬치 뭇슴 일 잇겟나[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어간+겠+나'의 어미 구성이 쓰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26) 신소설

가. ᄌᆞ네갓치오력지안이ᄒᆞ야회복ᄒᆞᄂᆞᆫ자가어ᄃᆡ쪼잇겟나(구마검, 68쪽)

나. 나는 ᄌᆞ네만못히셔 츰고 잇겟나[구의산(상), 65쪽]

다. 아모렴 사ᄅᆞᆷ이 긔명치못ᄒᆞ면 즘싱에셔 나을것이 무엇잇겟나[구의산(하), 56쪽]

라. ᄂᆡ가 ᄌᆞ네일에 범연ᄒᆞ겟나(화세계, 45쪽)

마. 리승지집에는 홀아비 업겟나(화세계, 57쪽)

바. 숨십이넘어 남의쳡으로 도라단기는계집이 웨 귀머리가 잇겟나[치악산(하), 65쪽]

의문종결어미 '-나'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비록 두 개의 용례만 보이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간+겠+나'의 유형은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더 많이 쓰였으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2.6. '-(ㄴ)는가/고'

고영근(1981, p.8)에서는 '-ㄴ가'를 관형사형 '-ㄴ'과 첨사 '-가'의 통합구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종결어미 '-ㄴ가'는 형용사와 '이-' 및 '아니-'와 결합한다(권재일, 2005. p.70). 하지만 여기 '4.1.2.6'은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만을 다루므로 어간이 계사인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ㄴ가'와 '-ㄴ고'의 표기 환경은 앞의 '4.1.1.9'에서와 동일하다. 즉, '-ㄴ가'는 의문어의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반면 '-ㄴ고'는 의문어 있는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4.1.2.6.1. '어간+ㄴ가'

의문종결어미 '-ㄴ가'가 형용사 어간과 결합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27) 단형서사

가. 말이 됴흔 수가 낫ᄉᆞ니 너희 내 말을 드롬이 엇더ᄒᆞᆫ가[친구 심방ᄒᆞ다가 ᄆᆞᆯ을 일혓네(경향신문, 1907. 12. 27)]

나. 그ᄅᆡ 이 치운ᄃᆡ ᄀᆡ고가 엇던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ㄴ가'를 찾아볼 수 있다.

(128) 신소설

가. 그래, 엇의가, 엇더케압흔가[홍도화(하), 98쪽]

나. ᄌᆞ네ᄂᆞᆫ 다아ᄂᆞᆫ터이닛가 말이지 우리ᄃᆡᆨ 지내시ᄂᆞᆫ것이 오죽ᄒᆞᆫ가(빈상설, 61쪽)

다. 욕이, 쥬먹보다, 낫지아니한가(귀의성, 68쪽)

따라서 ‘어간+ㄴ가’의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2.6.2. ‘어간+더+ㄴ가’

‘어간+더+ㄴ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이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아래의 ‘단형서사’와 ‘신소설’ 예문에서 ‘있다’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있다’가 동사인 경우는 어떠한 곳에 벗어나지 않고 머물거나, 사람이 직장에 계속 다니거나,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는 등의 의미로 쓰일 때이다. 한편, ‘있다’가 형용사일 경우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의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ㄹ 수 있다’ 꼴로 쓰여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낼 때이다.[29] 그런데 아래의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예문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의미 및 ‘-ㄹ 수 있다’의 꼴로 쓰였으므로 이는 동사로서의 ‘있다’가 가지는 의미와는 전연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예문에서의 ‘있다’는 형용사가 된다.

(129) 단형서사

잠은 아니 오고 홀 것 무엇 잇던가[동젼 서 푼에 쇼쥬가 흔 통(경향신문, 1907. 11. 22)]

한편, ‘신소설’에서도 ‘어간+더+ㄴ가’의 용례가 찾아진다. 그리고 이 용례는 하나의 용례에 그친 ‘단형서사’에 비해 더 많이 보이고 있다.

(130) 신소설

29) 표준 국어대사전(1999) 참조.

가. 에그 하날밋헤 이런흉악훈곳도 잇던가[치악산(상), 130쪽]

나. 먼져잡ᄋ온놈이야 엇의자세 알슈잇던가[홍도화(상), 68쪽]

다. 뎌마루를, 멀졍히, 치웟더면, 이런말, 뎌런말, 업슬것을, 원슈비령방이, 말고 잇다가, 허리는, 웨압흐던가[홍도화(하), 29쪽]

라. 니가니일을 모르고잘못훈 쳐사가잇던가(빈상설, 141쪽)

따라서 '어간+더+ㄴ가'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소설'이 '단형서사'에 비해 쓰임이 더 많았음도 알 수 있다.

4.1.2.6.3. '어간+ㄴ/는고'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ㄴ/는고'가 결합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 유형은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1) 단형서사

가. 셔양 뎨국은 뎌다지 부강ᄒ고 동양 뎨국은 이다지 빈약훈고[상목지 문답(독립신문, 1898. 12. 2)]

나. 그 놈이 어듸 잇는고[군ᄉ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다. 엇지 그리 오히ᄒ는 말이 만은고[거부오해(대한매일신보, 1906. 3. 1)]

형용사어간에 종결어미 '-ㄴ/는고'가 결합된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역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132) 신소설

가. 폐일언ᄒ고그아히로명ᄒ는것이엇더훈고(구마검, 66쪽)

나. 이번젼장에 승부가 엇더훈고(자유종, 28쪽)

다. 남자도 열심으로 공부ᄒ는쟈가 드물거놀 엇던규슈도 뎌럿틋사상이 고명훈

고(설중매, 35쪽)

이처럼 '어간+ㄴ/는고'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2.6.4. '어간+았/었/였+더+ㄴ고'

어미의 구성 중에는 형용사어간에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이 결합되고 여기에 다시 회상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된 형태에 의문종결어미 '-고'가 결합되는 구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미의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다. 그리고 '신소설'에서는 쓰인 적이 있으나 그 용례는 하나에 그치고 있다.

(133) 신소설

그 흉악흔치악산에 갓다버릴때에 니마음이엇더ᄒᆞ며 니고생이엇더ᄒᆞ얏던고 [치악산(상), 164쪽]

따라서 '어간+았/었/였+더+ㄴ고'의 결합 형태는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 쓰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결합 형태는 최근세국어에서 생산적이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1.2.7. '-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어간으로 동사 외에 형용사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더-'와는 결합하지 못한다(윤석민, 2000. p.151 참조). 여기서는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만을 분석하므로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에 한해 다룬다.

4.1.2.7.1. '어간+니'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니'가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흔하게 쓰였음을 볼 수 있다.

(134) 신소설

가. 닉가아모리 아바지를 뵈압고십으나 엇더케뵈올슈가잇늬(빈상설, 67쪽)

나. 네ㅣ가 아버니 잇니(몽조, 27쪽)

다. 거긔를 갈짜달기잇니(추천명월, 37쪽)

라. 닉야, 실상, 아무상관업ᄂᆞᆫ일에, 붓들리기로, 무ᄉᆞᆫ탈할것, 무엇잇늬(귀의성, 107쪽)

마. 에그 닉가 실슈로구 젼에 어려셔ᄒᆞ던 버릇으로 지금도 ᄒᆡ라를 련ᄒᆡᄒᆞ네 ᄒᆡ라ᄒᆞ면 엇덜것 무엇잇늬(모란병, 34쪽)

바. 이왕이디경된터엔 울지말고 통곡을ᄒᆞ면 쓸ᄃᆡ잇늬(모란병, 34쪽)

사. 그ᄭᆞ지 즁학교졸업싱 리졍진이가 그리 ᄃᆡ단ᄒᆞᆯ것 무엇잇늬(금강문, 66쪽)

'어간+니'의 형태는 현대국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이 '신소설'에서도 역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일체 용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어간+니'는 '신소설'에 들어와서야 널리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날 현대국어에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4.1.2.7.2. '어간+겠+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과거선어말어미 외에 '-겠-'과도 결합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어미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135) 신소설

가. 네가아죠 늬 며느리되면엇더ᄒᆞ겟늬(모란병, 102쪽)

나. 무슨경황이 잇겟늬(송뢰금, 22쪽)

다. 에이, 밋친것, 내가아즉도, 풀어주지를, 안이햇는대, 령감이, 가보리가잇겟늬 [홍도화(하), 20쪽]

라. 부모업는 ᄌᆞ식이엇의잇겟늬(화의혈, 40쪽)

마. 오냐 아모리나ᄒᆞᄌᆞ 모진목숨을끈치는 못ᄒᆞ고 평싱을 이구석에서야 살슈가 잇겟늬[치악산(하), 114쪽]

현대국어에서 '어간+겠+니'는 널리 쓰이는 유형이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의 유형은 흔하게 쓰이고 있다. 단,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형서사'에 비해 더욱 발달된 구어체가 쓰이고 있는 '신소설'에 들어서서야 '어간+겠+니'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4.1.2.8. '-오/소'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오/소'는 어간으로 동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온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어간으로 온 경우에 한해 분석한다.

4.1.2.8.1. '어간+오/소'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오/소'가 결합된 유형은 다음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36) 단형서사

가. 암믄 졸낫기로 어머니가 나를 셜빔 ᄒᆞᆫ가지 ᄒᆞ야 준 것 무엇 잇소[백옥신년

(만세보, 1907. 1. 1)]

나. 아모리 권고ᄒᆞ나 듯지를 아니ᄒᆞ면 그 말이 쓸 ᄃᆡ 잇소[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30)]

다. ᄃᆡᆨ 집에 고용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몃치나 잇소[북촌 사는 사ᄅᆞᆷ ᄒᆞᄂᆞ이(매일신문, 1898. 9. 20)]

마찬가지로 '신소서'에서도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오/소'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유형이 쓰이고 있다.

(137) 신소설

가. 위션ᄒᆞ야ᄒᆞᄂᆞᆫ일에무엇이어려올것잇소(구마검, 46쪽)

나. 마님게셔ᄂᆞᆫ, 저럿케심병이, 되야, 지ᄂᆡ시니, 이집안이엇지될런지, 알슈가잇소(귀의성, 97쪽)

다. 누구 드를사ᄅᆞᆷ이나 업소(구마검, 11쪽)

라. 나는 ᄊᆞᆯ을 팔아오고 십흔ᄉᆡᆼ각이 더 잇지만 억지로 엇지ᄒᆞᆯ슈잇소(빈상설, 3쪽)

마. 누의님 아바지 뵈ᄋᆸ고십지안소(빈상설, 67쪽)

바. 져의들이 무엇을 알며 귀신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더구나 허무치안이ᄒᆞ오(구마검, 4쪽)

사. 만일 졸디에 한문을 업시ᄒᆞ랴면 남의집이라고 몸만 나오는것과 무엇이다르오(자유종, 13쪽)

이와 같이 '어간+오/소'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신소설'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1.2.8.2. '어간+겟+소'

의문종결어미 '-소'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였을 경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아래의 예문은 구문의 문맥만으로는 '-오/소'가 의문법의 종결어미인지 평서법의 종결어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문에서의 '-소'가 의문종결어미임을 보이기 위하여 이의 예문 앞뒤에 있는 다른 구문도 함께 제시한다. 아래에서 본문보다 작은 글씨체의 구문은 예문 보완용으로 제시된 구문이다.

(138) 단형서사

그 동리에 안감찰을 마츰 맛나 슈인ᄉ ᄒ고 널ᄋ되 릭일 일긔가 **됴켓소** 못흘 듯 ᄒ외다[군ᄉ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0)]

의문종결어미 '-오/소'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형태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는 하나의 용례만 있다. 한편, '신소설'의 경우에도 '어간+겠+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39) 신소설

가. 여보마누라, 경필이둘지아들를, 다려다가, 키우면엇더하갯소(귀의성, 91쪽)

나. 그러면 엇터케힛스면 됴켓소(화의혈, 12쪽)

다. 긔왕자식을 공물이라 말슴ᄒ셧스면 공물이만어야 됴켓소 공물이젹어야 됴켓소(자유종, 30쪽)

'신소설'의 경우에는 '단형서사'에 비해 용례가 다소 많이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용례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례가 비록 적지만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의문종결어미 '-오/소'와 같은 형태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

4.1.2.8.3. '어간+리/으리+오'

의문종결어미 '-오/소'가 미래선어말어미 '-리/으리-'와 결합한 경우 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0) 단형서사

가. 이에셔 더 큰 션공이 어딕 잇ᄉ리오[쇠가 무거우냐 새 깃이 무거우냐(경향신문, 1907. 11. 15)]

나. 강산이 다 써나갓스니 엇지 아니 원통ᄒ리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9)]

다. 그 빅셩의 졍도로 엇지 된다는 일과 ᄒᆞᆯ 수 잇다는 말이 잇스리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9)]

라. 셜마라 ᄒᆞᄂᆞᆫ 지각이야 남어 잇스리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30)]

마. 무삼 의심이 잇스리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23)]

바. 우리가 속아셔 ᄉ외를 삼앗스니 세상에 이런 변괴가 어딕 잇스리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0. 31)]

사. 금일은 우리가 영결ᄒᆞᄂᆞᆫ 날이오니 이런 변이 어딕 잇스리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1. 1)]

이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어간+리/으리+오'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형서사'의 경우와 같이 이의 용례는 쉽게 찾아진다.

(141) 신소설

가. 셔양풍속이라고 엇지 다 아람다오며 우리나라풍속이기로 다 악ᄒ리오(설중매, 18쪽)

나. 이러케 노는거시 엇지고인만 못ᄒ리오(성산명경, 132쪽)

다. 엇지잘못홈이 잇스리오(성산명경, 139쪽)

라. 엇지 불교보다 더큰도가 잇스리오(성산명경, 143쪽)

마. 엇지 이러흔 일이 잇스리오(성산명경, 144쪽)

바. 부모도미 들수가업고, 남편도쓸써업는, 이세상에, 누구를바라고사라잇스리오(귀의성, 38쪽)

그러므로 의문종결어미가 '어간+리/으리-'의 형태와 결합한 유형의 경우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최근세국어에서는 '어간+리/으리+오'의 유형이 대화체에서 자주 쓰이는 어미 구성이었음이 확인된다.

4.1.2.8.4 '종결어미+오'

한편, 의문종결어미 '-오'는 다른 종결어미와도 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이때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가'로서 역시 의문종결어미이다. 따라서 이의 어미 구성인 '-가+오'는 의문종결어미가 중첩 결합되는 특이한 형태를 갖는다. 단, 여기서 의문종결어미 '-가'와 결합하는 어간은 형용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142) 신소설

가. 이산소는더볼것업거니와션왕쟝산소는어듸계신가오(구마검, 42쪽)

나. 그써가셔는 장파흐기로 무엇이라고 한가홀가오(원앙도, 32쪽)

다. 하나룰알고 둘은모르시는것이 북그럽지 아니흐신가오[금국화(하), 46쪽]

라. 광나루 별장에셔 슈심에 싸여잇는 우리언니는 참 엇더케허고 잇슬가오[금국화(하), 55쪽]

마. 아 영감 엇더케흐면 죠흔가오[금국화(하), 61쪽]

그런데 의문종결어미 '-오'가 의문종결어미 '-가'의 뒤에서 결합한 이러한 형태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대신 첨사 '-요'가 의문종결어미 '-가'의 뒤에서 결합되어 '-가+요'와 같이 '-요' 통합체로써 쓰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세국어에서 대화체에 널리 쓰이던 '-가+오'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가+요'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가 통시적으로 15세기의 의문종결어미 '-오'에서 발달한 것이므로30) '-가+오'가 '-가+요'로 대체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4.1.2.9 '-ㅂ니까'

의문종결어미 '-ㅂ니까'가 '-ㅁ잇가'의 형태로서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경우는 동사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143) 신소설

가. 아버지 언의시골로 닉려가 계셧스며 어머니도 큰병환이나 안니계심잇가(모란병, 73쪽)

나. 나으리 계심잇가(모란병, 30쪽)

다. 아이 그것은 무얼 그리심잇가[금국화(하), 36쪽]

라. 어머니 어머니 몸이곤ᄒᆞ시다더니 좀 엇더ᄒᆞ심잇가(금강문, 13쪽)

마. 어머니 웨 그리심잇가(금강문, 13쪽)

따라서 '-ㅁ잇가'의 형태로써 형용사어간과 결합하는 유형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ㅂ니까'의 옛말 형태인 '-ㅁ잇가'를 '신

30) 김정시(1993, 17) 참조.

소설'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10 '-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둔다. 여기 '4.1.2.10'은 형용사가 어간으로 온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4.1.2.10.1. '어간+나이까'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결합된 경우 이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 용례를 볼 수 있다.

(144) 신소설

멋가지 등분이나 잇나잇가(성산명경, 152쪽)

그러나 '신소설'에서도 이의 유형은 한 번만 찾아진다. 이에 '어간+나이까'는 쓰임이 극히 미미하여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전혀 없었으며 '신소설'에서는 단지 하나의 용례만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의문종결어미 '-나이까'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미이므로 적어도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의 쓰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대국어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의 쓰임은 거의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와 다른 현상이므로 작품의 문맥상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의 '어간+나이까'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 용례가 '단형서사'와 '신소설'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오직 하나의 예만이 보이므로 이를 단지 문맥상 쓰이지 않은 것으로만 처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맥상 쓰이지 않은 점도 있으나 '어간+나이까'에서 어간이 동사인 경우보다 형용사인 경우에 이의 쓰임이 더 빨리 쇠퇴하였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4.1.2.10.2. '어간+삽/옵+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형용사어간에 결합된 공대선어말어미 '-삽/옵-'과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찾아지나 이 역시 '-나이까'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용례만 찾아질 뿐이다.

(145) 신소설

알수잇슴ㄴ잇가(박연폭포, 190쪽)

그러므로 '어간+삽/옵+나이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최근세국어에 이미 그 쓰임이 쇠퇴하여 현대국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4.1.2.10.3. '어간+겠+삽+나이까'

의문종결어미 '-나이까'는 '어간+겠+삽-'의 형태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6) 단형서사

뎌러흔 난봉의게 무숨 계집이 잇겟숨ㄴ잇가[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흠(1902. 2. 15)]

다만 이의 용례가 하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하나나마도 용례가

없어 '어간+겠+삽+나이까'의 어미 구성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미 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최근세국어에서는 이미 그 쓰임이 쇠퇴하여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4.1.2.11. '-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ᄂᆞ니잇가'에서 '-ᄂᆞ-'를 생략한 형태로서(김형철, 1997. p.336) 이의 지난 표기는 '-니잇가'가 된다. '-니잇가'는 현대국어에서 '-니이까'로 표기되므로 이는 '-니잇가 > -니이짜 > -니이까'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문종결어미는 동사를 어간으로 두기도 하고 형용사를 어간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종결어미 '-니잇가'에 대해 여기 '4.1.2.11'에서는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분석한다.

4.1.2.11.1. '어간+니이까'

형용사어간에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된 경우는 다음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7) 단형서사

나도 이 다음 강론ᄒᆞᆯ ᄣᅢ에 ᄒᆞᆷᄭᅴ 와셔 연셜 ᄒᆞᆫ마듸 ᄒᆞᄂᆞᆫ 거시 엇더ᄒᆞ니잇가
[셩심긔도(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11. 17)]

이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다음과 같이 형용사어간에 '-니이까'가 결합된 유형이 보인다.

(148) 신소설

가. 소견을 밝히ᄀᆞᄅᆞ쳐 주심이 엇더니잇가(성산명경, 132쪽)

나. 텬륜의 리치는 엇더ᄒᆞ니잇가(성산명경, 151쪽)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하나의 용례만 찾아지고 '신소설'에서는 두 개의 용례만 보인다. 따라서 '어간+니이까'의 형태는 쓰임상에 있어서 최근세국어의 시기에 이미 쇠퇴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1.2.11.2. '어간+오+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한 공대선어말어미 '-오-'하고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경우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가 찾아진다.

(149) 단형서사

가. 밤이 십헛스니 취침ᄒᆞᄂᆞᆫ 거시 엇더ᄒᆞ오닛가[령남 안동 ᄯᅡ에(제국신문, 1906. 9. 18)]

나. 뎨 승미ᄃᆡ로 ᄌᆞ라게 두ᄂᆞᆫ 거시 엇더ᄒᆞ오니잇가[악ᄒᆞᆫ 나무에 됴흔가지롤 졉붓치ᄂᆞᆫ 비유라(1897. 6. 16)]

다. 심산궁곡에 홀노 계시오니잇가[광안싱이라는 사룸이(매일신문, 1898. 12. 14]

그리고 위의 '어간+오+니이까'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150) 신소설

가. 졔가 무엇이 그다지흉악ᄒᆞ고 간특ᄒᆞ오닛가(화의혈, 33쪽)

나. 큰집쓰러지ᄂᆞᆫᄃᆡ 한나무로 벗틔지못홈(大廈將傾非一木可支)은 확연ᄒᆞᆫ리치가 아니오닛가(화의혈, 12쪽)

다. 실례오나 놉흐신셩씨는 누구시며 함ᄌᆞ는 누구시며 덕은 어듸 계시오닛가(화세계, 91쪽)

라. 우리불가의 목젹은 고ᄒᆡ에빠진 즁ᄉᆡᆼ을 건져쥬고ᄌᆞ ᄒᆞᆷ이 아니오닛가(금강문, 120쪽)

따라서 형용사어간에 결합된 공대선어말어미 '-오-'에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되었을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어간+니이까'나 '어간+오+니이까'의 경우와는 달리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그래도 '어간+오+니이까'의 용례가 더 많이 찾아지고 있어 쓰임에 있어서 이들 형태보다는 다소 덜 쇠퇴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4.1.2.11.3. '어간+으+ㅂ니이까'

'신소설'에서는 어간과 어미 사이의 소리를 고르는 음절인 '-으-'가 형용사어간과 결합되고 '-으-'의 뒤에서는 의문종결어미 '-ㅂ니이까' 다시 결합된 유형이 쓰인다. 이러한 유형은 현대국어에서 '어간+습니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은 '어간+습니까'를 쓰는 현대국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최근세국어의 시기에서는 이러한 어미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151) 신소설

가. 이제와셔는 가도 오도 잇도 다 못ᄒᆞ게 되엿ᄉᆞ오니 엇지 ᄒᆞ면 죠흠닛가(송뢰금, 83쪽)

나. 학교교ᄉᆞ 여러분의 덕턱으로 졸업은ᄒᆞ얏스ᄂᆞ 아모것도 아는것은업스니 무엇이조흠닛가(추월색, 45쪽)

따라서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미 구성이 되는 이와 같은 유형도 '신소설'에서는 쓰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쓰이지 않았

으며 '신소설'에서도 위의 두 개의 용례 외에는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은 보편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송뢰금'의 작가는 '육정수'이고 '추월색'의 작가는 '최찬식'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어느 한 작가에 의한 어미 구성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미 구성이지만 최근세 국어 시기의 경우 많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미 구성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1.2.11.4. '어간+시/으시+ㅂ니이까'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에 의문종결어미 '-ㅂ니이까'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52) 단형서사

년세가 죠음 만으심닛가[밋은 나무에 곰이뛰다(경향신문, 1907. 10. 18)]

'단형서사'의 경우 '어간+시/으시+ㅂ니이까'의 형태는 한 번 찾아진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찾아지고 있다.

(153) 신소설

가. 츈쳔셔올러오신, 마님은어는방에계심니ᄭᅡ(귀의성, 33쪽)

나. 여긔안져계심닛가(구마검, 39쪽)

다. 로마누라님은, 계동ᄃᆡᆨ에혼ᄌᆞ게심닛가(귀의성, 85쪽)

라. 셔방님계셔야 앗씨쎄향ᄒᆞᆫ 마암이 좀 ᄃᆡ단ᄒᆞ심닛가[치악산(상), 6쪽]

따라서 어간이 형용사로서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에 '-ㅂ니이까'가 결합된 경우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1.2.11.5. '어간+슴+니이까'

앞의 '4.1.2.11.3'에서 '-습니까'에 대해 대응되는 '으+ㅂ니이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근대계몽기'에서는 '-습니까'에 대하여 '-으+ㅂ니이까' 형태로만 쓴 것은 아니다. 아래 '단형서사'의 예문에서 보듯이 '-습니까'의 형태로도 썼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보인다.

(154) 단형서사

마님 마님게셔 근심ᄒᆞ시기로 쓸 데 잇슴닛가[화수(대한민보, 1909. 6. 2)]

오늘날 대화체에서 쓰이고 있는 '-습니까'에 대해 김형철(1997, p.336)에서는 '-습ᄂᆞ잇가 > 습닛가 > 습니까'로 축약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습니까'로 쓰인 '-슴닛가'는 '-슴+니잇가'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어미의 구성은 곧 '어간+습+니이까'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5) 신소설

가. 부모의 은혜를 갑지는 못ᄒᆞᆯ지언뎡 부모의한될일을 장만ᄒᆞ여 드릴슈야 잇슴니가[치악산(상), 49쪽]

나. 쉰네가알수잇슴닛가(귀의성, 62쪽)

다. 아모리 후회가 나기로 ᄒᆞᆯ수가잇슴닛가(모란병, 87쪽)

라. 그릭 되라구 헐 수 있슴닛가(몽조, 28쪽)

마. 몰나뵈옵기에 그리힛지 리셔방님인쥴 알고셔야 그리ᄒᆞᆯ가망이 잇슴닛가(빈상설, 145쪽)

따라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슴닛가'처럼 현대국어에서의 '-습니까'와 같은 구성이 되는 형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최근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미 구성인 '-으+ㅂ니잇가'의 형태와 더불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습니까'와 동일한 어미 구성이 되는 '-슴+니잇가' 형태 모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1.2.11.6. '어간+시/으시+었/였+습+니이까'

형용사어간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가 결합되고 이에 다시 과거선어말어미 '-었/였-'이 결합된 형태에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에 있어서 '단형서사'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의 용례를 볼 수 있다.

(156) 신소설

오월에 그봉변을 ᄒᆞ셧다는ᄃᆡ 지금ᄭᆞ지 거긔계셧슴니가(모란병, 75쪽)

그러나 '신소설'에서도 이의 유형은 단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따라서 '어간+시/으시+었/였+습+니이까'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은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 널리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세국어에서 이러한 결합의 형태는 생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1.2.11.7. '어간+겠+습+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형용사어간+겠+습-'의 형태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반면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이 찾아진다.

(157) 신소설

가. 죽을슈 밧게 더 잇겟슴닛가(송뢰금, 83쪽)

나. 서방님게서야 공부만잘ᄒᆞ시면 아모리긔화판이라도 누가우누를 ᄉᆞ롬이 잇

겟슴닛가(빈상설, 24쪽)

다. 우슴에 말숨이지 웃지그럴리치 잇겟슴닛가(화중화, 7쪽)

따라서 '어간+겠+습+니이까'와 같은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만 쓰였던 유형임이 확인된다.

4.1.2.11.8. '어간+종결어미+시/으시+니이까'

의문종결어미는 특이하게도 종결어미에 결합한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시/으시-'와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야'가 된다. 이와 같은 어미 구성은 오직 '단형서사'에서만 보이고 있다.

(158) 단형서사

그 돈 밧아간 쟈는 곳 소인이어니와 상데님의 쳐디가 엇지ᄒᆞ야 이다지 빈궁ᄒᆞ야시니잇가[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2)]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어미 구성은 전형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단형서사'에서도 이의 어미 구성은 용례가 한 번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은 '근대계몽기'의 작품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이러한 결합 형태가 최근세국어에서 이미 소멸단계에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12. '-리이까'

의문종결어미 '-리이까'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어간으로 놓인다. 여기서는 어간으로 형용사가 온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4.1.2.12.1. '어간+오+리이까'

'-리이까'는 종결어미 '-오'와 결합하여 '-오리이까'의 형태로서 의문종결어미로 쓰인다. 이러한 의문종결어미 '-오리이까'는 형용사어간과 결합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은 볼 수 없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159) 신소설

가. 차차 엇지ᄒᆞ던지 ᄒᆞ시면 엇더ᄒᆞ오릿가(박연폭포, 209쪽)

나. 그런 망상이 종종 심셩을 침범ᄒᆞ오니 엇지황송치 아니ᄒᆞ오릿가(금강문, 131쪽)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어간+오+이리까'의 형태가 '신소설'은 물론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따라서 형용사가 어간인 경우 이의 유형이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구문의 이야기 전개상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의 어미 구성은 비록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 미루어 보아 최근세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쓰였던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 형태이므로 생성기가 아니라 소멸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2.12.2. '어간+사오+리이까'

공대선어말어미 '-사오-'가 형용사어간과 결합하고 이에 다시 의문종결어미 '-리이까'가 결합한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160) 신소설

가. 딴셔방엇기를ᄒᆞ면 텬하에 신의라ᄒᆞ는것이 웨잇ᄉᆞ오릿가(화중화, 23쪽)

나. 쳡이비록 분골쇄신이 된들 웃지 장부를비반ᄒᆞ고 다른뜻이잇ᄉᆞ오릿가(화중화, 23쪽)

다. 정실이라도 절개업는ᄉᆞ롬 오작마느며 쳔인이라도 의리잇는ᄉᆞ롬 웃지젹ᄉᆞ오릿가(화중화, 31쪽)

라. 대셩인아닌외에 자고로 허물업는사롬 어ᄃᆡ잇사 오릿가(화중화, 43쪽)

그런데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어간+사오+리이까'의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어미 구성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1.3. 계사+의문종결어미

계사 '-이-'는 의문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의문법에 쓰이기도 한다. 여기 '4.1.3'에서는 '계사+의문종결어미'로 된 모든 유형의 어미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4.1.3.1. '-냐'

계사는 의문종결어미 '-냐'와 결합하여 '-이+냐'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161) 단형서사

가. 무슨 소문이냐[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럭력(경향신문, 1908. 4. 10)]

나. 무숨 일이냐[님금의 ᄆᆞ옴을 용케 돌님(경향신문, 1907. 11. 8)]

다. 그 ᄭᅥ진 일을 못ᄒᆞᆫ단 말이냐[밋은 나무에 곰이뛰다(경향신문, 1907. 10. 18)]

마찬가지로 '신소설'의 경우도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계사와 의문종결어미 '-냐'가 결합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162) 신소설

가. 이놈쏘복아 네가엇더케 쥭을터이냐(빈상설, 72쪽)

나. 네아비 년갑되는 사람다려 횡셜슈셜이라는 것도법이냐(빈상설, 71쪽)

다. 에기밋친놈 그게무슨소리냐(빈상설, 55쪽)

라. 누가나를 보니줄터이냐(빈상설, 67쪽)

마. 사람이 오륜이업스면 금슈나일반이어든 상놈이량반들ᄒᆞ는일은 잘ᄒᆞ는지못ᄒᆞ는지 모르겟다만은 이놈너ᄶᅡ지그모양이냐(빈상설, 72쪽)

바. 우리갓흔, 상사룸이, 수절이, 다무어시냐(귀의성, 35쪽)

사. 이ᄋᆡ, 그거시, 참춘천집이냐(귀의성, 24쪽)

이와 같이 '-이+냐'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며 특히 '신소설'에서는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이+냐'가 널리 쓰이고 있듯이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어미 구성이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4.1.3.2. '-뇨'

의문종결어미 '-뇨'는 '-냐'의 옛말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형태에서의 이형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옛말 형태는 별도로 다루므로 '-뇨'도 '-냐'와 별도로 분석한다.

계사는 의문종결어미 '-뇨'와 결합하여 '-이+뇨'의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형태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3) 단형서사

가. 그림이 엇지흔 리치뇨[녯젹에 셔양 어늬 나라에(매일신문, 1899. 1. 27)]

나. 염라부는 망국 민족의 세계가 되겟슨즉 그 아니 걱정이뇨[디구셩 미릐몽(대한매일신보, 1909. 7. 18)]

다. 쩍을 밧게 흐엿는지 그 아니 분흐고도 통곡홀 일이뇨[디구셩 미릐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8)]

라. 씨긋히 죽는 것은 무엇이뇨[용밍흔 장ᄉ 김쟝군(경향신문, 1909. 5. 14)]

마. 그 가진 거시 무어시뇨[로인의 부부지락(1901. 12. 19)]

바. 로인의 가진 거시 무엇시뇨[로인의 부부지락(1901. 12. 19)]

사. 그 돈이 젼환국을 셜시흐고 쥬젼흔 것이뇨.[량인문답(독립신문, 1899. 7. 6)]

아. 어츠어피에 시골셔는 도시 견될 수가 업거니와 셔울셔는 무엇이 걱정이뇨[어느 시골 친구 흐나이(독립신문, 1899. 11. 2)]

자. 병풍 뒤에 무숨 인젹이 잇스니 이것이 무숨 곡절이뇨[녯젹에 우리나라에(제국신문, 1900. 2. 20)]

차. 서로 갓지 아니홈은 엇지 홈이뇨[녯적에 졔나라 사롬이(매일신문, 1899. 3. 28)]

카. 졔갈공명은 엇더흔 사롬이뇨[엇더흔 션비가(제국신문, 1899. 10. 23)]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계사에 의문종결어미 '-뇨'가 결합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64) 신소설

가. 그러흔 산천토디가 어딕뇨(경세종, 41쪽)

나. 앗가부터 안식이불평흐니 엇진연고이뇨(설중매, 16쪽)

다. 그러홀진딕 무삼불평흔일이 잇슴이뇨(설중매, 16쪽)

라. 무삼일을일음이뇨(설중매, 64쪽)

마. 살수잇다 홈이뇨(성산명경, 170쪽)

바. 학싱은 어딕살며 셩명은무엇이뇨(금의쟁성, 55쪽)

사. 쳐녀의 일홈은 무엇이뇨(금강문, 107쪽)

아. ᄒᆞ는거시 엇짐이뇨(고영규전, 234쪽)

자. 그날은장찻싱남싱녀ᄒᆞ고 빅년히로할텬싱비필을 맛는날인즉 그날이 오작죠흔날이뇨(안의성, 37쪽)

차. 학싱은 어딕살며 셩명은무엇이뇨(금의쟁성, 55쪽)

카. 자긔는 녀ᄌᆞ가되야 그부모의게 쓸딕업는자식으로 그쥬견이 엇지ᄒᆞᆫ쥬견이뇨(금강문, 35쪽)

이와 같이 계사에 의문종결어미 '-뇨'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상당히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들에 쓰인 의문종결어미 '-뇨'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대신 '-냐'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의 작품인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냐'와 더불어 '-뇨'가 여전히 왕성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화체에 있어서 '-뇨'의 완전한 소멸은 최근세국어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1.3.3. '-야'

의문종결어미 '-야'는 범용어미 '-어'가 계사와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소설'의 경우 '단형서사'와는 달리 널리 쓰이고 있었다.

(165) 신소설

가. 글세 돈이 어셔난 돈이야(빈상설, 5쪽)

나. 에그져게 누구들이야(빈상설, 110쪽)

다. 인제가, 다, 무어시야(귀의성, 82쪽)

라. 뎌게 명식이 무엇이야(모란병, 38쪽)

마. 이게 웬 돈이야(몽조, 26쪽)

바. 아 이놈아 무엇이야(화중화, 17쪽)

사. 이짜진말이 다 무슨말이야(화중화, 21쪽)

아. 으 응 그게 무슨말이야(화의혈, 87쪽)

자. 큰마누라님 쫏기여가신것을 녀탓을홀ᄭ닭이무엇이야[치악산(하), 59쪽]

차. 응 응 이게 웬일이야[치악산(하), 109쪽]

현대국어의 경우 '-이+야'의 유형은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부터 이미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단형서사'에서는 이에 대한 용례가 없는데 '-이+야'가 의문법이 아닌 서술법인 경우에는 '단형서사'에서도 이의 유형이 쓰였으므로 '단형서사'에서 의문법상 이에 대한 용례가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어미 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맥상 이런 유형이 쓰일 상황이 없어서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1.3.4. '-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동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둔다. 그리고 이외에 계사를 어간으로 두기도 한다. 여기서는 어간으로 계사가 놓인 경우만 다루므로 동사어간과 형용사어간은 논외로 한다.

4.1.3.4.1. '-겠+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계사와 결합한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이+겠+니'의 어미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는 일체 쓰인 바 없다. 다만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보이나 용례는 두 개만 찾아질 정도로 쓰임이 극히 미약하다.

(166) 신소설

가. 늬 몸좀 앏흔것이야 무슨 것정이겟늬(화세계, 18쪽)

나. 암 벼술쁜이겟늬(목단화, 55쪽)

따라서 '-이+겠+니'의 어미 구성에 있어서 '단형서사'의 경우 쓰임이 전혀 없고 '신소설'에서만 두 차례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어미 구성이다. 그러므로 이의 형태가 '신소설'에서만 두 차례 보이는 것은 쓰임에 있어서 '-이+겠+니'의 쇠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초를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형서사'보다 구어체가 더 발달된 '신소설'에 들어서서야 '-이+겠+니'와 같은 유형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4.1.3.4.2. '-종결어미+니'

의문종결어미 '-니'는 어간 외에 종결어미하고도 결합을 한다. 때문에 '계사+종결어미+니'와 같은 형태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미 구성에서 종결어미로는 '-라'가 온다. 여기서 '-라'는 종결어미 '-다'의 변형이다. 따라서 '-이+라+니'는 '-이+다+니'의 변형된 형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다+니'로 쓰이지는 않는다. '단형서사'에서는 '-이+라+니'로 된 어미 구성을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보이고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두 개만 찾아진다.

(167) 단형서사

가. 내 집에 내가 오는 것을 무슨 바람이라니[화수(대한민보, 1909. 6. 13)]

나. 어- 소년이라니[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의문종결어미 '-니'가 종결어미 '-라'와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문은 의문문임을 보이기 위하여 용례의 앞뒤 구문을 같이 적는다. 활자가 작은 것이 용례 외의 구문이다. 예문에서 괄호안의 인물은 화자이다.

(168) 신소설

가. (노파) 마님 일싱 말심ᄒᆞ시던 국슈당 만신이 하도 소문이 낫기에 지금가셔 리일로 일을 맛치고 왓슴니ᄃᆞ

(최씨) 국슈당만신이라니 금방울말인가

(노파) 네네 금방울이올시ᄃᆞ(구마검, 13쪽)

나. 부인의말소리가 최본평의귀구넉으로 쏙드러갓다

(최본평) 응- 불온ᄃᆞᆼ이라니 불온ᄃᆞᆼ이어ᄃᆡ로드러와

ᄒᆞ며 벌덕이러나셔 안으로는문을 왈ᄏᆞᆨ여흐는ᄃᆡ(은세계, 7쪽)

다. 그 말슴을 맛치지못ᄒᆞ야 본평부인이 쇼리를 버럭지른ᄃᆞ무엇이냐

응 불효라니 이놈 네가 ᄂᆡ돈을 빗셔먹으랴고 누구더러 불효부데라 ᄒᆞ나냐(은세계, 133쪽)

라. 모감쥬를 구참령주어 패물ᄎᆞ즈러 보ᄂᆡ던일을 력력히 리약이를ᄒᆞ니 슈월암이 깜짝놀나며

(수월암) 필공이가 구참령이라니 그량반이 엇더케되여셔 필공이로 나섯드란말이냐(화세계, 118쪽)

마. (이참관) 그릐 계집아희가 학교에 단기면 다버리나 졔가 ᄂᆡ즈식을 쫏치면쫏쳣지 욕셜은 웨…

(양복 입은 손님) 응 욕셜 욕셜이라니 욕셜은무엇이라구(목단화, 3쪽)

바. 히묵은 비로소 아ᄶᅡ 신옥균의 웃든것이 반다시 의미가 잇셧슴을 ᄭᅢ다랏도다

아 우리집 명영이라니 무슨 명영이란 말인가 그릐 우리 집에셔 무슨 일이 잇는가

[금국화(하), 98쪽]

사. (방자) 내가 아씨더러 무슨욕ᄒᆞ엿소 말솜ᄒᆞ랴거든 져건너가셔 쇠비장나리뵙고 ᄒᆞ시구려

(초월) 쇠비장이라니 아 이놈아 쇠비장이라는것이 무어말나 죽은것이냐(화중화, 17쪽)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에 비해 그 용례가 더 많이 찾아진다. 따라서 '신소설'에서 이의 유형에 대해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의 유형은 현대 국어의 대화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어미 구성이다. 이에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단형서사'보다 대화체가 더 발달된 '신소설'에 이르러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3.5. '-ㄹ라고'

의문종결어미 '-ㄹ라고'는 동사 외에 계사와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단형서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도 '계사+ㄹ라고'와 같은 용례는 하나밖에 찾아지지 않는다. 예문은 의문문임을 보이기 위하여 용례의 앞뒤 구문을 아울러 보인다. 활자가 작은 구문이 용례 외의 구문이다.

(169) 신소설

(남편) 그런말을 어ᄃᆡ셔 드릿소

(부인) 그러면 영감갓치 밤중일라구

(남편) 앗ᄯᅡ 그리고 져리고 걱정을마라요 차차 되눈수가 다 잇스니(금강문, 39쪽)

하지만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의 유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ㄹ라고'의 형태는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서 현대국어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4.1.3.6. '-ㄴ가'

계사에는 '-ㄴ가'가 결합되어 의문법에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170) 단형서사

가. 그게 무엇이론 명식인가[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야 이 사룸 이게 무슴 말인가[동젼 서 푼에 쇼쥬가 훈 통(경향신문, 1907. 11. 22)]

다. 춋는 거시 술 뿐인가[동젼 서 푼에 쇼쥬가 훈 통(경향신문, 1907. 11. 29)]

라. ᄌ네 싱각에는 쇼쥬 훈 잔에 얼마 식이나 밧을 ᄆ옴인가[동젼 서 푼에 쇼쥬가 훈 통(경향신문, 1907. 11. 29)]

마. 그 쇼쥬는 ᄌ네 쇼쥬 뿐인가[동젼 서 푼에 쇼쥬가 훈 통(경향신문, 1907. 11. 29)]

바. 이 무슴 말인가[친구 심방ᄒ다가 몰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사. 야 이 사룸 그것도 모론단 말인가[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8)]

아. 누가 증인인가[군ᄉ련습 시에 살인러력(경향신문, 1908. 4. 3)]

자. 엇더케 하는 물인가[거부오해(대한매일신보, 1906. 2. 23)]

차. 그듸가 진짓 몰으로 ᄒ는 말인가[거부오해(대한매일신보, 1906. 2. 24)]

카. 지금이라도 ᄌ네믄 쏙쏙ᄒ면 무엇을 못홀 터인가[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의 경우처럼 '계사+ㄴ가'의 유형이 사용되었다. 이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71) 신소설

가. 여보게 아들인가 ᄯᅡᆯ인가(은세계, 80쪽)
나. 국슈당만신이라니 금방울말인가(구마검, 13쪽)
다. 응, 그거시누구란말인가(귀의성, 61쪽)
라. 도적이, 발이저리다도, 허다ᄒᆞᆫ사ᄅᆞᆷ에, 자네혼자, 저렷케겁놀거시, 무엇인가 (귀의성, 27쪽)
마. 어ᄃᆡ그러한거시, 당연이바들 것, 인가(귀의성, 4쪽)
바. 져즁문ᄡᅡᆫ에교군이, 왼교군인가(귀의성, 23쪽)
사. 대장부가 술을 먹지 아니ᄒᆞᆫ단말인가(설중매, 45쪽)
아. 그ᄃᆡ는 그신문에 게ᄌᆡ된녀자를일즉이 아는사ᄅᆞᆷ인가(설중매, 67쪽)
자. 그부모의 사속이 ᄭᅳᆫ이는것을 ᄉᆡᆼ각지안코 ᄌᆡ산을 욕심ᄂᆡ여 그리ᄒᆞ는ᄯᅳᆺ인가 (금강문, 35쪽)
차. 엇더케 흉측ᄒᆞᆫ말을ᄒᆞ더란말인가(금강문, 47쪽)
카. 무슨 ᄉᆡᆼ각을그리 골도이 ᄒᆞ엿단말인가(화중화, 10쪽)
타. 그일로 못잇쳐 병이되겟단말인가(화중화, 11쪽)

계사에 의문종결어미 '-ㄴ가'가 결합된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도 역시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계사+ㄴ가'의 유형이 널리 쓰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최근세국어의 시기에서도 이미 왕성하게 쓰이던 어미 구성이라 할 것이다.

4.1.3.7. '-ㄴ고'

'-ㄴ고'는 의문종결어미 '-가'의 옛말 형태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점잖은 말투로서의 의문종결어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종결어미가 계사와 결합하였을 경우 이의 용례는 다음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72) 단형서사

가. 남의 집들을 부신다 통곡들을 혼다 뎌것이 무슴 모양인고[병뎡의리(독립신문, 1898. 11. 23)]

나. 그 사룸들 셰력은 다 무엇시란 말인고[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다. 숡장ᄉᆞ를 ᄒᆞ면 숡장ᄉᆞ의 닉외가 다 무엇이란 말인고[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10. 3)]

'계사+ㄴ고'의 형태는 위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 세 개의 용례를 볼 수 있다.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는데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 비해 보다 더 많이 찾아진다.

(173) 신소설

가. ᄌᆞ네는그뜻을아지못ᄒᆞ고도로혀구츅ᄒᆞ며미워ᄒᆞ엿스니ᄌᆞ네가잘못이지무엇인고(구마검, 65쪽)

나. 웅, 덕사, 어는절즁인고(귀의성, 100쪽)

다. 계집이, 다, 무엇인고(귀의성, 66쪽)

라. 이사룸아 이것이웨일인고(화중화, 24쪽)

마. 이놈 외숨촌이되면셔 방물장ᄉᆞ를 보닉 싱질녀의 혼인을 이간ᄒᆞ짜돍이 무슨짜돍인고(금강문, 95쪽)

바. 응 그게 무슨요망인고[구의산(상), 66쪽]

사. 그런딕 혼례는 어느날인고[두견성(하), 124쪽]

따라서 '계사+ㄴ고' 유형은 '단형서사'보다 '신소설'에서 더욱 활발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계사+ㄴ고'는 현대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으나 대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사용하며 그나마 자주 쓰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의 쓰임이 왕성하여 현대국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계사+ㄴ고'는 최근세국어에서도 활발하게 쓰였으나 현대국어에 들어와 그 쓰임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4.1.3.8. '-오'

'-오'는 서술법 외에 의문법에서도 종결어미로 사용된다. 이때 계사와 결합하여 '-이+오'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4) 단형서사

가. 로인이 이 밤즁에 엇지 가신단 말이오[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0. 25)]

나. 셥셥흔 거시 무어시오[조곰 어그러지는 밋음(1901. 5. 30)]

다. 남편도 계시고 즈녀도 몃히나 두엇스며 뎐토가산은 얼마요[군스련습시에 살인력력(경향신문, 1908. 4. 17)]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와 같이 '계사+오'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75) 신소설

가. ᄂᆡ가누구다려악담을힛드란말ᄉᆞᆷ이오(구마검, 29쪽)

나. 에구복단이네 아자씨요 엇의가시ᄂᆞᆫ길이오(빈상설, 60쪽)

다. 무슨일이 그리급ᄒᆞ시단말이오(빈상설, 61쪽)

라. 금슈에지남이 멀지아니ᄒᆞ니 사람이라ᄒᆞᆯ것이 무엇이요(빈상설, 68쪽)

마. 그ᄃᆡ말은 ᄒᆞ나마나 무슨일이오(구마검, 11쪽)

바. 압다, ᄆᆞ누라소원ᄃᆡ로, ᄒᆞ믄밧게, ᄯᅩ엇지ᄒᆞ란말이오(귀의성, 29쪽)

사. 우리가츄후로, 을나ᄀᆞᆫ다ᄒᆞ기로, 말이그러ᄒᆞ지, 쉬운일이오(귀의성, 10쪽)

아. 여보, 마루에들리면엇지ᄒᆞ려고, 그거슨, 다, 무슨소리오(귀의성, 30쪽)

자. 아ᄶᅡ말삼ᄒᆞ던것은 엇지ᄒᆞᆯ터이오(설중매, 22쪽)

차. 셔방님 아지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에게셔 돈이왓단말삼이오(설중매, 25쪽)

의문종결어미로서의 '-오'가 계사와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쉽게 찾아지다. 뿐만 아니라 '신소설'의 경우 이의 유형은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의 유형은 최근세국어에서도 이미 왕성하게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3.9. '-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습니까' 또는 '-ㅂ니까'에 대한 옛말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옛말 형태인 경우 옛말 형태대로 하여 따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니이까'를 그 형태 그대로 하여 분석한다.

4.1.3.9.1. '-이+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어간으로 동사 또는 형용사를 두기도 하지만 계사와도 결합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176) 신소설

가. 어마니 이는무삼일을 말삼ᄒᆞ심이닛가(설중매, 4쪽)

나. 남형은 전과 갓치군회에 진력ᄒᆞ시며 그디방의회형편은 근일에엇지된 모양이닛가(설중매, 45쪽)

하지만 이의 용례는 위에서 보듯이 두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사+니이까'의 형태는 '신소설'에서만 두 개의 용례가 보일 정도로 최근세국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러한 어미 구성이 일절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은 최근세국어의 시기에 이미 쇠퇴하여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1.3.9.2. '-이+오+니이까'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계사와 결합된 공대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이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7) 단형서사

가. 돈 얼마 번다는 말이 무슴 말숨이오닛가[지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나. 대감끠셔 쇼인의 션영지근 지디에 새로 면례를 지내셧스니 엇진 일이오니싸[사룸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다. 대감의 소위 망ᄒᆞ엿다ᄒᆞ는 거슨 이 열놈은 됴건이오니잇가[로쇼문답(대한

매일신보, 1908. 2. 14)]

라. 그러면 그 ᄉᆞ도를 보다 신실ᄒᆞ겟다ᄂᆞᆫ 말ᄉᆞᆷ이오닛가[조곰 어그러지ᄂᆞᆫ 밋음 (1901. 5. 30)]

'단형서사'에 있어서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계사+오-'와 결합한 형태는 위의 용례가 모두이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위의 용례보다 더 많은 용례가 찾아진다.

(178) 신소설

가. 앗씨 앗씨게셔 참 도라가실마음이오닛가[치악산(상), 48쪽]

나. 전정이 만리갓한앗씨게셔 도라가신다ᄂᆞᆫ 말슴이 왼말삼이오닛가[치악산(상), 48쪽]

다. 방ᄌᆞ놈에게 이런욕을 당ᄒᆞ게ᄒᆞ시니 이것이 무ᄉᆞᆫᄭᅡ닭이오닛가(화중화, 17쪽)

라. ᄃᆡ감 이게 무ᄉᆞᆫ망녕의말ᄉᆞᆷ이오닛가(화의혈, 11쪽)

마. 하관도 신민한분ᄌᆞ가 되어셔 져ᄒᆞᆯ도리 져ᄒᆞᄋᆞᆸᄂᆞᆫ것이지 훈로가다무엇이오닛가(화의혈, 16쪽)

바. 결ᄌᆡ히지란말ᄉᆞᆷ이 왼말ᄉᆞᆷ이오닛가(금강문, 52쪽)

사. 저ᄂᆞᆫ 신호항에서 죽으란 말ᄉᆞᆷ이오닛ᄭᅡ(송뢰금, 83쪽)

아. 령ᄀᆞᆷ계셔어련이, ᄉᆡᆼ각ᄒᆞ고, 게시깃슴닛가마ᄂᆞᆫ, 엇더케, ᄒᆞ실작정, 이오닛ᄭᅡ(귀의성, 60쪽)

따라서 '-이+오+니이까'와 같은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유형은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미 구성이다. 이는 의문종결어미 '-니이까' 자체가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의문종결어미 '-니이까'가 결합된 '-이+오+니이까' 어미 구성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문종결어미 ‘-니이까’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최근세국어에서는 널리 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2.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의문법의 종결어미 및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에 대하여 다시 요약하여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냐/느냐’	‘어간+느냐’	○	○
	‘어간+았/었/였+느냐’	○	○
	‘어간+았/었/였+더+냐’	×	○
	‘어간+겠+느냐’	○	○
	‘어간+시/으시+느냐’	×	○
	‘어간+려+느냐’	○	○
	‘종결어미+더+냐’	○	○

'-뇨/느뇨'	'어간+느뇨'	○	○
	'어간+았/었/였+느뇨'	×	○
	'어간+겠+느뇨'	○	○
	'어간+시/으시+뇨'	○	×
	'어간+더+뇨'	×	○
'-ㄹ/을가'	'어간+ㄹ/를가'	○	○
'-ㄹ고'	'어간+ㄹ고'	○	○
'-ㄹ라고'	'어간+ㄹ라고'	×	○
	'어간+시/으시+ㄹ라고'	×	○
'-ㄹ걸'	'어간+ㄹ걸'	○	○
'-어'	'어간+어'	×	○
	'어간+았/었/였+어'	×	○
'-지'	'어간+지'	×	○
	'어간+았/었/였+지	×	○
	'어간+았/었/였+는+지'	○	○

'-는가/고'	'어간+는가'	○	○
	'어간+았/었/였+는가'	×	○
	'어간+더+ㄴ가'	○	○
	'-ㄴ/는다+더+ㄴ가'	×	○
	'-라+더+ㄴ가'	○	○
	'어간+는고'	○	○
	'어간+았/었/였+는고'	○	○
	'어간+더+ㄴ고'	×	○
	'어간+았/었/였+더+ㄴ고'	×	○
'-게'	'어간+게'	×	○
'-나'	'어간+나'	○	○
	'어간+시/으시+나'	×	○
	'어간+았/었/였+나'	○	○
	'어간+겠+나'	○	○
	'어간+시/으시+었/였+나'	○	○
'-니'	'어간+니'	○	○
	'어간+았/었+니'	×	○
	'어간+겠+니'	×	○
	'-라+니'	○	○
	'-다+니'	×	○

‘-오/소’	‘어간+오/소’	○	○
	‘어간+았/었/였+소’	○	○
	‘어간+겠+소’	○	○
	‘어간+시/으시+오’	○	○
	‘어간+시/으시+았/었+소’	○	○
	‘어간+리/으리+오’	○	○
	‘종결어미+오’	○	○
‘-ㅂ니까’	‘어간+ㅂ니까’	×	○
‘-나이까’	‘어간+나이까’	○	○
	‘어간+았/었/였+나이까’	○	×
	‘어간+였+삽+나이까’	○	×
	‘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	×	○
	‘어간+시/으시+나이까’	○	○
	‘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	×	○
	‘어간+시/으시+옵+나이까’	×	○

'-니이까'	'어간+았/었/였+습+니이까'	×	○
	'어간+겠+습+니이까'	×	○
	'어간+시/으시+겠+습+니이까'	×	○
	'어간+시/으시+ㅂ+니이까'	×	○
	'어간+시/으시+ㅂ+더+니이까'	×	○
	'어간+삽/옵+더+니이까'	○	×
	'의문종결어미+니이까'	○	○
'-리이까'	'어간+오+리이까'	○	○
	'어간+시/으시+오+리이까'	○	×
	'어간+사오+리이까'	×	○

형용사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냐/느냐'	'어간+냐/느냐'	○	○
	'어간+겠+냐/느냐'	○	○
	'어간+시/으시+냐'	×	○
	'종결어미+더+냐'	×	○
	'종결어미+우+냐'	○	○

'-뇨/느뇨'	'어간+뇨/느뇨'	○	○
	'어간+시/으시+뇨'	×	○
	'어간+더+뇨'	×	○
	'어간+겠+느뇨'	×	○
'-ㄹ가'	'어간+ㄹ가'	×	○
'-지'	'어간+지'	○	○
'-나'	'어간+나'	○	○
	'어간+았/었/였+나'	○	○
	'어간+겠+나'	○	○
'-ㄴ가/고'	'어간+ㄴ가'	○	○
	'어간+더+ㄴ가'	○	○
	'어간+ㄴ/는고'	○	○
	'어간+았/었/였+더+ㄴ고'	×	○
'-니'	'어간+니'	×	○
	'어간+겠+니'	×	○
'-오/소'	'어간+오/소'	○	○
	'어간+겠+소'	○	○
	'어간+리/으리+오'	○	○
	'종결어미+오'	×	○

‘-ㅂ니까’	‘어간+ㅂ니까’	×	○
‘-나이까’	‘어간+나이까’	×	○
	‘어간+삽/옵+나이까’	×	○
	‘어간+겠+삽+나이까’	○	×
‘-니이까’	‘어간+니이까’	○	○
	‘어간+오+니이까’	○	○
	‘어간+으+ㅂ니이까’	×	○
	‘어간+시/으시+ㅂ니이까’	○	○
	‘어간+슴+니이까’	○	○
	‘어간+시/으시+었/였+습+니이까’	×	○
	‘어간+겠+습+니이까’	×	○
	‘어간+종결어미+시/으시+니이까’	○	×
‘-리이까’	‘어간+오+리이까’	×	○
	‘어간+사오+리이까’	×	○

계 사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냐’	‘계사+냐’	○	○
‘-뇨’	‘계사+뇨’	○	○
‘-야’	‘계사+야’	×	○
‘-니’	‘계사+겠+니’	×	○
	‘계사+종결어미+니’	○	○
‘-ㄹ라고’	‘계사+ㄹ라고’	×	○
‘-ㄴ가’	‘계사+ㄴ가’	○	○
‘-ㄴ고’	‘계사+ㄴ고’	○	○
‘-오’	‘계사+오’	○	○
‘-니이까’	‘계사+니이까’	×	○
	‘계사+오+니이까’	○	○

위의 도표에서 어간이 동사인 ‘동사어간+려+느냐’, ‘동사어간-종결어미+더+냐’, ‘동사어간+았/었/였+는+지’, ‘동사어간-종결어미+더+ㄴ가’, ‘동사어간+는고’, ‘동사어간+았/었/였+는고’, ‘동사어간+시/으시+었/였+나’, ‘동사어간+니’, ‘동사어간-종결어미+니’, ‘동사어간+오/소’, ‘동사어간+시/으시+오’, ‘동사어간+시/으시+았/었+소’, ‘동사어간+였+삽+나이까’, ‘동사어간+삽/옵+더+니이까’, ‘동사어간+시/으시+오+리이까’ 등의 결합

형태는 모두 '단형서사'에서 한 번만 찾아졌다.

반면, '동사어간+시/으시+느냐', '동사어간+시/으시+ㄹ라고', '동사어간+더+ㄴ고', '동사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 '동사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 '동사어간+시/으시+ㅂ+니이까', '동사어간+시/으시+ㅂ+더+니이까', '동사어간+사오+리이까' 등의 결합 형태는 '신소설'에서 한 번만 찾아졌다.

한편,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형용사어간-종결어미+우+냐', '형용사어간+지', '형용사어간+더+ㄴ가', '형용사어간+겠+소', '형용사어간+겠+삽+나이까', '형용사어간+니이까', '형용사어간+시/으시+ㅂ니이까', '형용사어간+슴+니이까', '형용사어간+종결어미+시/으시+니이까' 등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오직 한 차례 용례를 보였다.

그리고 '형용사어간+더+뇨', '형용사어간+겠+느뇨', '형용사어간+았/었/였+나', '형용사어간+았/었/였+더+ㄴ고', '형용사어간+나이까', '형용사어간+삽/옵+나이까', '형용사어간+시/으시+었/였+습+니이까' 등의 결합 형태는 반대로 '신소설'에서 한 차례 용례를 보였다.

이외로 의문종결어미가 계사와 결합한 형태의 경우에서는 '계사+ㄹ라고'의 유형이 '신소설'에서 오직 한 번 용례를 보였다.

5. 명령법 어미분석

명령문을 이끄는 명령법은 종결어미로써 어떠한 것을 시키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는 화법이다. 즉,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인 것이다(이관규, 1999, p.268). 따라서 김민수(1971, p.29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화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양식의 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러한 명령법의 종결어미는 '-라', '-아', '-거라', '-너라', '-으렷다', '-려무나', '-게', '-구려', '-오/소', '-소서' 등으로서 이들 종결어미는 '단형서사' 또는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것들이다. 여기 제5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이들 종결어미로 한정하여 다룬다.

5.1. '-라'

명령종결어미 '-라'는 받침이 없는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 '5.1'에서 다루는 '어간+라', '어간+으+라', '어간+아/어+라' 등의 어미 구성은 모두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것들로서 이들 어미 구성에 한해 분석한다.

명령종결어미 '-라'와 결합되는 '-으-', '-아-', '-어-' 등은 모두 '-ᄋᆞ-'에서 파생된 음절들이다. 중세국어에서 명령종결어미는 '-ᄋᆞ-'와 결합하여 '-ᄋᆞ라'로 쓰였다. 따라서 이 '-ᄋᆞ라'가 각각 '-으라', '-아라', '-어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이형태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 '-으-'와 '-아/어-'로 구분하여 다룰 것이다.

이는 '-으-'와 '-아/어-'가 명령에 있어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있다'의 경우 이는 '있으라'와 '있어라'로 각각 쓰일 수 있는데 이때 이들 둘은 모두 명령문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으-'가 쓰인 '있으라'는 막연

하게 시키는 의미를 지니지만 '-어-'가 쓰인 '있어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으-'와 '-아/어-'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5.1.1. '어간+라'

명령종결어미 '-라'는 동사어간과 바로 결합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다음에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단형서사

가. 삼가 망녕되히 젼치 말나[김유신(그리스도신문, 1901. 10. 31)]

나. 공은 슈고로온 거ᄉᆞᆯ 써리지 말고 예비ᄒᆞ라[김유신(그리스도신문, 1901. 11. 7)]

다. 네가 가셔 네 코기리ᄅᆞᆯ 보라[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ᄒᆞᆷ(그리스도신문, 1902. 2. 15)]

라. 우톄의 오고 가ᄂᆞᆫ 거ᄉᆞᆫ 쟉뎡ᄒᆞᆫ 긔약이 잇ᄂᆞ니 다시ᄂᆞᆫ 핑계ᄒᆞ야 말ᄒᆞ지 말나[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ᄒᆞᆷ(그리스도신문, 1902. 2. 15)]

마. 쟝식의게 가셔 마옴 심 안닐 불늘글 로 세 글ᄌᆞ를 ᄉᆡᆨ여오라[우리나라 사ᄅᆞᆷ은(매일신문, 1900년 2. 26)]

바. 뎌 ᄆᆞᆯ을 ᄐᆞ고 쟝에 가셔 다ᄅᆞᆫ 물건과 밧고거나 팔거나 ᄆᆞ옴대로 ᄒᆞ라[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사. 너ᄂᆞᆫ 이 일을 증계ᄒᆞ여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ᄒᆡ롭게 ᄒᆞ여 몸만 유익ᄒᆞᆯ 생각을 두지 말나[거믜 니야기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23)]

아. 너의 보모ᄭᅴ셔 도로혀 긔특이 녁이리니 조곰도 념녀 말나[부모가 ᄌᆞ식 ᄉᆞ랑ᄒᆞᆫ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자. ᄆᆞᆯ 쥭도 쑤어 먹이고 다 쥰비ᄒᆞ라[친구 심방ᄒᆞ다가 ᄆᆞᆯ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0)]

차. 이즈긔 여온 돈을 도로 밧고 내 즐거옴을 도로 달나[ᄌᆡ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카. 그ᄃᆡ들이 내 말을 밋지 안커든 나를 ᄯᆞ라와 구경ᄒᆞ라[ᄇᆞᆰ은 거울을 보시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25)]

이와 같이 ‘단형서사’에서는 ‘어간+라’의 유형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다음에서 보듯이 ‘어간+라’의 유형이 쉽게 찾아진다.

(2) 신소설

가. 오날은느졋스니ᄅᆡ일다시오정에삼각산ᄇᆡᆨ운ᄃᆡ밋으로오라(구마검, 37쪽)

나. 이속에셔 식가를 제ᄒᆞ라(설중매, 25쪽)

다. 쥬인슈고시럽지마는 이편지를우톄통에넛코 금년식여 불을켜게ᄒᆞ라(설중매, 27쪽)

라. 셔울로오라ᄒᆞ기젼에ᄂᆞᆫ, 부ᄃᆡ오지말나(귀의성, 16쪽)

마. 다시그런 쳘모르ᄂᆞᆫ말 ᄒᆞ지말나(빈상설, 28쪽)

바. 궁즁에 평안이 잇스니 념려를말라(비행선, 175쪽)

사. 너는 이경계대로 ᄒᆡᆼᄒᆞ라(부부의 모본, 251쪽)

따라서 ‘어간+라’로 된 명령형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5.1.2. '어간+으+라'

명령종결어미 '-라'는 어간이 아닌 음절 '-으-'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으-'는 어간과 어미 사이의 소리를 고르기 위한 음절이다. 따라서 이는 '어간+으+라'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단형서사

가. 내 아둘들아 드르라[쇠가 무거우냐 새 깃이 무거우냐(경향신문, 1907. 11. 15)]

나. 됴흔 계칙이 잇스니 드르라[부모가 즈식 스랑흔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그리고 '신소설'의 경우에도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명령종결어미 '-라'가 음절 '-으-'와 결합한 유형이 보인다.

(4) 신소설

가. 사룸들아 부치를 놋코 칼을 던지고 잠간 내 말을 드르라(금수회의록, 38쪽)

나. 좀기켜노으라(설중매, 26쪽)

다. 력터의 스긔와 즈죠론(自助論)일편을 다시 읽으라(송뢰금, 106쪽)

라. 이돈이젹지마는 절용흐면 륙로수로 증남포ᄭᆞ지가고도 여지가잇슬뜻흐니 스양치말고 밧으라(금의쟁성, 36~37쪽)

마. 또 남편된 사룸을 밋으라(부부의 모본, 252쪽)

바. 네가 정이리홀진디 니말를드르라(추천명월, 91쪽)

이에 '어간+으+라'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으나, '단형서

사'에서는 용례가 두 개에서 그치고 있으므로 이의 유형에 있어서는 '어간+라'의 경우와는 달리 '신소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1.3. '어간+아/어+라'

명령종결어미 '-라'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있어서 소리를 고르기 위한 음절로 쓰인 '-아/어-'와 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거라'와 '-너라'는 '-아/어라'의 변이형태이다(권재일, 2005. p.84).

명령종결어미인 '-라'가 '-아/어-'와 결합한 형태는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5) 단형서사

가. 돈을 다 내여 노하라[동젼 서 푼에 쇼쥬가 혼 통(경향신문, 1907. 12. 6)]

나. 부듸 아참 든든히 먹어라[친구 심방ᄒᆞ다가 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0)]

다. ᄂᆞ가서 버러 먹고 잘 사러라[화수(대한민보, 1909. 6. 2)]

라. 그러면 네 ᄆᆞ음대로 ᄒᆞ여라[늙은 흑인(그리스도신문, 1901. 5. 16)]

마. 부듸 조심ᄒᆞ여라[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를 졉붓치는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바. 네의 아바지가 보시지 아닐 ᄲᅮᆫ더러 셜사 알으시드릭도 너는 모른다ᄒᆞ여라[부모가 ᄌᆞ식 ᄉᆞ랑ᄒᆞᆫ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어간+아/어+라'의 유형이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찾아진다.

(6) 신소설

가. 아부지 모시고 부ᄃᆡ 잘 살아라(다정다한, 64쪽)

나. ᄂᆡ 일은너를다리고, 서울로ᄀᆞᆫ다ᄒᆞ니, 오늘부터라도힝즁을차려라(귀의성, 10쪽)

다. 점순아, 밧게나가셔, 교군군더러, 교군갓다가, 안마당에드려노라ᄒᆞ여라(귀의성, 10~11쪽)

라. 길순이가비고푸깃다어셔밥지여먹여라(귀의성, 14쪽)

마. 령감이, 밤낫으로기다리시든, 춘천집이, 왓심이다고, 엿쥬어라(귀의성, 20쪽)

바. 자근돌아, 네-, 이뎐들넝큼, 다, 닛좃자라(귀의성, 23쪽)

사. 아가아가우지말고, 젓먹어라(귀의성, 53쪽)

아. 두말말고네가오날봄에, 츈천강동지의손에, 쥭는쥴만알고쥭어라(귀의성, 104쪽)

자. 너ᄂᆞᆫ 셕유ᄒᆞᆫ통만 가져다가 안방에 드러부어라(귀의성, 145쪽)

차. 나도지그ᄭᆞ지 장가를아니든아ᄒᆡ라 아ᄒᆡᄂᆞᆫ 일반이나 너도놀보고 ᄒᆡ라하ᄂᆞᆫ 거시 죠흔일이니 슛졉케너도 놀더러ᄒᆡ라하여라(혈의루, 71~72쪽)

카. 그런지각업ᄂᆞᆫ말은 두번도말아라(빈상설, 68쪽)

타. 나라ᄅᆞᆯ 붓들도리를ᄒᆞ여보아라(은세계, 108쪽)

파. 교군잠ᄭᆞᆫ 나려노아라(금강문, 105쪽)

하. 오냐 무쇠목숨에 돌ᄭᅳᆫ다라 슈명쟝수ᄒᆞ여라(구마검, 3쪽)

가′. 시장ᄒᆞ겟다점심먹어라(구마검, 70쪽)

나′. 이ᄋᆡ 경ᄉᆞ 다 고만두어라(화중화, 16쪽)

다′. 얼마안이되면 볼것이니 내ᄉᆡᆼ각을 너모과도히나말어라(화의혈, 57쪽)

라′. 어서, 네누의ᄃᆡ신, 말을ᄒᆞ여라(홍도화(하), 111쪽)

마′. 네가 그병풍쥬인이니 ᄂᆞᆯ오 ᄎᆞ지ᄒᆞ야 너의부모 뵈온듯이 마ᄋᆞᆷ을위로ᄒᆞ여라(모란병, 69쪽)

‘어간+아/어+라’ 유형의 경우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에서도 용례가 많이 보이고 있으나 ‘신소설’의 경우에는 여러 작품과 구문에서 폭넓게 널리 쓰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간+아/어+라’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왕성하게 사용된 어미 구성임이 확인된다.

5.1.4. ‘어간+거+라’

‘-아/어라’의 변이형태인 ‘-거라’가 어간과 결합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7) 단형서사

가. 오냐 가ᄆᆞ니 잇거라[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나. 이 졋 먹고 잘 자거라[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다. 아가아가 잘 자거라[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라. 네 그 문이 ᄶᅢ지도록 거더차거라[소설단편(만세보, 1906. 7. 3)]

마. 어셔 나가거라[지난 겨울 ᄆᆡᆼ렬ᄒᆞᆫ 바룸에(대한매일신보, 1910. 3. 9)]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역시 ‘단형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거+라’의 유형이 널리 쓰였다.

(8) 신소설

가. 오냐잠이ᄂᆞ, 잘자거라(귀의성, 2쪽)

나. 이익길순아, 어셔교군타거라(귀의성, 15쪽)

다. 남의비우건듸리지말고, 가ᄆᆞᆫ 이잇거라(귀의성, 30쪽)

라. 너는이것이나입고가거라(구마검, 39쪽)

마. 가랑이 들니기젼에 이리 썩 나셔거라(모란병, 92쪽)
바. 범죄ᄒᆞᆫ일이잇거든 말이나바른ᄃᆡ로 ᄒᆞ고가거라(안의성, 125쪽)
사. ᄂᆡ 령감이 드러오시거던 말ᄉᆞᆷ을 ᄒᆡ셔줄거시니 오날집이셔 할멈과 갓치자거라(세검정, 52쪽)

따라서 명령종결어미 '-거라'가 어간과 결합한 경우에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1.5. '어간+너+라'

명령종결어미 '-너라'는 '-아/어라'의 변이형태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다만, 두 개의 용례에서 그치고 있다.

(9) 단형서사
가. 그 가진 돈을 ᄲᅦ아ᄉᆞ 오너라[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ᄀᆡ계공슈 불너라[동창이 발가오ᄆᆡ 보관문을(.대한매일신보, 1910. 1. 25)]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의 경우와는 달리 아래에서 보듯이 많은 용례가 찾아지고 있다.

(10) 신소설
가. 이ᄋᆡ검둥아, 말, 이리ᄶᅥ러오너라(귀의성, 15쪽)
나. 어셔그교군을ᄶᅩᄎᆞ보ᄂᆡ고, 드러오너라(귀의성, 24쪽)
다. 안악에드러가 엿줍고 슐한상잘ᄎᆞ려오너라(모란병, 65쪽)

라. 슈득아 죠심ᄒᆞ야 단여오너라(모란병, 87쪽)

마. 이ᄋᆡ 쥐불어엄아 아씨슈져 이리가져오너라(산천초목, 78쪽)

바. 이ᄋᆡ 췌션아 술 더 가져오너라[두견성(하), 2쪽]

따라서 '어간+너+라'의 유형에 있어서는 '어간+라'나 '어간+거+라'의 경우와는 달리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두 개만 찾아질 정도로 거의 쓰이지 않았으나 '신소설'에서는 이와 다르게 많은 용례가 찾아질 정도로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5.2. '-아'

'-아'는 해체의 명령법 어미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김형철(1997, p.338)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김형철(1997 p.338)은 교과서류・신문류・성경류・자전류・서유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용례만 찾아지므로 '-아'를 해체 명령법어미로 설정하는데 있어 망설여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는 반말어미로 취급해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11) 신정심상소학

白雲이 霏霏ᄒᆞ야 今年이 벌서 歲暮이로다 오ᄂᆞᆫ 날을 밋고 게어르게 말아 세월은 ᄉᆞ롬을 기다리지 아니ᄒᆞ니 於焉間에 小壯ᄒᆞ던 니가 老大ᄒᆞ야진다(심상 3:2)

그런데 '신소설'에서는 '-아'가 해체의 명령법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는 용례가 다음과 같이 많이 찾아진다. 다만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에서 '-아'가 명령법으로 쓰였음을 보이기 위하여 용례의 앞뒤 구문도 같이 보인다.

(12) 신소설

가. 오냐 아니울마 걱정말아 죽기는 웨죽으랴나냐(화의혈, 37쪽)

나. 이것보아 수족이 점점 치곳아 올나오네(화세계, 52쪽)

다. 쉬ㅣ그런말말아 마마님끠셔 드르시면 밥도못엇어먹고 쫓겨나랴고(화세계, 59쪽)

라. 에그 그말말아 웨너는못드렷늬[치악산(하), 79쪽]

마. 남순아 울지말아 남순아 울지말아 너의어머니가 지금은 잠시간 네외가로갓스나 몃칠이나되야 도로오겟나냐 울지말아[치악산(하), 106쪽]

바. 야-져것보아 져모양을 좀보아(재봉춘, 127쪽)

사. 응 무엇이야 몸조심을ᄒᆞ고 되야가는것을보아 쇠불알쩌러지기만 바라고 가만히 잡바젓스면 일이 다 잘될가(재봉춘, 192쪽)

아. 그것은 걱정말아 이번일에는 조곰도 졔힝실 그른일이 업스니(재봉춘, 202쪽)

자. 져ᄉᆞ람보아 져ᄉᆞ람보아 져ᄉᆞ람 져ᄉᆞ람보아(비행선, 4쪽)

차. 하 이ᄋᆡ 그말말아 우리두량쥬가 눈먼ᄯᆞᆯᄌᆞ식 ᄒᆞᆫ아도업셔 죽어야 뭇어줄 ᄉᆞ람도 업더니(목단화, 116쪽)

카. 이런말이 내밋들어 남뵈기갓지마는 우리큰집일을 좀보아 그아ᄌᆞ씨끠셔 상쳐를 ᄒᆞ시고 아조 셜우니 즐거우니 ᄒᆞ시며[구의산(상), 30쪽]

타. 네가 무슨얼골을듣고 싀집에를 갈터이냐 진작죽어 내눈압헤 보이지말아 ᄒᆞ는말이 입에셔 나오다가[구의산(상), 70쪽]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아'는 모두 명령법의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아'가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와는 달리 '신소설'에서만은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아'는 명령법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으로 명확히 분석된다.

5.3. '-으렷다'

'-으렷다'에 대해 고영근(1989, p.251)은 추정의 '-으리-'와 확인의 '-엇-' 그리고 종결접미사 '-다'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으렷다'는 말할이가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들을이를 아주 낮추는 경우에 사용된다(김태엽, 1991. p.288). '-으렷다'는 어간과 결합을 하여 구문을 명령법으로 이끈다. 그런데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어미 구성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간+으렷다'의 유형이 널리 사용되었다.

(13) 신소설

가. 너의간교로그덕속이던일을닉가임의알고잇스니잔말말고고ᄒᆞ렷다(구마검, 72쪽)

나. 이놈, 네죄을, 내가임의다, 아는것이니, 일호은휘말고, 이실직고를, ᄒᆞ렷다[홍도화(하), 107~108쪽]

다. 너를이년, ᄒᆞᆫ매에, 죽일것이로대, 십분용서ᄒᆞ야, 고만두는것이니, 너듯고본ᄃᆡ로, 바로말을ᄒᆞ렷다[홍도화(하), 109쪽]

라. 이외에도 증거될만ᄒᆞᆫ말이 잇거던 쎄지말고 ᄒᆞ렷다(금강문, 94쪽)

마. 일긔도쳥량ᄒᆞ기에 이사짐을 실는것이니 너의들은 아비 ᄒᆞ는ᄃᆡ로 순종만ᄒᆞ렷다(명월정, 50쪽)

바. 너ᄒᆞᆫᄌᆞ 흉힝을 ᄒᆞ얏던지 뎌계집이 주던돈을 난호아먹고 다른놈과 동모를 ᄒᆞ얏던지 쪽바로 고ᄒᆞ렷다[구의산(하), 83쪽]

따라서 '어간+으렷다'의 경우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던 어미의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5.4. '-려무나'

명령문의 해라체 '-려무나'는 하게체의 경우 '-게나'로, 하오체의 경우는 '-구려'로 실현된다(남기심 · 고영근, 1993. p.353). 어간과 결합하는 명령종결어미 '-려무나'는 아랫사람에게 제 마음대로 하라고 가볍게 명령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려무나'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단형서사'와는 달리 이의 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4) 신소설

가. 너도 나다려 히라ᄒᆞ렴어나(모란병, 34쪽)

나. 고만두고 잇다ᄒᆞ렴어나(모란병, 102쪽)

다. 말을 ᄒᆞ려거든ᄒᆞ고 말려거든 말려무나[치악산(상), 80쪽]

라. 검홍아너도건너가자려무나[치악산(상), 112쪽]

마. 이아 내쏠아 나다려 어미라 ᄒᆞ려무나(명월정, 31쪽)

바. 너는지취ᄒᆞ논것이 무엇시 낫다고ᄒᆞ야 됴혼를 니기엿느 디강만 이아기 ᄒᆞ려무나(명월정, 44쪽)

사. 오냐 문을 어셔닷고 드러가 자렴어나(화세계, 22쪽)

따라서 '어간+려무나'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5.5. '-게'

15세기 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던 말씨인 명령종결어미 '-게'는(허웅, 1989. p.176 참

조) 어떠한 동작을 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서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게’의 유형을 이룬다. 이의 경우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널리 찾아진다.

(15) 단형서사

가. 여러 말 말고 어셔 가게[사ᄅᆞᆷ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나. 일ᄒᆞ는 것을 좀 드러보게[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다. 이번 욕을 갈흘 경디이면 쥭어도 여한이 업슬 터이니 젹당ᄒᆞᆫ 계칙을 교유ᄒᆞ게[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라. 물이나 좀 주게[밋은 나무에 곰이퓌다(경향신문, 1907. 10. 25)]

마. ᄌᆞ네 식히는 ᄃᆡ로 ᄒᆞᆯ 터이니 계칙을 좀 일너주게[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바. 이런 ᄉᆡᆼ의ᄅᆞᆯ 두지 말게[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사. ᄌᆞ네 여러 말ᄒᆞ지 말고 내 말만 듯고 나의 시기는 대로만 ᄒᆞ게[ᄌᆡ간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1. 31)]

‘어간+게’의 유형이 널리 쓰이기는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예문은 모두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어간+게’의 용례들이다.

(16) 신소설

가. 마누라, 아침밥좀, 일즉이, ᄒᆞ여쥬게(귀의성, 12쪽)

나. 자네도, 왕사를괘념ᄒᆞ야, 병상가병(病上加病)을, 아예 말고, 래두에, 일이나, 잘처리ᄒᆞᆯᄉᆡᆼ각을ᄒᆞ게[홍도화(하), 98쪽]

다. 그후는 셔셔히 원산으로 도라 가셔 포와 소식을 긔다리게(송뢰금, 84쪽)

라. 나는 먹고십지안이ᄒᆞ니 자너나 비곱흔ᄃᆡ먹게(빈상설, 8쪽)

마. 아모ᄃᆡ셔나 홀말잇거든 잠간ᄒᆞ게(빈상설, 60쪽)

바. 여보게 우리단골다려 진빅송을 한번 좀 잘너달나고불너쥬게(구마검, 10쪽)

사. ᄃᆡ려왓논ᄃᆡ 그릐 어서 리약이를ᄒᆞ게(모란병, 49쪽)

그러므로 '어간+게'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용례가 보이는 '어간+려무나'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5.6. '-구려'

명령종결어미 '-구려'는 상대방 자신이 좋도록 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서 이는 어간과 결합하거나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다. 안병희・이광호(1990, p.247)에서는 '-구려'가 명령법어미의 '-고라' 및 '-고려'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5.6.1. '어간+구려'

명령종결어미 '-구려'가 어간과 바로 결합한 경우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일절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찾아진다.

(17) 신소설

가. 마누라님은 ᄃᆡᆨ으로 가셔 마님을 뵈옵고 고지드르시도록 쏦여ᄃᆡ구려(구마검, 11쪽)

나. 츈천집이, 침모의집에, 잇ᄂᆞ업ᄂᆞ, 누구를보너보구려(귀의성, 29쪽)

다. 인역마음ᄃᆡ로ᄒᆞ구려[치악산(상), 59쪽]

라. 인역은 죽기는 일반이니 만만훈계집이나 쳐죽이고 죽구려[치악산(상), 58쪽]

따라서 '어간+구려'의 유형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된 어미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5.6.2. '어간+시/으시+구려'

명령종결어미 '-구려'는 어간 외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18) 신소설

가. 그집뒤담이바로 화슌집안방모퉁이니 아자씨게셔오졍 칠쩌 그놈올만훈거든 좀가셔자셔히 들어보시구려(빈상설, 55쪽)

나. 리약이나 훈시구려(구마검, 11쪽)

다. 여보오날훈로믄, 걱졍을좀마르시고, 잠잣코게시구려(귀의성, 11쪽)

라. 어서 너려가 힘자라는디로 만분의일신세를 갑훈보시구려(모란병, 79쪽)

마. 령감 다시 싱각좀훈야 보시구려(화세계, 25쪽)

이에 '어간+시/으시+구려'의 유형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으나 '신소설'에서는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5.7. '-오/소'

어미 '-오/소'는 서술법과 명령법 그리고 의문법은 물론 명령법에서도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오'는 자음 어간의 뒤에서는 '-으오'의 형태로 쓰이지만 '-소'는 어간 말음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소'의 형태로 쓰인다(윤석민, 2000. p.209~210). 여기 '5.7'에서는 '-오/소'가 명령종결어미로 쓰인 경우에 한해 분석하기로 한다.

5.7.1. '어간+오/소'

명령종결어미로서의 '-오/소'는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유형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단형서사

가. 이 다음에 음력설 쇨 ᄯᅢ는 그럿케 조로지 마오[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나. 술이나 ᄒᆞᆫ 잔 내소[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1. 1)]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역시 '단형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 유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 신소설

가. 그비러먹을소리좀마오(귀의성, 5쪽)

나. 여보순돌어머니, 혀차고속답답ᄒᆞᆫ일잇거든얼른이약이좀ᄒᆞ오(귀의성, 12쪽)

다. 여보할머니, 노염을풀고, 제발덕분에, 말좀ᄒᆞ여쥬오(귀의성, 30쪽)

라. ᄆᆞᆯ흠부루ᄒᆞ지마오(귀의성, 69쪽)

마. 자-이ᄆᆞᆫ하면, 엽헤쥐도못아라듯게, 말, 할터이니, 말, 좀자세ᄒᆞ오(귀의성,

142쪽)

바. 진ᄉᆞ 좀 불으라고 ᄒᆞ오(송뢰금, 67쪽)

사. ᄂᆡ가 어ᄃᆡ로가게 작정이되면 곳들여 보ᄂᆡᆯ터이니 져와갓흔 ᄇᆡᆨ필이나 하나 어더 맛추어쥬오(재봉춘, 161~162쪽)

아. 진ᄇᆡᆨ송이남아 산ᄇᆡᆨ송 다름업시 마님속이 ᄉᆡ원ᄒᆞ시게 잘 ᄂᆡ야쥬오(구마검, 16쪽)

자. 오ᄂᆞᆯ회의결뎡ᄒᆞᆫ일이헛일이되면그제ᄂᆞᆫ종벌을크게당ᄒᆞ리니죠심ᄒᆞ소(구마검, 67쪽)

차. ᄃᆡ소ᄉᆞ의치산을젼담극력ᄒᆞ야이루ᄃᆡ향화를잘밧들도록ᄒᆞ소(구마검, 67쪽)

카. 어셔 나가 만코젹고 돈ᄃᆡ로 ᄊᆞᆯ을 팔아오오(빈상설, 4쪽)

타. 말좀 시연이하오[치악산(상), 64쪽]

파. 나는사랑에 나가셔 잇쓸터이니마누라가 얼는잘좃처ᄒᆞ여쥬오[치악산(상), 113쪽]

하. 심과장도, 뉘우쳐, 차질것이니, 분ᄒᆞ고, 원통해도, 좀참고, 내훈슈ᄃᆡ로 하오[홍도화(하), 43쪽]

가′. 안심ᄒᆞ소[홍도화(하), 98쪽]

나′. ᄒᆡᆼ셰를 져음잔케ᄒᆞ소(명월정, 15쪽)

다′. 그러면 더무러볼것 업스니 집으로 도라가소(금강문, 94쪽)

따라서 '어간+오/소'의 경우에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신소설'에서는 상당히 왕성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5.7.2. '어간+시/으시+오'

명령종결어미 '-오'는 어간과의 결합 외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도 결합한

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21) 단형서사

가. 그는 걱정 마시오[직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21)]

나. 여보 대ᄉᆞ 내 말숨 드러보시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다. 션싱은 참으시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라. 그 놈이 어딕 잇는지 ᄌᆞ셰히 말ᄒᆞ시오[군ᄉᆞ련습 시에 살인리력(경향신문, 1908. 4. 17)]

마. 약주 잡수시고 웃층 샤쳐방에 가셔 조리나 편히 ᄒᆞ시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바. 시싱의 흉즁에 대감을 위ᄒᆞ야 셜분홀 방칙이 잇스니 ᄒᆞᆫ 번 시용ᄒᆞ여 보시요[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사. 근일 소위 장관은 괴악ᄒᆞᆫ 독립협회란 것이니 어서 가셔 관광ᄒᆞ쇼[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간+시/으시+오'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소설'의 경우에서도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이의 유형을 널리 사용되었다.

(22) 신소설

가. 어머니우지마르시오(귀의셩, 11쪽)

나. 령감, 어셔침모다리고, 게동으로가시오(귀의셩, 28쪽)

다. 무엇이던지, 강동지와, 상의ᄒᆞ야, 돈드는것문닉게물ᄒᆞ시오(귀의셩, 45쪽)

라. 그럿케불상ᄒᆞᆫ사람이잇는줄을아르시오(귀의셩, 61쪽)

마. 짐을치우면, 수상하니치우지ᄆᆞ르시오(귀의셩, 115쪽)

바. 아모도 업소 걱정말고 셰상업는 말이라도 다 ᄒᆞ시오(구마검, 11쪽)

사. 안이계시오ᄂᆡ소견것말을ᄒᆞᆯ것이니과히착오ᄂᆞ업ᄂᆞ드러보시오(구마검, 42쪽)
아. 아자씨 아모ᄃᆡ도 가실것업시 이것이나 어셔가지고가셔셔 그량반진지나 지어들이시오(빈상설, 61쪽)
자. 그셔방님도 뵈올겸 이약이도ᄒᆞᆯ겸 나도넘어갈터이니 아자씨먼져 어셔가시오(빈상설, 62쪽)
차. 누의님 걱정말으시오(빈상설, 66쪽)
카. 오날은 절반이라도 쥬지못ᄒᆞᆯ터이면 아모리 불안ᄒᆞ나 갑ᄒᆞᆯ돈을 보증어더셰오고 다른ᄃᆡ로가시오(설중매, 23쪽)
타. 아모쥬션을ᄒᆞ든지 식가를 지금쥬시오(설중매, 23쪽)

그러므로 명령종결어미 '-오'가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한 경우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7.3. '어간+시/으시+지+오'

명령종결어미 '-오'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오'와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지'이다. 그리고 이때 종결어미 '-지'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을 한다. 이와 같은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두 개만 찾아진다.

(23) 단형서사
가. 내 집에셔 쉬시고 ᄅᆡ일 가시지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나. 그러치오마ᄂᆞᆫ ᄌᆡᆷ물도 지니고 밤에 가시기ᄂᆞᆫ 조심도 되니 쉬여 가시지오[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18)]

위의 구문에서 '어간+시/으시+지+오'는 가벼운 권고형 명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명령은 '신소설'에서도 역시 찾아진다.

(24) 신소설

가. 앗씨 달밤에친정댁에나가시지오[치악산(상), 4쪽]

나. 셔방님이이ᄃᆡᆨ에로오시지오(혈의루, 54쪽)

다. 여보 셔방님 남ᄌᆞ가 셰상에나셔 입신양명을 못ᄒᆞ거든 수신졔가나 ᄒᆞ시지오(화중화, 20~21쪽)

라. 천천히이러나셔셔 변변치못ᄒᆞ나마 조반이나 잡슈시고 가시지오(화의혈, 56쪽)

따라서 '어간+시/으시+지-'와 결합한 종결어미 '-오'와 같은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형서사'에서는 그 용례가 두 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 '신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용례를 가졌음도 확인된다.

한편, 권재일(2005. p.61)에서는 '노동야학독본(유길준, 1908)'에서 보이는 '-지오'에 대해 이를 범용어미 '-지'에 높임조사 '-오'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5) 가. 이일이 뎌일보다 쳔ᄒᆞ다 ᄒᆞᆷ이며 뎌일이 이일보다 귀ᄒᆞ다 ᄒᆞᆷ이지오

나. 셧는 사람은 안진 사람이 업서도 그대로 살녀니와 안진 사람은 셧는 사람이 업시면 잠시도 못견대지오

다. 남의 밥이나 쥭이는 쌀버러지이니 그러ᄒᆞᆫ쟈ᄂᆞᆫ 국가의 좀(蠹)이며 샤회의 도젹이지오

라. 셰상에 생물이 되고 뎌 먹는 노릇을 뎨가 하니ᄒᆞ는 쟈가 어대잇소 아마도 노는 사람 외에ᄂᆞᆫ 업지오

마. 대개 로동으로 생애ᄒᆞ는 사람은 날마다 스사로 겨를치못ᄒᆞ야 능히 머은 생각을 두기 어렵지오

하지만 (24)에서의 '-지오'는 이러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24)에서 '-오'는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순히 높임의 의미만을 가진 '노동야학독본'에서의 '-오'와는 다르다. '노동야학독본'에서 '-오'는 명령의 의미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24)에서의 '-오'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므로 '-오'를 제거하였을 경우 이 구문은 명령의 의미가 소멸된다. 따라서 '노동야학독본'에서는 '-오'를 제거하였을 경우 단지 [-높임]이 될 뿐이지만 (24)의 구문에서는 [-높임] 및 [-명령]이 된다. 이처럼 '높임조사'에는 명령의 의미가 없으므로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24)에서의 '-오'는 '높임조사'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높임조사'가 아닌 종결어미로서의 '-오'는 경우에 따라 명령의 의미도 지니므로 명령의 의미를 보이는 (24)의 '-오'는 종결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4. '어간+읍/옵시+오'

명령종결어미 '-오'는 공대선어말어미 '-읍/옵시-'와 결합하여 '어간+읍/옵시+오'와 같은 어미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26) 신소설

가. 마님게셔, 답 하실만ᄒᆞᆫ, 일이올시다ᄆᆞᆫ는, 참으시는김에, 눈ᄭᅡᆷ쟉몃칠만, 더참읍시오(귀의성, 105쪽)

나. 좀 편안히 누읍시오[두견성(하), 20쪽]

다. 마님 인졔는 걱정마옵시오(구마검, 16쪽)

라. 이밤즁에 그런걱정은 죠곰도마옵시오(빈상설, 27쪽)

마. 통촉ᄒᆞ압시오[홍도화(하), 105쪽]

바. 그 뎐쥬악징이가 다시 오거든 말심두 마시고 갓차이 ᄒᆞ시지 마압시오(몽조, 41쪽)

따라서 '어간+읍/옵시+오'의 유형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인 어미 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5.8. '-소서'

어미 '-소서'도 어떠한 것을 시키는 의미를 지닌 명령종결어미이다. 이는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와 결합되어 쓰인다. '-소서'는 선행어간의 말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소서'로 교체되기도 하며, 선어말어미 '-옵-'과 결합하여 '-옵소서'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윤석민, 2000. p.211 참조). 이러한 하소서체는 현대국어에서 편지글이나 기도문 등에서만 쓰이고 구어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오늘날의 경어법 등급에서 없어졌다(이경우, 1998. p.69 참조). 그러나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8.1. '어간+소서'

명령종결어미 '-소서'는 어간과 직접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어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27) 단형서사

가. 이 짜희 흙을 이 뷘셤의 ᄀ득ᄒ게 취오기를 허락ᄒ쇼셔[님금의 ᄆᄋᆞᆷ을 용케 돌님(경향신문, 1907. 11. 8)]
나. 셔방님은 종젹을 긔이지 마시고 ᄌ세히 갈아치소셔[살신셩인(매일신문, 1906. 11. 1)]
다. 즉시 일어나셔 문을 열고 곳 나가셔 달아나소셔[살신셩인(제국신문, 1906. 11. 2)]
라. 원컨대 근심 말고 썰니 서울노 가쇼셔[규즁호걸(경향신문, 1909. 8. 20)]
마. 다시 ᄌ식이 되기를 원ᄒ오니 원컨ᄃ 젼죄를 용셔ᄒ쇼셔[부모가 ᄌ식 ᄉ랑ᄒᆫ 니야기(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 10. 11)]
바. 션싱은 쇼승의 뒤만 짜르쇼셔[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31)]
사. 쳥컨ᄃ 대ᄉ는 ᄌ세히 ᄀ르치쇼셔[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8. 1)]

마찬가지로 '어간+소서'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진다. 이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8) 신소설
가. 일체즁생을 크게사랑ᄒ시고 크게슬피녀기시는 붓쳐님게셔 소승을도아 쥬소셔[치악산(상), 160쪽]
나. 아이고 하나님 굽어살피소셔(화중화, 33쪽)
다. 바라건ᄃ 그죄를 다사리소셔[금국화(상), 66쪽]
라. 노둔ᄒᆫ 뎨ᄌ를 ᄀᄅ치쇼셔(성산명경, 173쪽)
마. 뎌도젹놈들을 다잡아 ᄉ법ᄃ로 쳐치ᄒ게ᄒ여 주쇼셔(명월정, 60쪽)

이에 어간에 명령종결어미 '-소서'가 결합된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이 확인된다.

5.8.2. ‘어간+으+소서’

명령종결어미 ‘-소서’는 어간 외에 음절 ‘-으-’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때 음절 ‘-으-’는 어간과 어미 사이의 소리를 고르는 음절이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29) 단형서사

가. 비록 만시가 될 지라도 사룸다온 이를 엇고야 말겟스니 원컨대 부모는 강잉치 말으쇼셔[규중호걸(경향신문, 1909. 8. 20)]

나. 션싱은 동힝ᄒᆞ기를 ᄉᆞ양치 마르쇼셔[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30)]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어간+으+소서’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30) 신소설

가. 셔방님은 소인의참소로 옥갓흔 아씨를 의심치마르소셔(설중매, 71쪽)

나. 쇼뎨의 말숨을 드르쇼셔(성산명경, 154쪽)

5.8.3. ‘어간+옵+소서’

명령종결어미 ‘-소서’는 어간이나 음절 외에 공대선어말어미 ‘-옵-’과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31) 단형서사

가. 그럿치 못ᄒᆞ오면 곳 돌아올 터이오니 모친은 렴려마옵소셔[살신성인(매일신문, 1906. 10. 24)]
나. 아바ᄌᆞ여 헛되이 슈고롭게 마옵쇼셔[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ᄅᆞᆯ 졉붓치ᄂᆞᆫ 비유라(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16)]
다. 대뎡코 셜한ᄒᆞᆯ 도리를 궁구ᄒᆞ여 보ᄋᆞᆸ쇼셔[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라. 단당코 대 증창을 ᄒᆞᄋᆞᆸ쇼셔[시ᄉᆞ문답(독립신문, 1908. 10. 28)]

그리고 '신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어간+옵+소서'의 유형이 쓰이고 있다.

(32) 신소설
가. 우리길슌이ᄂᆞᆫ, 부모를잘못맛ᄂᆞᆫᄌᆈ로저럿케죽ᄂᆞᆫ거시, 불상ᄒᆞ니, 후ᄉᆡᆼ에ᄂᆞ, ᄌᆞᆯ되도록, 졈지ᄒᆞ여쥬옵소셔(귀의성, 66쪽)
나. 아모죠록불상히보셔화픠ᄂᆞ다시업슬ᄌᆞ리를지시ᄒᆞ야쥬옵소셔(구마검, 43쪽)
다. 셔방님 지ᄂᆞᆫ달식가 오원만 면져 가져가오니 남어지ᄂᆞᆫ 월죵에 셰음ᄒᆞᄋᆞᆸ소셔(설중매, 26쪽)
라. 숙부ᄂᆞᆫ 이것을자세히 보ᄋᆞᆸ소셔(설중매, 58쪽)
마. 어머님게셔 그의향을 탐지ᄒᆞ야보시압소셔(모란병, 101쪽)
바. 쳐녀로 늙을지언졍 타문에ᄂᆞᆫ 가지못ᄒᆞ겟사오니 다시ᄂᆞᆫ말삼 마압소셔(원앙도, 91쪽)
사. 슈월간에풀무를잠심ᄒᆞ왓시니 념려마ᄋᆞᆸ소셔(쳘세계, 22쪽)

이에 명령종결어미 '-소서'가 공대선어말어미 '-옵-'과 결합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5.8.4. '어간+시/으시+옵+소서'

한편 명령종결어미 '-소서'는 '어간+시/으시+옵-'의 형태와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유형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두 개만 보인다.

(33) 단형서사

가. 뎌 물 가온듸 잇는 돈 견듸를 건져 주시옵쇼셔[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21)]

나. 쥬인쒸셔는 만만 년이나 사시옵쇼셔[모듸거져가 그 쥬인의게 복죵홈(그리스도신문, 1902. 2. 15)]

한편, '신소설'에서도 '어간+시/으시+옵+소서'의 유형이 찾아진다. 하지만 이의 용례는 '단형서사'에 비해 월등히 많이 찾아진다.

(34) 신소설

가. 어마니 념우 격졍마시고 안심ᄒᆞ시옵소셔(설중매, 1쪽)

나. 그유셔를 다시ᄒᆞᆫ번 뵈야쥬시옵소셔(설중매, 57쪽)

다. 업다러 바라건듸 양위존당(兩位尊堂)은 쳔만보즁ᄒᆞ사 빅셰향슈 ᄒᆞ시옵소셔[금국화(상), 68쪽]

라. 나리게옵셔 희롱의말솜을 ᄒᆞ시지 마시옵쇼셔(화중화, 29쪽)

마. 집안을졍돈 ᄒᆞ신연후에 쳡을바리시지 아니ᄒᆞ시깃습거든 츄후 ᄯᅩ 더려가시옵소셔(화중화, 40쪽)

바. 오날브터 물동의 이겟습고 무삼고역이든지 부리시는듸로 복종ᄒᆞ겟ᄉᆞ오니 아무염녀 마시옵소셔(화중화, 46쪽)

사. 스님ᄭᅴ셔 긴급ᄒᆞ신일이 잇거던 아모고리말으시고 몃가지던지 ᄆᆞ옴듸로 ᄂᆡ

여팔아 쓰시옵소셔(화세계, 72쪽)

아. 어머님게셔 그의향을 탐지ᄒᆞ야보시압소셔(모란병, 101쪽)

자. 아못조록 정신을 수습ᄒᆞ시고 불길ᄒᆞᆫ마음을 잡수시지 마시옵쇼셔(추천명월, 4쪽)

차. 목마르신데 ᄒᆡ갈이나 위션ᄒᆞ시옵쇼셔(추천명월, 54쪽)

카. 눈은잇스나 망울이업셔 몰나뵈옵고 죄를짓사오니 용서ᄒᆞ야쥬시옵쇼셔(추천명월, 126쪽)

타. 규수는 놀나지마시옵쇼셔(세검정, 3쪽)

파. 법율에 위반되는줄 아시거던 ᄲᅡᆯ이도로가시고 풍화에손상됨이 업게ᄒᆞ시옵쇼셔(세검정, 4쪽)

그러므로 '어간+시/으시+옵+소서'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으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 비해 '신소설'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명령법 종결어미 및 종결어미 결합 형태를 요약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용언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라’	‘어간+라’	○	○
	‘어간+으+라’	○	○
	‘어간+아/어+라’	○	○
	‘어간+거+라’	○	○
	‘어간+너+라’	○	○
‘-아’	‘어간+아’	×	○
‘-으렷다’	‘어간+으렷다’	×	○
‘-려무나’	‘어간+려무나’	×	○
‘-게’	‘어간+게’	○	○
‘-구려’	‘어간+구려’	×	○
	‘어간+시/으시+구려’	×	○
‘-오/소’	‘어간+오/소’	○	○
	‘어간+시/으시+오’	○	○
	‘어간+시/으시+지+오’	○	○
	‘어간+읍/옵시+오’	×	○
‘-소서’	‘어간+소서’	○	○
	‘어간+으+소서’	○	○
	‘어간+옵+소서’	○	○
	‘어간+시/으시+옵+소서’	○	○

위의 도표에서 보인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들은 서술법이나 의문법에서와는 달리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용례를 한 번만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6. 청유법 어미분석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제안하는 문장유형을 말한다(남기심·고영근, 1993. p.356). 즉,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인 것이다(이관규, 1999, p.269) 따라서 청유법은 어떠한 일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자는 것을 말하는 화법이 된다. 여기 제6장에서는 청유법의 종결어미 중에서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사용된 '-자', '-세', '-사이다'에 대해 분석한다.

6.1. '-자'

청유종결어미 '-자'는 해라체 청유문의 대표적인 표기로서(남기심·고영근, 1993. p.356 참조) 친구나 손아랫사람에게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국어에서 해라체 청유형에 속하는 '-자'는 '-져 > -쟈 > -자'의 변화를 거친 종결어미이다(이경우, 1998. p.89, 김태엽, 2001. p.182). 이러한 '-자'는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자'의 형태를 이룬다. 이와 같은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진다.

(1) 단형서사

가. 총 메고 가쟈.[친구 심방ᄒᆞ다가 뵬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0)]

나. 이 곳에로 오지 말고 다른 곳에로 가자[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1. 31)]

다. 그리ᄒᆞ쟈[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라. 먹는 우물을 졸디에 곳치쟈[동도 산협 듕에(매일신문, 1898. 4. 20)]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간+자'의 유형이 찾아진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신소설

가. 그러나, 그소리ᄂᆞᆫ, 다그만두고악가ᄒᆞ던말이나ᄒᆞ자(귀의성, 72쪽)

나. 이ᄋᆡ네ᄆᆞᆯ을좀자세들어보자(귀의성, 122쪽)

다. 허 허 우리들이 죠션ᄉᆞᄅᆞᆷ인즉 죠션풍속ᄃᆡ로ᄆᆞᆫ 수작ᄒᆞ자(혈의루, 71쪽)

라. 남순아 너고나고죽자[치악산(상), 12쪽]

마. 셔방님도 만ᄂᆞ뵈올날도 잇슬터이니고싱을 쥬리참듯참아보자[치악산(상), 50쪽]

따라서 어간에 청유종결어미 '-자'가 결합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된 어미 구성이 됨을 알 수있다.

6.2. '-세'

현대국어에서 하게체에 속하는 청유종결어미 '-세'에 대해 이기갑(1978, p.48~49)은 중세국어의 ᄒᆞ쇼셔체 청유형인 '사이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이를 '사- + -으이- + -다 > 새- + -으이- + -다 > 새다 > 새'로 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세'는 16세기 이래로 이어오고 있으며(권재일, 2005. p.90)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와 동격체이거나 아랫사람에게 함께 하자는 뜻을 가진다.

6.2.1. '어간+세'

청유종결어미는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세'와 같은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단형서사

가. 술을 풀아 술잔 갑시나 버러 보셰[동젼 서 푼에 쇼쥬가 ᄒᆞᆫ 통(경향신문, 1907. 11. 22)]

나. 리진ᄉᆞ의 물을 ᄡᅳᆯ어다가 아모 날 아모 쟝에 풀아셔 분식ᄒᆞ세[친구 심방ᄒᆞ다가 물을 일헛네(경향신문, 1907. 12. 27)]

다. 알을 만히 밧어셔 병아리를 만히 ᄢᅵ이셰[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마찬가지로 청유종결어미 '-세'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신소설

가. 그릐, 속이ᄂᆞ좀자셰히알세(귀의성, 28쪽)

나. 방에드러가셔말이ᄂᆞ좀ᄌᆞ세듯세(귀의성, 31쪽)

다. 여보게 마누라 남복ᄒᆞᆫ치 술ᄒᆞᆫ잔먹세(추천명월, 96쪽)

라. 동늬ᄇᆡᆨ셩들을 늬보늬고 ᄇᆞᆼ으로 드러가셰(은세계, 21쪽)

마. 그러면 그장님을 불너다 일을 ᄒᆞ야보셰(구마검, 6쪽)

바. 여서 속이나 시원ᄒᆞ게 이약이좀듯셰(빈상설, 62쪽)

사. 나의회사도ᄒᆞᆯ겸, 바람도 쏘일겸, 허허실실로, 의원도볼겸ᄒᆞ야, 편ᄒᆞᆫ, 교군이나타고, 내집으로, 좀드러가셰[홍도화(하), 99쪽]

따라서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어간+세’의 유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2. ‘어간+ㅁ세’

청유종결어미 ‘-세’는 명사전성어미 ‘ㅁ’과 결합하여 그 형태 그대로 하나의 청유종결어미로 쓰인다. ‘ㅁ’과 결합된 ‘-ㅁ세’는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ㅁ세’의 형태로써 사용된다. 이러한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단형서사

가. 목이 ᄐᆞ니 마시고 ᄎᆞᆫᄎᆞᆫ히 리약이 ᄒᆞᆷ세[ᄆᆡᆺ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25)]

나. 아모텬지 나는 그ᄃᆡ로 본국심을 일치 안코 죠션국 ᄃᆡ표로 물쥬가 됨세[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다. 그리ᄒᆞᆷ세[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라. 내 十됴건ᄆᆞᆫ ᄉᆞᆲ여옴세[힝세문답(독립신문, 1899. 1. 23)]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어간+ㅁ세’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6) 신소설

가. ᄂᆡ가오늘븟터 혼쳐를 ᄉᆞ면구ᄒᆞ야 봄세(모란병, 8쪽)

나. ᄒᆞᆫ턱말고 두턱이라도 ᄒᆞᆷ세(모란병, 49쪽)

다. 이것이 약소ᄒᆞ남아 위션쓰면 이다음에 ᄯᅩ 얼마간 보죠ᄒᆞᆷ세(모란병, 90쪽)

라. 자네 ᄂᆡ외마음ᄃᆡ로 ᄯᆞᆯ을만나게ᄒᆞᆷ세(재봉춘, 185쪽)

마. ᄂᆡ가셔 되도록ᄒᆞ여봄세(화중화, 11쪽)

바. 자네가진정 마음이 골도ᄒᆞ면 내 중간에셔 잘중미ᄒᆞ여봄세(화중화, 11쪽)

사. 텬디간에 용셔치못ᄒᆞᆯ 이 강도놈죽이고 이약이ᄒᆞᆷ세(화중화, 34쪽)

그러므로 청유종결어미 ‘-ㅁ세’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는 물론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6.3. ‘-ㅂ시다’

청유종결어미 ‘-ㅂ시다’는 15세기 국어 ‘-사-이-’를 이은 형태로서 ‘-옵-사-이-다 > 읍싀다 > 읍시다’의 변천을 겪은 것이다(권재일, 2005. p.90~91 참조). 안병희·이광호(1990, p.246)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겸양법의 선어말어미와 ‘-사이다’가 결합하여 ‘-ㅂ시다’를 생성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ㅂ시다’는 상대방을 존대해가며 어떠한 것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것으로서 청유종결어미 ‘-ㅂ시다’가 어간과 결합하는 경우와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6.3.1. ‘어간+ㅂ시다’

청유종결어미 ‘-ㅂ시다’는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형서사’에서 쓰인 바가 없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ㅂ시다’와 같은 어미 구성이 사용되었다.

(7) 신소설

가. 츈쳔집을좃ᄎᆞ보닛스면, 그ᄆᆞᆫ이지 져안망으로 드러갑시다(귀의성, 25쪽)

나. 그러ᄒᆞ실터이면, 츈쳔집을불러드려다가, 져, 건넌방에둡시다(귀의성, 64쪽)

다. 좀기다려봅시다(빈상설, 125쪽)

라. 붓비 우리나라에 도라가셔 우리비혼디로나라에 유익 ᄒᆞᆫ사업을 ᄒᆞ야봅시다 (은세계, 129쪽)

마. 별말말고 니말디로 합시다(구마검, 11쪽)

따라서 청유종결어미 '-ㅂ시다'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을 알 수 있다.

6.3.2. '어간+시/으시+ㅂ시다'

청유종결어미 '-ㅂ시다'는 어간 외에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형서사'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8) 신소설

가. 우리먹고 입는것이나 황씨딕에 폐를 끼치지나 아니ᄒᆞ도록 ᄒᆞ십시다(모란병, 78쪽)

나. 황씨딕에 폐를 끼치지나 아니ᄒᆞ도록 ᄒᆞ십시다(모란병, 78쪽)

다. 거복이를불너 ᄌᆞ초ᄉᆞ실을 다시무러나 보십시다(빈상설, 30쪽)

라. 나도아ᄌᆞ씨를 좀뵈아랴고힛더니 우리방으로 가십시다(빈상설, 60쪽)

마. 황은률다려는 나잠든동안에 리부인이 도쥬ᄒᆞ엿다고 ᄒᆞ십시다(빈상설, 92쪽)

바. 자근어마니 웨이러케 울으심닛가 고ᄆᆞᆫ긋치시고 집으로 드러가십시다[홍도

화(상), 2쪽]

사. 그럴디경이면 어셔쩌나게ᄒᆞ십시ᄃᆞ[홍도화(상), 39쪽]

아. 에그 어머니 져보살을보니지말고 갓치살게ᄒᆞ십시다(치악산(하), 16쪽)

자. 그것도마ᄌᆞ사셔완쟝산소를면례히보십시다(구마검, 46쪽)

이와 같이 '어간+시/으시+ㅂ시다'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의 경우 일절 사용되지 않았으나 '신소설'에서는 상당히 널리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6.4. '-사이다'

청유종결어미 '-사이다'는 어떠한 일을 같이 하자고 청함에 있어서 가장 공손하게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사이다'는 '-ᄉᆞ이다'로도 표기되는데 이는 중세국어 '-사이다'의 계승형으로서 좀 더 문어체에 가까운 표기이다(김형철, 1997. p.340 참조). 안병희・이광호(1990, p.246)에서는 선어말어미 '-사-'를 공손법어미 '-이-'에 선행시킨 것이 '-사이다'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다'는 구문에서 어간과 결합하여 쓰인다. '단형서사'에서도 어간과 결합된 청유종결어미 '-사이다'를 볼 수 있다.

(9) 단형서사

가. 셰계를 낫낫치 구경ᄒᆞ기 심히 어려우니 위션 텬당브터 가ᄉᆞ이다[디구셩 미래몽(대한매일신보, 1909. 8. 3)]

나. 그러ᄒᆞ면 그리로 가ᄉᆞ이다[경상남도 문경군에(제국신문, 1906. 9. 28)]

청유종결어미 '-사이다'가 어간과 결합된 어미의 구성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 신소설

가. 선분의고초ᄂᆞᆫ 후분의안락 될 장본이니 조곰도 비상치 마르시고 젼후 방침을 도모ᄒᆞ사이다(설중매, 77쪽)

나. 리히묵씨여 천만보즁ᄒᆞ야 차ᄉᆡᆼ에 미진ᄒᆞᆫ 인연을 후ᄉᆡᆼ으로 긔약ᄒᆞ사이다[금국화(하), 77쪽]

따라서 청유종결어미 '-사이다'가 어간과 결합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사이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사이다'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청유종결어미 '-사이다'는 최근세국어에서도 여전히 대화체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6.5.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청유법 종결어미와 이의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들을 요약하여 도표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언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자’	‘어간+자’	○	○
‘-세’’	‘어간+세’	○	○
	‘어간+ㅁ세’	○	○
‘-ㅂ시다’	‘어간+ㅂ시다’	×	○
	‘어간+시/으시+ㅂ시다’	×	○
‘-사이다’	‘어간+사이다’	○	○

위의 도표에서 보인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들은 명령법에서의 종결어미 결합 형태에서와 같이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용례를 한 번만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7. 약속법 어미분석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다.[31] 따라서 약속법은 상대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해주기로 언약하는 화법을 말한다.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사용된 약속종결어미는 ‘-마’이다. 이에 제7장에서는 약속법의 종결어미 중에서 ‘-마’에 한해 분석을 할 것이다.

7.1. ‘-마’

약속어미로는 ‘-마’만 나타난다(권재일, 2005. p.58). ‘-마’는 어간과 결합하거나 음절과 결합을 한다.[32]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찾아진다. 여기 ‘7.1’에서는 약속종결어미 ‘-마’가 어간과 결합한 경우와 음절과 결합한 경우에 한해 분석한다.

7.1.1. ‘어간+마’

약속종결어미인 ‘-마’는 어간과 결합하여 ‘어간+마’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 신소설

가. 어딕던지, 고싱이ᄂ아니홀곳으로보닉쥬마(귀의성, 13쪽)

---

31) 표준 국어대사전(1999) 참조.

32) 중세국어에서 약속법어미 ‘-마’는 항상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가 선행된다(안병희・이광호, 1990. p.248).

나. 그것만, 아라쥬면, 네치마도ᄒᆞ여쥬고, 저구리도ᄒᆞ여쥬마(귀의성, 63쪽)
다. 사실이 젹부ᄒᆞ면 ᄂᆡ가 어듸ᄭᆞ지든지 발명ᄒᆞ여쥬마(화중화, 28쪽)
라. 이ᄋᆡ옥단ᄋᆞ 네가 네정셩것 날을위ᄒᆞ야쥬면 나도ᄂᆡ마음것 너를위ᄒᆞ야쥬마 [치악산(상), 79쪽]
마. ᄂᆡ속시연ᄒᆞᆫ일을 ᄒᆞ여 쥬면 나도네소원ᄃᆡ로속냥은ᄒᆞ여쥬마[치악산(상), 82쪽]

따라서 약속종결어미 '-마'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음 알 수 있다. 그런데 '어간+마'의 형태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의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를 지나 '신소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7.1.2. '어간+으+마'

약속종결어미 '-마'는 어간과의 결합 외에 어간과 어미 간의 소리를 고르는 음절인 '-으-'와도 결합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이의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신소설
가. 이담에ᄂᆞᆫ나제오지말고, 밤에오너라, 기다리고잇스마(귀의성, 51쪽)
나. ᄂᆞᄂᆞᆫ오날부터령감을뵙더러도, 아무소리말고, 가마니잇스마(귀의성, 80쪽)
다. 무ᄉᆞᆫ말을듯던지 드른체도말고잇스마[치악산(상), 71~72쪽]

그러므로 약속종결어미 '-마'가 어간과 결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간+으+마'의

경우도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고 '단형서사'에서는 일체 사용된 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1.3. '어간+어+마'

약속종결어미 '-마'는 음절 '-으-' 외에 '-어-'하고도 결합을 한다. 음절 '-어-' 역시 어간과 어미 간의 소리를 고르는 음절로서 음절 '-으-'의 이형태이다. 그런데 약속종결어미 '-마'가 음절 '-어-'와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그리고 이는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약속종결어미 '-마'의 유일한 용례이다.

(3) 단형서사
근쳐 아모 동리에 무삼 소관이 잇셔 잠간 단여셔 회로에 들너마[살신성인(매일신문, 1906. 10. 22)]

하지만 약속종결어미 '-마'가 음절 '-어-'와 결합한 용례는 오직 '단형서사'에서만 보일 뿐 '신소설'에서는 일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국어에 있어서 약속종결어미 '-마'는 음절 '-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소설'에서 '어간+어+마'의 유형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제한이 '신소설' 때부터 강력히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2.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약속법의 종결어미 및 이의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들에

대해 요약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언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마'	'어간+마'	×	○
	'어간+으+마'	×	○
	'어간+어+마'	○	×

위의 도포에서 보인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들은 '단형서사'이든 '신소설'이든 용례는 둘 이상 찾아졌다.

8. 감탄법 어미분석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유형이다(남기심・고영근, 1993. p.347). 즉, 화자가 어떤 감동을 곧장 드러내는 양식의 문이다(김민수, 1971, p.295). 따라서 이러한 문장을 이끄는 감탄법은 말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느낀 바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화법이 된다. 여기 제8장에서는 이러한 감탄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중에서 '-도다', '-로다', '-로고/로구', '-로군', '-로구나', '-구나', '-구려', '-구먼', '-네' 등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들 감탄종결어미들은 모두 '단형서사' 또는 '신소설'에서 사용된 어미들이다.

8.1. '-도다'

'-도다'는 역사적으로 강조-영탄어미 '-도-'와 '-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미로서 감탄의 의미를 실현한다(권재일, 2005. p.43). 때문에 안병희・이광호(1990, p.241)에서는 '-도다'의 '-도-'를 감동법의 선어말어미로 보고, '-다'는 설명법어미로 보고 있다. 한편, '-도다'는 '이-'나 시제어미 '-으리-' 다음에서 '-로다'로 나타난다(권재일, 2005. p.44). 여기서는 '-로다'가 나타나는 환경이 '-도다'와 다르므로 이를 따로 다루어 분석할 것이다. '단형서사' 또는 '신소설'에서는 '어간+도다', '어간+았/었/였+도다', '어간+겠+도다', '어간+는+도다'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8.1.1. '어간+도다'

감탄종결어미 '-도다'가 어간과 바로 결합한 형태인 '어간+도다'는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단형서사

가. 우리 신셩ᄒᆞ신 단군의 ᄌᆞ손의 디옥이 목젼에 잇도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1)]

나. 한번 간 후에 다시 올 ᄯᅢ에는 들너지 안이ᄒᆞ얏거니와 필경 너의 일가가 될 듯ᄒᆞ도다[살신성인(제국신문, 1906. 11. 1)]

다. 민 관계가 이러틋시 지즁ᄒᆞ도다[디구셩 미릭몽(대한매일신보, 1909. 7. 22)]

라. 졔 욕심을 치우랴고 나무껍헤 버러셧스니 그도 ᄯᅩᄒᆞᆫ 가증ᄒᆞ도다[남산 아릭 어느 친구를(매일신문, 1898. 11. 9)]

마. 사룸이 모도 일을 그릇ᄒᆞ고 필경은 운슈라 하놀이라 ᄒᆞ니 어리셕도다[쳥국 형편 문답(독립신문, 1899. 1. 11)]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에서처럼 '어간+도다'의 유형을 볼 수 있다.

(2) 신소설

가. 오날날 자네먹는 마음을 보니 내 실망이 크도다(송뢰금, 105~106쪽)

나. 갈보라ᄒᆞ는거슨 기되야지버담 더러온거신데 이ᄌᆞ리에셔 쥭어 업셔지니만 갓지못ᄒᆞ도다(추천명월, 42쪽)

다. 늬가 어림업도다(추천명월, 62쪽)

라. 나의일홈이 셔울 ᄭᅡ지 낫도다(추천명월, 67쪽)

마. 이갓흔공상을 두는것이불가ᄒᆞ도다(안의성, 11쪽)

바. 허 세상에 나갓튼ᄉᆞ롬이 ᄯᅩ잇도다(세검정, 2쪽)

사. 암만히도 알수업도다(세검정, 109쪽)

따라서 ‘어간+도다’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탄종결어미 ‘-도다’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미이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대화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현대국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8.1.2. ‘어간+았/었/였+도다’

감탄종결어미 ‘-도다’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단형서사

가. 나 이런 사롬이 잇는 줄을 몰낫도다[사롬은 몬져 그 눈을 볼 것이라(경향신문, 1909. 6. 18)]

나. 교육의 즁훈 듯을 황연이 알앗도다[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14)]

다. 또훈 신졉훈 죠화로 되지 안닌 쥴을 알앗도다[시사문답(대한매일신보, 1906. 3. 14)]

라. 도적의 힝흉ᄒᆞ는 것을 알앗도다[녯젹에 셔양 어늬 나라에(매일신문, 1899. 1. 27)]

마. 내 아둘아 웅당 죽엇도다[모로는 사롬을 구원홈(조선크리도인회보, 1898. 5. 4)]

바. 내가 ᄆᆞ옴에 싱각ᄒᆞ기를 이번에는 죵아리를 면ᄒᆞ지 못ᄒᆞ엿도다[ᄉᆞ랑ᄒᆞ는 거시 사롬을 감복케 홈(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8. 5. 25.)]

사. 이 금탕叉흔 아롬다온 산하가 오놀날 이 가련훈 형샹이 되엿도다[완고와 신진의 문답(대한매일신보, 1908. 7. 29)]

아. 어린 ᄋᆞ희를 뉘엿도다[엇더ᄒᆞᆫ 션비가(제국신문, 1899. 10. 22)]

마찬가지로 '어간+았/었/였+도다'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4) 신소설

가. 이ᄂᆞᆫ 진실로 유명ᄒᆞᆫ글이라 소진의 고심ᄒᆞ든모양을 핍절히 그려니엿도다(설중매, 14쪽)

나. 아참잠을 대단히 늣도록잣도다(설중매, 38쪽)

다. 형은 아즉 그 소문을듯지못ᄒᆞ얏도다(설중매, 66쪽)

라. 먼져 영양피로 그 몸에 싯쳐셔 그넘시가 ᄶᅡᆨ 졋게ᄒᆞᆫ후에 흑마를 쥬촉히셔차 쥭엿도다(비행선, 22쪽)

마. 하 그ᄉᆞ룸을 부졀업시 보넛도다(비행선, 42쪽)

바. 내가 하ᄂᆞ님ᄭᅴ 아둘을 엇엇도다(부부의 모본, 256쪽)

사. 유모를친뎡으로보닌후에는극히고싱되ᄂᆞᆫ것이만엇도다[두견성(상), 51쪽]

아. 결코 절디덕으로 권력을 그아둘에게만 둘것이 안인줄을 알엇도다[두견성(하), 55쪽]

이처럼 감탄종결어미 '-도다'가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도다'가 비록 '-구나'의 옛말 형태이지만 최근세국어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널리 쓰인 어미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감탄종결어미 '-도다'는 잘 쓰이지 않는 어미이지만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는 활발하게 쓰이는 어미였음도 확인된다.

8.1.3. ‘어간+겠+도다’

감탄종결어미 ‘-도다’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어간+겠+도다’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도 ‘단형서사’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5) 단형서사

가. 됴흔 실과를 가히 엇겟도다[악ᄒᆞᆫ 나무에 됴흔 가지ᄅᆞᆯ 졉붓치ᄂᆞᆫ 비유라(1897. 6. 16)]

나. 금년 셜에ᄂᆞᆫ 거위고기ᄅᆞᆯ 먹겟도다[로인의 부부지락(그리스도신문, 1901. 12. 19)]

다. 심히 갑갑ᄒᆞ여 못 견듸깃도다[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5. 12. 28)]

라. 륵으면 졍신죠ᄎᆞ 륵는 쥴을 알깃도다[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5. 12. 29)]

마. ᄂᆡ가 금일 츌입을 못 ᄒᆞ깃도다[정기급인(제국신문, 1906. 10. 9)]

이는 ‘신소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이의 어미 구성을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6) 신소설

가. 그녀ᄌᆞ의 창법검슐ᄭᆞ지 통투ᄒᆞᆷ을 가히알겟도다(자유종, 5쪽)

나. 졔ᄀᆞᆯ량에 부인이 환셰를 힌나 한번보왓스면 한이 업깃도다(세검정, 78쪽)

다. 잘못ᄒᆞ면 격렬당이되지 아니ᄒᆞᆯ가 모로겟도다(설중매, 48쪽)

라. 아죠 긔억지못ᄒᆞ겟도다(설중매, 69쪽)

마. 씀씩이 밋진것이라ᄒᆞ야도 과히허언이아니라 ᄒᆞ겟도다(금강문, 122쪽)

바. 쳘텬지한이 셕삭지도 아니ᄒᆞ야 ᄯᅩ이춤경을보겟도다(금의쟁성, 4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도다'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한 경우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최근세 국어에서 생산적이었음이 확인된다.

8.1.4. '어간+는+도다'

감탄종결어미 '-도다'는 현재선어말어미 '-는-'과도 결합을 한다. 이런 경우 역시 '단형서사'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7) 단형서사

가. 네가 현풍 산다ᄒᆞ고 셩이 곽가라 ᄒᆞ니 이젼 일이 ᄉᆡᆼ각나는도다[살신성인(매일신문, 1906. 11. 1)]

나. 일변 붓그럼 마ᄋᆞᆷ도 나는도다[향로방문의ᄉᆡᆼ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6)]

다. 공은 호랑이의 셩질을 알지 못ᄒᆞ는도다[범잡는 말(대한매일신보, 1907. 10. 8)]

라. 일인의 쟝즁에 그 리익이 모다 드러가게 ᄒᆞ는도다[실업계에 실패ᄒᆞᆫ쟈의 가련ᄒᆞᆫ 담화(대한매일신보, 1908. 11. 5)]

마. 원학이 나를 보고 친ᄒᆞ는도다[어옹과 초부 두 사ᄅᆞᆷ이(매일신문, 1898. 12. 22)]

바. 그ᄃᆡ가 ᄂᆞᆷ의 큰 것만 보고 잇쳐로 거륵히 녁이며 나의 긔량과 지조는 모로는도다[.창히가 망망ᄒᆞ야(매일신문, 1898. 8. 15)]

그리고 '어간+는+도다'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의 경우와 같이 '신소설'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8) 신소설

가. 그ᄭᅩᆺ이 경각에 빗이변ᄒᆞ며 향긔가 젹막ᄒᆞ야지ᄂᆞᆫ도다(화의혈, 2쪽)

나. 이놈이 오날ᄂᆡ손에 쥭는도다(세검정, 74쪽)

다. 하 그시계 가지ᄂᆞᆫ안코 짐즛 희롱을 ᄒᆞᄂᆞᆫ도다(비행선, 44쪽)

라. 하 니ᄀᆡ특군은 이특나의 능력을 몰으시ᄂᆞᆫ도다(비행선, 100쪽)

마. 마귀를 ᄯᅡ라가ᄂᆞᆫ도다(경세종, 11쪽)

바. 사ᄅᆞᆷ들은 미련ᄒᆞᆫ ᄉᆡᆼ각에 그 곡식을 파먹ᄂᆞᆫ쥴노 아ᄂᆞᆫ도다(금수회의록, 11쪽)

이에 감탄종결어미 '-도다'가 현재선어말어미 '-는-'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널리 쓰였음이 확인된다.

8.2. '-로다'

감탄종결어미 '-로다'는 감탄종결어미 '-도다'의 이형태로서 '-도다'가 '이-'나 시제어미 '-으리-'와 결합하였을 때의 변이형이다. 계사하고만 결합되는 감탄종결어미 '-로다'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도 이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9) 단형서사

가. 글 넑은 쟈ㅣ로다[쇠가 무거우냐 새 깃이 무거우냐(경향신문, 1907. 11. 15)]

나. 오날이 곳 만복지일이로다[ᄌᆡ물이 근심거리(경향신문, 1907. 1. 11)]

다. 세계 풍진 상관 업는 무릉도원 여긔로다[엇든 친구들이 모여 안ᄌᆞ(매일신

문, 1900. 3. 2)]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역시 '단형서사'에서와 같이 '어간+로다' 형태의 어미 구성을 볼 수 있다.

(10) 신소설

가. 글세 밧는것이 올흘지모로나 나의셩명이 쓰엿스니 아마잘못오지는 아니ᄒᆞᆫ 것이로다(설중매, 25쪽)

나. 싀어머니원망말고 ᄂᆡ팔자한탄ᄒᆞᆯ일이로다[치악산(상), 160쪽]

다. 오날그기ᄉᆡᆼ을보니 경국지ᄉᆡᆨ(傾國之色)이로다(추천명월, 52쪽)

라. 이녀ᄌᆞ에 탄식ᄒᆞ는소리를드르니 나와일반이로다(세검정, 2쪽)

마. 텬하에 독ᄒᆞᆫ년이로다[구의산(하), 14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로다'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8.3. '-로고/로구'

감탄종결어미 '-로고/로구'는 혼잣말처럼 하는 감탄을 나타낸다. 이는 '이다' 또는 '아니다'를 어간으로 하므로 용언이 아닌 계사하고만 결합을 한다. 감탄종결어미 '-로구'는 '-로고'의 이형태이다. 이중에서 기본형은 '-로고'이다. 감탄종결어미 '-로고/로구'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단형서사'에서도 찾아진다.

(11) 단형서사

가. 괴이ᄒᆞᆫ 일이로고[소설단편(만세보, 1906. 7. 3)]

나. 가는흔 살님사리 잘흐던 안해 생각이 느던 거시로구[화수(대한민보, 1909. 6. 13)]

다. 이놈 도적 놈이로고[동젼 서 푼에 쇼쥬가 흔 통(경향신문, 1907. 12. 6)]

라. 허허 그 흉한 일이로고[밋은 나무에 곰이 픠다(경향신문, 1907. 11. 1)]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어간과 결합한 감탄종결어미 '-로고/로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2) 신소설

가. 응, 그적게, 저녁에, 도망흔춘천마마의, 어머니로구(귀의성, 30쪽)

나. 너는 놀더러종시 히라소리를아니흐니 느도마쥬흐오를 흘일이로구(혈의루, 72쪽)

다. 져잘못흔줄은, 생각지안코화가, 날만치, 나던것이로구[홍도화(하), 19쪽]

라. 허허허 긔화군의쏠이 다른거시로구[치악산(상), 21쪽]

마. 허 시럽슨 사롬이로고(명월정, 8쪽)

바. 교군 인력거는 아니야 사롬쁜이니가 그러면 숨숨구 구십젼이로고(명월정, 89쪽)

이에 '어간+로고/로구'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쓰였음이 확인된다.

8.4. '-로구나/로군'

감탄종결어미 '-로구나/로군'은 스스로 새삼스럽게 인지하여 내뱉는 감탄을 나타낸다. 이는 구문에서 계사하고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다. '-로군'은 '-로구나'의 준

말이다.

'단형서사'에서는 감탄종결어미 '-로구나' 형태만 쓰이고 이의 준말인 '-로군'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았다.

(13) 단형서사

가. 영영 고초 격글 ᄌᆞ는 후진 쳥년ᄂᆡ로구나[향로방문의싱이라(대한매일신보, 1906. 1. 7)]

나. 갑오라 갑ᄌᆞ ᄭᅩ리로구나[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다. 내 갑오ᄂᆞᆫ 뉘 갑오만 못ᄒᆞᆫ가 갑ᄌᆞ ᄭᅩ리로구나[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한편, '신소설'에 있어서는 '-로구나'는 물론 이의 준말인 '-로군'도 사용되었다.

(14) 신소설

가. 죠년이, 날을, 미워셔부리난포달이로구나(귀의성, 138쪽)

나. 허 계집의ᄌᆡ죠가 ᄉᆞᆫ아희보다 ᄂᆞ흔거시로구나(혈의루, 70쪽)

다. ᄭᆞ마귀ᄂᆞᆫ군자ᄀᆞᆺᄒᆞᆫ ᄉᆡ라더니 녯말이 오른말이로구나(은세계, 68쪽)

라. 쌀파라 먹을돈은 업셔도 슐사먹을돈은 잇던것이로구나(모란병, 10쪽)

마. 우리가 무릉도원에 드러온모양이로군(모란병, 37쪽)

바. 뎡녕 음란ᄒᆞᆫ ᄒᆡᆼ위로 승야월장ᄒᆞ야 도망ᄒᆞᄂᆞᆫ것이로구나(모란병, 44쪽)

사. 마님이, 먼져, 알으시고, 무르셔셔, 대답ᄒᆞᆫ것을, 무엇이라고, 걱정ᄒᆞ실나구, ᄃᆞ리ᄂᆞᆫ, 것이로군[홍도화(하), 22쪽]

아. 올치 물에ᄣᅡ진사ᄅᆞᆷ이 죽을ᄯᅢᄂᆞᆫ ᄀᆡ여나와죽ᄂᆞᆫ다더니 그말이로군(빈상설, 15쪽)

자. 오오 말ᄒᆞᄂᆞᆫ눈치가 날다려 셔방질ᄒᆞᆫ다말이로군[치악산(하), 40쪽]

따라서 '신소설'에서는 감탄종결어미 '-로구나'와 이의 준말인 '-로군'이 모두 사용되었으나 '단형서사'에서는 '-로구나'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8.5. '-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혼잣말로서 새삼스레 내뱉는 감탄을 나타낸다.[33] '-구나'는 이형태로서 '-고나'로 쓰이기도 한다.[34] 해라체의 '-구나'는 하게체에서 '-구먼'으로, 하오체에서는 '-구려'가 된다(남기심・고영근, 1993, p.347).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는 이의 감탄종결어미에 대해 '어간+구나', '어간+겠+구나', '어간+았/었/였+겠+구나', '어간+는+구나', '계사+구나' 등의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여기 '8.5'에서는 이들의 유형에 대해 분석한다.

8.5.1. '어간+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어간과 바로 결합하여 '어간+구나'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 단형서사

가. 즉금은 담비 퓌울 ᄆᆞ옴도 업고나[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14)]

나. 즉금은 내 발 아니면 갈 수 업고나[지간 만흔 도적놈(경향신문, 1908. 2. 14)]

---

33) 권재일(2005, p.55)에서는 '-구나'를 대표적인 감탄어미로 보고 있다.

34) 현대국어의 감탄법어미 '-구나'는 중세국어의 '-고나'가 변한 것이다(안병희・이광호, 1990, p.241~242).

다. 이익 말을 홀 수도 업고 아니 홀 수도 업고나[지난 겨울 밍렬훈 바룸에(대한매일신보, 1910. 3. 9)]

또한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형서사'처럼 '어간+구나'의 형태가 찾아진다.

(16) 신소설

가. 지금은나히 열여섯살이되야 져렷케쳬디ᄒᆞ니 혀라ᄒᆞ기가 셔먹셔먹ᄒᆞ고나(혈의루, 71쪽)

나. 이녀 네 정신은 발셔염라궁에셔 빼셔간나보구나[치악산(상), 58쪽]

다. 령감게셔 요사이 읍닉로 자조 자조 놀러가시더니 아마쳡을두셔나보구나[치악산(상), 72쪽]

라. 어느놀이던지 빈—손으로드러오는놀은업구나[치악산(상), 138쪽]

마. 이익 검홍아 너와나는 죽어셔 혼빅이 셔로맛난것갓구나[치악산(하), 36쪽]

바. 그량반이싀골사라촌시러워보이닛가너의들이넘보고그리나보구나(구마검, 52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구나'가 어간과 바로 결합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8.5.2. '어간+았/었/였+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어간+구나'의 경우와 같이 '단형서사'에서 용례가 찾아진다.

(17) 단형서사

가. 글을 네가 좀 알앗고나[쇠가 무거우냐 새 깃이 무거우냐(경향신문, 1907. 11. 15)]

나. 네 ᄒᆞᆫ몸이 생겻구나[상린서봉(대한민보, 1910. 6. 2)]

다. 아ᄶᅡ 그 쥬인이 쉬라 ᄒᆯ 제 거긔셔 쉬엿더면 됴흘 걸 공연이 그리ᄒᆞ엿고나[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0. 25)]

라. ᄒᆯ 수 업시 ᄲᅢᆺ겻고나[상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또한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례가 찾아진다.

(18) 신소설

가. 이ᄋᆡ너말이, 마젓구ᄂᆞ(귀의성, 71쪽)

나. 남의집 쳐녀더러 ᄯᅩ 히라ᄒᆞ얏구나(혈의루, 84쪽)

다. 나ᄂᆞᆫ너의들이 하도야단을부리기에 참큰일이나 나ᄂᆞᆫ쥴알앗구나(빈상설, 65쪽)

라. 우리누님에게 허물을뒤집어 씌우랴고 찻ᄂᆞᆫ데ᄒᆞ엿구나(빈상설, 98쪽)

마. 이놈이 나를 ᄯᅩ 속엿구나(빈상설, 98쪽)

바. 이번에 셩묘를 왓다가 길에셔 몹실욕을 보앗구나[금국화(상), 84쪽]

사. 나는 네가 ᄭᅩᆨ 죽은줄로만 알앗구나[구의산(하), 94쪽]

아. 너병으로히셔잠도못자며고싱을ᄒᆞ더니네얼골이쳐음올ᄯᅢ보다반쪽이되엿구ᄂᆞ(구마검, 70쪽)

자. 그병풍이 너와 인연이 미진ᄒᆞ야너가사셔두ᄌᆞ 네가와잇쟈 ᄒᆞ엿구나(모란병, 69쪽)

그러므로 감탄종결어미 '-구나'가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하였을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8.5.3. ‘어간+겠+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선어말어미 ‘-겠-’과도 결합을 하여 ‘어간+겠+구나’의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볼 수 없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의 용례가 찾아진다.

(19) 신소설

가. 우리나라인지 타국인지 모로겟구나(빈상설, 140쪽)

나. 너구졔ᄒᆞ야쥬던 송슌검을 어셔ᄒᆞ로밧비 쎄와야ᄒᆞ겟구나(모란병, 74쪽)

다. 여긔셔 지쳬ᄒᆞ다ᄂᆞᆫ 경을톡톡이 치겟구나(모란병, 100쪽)

라. 바로 몰나보겟구나[금국화(상), 91쪽]

마. 사ᄅᆞᆷ이 참 속이타셔 쥭겟구나[금국화(하), 29쪽]

바. 뎌런 그여러소솔이 모다묵쟈면 싀덕에 폐가젹지 안이ᄒᆞ겟구나[구의산(상), 49쪽]

이에 ‘어간+겠+구나’의 유형은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고 ‘단형서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5.4. ‘어간+았/었/였+겠+구나’

한편,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어간+과거선어말어미+겠-’의 형태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형서사’에서는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20) 신소설

가. 올치, 그러면, ᄃᆡᆨ령감게셔, 그ᄃᆡᆨ에가시ᄂᆞᆫ것을, 더러보앗겟구나[홍도화(하), 21쪽]

나. 그러면, 그댁은택을, 만히입엇겟구나[홍도화(하), 104쪽]

다. 그러면 건은방에셔ᄒᆞᄂᆞᆫ소리 너도들엇겟구나(목단화, 12쪽)

따라서 '어간+았/었/였+겠+구나'과 같은 유형에 있어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사용되었고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8.5.5. '어간+는+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현재선어말어미 '-는-'과 결합하여 '어간+는+구나'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단형서사'에서도 볼 수 있다.

(21) 단형서사

가. 허허 셔울 량반들이 모든 잉르 범상히 아ᄂᆞᆫ고나[군ᄉᆞ련습 시에 살인ᄅᆡ력(경향신문, 1908. 4. 3)]

나. 이 칠손이가 비지짬을 철철 흘니고 올나오ᄂᆞᆫ구나[샹풍은 쇼슬ᄒᆞ고(대한매일신보, 1909. 11. 12)]

마찬가지로 감탄종결어미 '-구나'가 '-는-'과 결합한 유형은 '신소설'에서도 용례를 보이고 있다.

(22) 신소설

가. 이ᄋᆡ그쉼니약이를드르니소ᄅᆞᆷ이ᄶᅵ치ᄂᆞᆫ고ᄂᆞ(귀의성, 13쪽)

나. 네가 온갓것을다아라듯더니 호외ᄂᆞᆫ모르ᄂᆞᆫ고ᄂᆞ(혈의루, 42쪽)

다. 볍 볍 볍을믜오 잘아는고나(빈상설, 71쪽)

라. 올치 너아범 교장쪄셰를 ᄒᆞᄂᆞᆫ구ᄂᆞ(금강문, 10쪽)

마. 오리갓만에 오닛가 목소리도 못아라듯는구ᄂᆞ(금강문, 20쪽)

이에 '어간+는+구나' 유형의 경우에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8.5.6. '계사+구나'

감탄종결어미 '-구나'는 계사하고도 결합을 한다.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의 용례는 하나만 찾아진다.

(23) 단형서사

이ᄋᆡ 그것 괴상ᄒᆞᆫ 일이구ᄂᆞ[소셜단편(만세보, 1906. 7. 3)]

그런데 '계사+구나'의 어미 구성은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단 하나의 용례만 찾아지고 있다.

(24) 신소설

발셔아홉뎜이구나[두견성(상), 60쪽]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이+구나'는 널리 쓰이는 어미 구성이다. 하지만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는 이의 유형이 각각 하나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이+구+나'의 어미 구성은 '근대계몽기'의 작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유형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어미 구

성은 현대국어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8.6. '-구려'

감탄종결어미 '-구려'는 새삼스레 내뱉는 감탄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윤석민(2000, p.134~135)은 화자가 처음 알게 되었거나 새롭게 인식하게 된 명제 내용을 주관적 정서를 가지고 진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장종결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는 '어간+구려', '어간+았/었/였+구려', '어간+시/으시+구려', '종결어미+구려' 등의 유형을 보인다.

8.6.1. '어간+구려'

감탄종결어미 '-구려'는 어간에 바로 결합하여 '어간+구려'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단형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소설'에서는 많은 용례가 찾아진다.

(25) 신소설

가. 여보침모ᄭᆞ지, 탐이ᄂᆞᄂᆞ보구려(귀의성, 23쪽)

나. ᄌᆞ세이아지도못하고, 헷푸념을, 그리ᄒᆞ구려(귀의성, 24쪽)

다. ᄯᆞᆯ의집도처음오니, 셤억셤억ᄒᆞ신가보구려(귀의성, 28쪽)

라. 츈천집이, 침모의집에, 잇ᄂᆞ업 ᄂᆞ, 누구를보ᄂᆡ보구려(귀의성, 29쪽)

마. ᄂᆡ가야단을, 죰, 쳣더니, 그거슬보고, ᄒᆞ시ᄂᆞᆫ말슴인가보구려(귀의성, 65쪽)

바. 어제밤에, ᄒᆞ던말이, 마음에겁이ᄂᆞ셧던가보구려(귀의성, 115쪽)

사. 에그, 방에안지신, 어머니손이, ᄒᆞᆫᄃᆡ잇던, ᄂᆡ손보다, 더ᄎᆞ구려(귀의성, 117

쪽)

아. 힝셰ᄂᆞᆫ불상년보다, 더, 해도일에ᄂᆞᆫ, 사대부자쳐를, ᄒᆞ나보구려[홍도화(하), 28쪽]

자. 시어미더러 욕ᄒᆞ고악담ᄒᆞ던 며누리가 ᄂᆡ소리에속이압흘가 염녀가되나보구려[치악산(상), 16쪽]

차. 이놈을 쳐죽인다ᄒᆞ시니 인역은 죽기ᄂᆞᆫ 일반이니 만만ᄒᆞᆫ계집이나 쳐죽이고 죽구려[치악산(상), 58쪽]

카. 술을 자셧나보구려(빈상설, 4쪽)

타. 아모로케 ᄒᆞ던지 일만 잘ᄒᆞ구려(구마검, 11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구려'가 어간과 결합한 형태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으며 또한 널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8.6.2. '어간+았/었였+구려'

감탄종결어미 '-구려'는 어간 외에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도 결합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의 용례를 볼 수 있다.

(26) 신소설

가. 사쟝의ᄂᆡ환이 대단히 침즁ᄒᆞ셔 지금대변즁이라고 슈씨를모시러 하인을 보닛구려(홍도화, 39쪽)

나. 한번보면 짐작ᄒᆞᄂᆞᆫ고로 ᄃᆡᆨ의가진 물건을 구경ᄒᆞ고 오라고 보닛구려(화세계, 144쪽)

다. 그만치고 싱을ᄒᆞ고도 네버릇이 그져남엇구려(화의혈, 93쪽)

라. 장모 마음 변ᄒᆞ엿구려(화중화, 21쪽)

따라서 '어간+았/었/였+구려'의 유형에 있어서도 이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이고 '단형서사'에서는 일절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6.3. '어간+시/으시+구려'

감탄종결어미 '-구려'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으시-'와 결합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형서사'에서는 이러한 결합의 존대선어말어미 '-구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이의 용례가 찾아진다.

(27) 신소설

가. 압다답답ᄒᆞᆫ소리도, ᄒᆞ시구려(귀의성, 10쪽)

나. 허허, 령감, 정신업스시구려(귀의성, 44쪽)

다. 나리는, 혼자당기며, 익를쓰시구려(귀의성, 50쪽)

라. 어셔 닉려가 힘자라는딕로 만분의일신세를 갑ᄒᆞ보시구려(모란병, 79쪽)

마. 에그 영감은 별말슴을 다 ᄒᆞ시구려[치악산(상), 32쪽]

바. 누의님은 ᄒᆞ나만알고 둘도모르시구려(빈상설, 68쪽)

따라서 '어간+시/으시+구려' 유형의 경우 이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8.6.4. ‘종결어미+구려’

한편, 감탄종결어미 ‘-구려’는 다른 종결어미하고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때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오/소’이다. 이러한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8) 단형서사

가. 여보 이상ᄒᆞᆫ 일이오구려[화수(대한민보, 1909. 6. 13)]

나. 여보 그만ᄒᆞ면 과셰를 ᄒᆞᄂᆞᆫ 거슬 그리ᄒᆞ얏쇼구려[백옥신년(만세보, 1907. 1. 1)]

그리고 ‘신소설’에서도 역시 ‘단형서사’와 마찬가지로 ‘-오/소+구려’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29) 신소설

가. 어-그것참별일이오구려(귀의성, 44쪽)

나. 여보령감, 령ᄀᆞᆷ을다시못뵈올쥴아랏더니, ᄯᅩ뵈옵소구려(귀의성, 60쪽)

다. 지금령감의몸은, 여긔안젓스나, 령감의마암은, 도동춘천집에가서, 게시깃소구려(귀의성, 95쪽)

라. 그덕 아기가 굿틔나 멀니 갓다구려(구마검, 10쪽)

마. 여보령감ᄯᆞᆯ님이, 속이썩틔엿소구려[홍도화(하), 59쪽]

이에 감탄종결어미 ‘-구려’가 종결어미 ‘-오/소’와 결합한 유형은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쓰였음이 확인된다.

8.7. '-구먼'

감탄종결어미 '-구먼'은 혼잣말로써 새삼스레 감탄하는 것을 뜻한다. '-구먼'은 준말로서 '-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5] 그리고 이외로 '-구먼'은 '-구면'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구면'은 '-구먼'의 잘못된 표기이다.[36]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찾아지는 '-구먼'의 유형은 '어간+구먼', '어간+았/었/였+구먼', '어간+겠+구먼'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다. 한편,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 '신소설'에서는 '-구먼'과 더불어 이와 다른 표기인 '-구면' 및 '-군'과 같은 표기도 아울러서 모두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는 어떠한 표기도 찾아지지 않는다.

8.7.1. '어간+구먼'

감탄종결어미 '-구먼'이 어간과 바로 결합한 경우 이의 유형은 '단형서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례를 볼 수 있다.

(30) 신소설

가. 글셰, 이노릇을, 엇지ᄒᆞ면 됴흔가, 그자식을, 진작약을먹여 죽여버리는 슈밧게업군[홍도화(하), 34쪽]

나. 참 셰상에 긔막힐 일도 만쿤(송뢰금, 84쪽)

다. 업친데 덥친다고 ᄯᅩ무슨일이 낫나보구면(빈상설, 62쪽)

---

35) 남기심・고영근(1993, p.347)과 표준 국어대사전(1999)에서는 '-구나'가 줄어진 것이 '-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말 큰사전(1997)과 금성판 국어대사전(1993)에서는 '-구나' 또는 '-구먼'의 준말이 '-군'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6) 표준 국어대사전(1999) 참조.

라. 필경 쏘울고잇나보구먼(화의혈, 68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구먼' 어간과 결합한 어미 구성은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8.7.2. '어간+았/었/였+구먼'

감탄종결어미 '-구먼'은 과거선어말어미 '-았/었/였-'과 결합하여 '어간+았/었/였+구먼'의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역시 '단형서사'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역시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용례를 보이고 있다.

(31) 신소설

가. 에그, 씁쓱ᄒᆞ여라큰수낫문(귀의성, 4쪽)

나. 아모놈이라도 욕심을 닐만치되얏구면(모란병, 47쪽)

다. 츔말 니가 그자식한아로ᄒᆞ야 실셩ᄒᆞᆫ 사람이 되얏군[치악산(하), 84쪽]

라. 필경 못된구덩이에가빠져 신셰ᄭᆞ지 맛치게되얏군(화세계, 136~137쪽)

이에 감탄종결어미 '-구먼'이 과거선어말어미와 결합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소설'에서만 이의 유형이 쓰였을 뿐이고 '단형서사'에서는 여전히 쓰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8.7.3. ‘어간+겠+구먼’

감탄종결어미 ‘-구먼’은 ‘-았/었/였-’ 외에 ‘-겠-’과도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의 경우에서도 ‘단형서사’에서는 용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이 용례를 보이고 있다.

(32) 신소설

가. 긔차를탓스면 불과 몃시동안이 되겟구면(모란병, 48쪽)

나. 그짜진년 ᄒᆞ나 집어 내오기논 여반장이겟구면(모란병, 90쪽)

다. 엇젼일인지 알지논 못ᄒᆞ겟구면(금강문, 118쪽)

라. 모도다 낫이닉고 졍이드러 아모흉허물이 업겟구면[구의산(하), 79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구먼’의 경우 ‘어간+구먼’, ‘어간+았/었/였+구먼’, ‘어간+겠+구먼’ 등의 유형에 있어서 이는 오직 ‘신소설’에서만 쓰였고 ‘단형서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8.8. ‘-로세’

‘-로세’는 ‘이-’나 ‘아니-’와 결합하여 주로 감탄의 의미를 실현한다(권재일, 2005. p.57). 이 감탄종결어미는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대해 감탄식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감탄종결어미 ‘-로세’는 ‘단형서사’에서도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33) 단형서사

가. 또 돈도 쎄앗기지 아얏스니 만힝이로세[밋은 나무에 곰이 퓌다(경향신문,

1907. 11. 1)]

나. 셔울을 흔 번 보고 긔화 맛을 깁히 아니 고마온 일이로셰[어느 시골 친구 ᄒᆞ나이(독립신문, 1899. 11. 2)]

다. 명분이 끈어지고 긔강이 업셔져셔 나라이 이 지경이 되엿스니 한탄이로셰 [.엇던 지상 흔 분이(제국신문, 1898. 11. 29)]

라. 한갓 익달를 쁜니로셰[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25)]

마. 갸셕훌 쁜이로셰[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2. 12)]

바. 젼又흔 됴흔 시절 다시 볼 수 업스니 가히 통곡훌 일이로셰[로쇼문답(대한매일신보, 1908. 2. 14)]

마찬가지로 감탄종결어미 '-로세'는 '신소설'에서도 용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형서사'에서와는 달리 이의 용례는 모두 하여 네 개에서 그치고 있다.

(34) 신소설

가. 실업슨사룸이로셰(구마검, 54쪽)

나. ᄉᆞ촌을구슈갓치녁이니실로한심흔일이로셰(구마검, 65쪽)

다. 자닉도 사회를 긔량코져ᄒᆞ는 사룸이니말이로셰(설중매, 17~18쪽)

라. 자네도 짝흔사룸이로셰[홍도화(상), 55쪽]

따라서 감탄종결어미 '-로세'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단형서사'와 '신소설' 모두에서 두루 쓰였으나 '신소설'이 '단형서사'에 비해 쓰임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9. '-아'

감탄문에서 보이는 '-아'는 감탄종결어미 '-아라'에서 '-라'가 탈락되어 '-아'가 그

대로 또 하나의 감탄종결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어미이다.[37]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하지만 아래의 '단형서사'에서 보이는 '-아'는 물음이나 명령 또는 청유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술로 보기도 어렵다. 이의 구문에는 감탄문에 자주 쓰이는 부사어 '참'이 놓였을 뿐만 아니라 구문의 내용도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백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구문에서 '-아'는 일종의 감탄종결어미로 쓰였다고 할 것이다.

(35) 단형서사

춤 이상ᄒᆞᆫ 일 셰상에 만아[소경과 안즘방이 문답(대한매일신보, 1905. 11. 19)]

'-아'가 감탄종결어미로 쓰인 예는 '단형서사'의 경우 하나만 찾아지나 '신소설'에서는 보다 많이 찾아진다. '신소설'에서는 '-아'가 동사 '보다'의 어간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용례는 '-아'의 감탄의미를 보이기 위해 예문의 앞뒤 구문을 함께 보인다.

(36) 신소설

가. 평싱힘을 다ᄒᆞ야 그송장을 강변으로 ᄭᅳᆯ어다 누이고 이리뒤적 뎌리뒤적ᄒᆞ며 이런 변보아 남ᄌᆞ도 안이오 ᄭᅩᆺᄀᆞᆺ흔 편발쳐녀의 송장일셰(화세계, 36쪽)

나. 아모도업시 ᄒᆞᆫᄌᆞ붓잡고 ᄋᆡ를쓰며 에그 이를 엇지ᄒᆞ나 리승지뎍 구종들이 이리로 ᄎᆞᄌᆞ 왓스면 좀 업어다달나기나ᄒᆞ지 이것보아 수족이 점점 치곳아 올나오네 ᄒᆞ며 안졋다 셧다 팔도 줌을은다(화세계, 52쪽)

다. 그속에 잇ᄂᆞᆫ물건을 모조리ᄂᆡ여 훌훌 털면셔 걱정을 무수히ᄒᆞᆫ다 이런변보아 ᄂᆡ가 엇

37) 감탄종결어미 '-아'에 대해 윤석민(2000, p.138)은 '-어라'가 가지는 서술어나 부사와의 통합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요'와의 통합이 '-어라'와 달리 자유롭다는 점을 들어 이를 '-어라'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감탄법 문장종결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가니여 노앗슬가(화세계, 105쪽)

라. 산월이는 입을딱버리고 혀를홰홰니둘으며 에그나 뎌런말보아 나으리가 가지고 계신 줄을 아셧든것이지 우리가 훔쳐온줄도 짐작ᄒᆞ시겟네(원앙도, 27쪽)

마. 고놈이 혼인흘써나를 쇽이기를ᄒᆞᆫ강이변ᄒᆞ야 남산이된딕도 닉외화합ᄒᆞ게지낸다고 요런 죽일 놈보아 고말ᄒᆞ던놈이 혼인ᄒᆞᆫ지석달이못되야셔 남의집게집아히신세를 져지경을 만드러(안의성, 111쪽)

바. 에그 뎌런말보아 나먹으라고 보닌줄아나 자네위힉 보닛지(산천초목, 24쪽)

사. 에그 이소리보아 뒤를아죠 앙칼시렵게두고 말을ᄒᆞ는걸(산천초목, 25쪽)

아. 예-죠런 도담스러온년보아 걱정을 그만치ᄒᆞ시니 어린것이 겁이나드릭도 발오엿줄 터인딕(산천초목, 39쪽)

자. 기싱조합소의 관계를 싱각ᄒᆞᆫ즉 속이타셔 견딕다못ᄒᆞ야 속으로 ᄒᆞ는말이 아- 사ᄅᆞᆷ이 살다가 별일도보아 내가 무슨영문인지 모르겟고나 뎌일을 엇더케ᄒᆞ나(명월정, 104~105쪽)

차. 어—이런변보아 언으겨롤에 날이발셔 밝앗소구려(구의산, 34쪽)

위에서 (36가, 나, 다, 자)는 혼잣말이므로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묻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고 누구와 같이 하자는 말도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곧 독백조의 감탄이 된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의 '-아'는 감탄의 의미로 쓰인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36가, 다)와 (36자)는 각각 '이런'과 '아'와 같은 감탄사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의 구문은 모두 감탄법의 구문이 된다. 때문에 이의 구문에서 보이는 '-아'는 감탄종결어미이다.

(36라)는 입을 딱 벌리고 혀를 홰홰 내두르며 하는 말이므로 의문이나 명령 또는 청유의 의미로 쓰인 말이 되지 않는다. 묻거나 명령하거나 청유를 함에 있어서 혀를 내두르며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술로 보기도 어렵다. 만일 혀를 내두르며 서술을 한다면 이는 일부러 과장되게 서술하는 것이 되는데 (36라)에서는

일부러 과장을 해보이며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구문에서는 화자가 '에그나'와 같은 감탄사를 발하면서 진정으로 놀라워하며 하는 말이므로 이 역시 감탄의 의미로 쓰였다 할 것이다. (36마)도 감탄사 '요런'이 쓰인 구문이고, (36바, 사)는 감탄사 '에그'가 쓰인 구문이므로 이 구문에서의 '-아'는 감탄구문의 종결어미가 된다. (36아) 역시 감탄사 '예'가 쓰였고 (36차)도 감탄사 '어'가 쓰인 구문이므로 이의 구문들은 모두 감탄구문이 된다. 따라서 이들 구문에서의 '-아'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종결어미가 된다.

이와 같이 '신소설'에서는 '-아'가 감탄종결어미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아'는 기존에 알려진 서술・물음・명령・청유의 의미 외에 감탄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8.10.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감탄법 종결어미와 이의 결합 형태들에 대하여 요약 및 정리하여 이를 도표로써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언어간			
종결어미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도다'	'어간+도다'	○	○
	'어간+았/었/였+도다'	○	○
	'어간+겠+도다'	○	○
	'어간+는+도다'	○	○

‘-로다’	‘-로고/로구’	○	○
	‘-로구나/로군’	○	○
‘-구나’	‘어간+구나’	○	○
	‘어간+았/었/였+구나’	○	○
	‘어간+겠+구나’	×	○
	‘어간+았/었/였+겠+구나’	×	○
	‘어간+는+구나’	○	○
	‘계사+구나’	○	○
‘-구려’	‘어간+구려’	×	○
	‘어간+았/었였+구려’	×	○
	‘어간+시/으시+구려’	×	○
	‘종결어미+구려’	○	○
‘-구먼’	‘어간+구먼’	×	○
	‘어간+았/었/였+구먼’	×	○
	‘어간+겠+구먼’	○	○
‘-로세’	‘어간+로세’	○	○
‘-아’	‘어간+아’	○	○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 중에서 '계사+구나'와 '어간+아'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형태에 있어서 모두 둘 이상의 용례가 찾아졌다. 여기서 '계사+구나'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한 번만 용례를 보였고, '어간+아'는 '단형서사'에서만 한 번 용례가 있었다.

9. 결론

의향법은 언어내용 전달과정에서 청자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이다(권재일, 2005, p.15). 그러므로 의향법을 분석한다는 것은 곧 대화체를 분석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의향법이란 청자와 화자가 존재하는 말에 대한 문법범주이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말은 곧 대화체이다. 따라서 의향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체로 된 자료가 요구된다.

현대국어의 경우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헌상의 자료 외에도 녹음기나 영상 촬영기 등의 기기에 의해서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인터넷 소설을 통해서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세국어 시기에서는 생동감 있는 대화체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문헌상으로는 문어체가 주로 쓰였으며 녹음기나 영상자료에 의한 육성 녹음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국어가 아닌 이상 완전한 의향법 분석은 힘들다.

그러나 그래도 대화체를 진솔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단형서사'와 '신소설'이다. 비록 완전한 대화체를 실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문어체에서 탈피하고 대화체로 나아간 자료이므로 이는 의향법 연구에 있어 더 없이 소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의향법에 있어서 이를 이끄는 것은 종결어미이다. 따라서 의향법을 분석한다 함은 곧 종결어미를 분석하는 것이 되며, 역으로 종결어미를 분석한다는 것은 즉 의향법을 분석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의향법을 분석하는 본 연구도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세국어의 의향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사용된 종결어미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종결어미는 홀로 쓰이지 않는다. 종결어미는 반드시 구문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혹은 또 다른 종결어미와 결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종결어미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성분과 결합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형태가 곧 의향법이라는 문법범주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향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종결어미가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이루는 형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결어미의 왕성한 쓰임이나 쇠퇴는 종결어미 그 자체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반드시 어떤 다른 성분과 결합한 상황 하에서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습니다'의 경우 이는 본래 서술종결어미 '-다'가 청자높임선어말어미 '-으이-'와 결합하여 '-으이다'의 형태로 쓰이던 말이었다. 그런데 '-으이-'가 16세기부터 불안정해지면서 17세기에 와서는 자주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이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이에 객체높임선어말어미인 '-ᄉᆞᆸ-'으로써 이의 기능을 대체시켰다. 결국 '-ᄉᆞᆸ-ᄂᆞ-이-다 > -ᄉᆞᆸᄂᆞ이다 > -ᄉᆞᆸᄂᆡ다 > -습니다'의 변천을 겪으면서 '-습니다'라는 합쇼체 종결어미가 나타나게 되었다.[38] 그리고 이는 오늘날 널리 쓰이는 종결어미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으이다'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결어미 '-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또는 다른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의향법의 연구에 있어서 종결어미가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이루는 형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종결어미가 다른 성분과 결합한 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이미 소멸된 종결어미더라도 종결어미에 따라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이들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서 고루 쓰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소멸되었거나 쇠퇴한 종결어미에 있어서 이들이 비록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아직 쓰이고 있더라도 이의 결합 형태는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극히 제한된 결합 형태만이 적은 빈도로써 그 모습을 간간이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도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는 종결어미의 경우는 다양한 결합 형태를 보였으며 이의 출현빈도 또한 높았다. 종결어미가 여러 형태로서 결합을 이룬다는 것은 곧 그만큼 구문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8) 권재일(1998, p.42) 참조.

이런 형태로 쓰든 저런 형태로 쓰든 어느 형태에서든 그 종결어미는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형태에서든 종결어미를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그 종결어미는 구문에서 나타날 수 없으며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멸된 종결어미라 하더라도 모든 결합 형태가 일시에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합 형태에 따라 여전히 왕성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결합 형태는 종적을 일찌감치 감춰버린 것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종결어미가 어떠한 결합 형태에서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음에 보이는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들은 '단형서사'나 '신소설'에서 자취를 감춘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아래의 도표에 있어서 '○'의 표시는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가 찾아지는 경우이고, '×'는 그러한 결합 형태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결합 형태	단형서사	신소설
'동사어간+으리+다'	×	○
'동사어간+ㄹ라'	×	○
'동사어간+시/으시+었/였+느니라'	○	×
'동사어간+ㄴ/는/은걸'	×	○
'동사어간+아야/어야+하+지	×	○
'동사어간+ㅂ/습디다'	×	○
'동사어간+았/었/였+습디다'	×	○
'동사어간+겠+습디다'	×	○
'동사어간+오+ㅂ디다'	×	○
'동사어간+ㅂ니다'	×	○
'-다+ㅂ니다'	×	○

‘-라+ㅂ니다’	×	○
‘동사어간+습니다’	×	○
‘동사어간+았/었/였+습니다’	×	○
‘동사어간+시/으시+겠+습니다’	×	○
‘동사어간+시/으시+나이다’	×	○
‘동사어간+시/으시+오리다’	×	○
‘동사어간+더+이다’	×	○
‘동사어간+옵+더+이다’	×	○
‘동사어간+았/었/였+사오+이다’	×	○
‘동사어간+리+로소이다’	×	○
‘형용사어간+겠+다’	×	○
‘형용사어간+으리+다’	×	○
‘형용사어간+ㄹ걸’	○	×
‘형용사어간+았/었/였+네’	×	○
‘형용사어간+느니’	×	○
‘의문종결어미+보+이’	×	○
‘형용사어간+았/었/였+더+이’	×	○
‘형용사어간+ㅂ/습디다’	×	○
‘형용사어간+겠+습디다’	×	○
‘형용사어간+오+ㅂ디다’	×	○
‘형용사어간+시/으시+ㅂ니다’	×	○
‘-다+ㅂ니다’	×	○
‘-라+ㅂ니다’	×	○
‘형용사어간+습니다’	×	○

‘형용사어간+았/었/였+습니다’	×	○
‘형용사어간+시/으시+었/였+습니다’	×	○
‘형용사어간+겠+습니다’	×	○
‘형용사어간+겠+삽+나이다’	○	×
‘형용사어간+겠+사오+이다’	×	○
‘계사+다“	×	○
‘계사+ㄴ걸’	×	○
‘계사+오+ㄹ세’	○	×
‘계사+ㅂ디다’	×	○
‘계사+겠+습디다’	×	○
‘계사+시/으시+ㅂ니다’	×	○
‘계사+시+올시다’	×	○
‘-라+ㄴ다’	×	○
‘-라+오’	×	○
‘-다+시+어+요’	×	○
‘-라+시+어+요’	×	○
‘-게+요’	×	○
‘-데+요’	×	○
‘동사어간+ㅂ니까’	×	○
‘동사어간+았/었/였+나이까’	○	×
‘동사어간+였+삽+나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었/였+나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옵+나이까’	×	○
‘동사어간+았/었/였+습+니이까’	×	○
‘동사어간+겠+습+니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겠+습+니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ㅂ+니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ㅂ+더+니이까’	×	○
‘동사어간+삽/옵+더+니이까’	○	×
‘동사어간+시/으시+오+리이까’	○	×
‘동사어간+사오+리이까’	×	○
‘형용사어간+시/으시+냐’	×	○
‘종결어미+더+냐’	×	○
‘형용사어간+시/으시+뇨’	×	○
‘형용사어간+더+뇨’	×	○
‘형용사어간+겠+느뇨’	×	○
‘형용사어간+ㄹ가’	×	○
‘형용사어간+았/었/였+더+ㄴ고’	×	○
‘형용사어간+니’	×	○
‘형용사어간+겠+니’	×	○
‘종결어미+오’	×	○
‘형용사어간+ㅂ니까’	×	○
‘형용사어간+나이까’	×	○
‘형용사어간+삽/옵+나이까’	×	○

'형용사어간+겠+삽+나이까'	○	×
'형용사어간+으+ㅂ니이까'	×	○
'형용사어간+시/으시+었/였+습+니이까'	×	○
'형용사어간+겠+습+니이까'	×	○
'형용사어간+종결어미+시/으시+니이까'	○	×
'형용사어간+오+리이까'	×	○
'형용사어간+사오+리이까'	×	○
'동사어간+았/었/였+더+냐'	×	○
'동사어간+시/으시+느냐'	×	○
'동사어간+았/었/였+느뇨'	×	○
'동사어간+시/으시+뇨'	○	×
'동사어간+더+뇨'	×	○
'동사어간+ㄹ라고'	×	○
'동사어간+시/으시+ㄹ라고'	×	○
'동사어간+어'	×	○
'동사어간+았/었/였+어'	×	○
'동사어간+지'	×	○
'동사어간+았/었/였+지	×	○
'동사어간+았/었/였+는가'	×	○
'-ㄴ/는다+더+ㄴ가'	×	○
'동사어간+더+ㄴ고'	×	○
'동사어간+았/었/였+더+ㄴ고'	×	○
'동사어간+게'	×	○
'동사어간+시/으시+나'	×	○
'동사어간+았/었+니'	×	○

'동사어간+겠+니'	×	○
'-다+니'	×	○
'계사+야'	×	○
'계사+겠+니'	×	○
'계사+ㄹ라고'	×	○
'계사+니이까'	×	○
'용언어간+아'	×	○
'용언어간+으렷다'	×	○
'용언어간+려무나'	×	○
'용언어간+구려'	×	○
'용언어간+시/으시+구려'	×	○
'용언어간+읍/옵시+오'	×	○
'용언어간+ㅂ시다'	×	○
'용언어간+시/으시+ㅂ시다'	×	○
'용언어간+마'	×	○
'용언어간+으+마'	×	○
'용언어간+어+마'	○	×
'용언어간+겠+구나'	×	○
'용언어간+았/었/였+겠+구나'	×	○
'용언어간+구려'	×	○
'용언어간+았/었였+구려'	×	○
'용언어간+시/으시+구려'	×	○
'용언어간+구먼'	×	○
'용언어간+았/었/였+구먼'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어느 종결어미가 흥하거나 쇠할 때 이의 종결어미와 다른 성분과의 결합 형태마저도 모두 함께 동시에 흥하거나 쇠하지 않는다

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나이까'의 경우 이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종결어미이지만 '동사어간+였+삽+나이까'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반면, '동사어간+시/으시+겠+삽+나이까'와 같은 결합 형태는 '단형서사'에서 쓰이지 않고 '신소설'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신소설'에서는 '동사어간+였+삽+나이까'와 같은 결합 형태는 쓰이지 않는다.

이처럼 종결어미가 다른 성분과 더불어 이루는 결합 형태에 따라 이의 생산성과 소멸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명확히 밝혔다. 이것은 곧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에 따라 종결어미의 생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결어미의 생성과 발달 그리고 쇠퇴와 소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는 종결어미 단위가 아닌 이의 결합 형태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있어서 사용된 종결어미를 확인하고 이들 종결어미가 이루는 결합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합 형태에 있어서 어떠한 결합 형태가 생산적이며 어떠한 결합 형태가 소멸 단계에 있는지를 밝혔다.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 사용된 종결어미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종결어미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합 형태	서술법 종결어미
동사어간+종결어미	'-다', '-ㄹ다', '-노라', '-리/으리라', '-느니라', '-걸', '-아/어/야', '-지', '-네', '-느니', '-이', '-오/소', '-ㅂ/습디다', '-ㅂ니다', '-습니다', '-나이다', '-오이다', '-오리다', '-이다', '-로소이다'

형용사어간+종결어미	'-다', '-리/으리라', '-느니라', '-걸', '-지', '-네', '-느니', '-이', '-오/소', '-ㅂ/습디다', '-ㅂ니다', '-습니다', '-나이다', '-니이다', '-오이다', '-사오이다', '-이다'
계사+종결어미	'-다/라', '-로다', '-ㄹ다', '-ㄴ걸', '-아/어/야', '-지', '-ㄹ세', '-이', '-오', '-ㅂ/습디다', '-ㅂ니다', '-오이다', '-사오이다', '-올시다', '-로소이다'
인용어미	'-다+ㄴ다', '-라+ㄴ다' '-라+오"-다+시+어+요' '-라+시+어+요'
'-요' 통합	'-게+요', '-데+요', '-아/어/여+요', '-지+요'

결합 형태	의문법 종결어미
동사어간+종결어미	'-냐/느냐', '-뇨/느뇨', '-ㄹ/을가', '-ㄹ고', '-ㄹ라고', '-ㄹ걸', '-어', '-지', '-는가/고', '-게', '-나', '-니', '-오/소', '-ㅂ니까', '-나이까', '-니이까', '-리이까'
형용사어간+종결어미	'-냐/느냐', '-뇨/느뇨', '-ㄹ가', '-지', '-나', '-ㄴ가/고', '-니', '-오/소', '-ㅂ니까', '-나이까', '-니이까', '-리이까'
계사+종결어미	'-냐', '-뇨', '-야', '-니', '-ㄹ라고', '-ㄴ가', '-ㄴ고', '-오', '-니이까'
인용어미	
'-요' 통합	

명령법 종결어미
‘-라’, ‘-아’, ‘-으렷다’, ‘-려무나’, ‘-게’, ‘-구려’, ‘-오/소’, ‘-소서’

청유법 종결어미
‘-자’, ‘-세’, ‘-ㅂ시다’, ‘-사이다’

약속법 종결어미
‘-마’

감탄법 종결어미
‘-도다’, ‘-로다’, ‘-로고/로구’, ‘-로구나/로군’, ‘-구나’, ‘-구려’, ‘-구먼’, ‘-로세’, ‘-아’

위의 종결어미를 보면 예를 들어 제2장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서술법 종결어미인 ‘-노라’, ‘-습니다/ㅂ니다’, ‘-을걸’ 등이 그대로 ‘단형서사’ 및 ‘신소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인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의 이들 종결어미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이 쓰인 최근세국어에서부터 이미 생산적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역시 제2장에서 제시된 중세국어에서의 서술법 종결어미인 ‘-이’와 의문법 종결어미인 ‘-니’, ‘-니잇가’, ‘-리잇가’, ‘-뇨’도 ‘단형서사’와 ‘신소설’에

서 같이 찾아진다. 이들 종결어미 중 '-이', '-니잇가', '-리잇가', '-뇨'는 현대국어의 대화체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찾아지는 것은 이들 종결어미가 그 자체로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성한 결합 형태에 의해 이처럼 살아남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단형서사'와 '신소설'에서 쓰인 종결어미를 확인하고 이의 결합 형태를 분석하여 생산적인 결합 형태와 소멸 단계인 결합 형태를 명확히 밝혀 이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강규선(1988).「20세기 초기 국어의 경어법 연구 -치악산 상·하를 중심으로-」,